

제3장 인 물

1. 고려 · 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김의행 김인사 김일 김적 김전 김제창 김중하 김지흠 김충수 김태국 김태정 김택 김한 김해수 김해은 김홍규 김홍원 김훈 무염대사 민치록 박기조 박동선 박승건 박정원 박홍양 백문절 백사준 백사천 백사형 백영수 백유공 백이정 백인감 백임지 백중학 백홍수 서거정 서기 성하국 신겸제 신곡 신정 신학 신형식 심재숙 안대진 안사탁 안윤손 여엄대사 엄제신 오인영 원수신 원유정 유발 유순익 유정 윤석보 윤순 윤인필 윤자운 윤직 이경백 이경석 이경재 이경전 이경탁 이경희 이고 이공준 이관식 이교면 이교원 이구 이규덕 이기 이대충 이덕온 이도중 이동근 이두현 이두훈 이래 이만 이몽규 이몽열 이무 이민제 이방일 이사주 이산광 이산두 이산보 이산해 이석현 이성룡 이세욱 이승익 이승춘 이승호 이시방 이십 이심현 이언유 이영건 이예환 이완 이완 이완진 이용 이우명 이원백 이원춘 이원태 이유민 이응식 이의풍 이익현 이인기 이인묵 이인빈 이인정 이자 이정덕 이정민 이정암 이정영 이정익 이제암 이제현 이조묵 이종생 이준경 이줄 이종로 이지번 이지인 이지함 이지형 이찬 이창섭 이창수 이치 이태중 이하춘 이학영 이효근 이후 이희승 이희완 인발 임수 임정식 임종선 임태두 임태희 임향 임흥순 정혁신 정홍순 조계원 조병덕 조병흥 조영진 조오 조유춘 조준성 조중구 조창원 조총희 조현명 채극철 채덕서 채명윤 채성윤 채시상 채신문 채여인 채완묵 채유후 채응만 채정묵 채준현 채평윤 채흥리 천귀득 천만리 최석근 최세경 최응 최종호 최진명 최치원 최택 최호 추수경 홍규 홍병위 황석명 황유손 황즙 황철증 황헌

○ 강순(康純 1390(공양왕 2)~1468(예종 즉위년))

조선 초기의 명장. 본관은 신천(信川). 자는 태초(太初). 시호는 장민(莊愍). 보령현 지내리(保寧縣池內里, 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통훈대부 관무안현사(判撫安縣事)를 지낸 진(鎭)이며 증조부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윤성(允成)이다. 갑사(甲士)로 무관직에 올라 1443년(세종 25)에 제주 지대정현사(知大靜縣事)가 되었다. 1444년(세종 26)에는 제주 대정지면 요고천호(瞭高千戶)로 재임 중 바다에 침입하는 왜선을 격파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첨지중추원사로 있다가, 북방 야인을 다스리기 위해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로 평안도 박천에 나가 북방의 방어에 전념하였다. 1454년(단종2) 행회령도호부사(行會寧都護府使)를 거쳐 판의주목사로 전임되었다가, 1458년(세조 4) 다시 첨지중추원사로 복귀하여 이듬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60년 판길주목사로 부임했다가 장수의 도량이 있다 하여 새로 설치된 영북진(寧北鎭)의 도호부사로 전임되어 진(鎭)의 성을 쌓는 일에 진력하였다. 그 뒤 신숙주(申叔舟)가 모련위(毛隣衛)의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자헌대부에 가자(加資), 종성절제사가 되었다.

이듬해 함길도 도절제사가 된 뒤, 1465년 중추원사로 전임될 때까지 5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북방 방어에 힘쓰면서 세조의 신임을 받았다. 세조는 북방 방어에 노력하는 그의 노고를 덜어주려고 처와 함께 부임하도록 특명하였다. 또한 함길도 도절제사로 재직 당시에는 임기가 찼는데도, 민고 교대시킬 더 좋은 인물이 없음을 들어 유임시키기도 하였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진북장군(鎭北將軍)으로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과 함께 홍원(洪原)·북청(北靑)·만령(蔓嶺) 등지에서 반란군을 격파하여 난을 평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1등에 녹훈되고 우의정에 승진되었다. 이어 야인들의 소굴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 서정장군(西征將軍)으로 남이·어유소 등과 압록강을 건너 건주위의 동북쪽 파저강(婆猪江) 울미부(兀彌部)의 여러 곳을 소탕하고 추장 이만주(李滿住)를 죽이는 등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명나라 헌종(憲宗)으로부터 은 20냥과 비단을 하사받았다.

1468년 정월, 병상에 있는 모친을 뵈고 선영(先塋)에 분황(焚黃)하고자 보령현으로 떠나려 하자 세조는 휴가를 주고 역말[驛馬]을 타고 가도록 명하였다.

또 의원(醫員)과 아들에게 역마를 타고 따라가게 하고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여, 우의정의 어머니에게 잔치를 베풀고 선영에 분황할

적에는 치전(致奠)을 하며,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도록 명하였다. 7월에 곡천부원군(谷川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으로 오위도총관을 겸직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일어난 남이의 옥사에 연루되어 사형당했다.

1818년(순조 18)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의 상주(上奏)로 억울한 누명이 풀리고 관직이 복구되었다. 묘소는 보령시 미산면 도흥리 산 26번지 갑좌(甲坐)에 정경부인 전주 이씨(李氏)와 합장하였다. (강웅길)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1권461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국역조선왕조실록(CD-ROM) 서울시스템(주) 2001. 연려실기술. 청장관전서. 대동기문. 방술나무 제5호(신천강씨 문중지. 2004)

○ 강열황(姜悅璜)

본관은 진주이고 호는 호정(湖亭)이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김석주(金錫胄)의 문하생으로 사마(司馬)에 오르고 벼슬길로서는 홍문관부교리, 예조정랑, 예조참의, 대사간에 이르렀다. 숙종이 중전을 폐출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삭직되어 그의 동생 기황(璣璜)·위황(渭璜)과 함께 남전(藍田)에 내려와 은거하여 산수를 즐기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 구계우(具繼禹 1558~1620)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호는 수암(睡庵)이다. 일찍이 명곡 이산보 문하에 나가 수학했으며, 어려서부터 대인(大人)이 될 기질이 있어 토정 이지함도 그를 가리켜 대인의 기상이라 하였고, 명곡 이산보도 나의 사표라 칭찬하였다 한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학문의 길에 매진하면서 후학을 교도하는 데 여생을 보낼 뿐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산보와 내외중간으로 화암서원 창설을 주창한 학자이며, 1971년 화암서원에 추가로 배향되었다.

○ 구상은(具相殷 1786~1853)

조선말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능성이다. 보령 청라에서 출생하여 순조 25년(1825) 생원시에 합격하고, 1843년(헌종 9) 식년시에 병과로 합격하여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이조전랑 등 여러 벼슬을 거치고 결성현감을 지냈으며, 통훈대부에 올랐다. 효자정문을 받은 구만원(具萬元)의 증손이며 화암서원에 배향된 구계우(具繼禹)의 8대손이다.

○ 김감(金堪)

본관은 무주(戊州)이고, 조선 세종 때의 공신이다. 세종조에 무과에 올라 훈련원봉사를 거쳐 주부(主簿)·판관(判官)을 역임하였으며, 세종 17년에는 어모장군겸 병조참의에 오르고 선략장군이 되었다. 그의 묘가 청소면 재정리 선산 아래에 있다.

○ 김경상(金景祥 1548~1592)

본관은 광산이며 김극성의 손자이다. 자는 선응(善應)이며 선조 16년(1583) 별시 병과에 합격하여 군자판관 벼슬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순국하였다. 묘는 청소면 성연리 새재에 있으며, 새재 광산김씨의 파조이다.

○ 김계백(金啓白 1689~1750)

조선 영조조의 문신이다. 숙종15년(1689)에 출생하였으며, 호는 송산(松山)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부친은 김익경, 조부는 김시광이다. 영조 5년(1729)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 관직에 올라서는 사헌부지평을 거쳐 장령에 이르렀으며, 바른 정론과 사적(事蹟)을 많이 남겼다.

영조조의 노소론 당쟁을 비판하다가 용안현감으로 밀려나자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보령으로 낙향하여 일생 동안 학문을 벗삼으며 후진 양성에 보람을 느끼고 살았다.

○ 김계환(金啓煥 1729~1789)

김극성의 8대손으로 본관은 광산이고 자는 사명(士明) 호는 오은(烏隱)이다. 1783년(정조7) 증광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평생 글 읽기에만 전념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김계환은 6세에 당시(唐詩)를 배웠고 자라서는 경사(經史)에 능통하였으며, 평생을 학문과 부모봉양에만 전념했던 효자였다.

김극성 사후 유고로 떠돌던 김극성의 『우정집』 원고를 수습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신명(神明)의 덕으로 설중(雪中)에서 게(蟹)를 구하고, 삼복더위에 평이 마당으로 떨어지는 이변을 낳아 그 고기를 얻어 지극정성으로 병중의 모친에게 공양한 기적이 있었다.

이러한 김계환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1830년 정려를 명 받았으며, 동몽교관 조봉대부가 추증되었다. 김계환의 행적은 성당 정혁신(性堂 鄭赫臣)의 『성당집』에 수록돼 있으며, 참관 신응선(申應善)이 추술한 효행기문이 전한다.

김계환의 정려는 6대 손부 백천조씨의 정려와 함께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새재에 있다.

○ 김규(金葵)

본관은 무주이고 조선 세종 때의 문신이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경연관(經筵官), 시독관(試讀官), 시강관(侍講官)을 거쳐 승정원부승지를 거쳐 홍문관대제학으로 많은 학사를 양성하여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다.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그의 묘가 청소면 재정리에 있다.

○ 김광오(金光五)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두산(斗山)이다. 영조 45년 문과에 급제하고 정조 5년에는 수찬관(修撰官)에 올랐다. 그의 묘소는 청라면 우수치(牛首峙)에 있다.

○ 김광원(金光遠)

본관은 무주이고, 명종 11년 무과에 급제하고 선천·갑산의 군수를 거쳐 어모장군 상호군(御侮將軍上護軍)에 이르렀다. 청소면 능동에 비가 있다.

○ 김극성(金克成 1474(성종 5)~1540(중종 3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성지(成之), 호는 청라(靑蘿)·우정(憂亭). 김성우의 현손으로, 할아버지는 중로(仲老)이고, 아버지는 진사 맹권(孟權)이다.

1496년(연산군2) 생원시에 장원하고, 1498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후에 관직에 나갔다. 1500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북평사(北評事)가 되었고 이어 헌납에 발탁되었으나 연산군에게 충심으로 간하다가 죄를 입을 뻔했고, 이어 병조정랑·사인(舍人) 등을 역임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어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희망하여 서천군수로 부임하였다. 이어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병조참의를 역임하고 가선대부로 승진,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의주목사로 갔다가 1518년(중종 13) 삼공(三公)에 의해 문무 겸비의 인물로 천거되어 예조참판으로 전임되었다. 다시 경상우병사·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이듬 해 공조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에 임명되어 북경을 다녀왔다.

대사헌을 거쳐 1523년 예조판서·우참찬·이조판서를 지내다가 잠시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시 찬성·병조판서 겸 지경연 세자이사로 있다가,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미움을 받아 그 일파의 모함으로 1531년(중종26)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흥덕(興德)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김안로가 죽자 귀양에서 풀려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저서로 《우정집》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에 묘소와 신도비 그리고 사우가 있다.

○ 김극신(金克愼 1469~1521)

조선 연산군조의 학자이다. 본관은 광산이고 김성우의 5대손이다. 연산군 1년에 생원에 올랐다. 연산군 3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연산군의 실정으로 삭과를 당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호는 유송(維松)으로서, 선군(先君) 김맹권의 유훈에 따라 학문에 전념하여 도학으로 일가견을 이루어 그 소문이 자자하였다.

○ 김근행(金謹行 1582~1650)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선조 38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회인(懷仁) 연기(燕崎)의 현령으로 벼슬길에 올라 선치(善治)한 문신이다. 여기에 그의 송덕비가 있다.

○ 김낙항(金洛恒 1782~1847)

조선말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광산이고, 3대진사의 명문으로, 순조 5년(1805) 사마시에 급제하고 진사에 올랐다. 부친 김양흠도 정조 10년(1786) 진사가 되었다.

○ 김남호(金南浩 1360~1424)

김성우의 장남으로 공민왕 9년(1360) 송도(松都)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성우가 왕명을 받들고 전라도 도만호로 보령에 내려올 당시 함께 호군으로서 활약했다. 부친이 왜구 토벌 이후 불사이군의 충절로 자진순국하자 고향인 송도로의 귀환을 포기한 채 왜구와의 전첩지인 보령 청라에 은둔하며 덕을 베풀었다. 이와 같은 김남호의 행적은 회재 이언적이 쓴 김극성의 행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김성우가 아들인 김남호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평생에 큰 덕을 베풀었다고 할 것이 없으나 왜적을 여러 번 무찌를 때에 저들이 아무리 못된 무리들이지만 인명을 많이 살상한 것은 도가(道家)에서 꺼리는 일이니 후대들은 오직 덕을 닦기를 힘써 덕을 보존하는 일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공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환난을 구제하는 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였다. 제주에 있는 고씨 부인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 처녀와 가족과 말을 싣고 바다를 건너 서울에 왔다가 공이 인자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자기의 딸과 가마와 말을 다 바치고 붙어서 목숨이나 살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공은 그녀가 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앉혀 살게 하고 보령에 사는 강씨의 아들과 그 딸을 결혼시켜 아들 순을 낳았는데 그가 마침내 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공이 사람에게 음덕을 베푼 것이 대개 이리하였다。」

묘는 보령시 죽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비는 증손인 김극성이 1501년에 지은 것으로 현존하는 보령시 최고(最古)의 묘비이다.

○ 김노기(金怒己)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호는 남은(藍隱)이다. 세종 때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사용(忠佐衛司勇)을 지냈다.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날 때 그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죽었다는 비보에 접하고는 통분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은 충신이다.

○ 김노영(金魯永)

조선말기의 무신이다. 1836년 보령 주산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화산(華山), 본관은 경주이다. 철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선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 훈련원판관을 지내고, 고종 때 부호군에 올랐으나 국운이 기우는 것을 보고 벼슬길을 떠나 낙향하고는 학문 속에서 일생을 마쳤다. 문집으로 『화산유고(華山遺稿)』가 있다.

○ 김맹권(金孟權)

조선 초기의 학자로 본관은 광산,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김성우의 증손이며, 감찰 김종로(金仲老)의 아들이다. 보령 출신으로 일찍이 진사가 되고, 문명(文名)이 높아 집현전 학사로 뽑혔다. 세종의 신임을 받아 왕세손 단종의 보필을 부탁받았으나 세조 1년(1455)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보령으로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는 데 공을 세우니 후에 ‘每月之忠節’이라 하였다.

그의 아들인 김극성의 『우정집』 부록 「소원록」에 의하면 공의 교화 후에 성암·토정·명곡·천휴당이 모두 이 고을에서 배출되어서 공을 모두 향선생(鄉先生)으로 칭했다 하여 김맹권이 조선초 보령에 끼친 학문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 김명현(金命賢 1605~1670)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호는 기오당(寄傲堂), 본관은 광산이다. 1630년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수학했으며 그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서는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으나 1640년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시국이 불안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짐을 보고 관직을 사직하고 청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문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 김문서(金文瑞 1489~1546)

조선 중종조의 무신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김극신의 아들로 그는 무인이었으나 어려서 화담 서경덕의 문하에서 글을 깨우쳤고, 이산보와도 두터운 정(情)의 사이였으며, 외에(外裔) 이홍로(李弘老)와도 친교가 두터웠다. 중종 11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낙안(樂安) 해남(海南)의 현령을 지내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가 부임했던 곳엔 선정 공덕비가 여러 곳에 서 있다.

○ 김백간(金伯幹 1516~11582)

본관은 광산으로 김문서의 아들이며, 음사(蔭仕)로 발탁되어 3음을 다스린 선정(善政)의 인물이었으며, 참판의 증직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는 벼슬길보다는 학문에 뜻이 깊었으며, 특히 율문(律文)에 뛰어났다. 문집 사송류집(詞訟類集)이 전한다고 한다.

○ 김상현(金商賢)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호는 기당(冀堂), 본관은 경주이다. 철종 14년(1864)에 출생하여 일찍 동몽교관에 뽑혀 후진을 양성하다가 문과에 급제하고는 궁내부주사로 조봉대부에 오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김생려(金生麗)

본관은 무주(茂州)로 조선초기의 문신이다. 태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치고, 함경도순무사겸북평사(咸鏡道巡撫使兼北評事)로 재직 당시는 백성들과 형제와 같이 지내는 등 선정을 베풀어 야인(野人)들도 친숙하게 따랐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방의 경계선을 긋는 김종서 장군의 6진 개척에 큰 도움을 주었다. 태종 때는 왕의 총애를 받아 의금부 판결사를 거쳐 홍문관직제학에 올랐으며, 조선시대 개국 초의 공신으로 꼽는다. 그의 묘가 청소면 재정리 청동(淸洞)에 있다.

○ 김선지(金善之)

본관은 무주(茂朱)이다. 조선 세조 때 사육신과 함께 수난을 당하여 그와 그의 동생 김한지(金漢之)와 장자 김유인(金有仁)은 같이 처형되고, 그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 및

자부는 자살하였다. 그러나 김선지의 둘째 아들(관의 추적을 피하여 이름을 숨겼으므로 호(號)만 해은(海隱)으로 전한다.)은 안면도로 들어와 숨어 살다가 세조 말기에 청라에 와서 정착하여 겨우 가문을 잇게 되었다. 해은은 도피하면서 지니고 다녔던 부친의 유품과 그후 수집한 유품을 매장하여 김선지의 묘를 만들었으니 그 묘소가 청소면 재정리에 있다. 후손들이 보령 지역에 세거해 오고 있다.

○ 김성국(金聲國)

조선 영조·정조 때의 학자이다. 영조 6년(1730)에 출생하여 일찍부터 글을 읽고는 문장이 뛰어나 여러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영조 32년에는 진사에 올랐으나 벼슬보다 학문의 길을 택하여 더욱 글을 읽으니 그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서생들이 많았다.

만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하다가 일생을 마친 학자이다. 호는 송상(松常)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 김성우(金成雨)

불사이군의 고려 말 충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고려말 전라우도 도만호 겸 초토사로서 보령 지역의 왜구를 격퇴한 인물로 보령 광산김씨의 입향조이다. 출생 년대는 미상이나 조선 건국 해인 1392년 보령 청라에서 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친은 봉익대부 판도판서 밀직부사(奉翊大夫版圖判書密直副使)를 지낸 김윤장(金允臧)이며, 조부는 문림랑 감찰어사(文林郎監察御使)를 지낸 김류(金流)이다.

증조부는 고려 원종 때 원선수소용대장군(元宣授昭勇大將軍)으로 일본을 정벌하기도 했던 김주정(金周鼎)으로 문숙(文肅)의 시호를 받았다.

김성우가 보령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1673)로 김성우가 왜구를 토벌한 공로로 보령에 사패지(賜田)를 받았다는 기록에서이다.

이어 우부승지 정권(鄭權)이 편찬한 『신안읍지(新安邑誌)』(1748) 인물편의 첫머리에 김성우는 고려 개성 출신이며, 왜구를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 보령에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의평리, 관암 등의 지명 유래가 김성우의 왜구 토벌과 관련된 것임과 청라면에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게 된 연유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김성우 공을 자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지도서』(1757)를 비롯하여 『충청도읍지』(영조), 『호서읍지』(1871), 『1872년 지방도』, 『조선환여승람』 등에서도 이와 같은 김성우의 행적이

실려 있다.

조선후기 『여지도서』와 『충청도 읍지』 등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시중(侍中) 김주정(金周鼎)의 증손이며, 판도판서(版圖判書) 김윤장(金允臧)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도만호 초토사(都萬戶招討事)로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왜적을 공격했다. 군대가 보령을 지나갈 때 보령은 오래도록 왜구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김성우 공이 그들을 모두 무찔러 없앴다. 전투를 벌일 때 신령스러운 말이 저절로 왔기 때문에 그 봉우리의 이름을 옥마봉(玉馬峰)이라고 했으며, 칼이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비도봉(飛刀峰)이라고 했다.

군대가 바닷가 포구로 들어오니 군입포(軍入浦)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며, 병사들이 화애(花崖)에 숨어 있어서 복병평(伏兵坪)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포구의 바위에 갓을 벗어놓은 까닭에 관암(冠岩)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고, 적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은 까닭에 의평(蟻坪)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 김성우 공이 청라(靑蘿) 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긴다. (국역 여지도서, 2009)

그리고 최근에는 ‘도만호 김성우 장군 관암사적비(대천해수욕장 신광장)’, ‘김성우 장군 전첩사적비(대천 어항입구)’, ‘김성우 장군 진수유허비’(주포면 주교리), ‘김성우 장군 왜구소탕비’(장군묘역), ‘고려의마암갈비’(청라면 나원리 스무티 고개), ‘김성우 장군 월암부비’(청라면 나원리), ‘김성우 장군 백마총’(청라면 백현리), ‘성주산 장군봉 유래 안내판’(성주산 정상) 등이 대천문화원 및 보령시 유관기관의 협찬으로 보령 곳곳에 세워졌다.

이러한 김성우의 왜구 토벌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일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발산(일명 고려향(高麗鄉)) 소재의 묘소에서는 대천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제향이 거행되고 있다.

○ 김수정(金守精)

자는 중숙(仲叔)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김수현의 동생으로 보사원종훈에 녹하였다.

○ 김수현(金守玄)

조선 숙종조의 문신이다. 자는 순중(純仲)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관직은 공조참의에 올랐으며, 숙종조에 보사원종이등훈(保社原從二等勳)에 책록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 김숙(金淑)

본관은 무주이고 조선 중종 때의 무신이다. 중종 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서는 여러 벼슬을 거쳐 중종 19년에 충청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그는 수군절도사로 재임시 병선의 수리와 건조에 공적을 세워 막강한 충청수군을 키운 지휘자로 명성이 있었다. 부하인 첩사와 만호를 아끼는 데도 남달랐다 한다.

○ 김시걸(金時傑 1653(효종4)~1701(숙종2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흥(士興), 호는 난곡(蘭谷). 현감 수인(壽仁)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성우(盛遇)이다. 1684년(숙종10)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1688년 검열이 되었으나 이듬해 기사환국으로 파직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 후에 지평(持平)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1695년 부사직(副司直)·수찬(修撰)·부교리(副校理)·헌납(獻納)·이조좌랑·교리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이조정랑·사간·겸필선(兼弼善)·사복시정(司僕寺正)·겸보덕(兼輔德)·집의(執義)·응교(應教)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699년에 승지에 이어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701년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헌간(獻簡)이다. 청음 김상헌의 현손이고, 조선말기 흥성의 유학자 김복환의 8대조이다.

○ 김신행(金信行 1579~161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김태국의 아들이다. 그는 호가 송파(松坡)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선조 34년에 사마시에 오르고, 광해군 6년 문과에 올라 승정원 주서(注書)에 오르고는 당시 조정이 혼란하여 옥사가 자주 일어나서 문서가 산적하여도 착오없이 처리하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비주서(飛注書)라고 하였다. 뒤에 수찬(修撰)에 올랐다.

○ 김억(金億)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월악(月岳)이다. 조선 인조 12년(1634)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훈련원 첨정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군과 싸워 공을 세워 그 공으로 인조 24년(1646)에는 금위장절충장군(禁衛將折衝將軍)에 올랐다.

5위(五衛)의 군제개혁에 공을 세우기도 했다.

○ 김여남(金汝南)

본관은 광산이고 호는 춘한당(春閑堂)이다. 좌승지 김해수(金海壽)의 아들로 인조 1년(1623)에 출생하였고, 벼슬은 장성부사에 이르렀다. 여러 치적을 세워 통정대부에 올랐다.

○ 김영석(金永錫)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이다. 세조 12년(1467)에 출생하여 성종조에 생원에 이어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사헌부집의를 거쳐 옥천군수로 부임하여 많은 치적을 쌓았다. 연산군조에 국정이 어지러우므로 관직을 버리고 보령 땅으로 돌아와서는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문명(文名)이 높았다.

○ 김영수(金永壽)

본관은 무주이고 호는 만암(晩菴)이며 일찍이 경전을 읽어 명성이 인근에 자자했으며 철종조에 선관(善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돈녕부봉사(敦寧府奉事), 이어서 돈녕부정에 이르렀다.

○ 김영제(金寧濟)

조선 말기의 학자이다. 호는 지산(支山)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고종 4년(1867) 출생하여 동몽교관에 올랐으나 향리에서 후진 양성에 공을 세웠으며, 문필(文筆)이 특출하여 명성이 있었다.

○ 김용제(金用濟)

조선 말기의 남포군수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약천(若川)이다. 웅천 출신으로 고종 2년(1866)에 참사관(參事官)에 오르고 고종 5년(1868)에 음성군수를 지냈다. 광무 2년에 남포군수에 부임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 김우식(金雨植)

본관은 김해로 조선시대 말기 고종 때의 문신이다. 고종 25년(1888)에 교섭야문주사(交涉衙門主事)에 오르고, 고종 28년에 의금부도사, 광무 3년(1901)에는 통정대부시종원시종 주임관 6등을 역임하고, 광무 10년(1906)에 웅천으로 하향하여 은거하였다.

○ 김위(金渭)

조선 영조 때의 상신(相臣)이다. 자는 흥백(興伯)이고, 원종훈신 김한(金漢)의 후손이다. 영종조에 무과에 오르고, 관(官)이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겸동지춘추관사에 올랐다.

그는 본관이 경주로 효우하고 흉년에 해변 일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혜하여 많은 칭송을 받았다.

○ 김응순(金應純)

조선 성종 13년(1482)에 출생한 무인이며, 무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쳤다. 임친 현감을 지냈다.

○ 김응의(金應漪)

본관은 통천이며, 남포 입향조 김훈(金勛)의 현손이다. 광해군 때 관직에 올라 통정대부 행벽동군수(通政大夫行碧潼郡守)를 역임했다. 이괄의 난 때는 군사를 이끌고 반군과 싸운 공로로 왕이 공주에서 환궁한 후에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증직하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렸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과 비인지역에 세거해 오고 있으며, 묘소는 그동안 비인에 있다가 최근 남포 옥동리 선산에 이장했다. 후손으로 내장원경을 지낸 김윤환이 1921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 김응정(金應精)

본관은 광산이고 성종 11년(1480)에 출생한 무인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봉사를 거쳐 결성현감이 되었다. 그는 현감을 지내면서 백성들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정을 베풀어 그 치적을 나타내는 선정비가 여러 곳에 있다.

○ 김의행(金誼行 1589~1677)

조선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광산이다. 약관에 사마시에 올라 성균관생원이 되었으나 벼슬 길에 나가지 아니하고 보령 청리에서 사림의 지조를 지키며 학문에 열중했던 선비이다.

○ 김인사(金麟士 1508~1592)

본관은 광산이며 김극성의 장자로 자는 시재(時哉)이다. 중종조에 음사로 양근군수를 역임했고, 장수하여 정3품인 통훈대부에 올랐다. 묘는 청소면 재정리 능동 부친 김극성의 묘 아래에 있다.

○ 김일(金鎰)

무주인으로 인조 갑술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자호란 때 청에 끌려간 백성 송환에 공을 세웠고, 현종 계묘에 통정대부돈녕부정(通政大夫敦寧府正)에 이르렀다.

○ 김적(金適)

본관은 나주(羅州)이고 호는 취암(鷲巖)이다. 조선 중종 38년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김제군수로 있을 때인 명종 10년(1555)에 왜구의 침범이 있어 초토사(招討使)의 중군(中軍)으로 적을 소탕하였다. 그 공으로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올랐다. 또한 문장이 뛰어나서 널리 알려졌다. 그의 묘가 청라면 우수치(牛首峙)에 있다.

○ 김전(金銓)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사원(士元)이다. 관직은 낙안군수를 역임하였으며, 보사원종훈에 책록되었다.

○ 김제창(金濟昶)

본관은 김해이고 호는 양관(兩館)이다. 고종 5년(1868)에 부사용(副司勇)에 처음 임명되었고, 고종 26년(1889)에 평해군수 겸 강릉진관병마동지첨절제사를 지냈다,

○ 김종로(金仲老)

조선 태조 2년(1393)에 태어난 조선시대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광산으로 김성우의 손자이다. 세종 20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다시 문과에 급제,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그의 끝은 처사에 모두가 탄복하였다. 여러 벼슬 끝에 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이 증직되었으며, 그의 시집이 지금까지 여러 권 전한다.

○ 김중하(金重夏)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운강(雲岡)이다. 영조 2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상의원 별좌(尙衣院別坐)에 올랐으며, 이어서 호조정랑, 영조 43년에는 호조참판에 올랐다. 묘소는 청양 선산에 있다.

○ 김지흠(金志欽)

광산인으로 호는 나옹(蘿翁)이며 정조 1년에 청라에서 출생하여 헌종 3년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성균관 박사·교수를 역임하면서 40여 년간 경학을 강론하여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는 철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趙斗淳)이 있어 그의 장례일에 조두순이 호상(護喪)을 하기도 했다.

○ 김충수(金忠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중종 38년(1543)에 출생하여 명종조에 생원에 오르고,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참판에까지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권을 장군 휘하에서

온양군수로서 병력을 이끌고 많은 공을 세워 선무원종훈(宣武元從勳)에 책록되었으며, 그후 정유재란 때는 다시 창의하여 충남지방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남포에서 분전 중 순절한 공신이다. 후일 그에게 가선대부의정부우참찬겸지의금부오위도총부도총관(嘉善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五衛都摠府都摠管)이 추증되었다.

○ 김태국(金泰國 1566~1624)

본관은 광산이다. 호는 송부(松阜)이고, 전라감사 김태정(金泰廷)의 동생이다. 선조 때 음사로 금산군수, 전주진관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광해군조에는 광해군이 그의 생모를 종묘에 봉안하려 할 적에 상소문을 올려 아무리 왕의 생모라 하더라도 왕후가 아닌 빈을 종묘에 봉안할 수 없다고 만류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공의 의연한 태도에 모두 감탄하였다. 광해군 12년에 관직을 버리고 청라 고향에 낙향하여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 김태정(金泰廷 1541(중종36)~158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김백간의 아들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형언(亨彦). 호는 송암(松巖)이다. 할아버지는 문서(文瑞)이고, 아버지는 찰방 백간(伯幹)이다. 일찍이 이황(李滉)의 문인들과 교유하며 건문을 넓히고 1561년(명종 16)에 진사가 되었으며, 이어 1569년(선조 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사간원정언, 삼사(三司)를 역임하는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전라도관찰사를 지냈다.

선조 10년 인종비 인성왕후(仁聖王后)가 하세하였을 때는 빈소의 예관으로 당시 대사헌 이준백(李俊白)과 복상문제로 대토론을 전개하여 조야를 탄복케 했으며, 인조 17년 전라도 관찰사를 할 때는 정여립이 전주에 살면서 가까이 하려 했으나 그의 사람됨을 미리 알고 접근도 하지 않았다 한다. 후일 을축옥사(乙丑獄事)를 당하여 그가 선견지명이 있음에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 김택(金澤)

선조 때의 문신이다. 그는 호가 광암(光庵)이고, 본관은 무주이다. 선조 2년(1579)에 출생하여 약관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별제좌랑(別提佐郎)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터짐에 선조가 의주로 서행(西幸)할 때 호종하여 호성공신 원종훈에 책록(冊錄)되었으며, 벼슬이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이르렀다.

○ 김한(金漢)

본관은 경주이고, 조선 세종조의 문신이다. 세종조에 문과에 올랐다. 벼슬이 감찰에

이르렀을 때 단종 1년 수양대군을 둘러싼 왕권음모에 싫증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남포로 낙향하였다. 단종 3년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비명에 가자 목 놓아 통곡하며 비분에 젖어 있다가 병이 되어 죽었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지역에 세거해 온다.

○ 김해수(金海壽 1581(선조14)~1640(인조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심원(深源). 부장 인보(紐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충서(忠恕)이고, 아버지는 증지평 응천(應天)이며, 대대로 보령에서 살았다.

어려서부터 정홍명(鄭弘溟)과 교유하고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괄의 난 때는 백의로 동지들을 거느리고 대가(大駕)를 모셔 공주산성에 들어가 공을 세웠으며,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 김장생이 의병을 일으키자, 여러 고을의 창의관(倡義官)이 되어 많은 공을 쌓았다.

김장생의 천거로 사직서참봉이 되었으며, 그 뒤 사옹원봉사와 제용감직장을 거쳐 청산과 아산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그후 고향인 청라에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쓰다가 졸하였다. 그의 문집이 있으며, 청라 옥계리의 묘소에는 송시열이 찬(撰), 송준길 서(書), 김만기 명(銘)의 묘비가 있다.

○ 김해은(金海隱)

본관은 무주(茂州)이다. 단종조의 충신인 김선지(金善之)의 아들이다.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복위를 꾀하다 탄로되어 화를 당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연루된 김선지와 큰아들이 화를 당하면서 멸문지화를 입자, 김선지의 차자인 김해은(해은은 호이다.)은 몰래 노비 충록(忠祿)과 함께 도망하여 안면도에 숨어들어 은거하다가, 말년에 청라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함으로써 보령지역에 무주김씨들이 세거해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서운 비극 속에서 신분의 탄로가 두려워 이름도 전하고 있지 않으나, 해은이라는 호만 전해올 뿐이다. 그가 생전에 쓴 해은자서전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 보령 무주김씨 입향조인 그의 무덤은 청소면 능동에 있다.

○ 김홍규(金弘逵)

본관은 광산이고, 중종 25년(1530) 태어났다. 무과에 오르고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동생과 의병을 일으켰는데, 침략한 왜군을 수적으로 당할 수 없어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수년간 항전을 거듭하였으나 끝내 큰 싸움에서 두 동생과 함께 전사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공로로 선무공신원종훈(宣武功臣原從勳)이 내려지고, 그 자손에게 통정대부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를 추증하였다.

○ 김홍원(金弘遠)

본관은 광산이고, 조선 선조 때의 무인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때는 수원판관으로 봉직하였다. 왜적과 싸울 때는 한 치도 물러설 줄 몰랐던 그는 왜군과의 여러 싸움에서 많은 공훈을 남겼다. 도원수 권율 장군의 휘하에서 물려오는 왜군과 수원 돌산(斗山)에서 산성을 지키면서 분전하였지만 끝내 왜군의 흉탄을 맞고 전사했다.

뒤에 선무공신원종훈(宣武功臣原從勳)에 책록(冊錄)되고 병조참의가 추증되었다.

○ 김훈(金勛)

본관은 통천(通川)이다. 고려 말엽에 판도판서 등을 역임한 김원등(金遠登)이 통천에 토착한 이후 성장한 사족의 후예로,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남포현감을 지냈으며,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단종이 폐위되자 크게 탄식하고 벼슬을 버린 채 남포현에 들어와서는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은 불사이군의 선비이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과 비인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세거해 왔고, 묘소는 웅천읍 두룡리에 그 후손 김운환(金閔煥)이 1904년에 짓고 써서 세운 묘비와 함께 있다.

○ 무염대사(無染大師 801~888)

통일신라 후기의 승려. 신라 선문구산 중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산조(開山祖)이다. 성은 김씨(金氏). 범칭(範淸)의 아들로 어머니는 화(華)씨이다. 제29대 태종무열왕의 8대 손이며,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9세 때 해동신동(海東神童)이라 했지만, 12세에 출가하여 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에서 법성(法性)의 제자가 되었다.

법성은 무염에게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으며,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였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화엄학이 크게 성행하였으므로 무염은 부석사(浮石寺)의 석징(釋澄)을 찾아가 《화엄경》을 공부한 뒤,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다. 그러나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흑산도에 기착하여 당나라로 가지 못하였다. 821년(헌덕왕13) 다시 정조사(正朝使) 김양(金陽)을 따라 당나라로 가서 장안의 지상사(至相寺)를 거쳐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 선법(禪法)을 물었다. 여만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의 젊은이는 본 적이 없다. 뒷날 중국이 선풍(禪風)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신라로 가서 선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그 뒤 무염은 마곡산(麻谷山) 보철(寶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법맥을 이어받고,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독한 사람,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2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보살행(菩薩行)을 실천하자 그의 이름은 중국 전역에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렀다.

847년(문성왕 7) 귀국하자 왕자 혼(昕)이 성주사(聖住寺)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여 여기에 머물며, 40여 년 동안 교화에 전력하였다. 문성왕·현안왕·경문왕·현강왕·정강왕·진성여왕 등 여섯 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여 법을 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성주사는 성주산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성격은 공손하고 자애로웠으며 손님을 대할 때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언제나 다른 승려들과 함께 보리밥을 먹었다. 절에 큰 불사(佛事)가 있을 때 앞장서서 일을 하였고, 평소에도 물을 길고 나무를 하였다.

89세로 입적하였으며, 시호는 대낭혜(大朗慧), 탑호는 백월보광(白月葆光)이라 하였다. 최치원이 왕명을 받아 글을 짓고 최인연(崔仁浣)이 쓴 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는 현재 국보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자는 2,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원장(圓藏)·영원(靈源)·현영(玄影)·승량(僧亮)·여엄(麗嚴)·자인(慈忍)·심광(沈光)·대통(大通) 등이 그의 선종을 계승하고 선양하여 성주산문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중국 서안의 지상사(2008.08)

○ 민치록(閔致祿 1799~1858)

본관은 여흥이고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고종의 장인이고 명성황후의 아버지다. 벼슬이 첨정에 그쳤고 여주에서 살았다. 죽은 뒤 고종 3년(1866) 딸이 왕후로 책봉됨으로써 영의정여성부원군(領議政驪城府院君)에 추증되었다.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에 묘소와 신도비가 있었으나, 최근 고향인 여주로 옮겼다.

○ 박기조(朴起祖)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숙종 19(1693)년에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신은(新恩)으로 홀로 인현왕후 폐처별궁(廢處別宮)에 배명(拜命)하였으며, 벼슬이 도정(都正)에 이르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지함의 외손이다.

○ 박동선(朴東善 1562(명종 17)~1640(인조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자수(子粹), 호는 서포(西浦). 조년(兆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간 소(紹)이고, 아버지는 사재감정(司宰監正) 응천(應川)이다.

1589년(선조22) 28세에 진사가 되었고, 이듬 해 증광 별시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들어갔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병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남포현감으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 논공행상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제외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남포현에 왜적이 쳐들어오자 현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 무사하게 했다. 그 뒤 성균관전적·직강·예조좌랑·병조좌랑·사복시정 등을 차례로 지내고, 경기도사·수안군수에 이어 인천·부평·남양 등의 부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치적이 있었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그를 대사간에 임명하자 광해군의 패륜 행위를 못마땅히 여겨 사양했지만 참의로 임명되었다. 이어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1613년(광해군 5)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시골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인조반정으로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병조 참의로서 인조를 모시고 공주로 피난갔다. 난이 평정된 뒤 돌아와 가선대부로 대사헌이 되었고, 이조참판을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모시고 강화로 갔으며, 형조판서·좌참찬·우참찬·지돈녕부사·지중추부사 겸 지경연사·지의금부사·춘추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늙고 병든 몸으로 왕손을 호종하고 강화·교동·호서 등지로 피난했다가 난이 끝난 뒤 한성에 돌아와 좌참찬이 되었다. 저서에 《서포기문 西浦記聞》이 있다. 시호는 정헌(貞憲)이다.

○ 박승건(朴承健 1609(광해군 1)~1667(현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자이(子以). 판서 충원(忠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현(好賢)이고, 아버지는 안행(安行)이다. 1630년(인조8) 중형(仲兄) 승휴(承休)와 함께 진사가 되고, 1650년(효종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에 보임되었다. 이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을 거쳐, 1652년에는 정언(正言)·사서(司書)·직강(直講)·예조정랑을 지냈다.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는 형조판서 허적(許積)을 논핵하였으며, 1661년(현종2)에는 지평(持平)·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를 역임하고, 이듬해에는 장령(掌令)이 되었다. 1663년에는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올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들어가다가 지병이 도져서 도중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그는 사신의 임무를 마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삼아, 그 뒤에도 계속 조정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 뒤 제용감정(濟用監正)을 거쳐, 1664년 9월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재직하던 중 관곡을 방출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민역(民役)에 충당한 사실로 가자(加資)되었다. 그의 아들 박세주(朴世胄)가 보령 개화리에 입향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고, 박승건의 효자 정려를 옮겨와, 보령에서 아들 박세주가 받은 효자 정려를 함께 현재의 도화담리에 건립하여 놓았다. 박승건의 묘소는 보령으로 이장되어 개화리에 있으며, 묘비와 함께 있다.

○ 박정원(朴正源)

1685년생으로 본관은 밀양이고 자는 심보(心甫)이다. 수암(滲庵) 문인으로 문행(文行)이 탁이하였다. 숙종 43년(1717) 생원시에 합격했다.

○ 박홍양(朴鴻陽)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호는 금남(錦南)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조에 정산(定山)을 거쳐, 보령현감으로 부임, 많은 치적을 쌓았다. 청백리로 선정비가 있다. 만년에는 청라에서 여생을 보냈다.

○ 백문절(白文節 ?~1282(충렬왕 8))

고려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남포(藍浦). 자는 빈연(彬然), 호는 담암(淡巖)이며. 백이정(白願正)의 아버지이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에서 벼슬하다가 중서사인(中書舍人)·이부시랑(吏部侍郎)·국자궐주(國子祭酒)를 역임하였다.

1269년(원종10)에 임연(林衍)에 의하여 폐위되었다가 복위한 원종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표문(表文)을 지었다. 이때 왕이 임연을 두려워하여 폐립(廢立)의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병으로 왕위를 물려준 것으로 말하라 하자, 붓을 놓고 울면서 간(諫)함으로써 왕을 깨닫게 하여 사실대로 표문을 썼다.

1278년(충렬왕 4)에 사의대부(司議大夫)로서 공적이 없는 권세가의 자제들이 관직에 많이 임명되므로 고신(告身 : 辭令書)에 서명을 하지 않자 왕이 여러 차례 서명을 재촉하였으나 불응하여 왕의 큰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뒤에 국학대사성(國學大司成)·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가 되었다.

1280년에 왕에게 진언하여 시사(時事)를 말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간 시사(侍史) 심양(沈瑄) 등을 석방하게 하였으며, 그 해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지공거 원부(元傅)와 함께 진사(進士)를 뽑아 이백기(李伯琪) 등 33인을 급제하게 하였다.

그는 문사(文詞)가 풍부하고 글씨를 잘 썼다. 보령의 옥산사(玉山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백사준(白師俊 1736~1830)

조선 영조 때의 무신으로, 본관은 남포이다. 영조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에 올랐으며, 뒤에 훈련원정(訓練院正)에 증직되었다.

○ 백사천(白師天 1733~1802)

조선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남포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 사헌부감찰에 올랐다. 무술에 뛰어난 무인으로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재종제 백사준과 거의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백사형(白師亨 1768~1808)

본관은 남포이고, 호는 청계(淸溪)이다. 일찍부터 성당 정혁신의 학식이 높음을 듣고 찾아가 수학하였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남당(南塘) 학문의 요체를 전습 받고는 녹문 임성주를 비롯하여 삼산재 김이안, 성담 송환기, 강제 송치규 등과 종유하였다.

남포 신안사 창건시에는 많은 재물을 냈다고 전한다. 문집 청계집이 있다.

○ 백영수(白泳洙 1842~1896)

자는 성함(聖涵)이고, 고종 4년(1867)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리인 웅천 구룡리 장자동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부친은 백태진이고, 형은 백규수이다.

○ 백유공(白惟恭 1408~1461)

본관은 남포이고, 호는 정재(靜齋)이며 조선조의 문신이다. 세종 때 충주목사를 지내고, 세조 1년(1456)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그해 단종 복위를 꾀하는 선비들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나 사전에 실패로 돌아가자 운제고산(雲梯高山)에 은거하고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 백이정(白頤正, 1247(고종34)~1323(충숙왕10))

고려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남포(藍浦). 자는 약헌(若軒). 호는 이재(霽齋).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인 아버지는 문절(文節)이며, 안향(安珦)의 문인이다.

1275년(충렬왕1) 문과에 급제, 충숙왕 때 첨의평리 상의회의도감사 삼중대광(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重大匡)에 이르고, 뒤에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졌다.

1298년 원(元)이 사신을 보내어 세자를 왕으로 삼고, 8월에 왕을 불러가자 충선왕을 따라 원의 연경(燕京)에서 10년간 머물러 있었다. 그 동안 주로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연구했고, 귀국할 때 정주(程朱)의 성리서적과 주자의 《가례(家禮)》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뒤 후진 양성에 힘써서, 이제현(李齊賢)·박충좌(朴忠佐)·이곡(李穀)·이인복(李仁復)·백문보(白文寶) 등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도학과 예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은 안향이지만,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체계를 파악해 크게 일가를 이룬 이는 백이정이라 할 수 있다.

안향과 백이정의 학통은 이제현에게 전승되었고, 이제현은 이색(李穡)에게, 이색에서 권근(權近)과 변계량(卞季良)으로 이어졌다.

선조 때 김제남(金悌男)·최기남(崔起南) 등이 송경(松京)에 서원을 세워 안향·권보(權溥)와 함께 배향하기로 경기사림(京畿士林)과 논의하다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지만, 남포의 신안사(新安祠)에 배향되었고, 충주의 도통사(道統祠), 진주의 도통사(道通祠), 남해의 난곡사(蘭谷祠)에서 향사하고 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유고로는 <연거시 燕居詩>·<영당요 詠唐堯>·<한벽루 寒碧樓>·<여홍애집구 與洪厓集句> 등의 시구가 전해지고 있다.

○ 백인감(白仁臧)

본관은 남포이며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다. 당시 삼중형이 황해도에 거주했으므로 그를 따라 황해도 평산에 이주하였다. 그가 평산에 이주한 지 얼마 안되어 임진왜란이 터지고,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한양을 점령하고, 계속 북으로 진격해 오자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하고, 우리나라 군사들은 임진강가에서 배수진을 쳤었다.

조선시대 명종 때 무과에 오르고 경상좌우병사를 거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 수어사에 올라서 임진강변 북쪽에 진을 쳤던 신할(申喆)장군이 쳐들어오는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 임진강 북쪽에서 도강하여, 남쪽에 진을 친 왜군을 무찌를 때 백인감은 의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적을 무찔렀으나, 중과부적으로 수어사 신할 장군과 함께 전사하였다. 그는 의병장으로 임진강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뒤에 부호군에 올랐다.

○ 백임지(白任至)

본관을 남포이다. 고려 명종조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에 오른 인물이다.

○ 백중학(白仲鶴)

본관을 남포(藍浦)로 한 남포백씨의 시조이다. 자는 운로(雲路)이고, 시호는 익렬(翼烈)이다. 신라 때 벼슬은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올랐으나 뜻한 바 있어 벼슬을 버리고 당시 남포현(藍浦縣)에 돌아와 글과 사색으로 일생을 마쳤다. 보령지역에 학문의 길을 처음 정착시킨 인물로 전하기도 한다.

○ 백홍수(白弘洙 1808~1884)

본관을 남포이고, 호는 미산(眉山)이다. 현종 3년(1837)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문원정자, 예문관검열, 장령 등을 역임하고, 1879년 병조참판에까지 올랐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주산 동오리에 와서 시국을 걱정하며 지냈다.

그의 아들이 보령5열사 중 한 사람인 추강 백낙관이다.

○ 서거정(徐居正 1420(세종 2)~1488(성종 19))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강중(剛中)·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 아버지는 목사 미성(彌性)이고, 어머니는 권근(權近)의 딸이다.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시에 능하였다.

1438년(세종 20)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44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갔다. 집현전박사·경연사경(經筵司經), 홍문관부수찬, 부교리 등에 올랐다.

1457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 우사간·지제교에 초수(招授)되었다. 1458년 정시(庭試)에서 우등해 공조참의·지제교에 올랐다가 곧이어 예조참의로 옮겼다. 1465년 예문관제학·중추부동지사를 거쳐, 다음 해 발영시(拔英試)에 을과로 급제, 예조참판이 되었다. 이어 등준시(登俊試)에 3등으로 급제해 행동지중추부사에 특가(特加)되었으며, 《경국대전》찬수에도 참가하였다.

1467년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성균관지사를 겸해 문형(文衡)을 관장했으며, 국가의 전책(典冊)과 사명(詞命)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1470년(성종 1) 좌참찬이 되었고, 1471년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우찬성에 오르고, 《삼국사절요》를 공편했으며, 《동문선》 130권을 신찬하였다.

1481년 《신찬동국여지승람》 50권을 찬진하고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1483년 좌찬성에

제수되었다. 1485년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했으며, 《동국통감》 57권을 완성해 바쳤다. 1487년 왕세자가 입학하자 박사가 되어 《논어》를 강했으며, 다음 해 죽었다. 여섯 왕을 섬겨 45년 간 조정에 봉사, 23년간 문형을 관장하고, 23차에 걸쳐 과거 시험을 관장해 많은 인재를 뽑았다.

저술로는 시문집으로 《사가집 四佳集》이 전한다.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문병(文柄)을 장악했던 핵심적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학풍과 사상은 이른바 15세기 관학(官學)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훈신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서기(徐起 1523(중종 18)~1591(선조 24))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이천(利川). 자는 대가(待可), 호는 고청초로(孤靑樵老)·구당(龜堂)·이와(蓬窩)이며, 구령(龜齡)의 아들이다. 남포현 제석리 출신이다. 서경덕(徐敬德)·이중호(李仲虎)·이지함(李之菡)을 사사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제자백가(諸子百家)는 물론 기술의 이론까지 통달하였으며, 선학(禪學)을 좋아하였다. 특히, 이지함을 만나면서 비로소 유학이 정도(正道)임을 깨닫게 되었다.

홍주와 지리산·계룡산 근처로 거처를 옮겨다니면서 오로지 학문과 강학에만 전념하였다. 이지함과 마음이 맞아 그와 함께 사방을 주유하면서 민속을 접하고 실용적 학문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제주도까지 항해하여 한라산에 올라갔다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지함의 권고로 이중호의 문하에 나가 대학 중용 등을 배웠다. 평생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지만 신분이 미천하여 조정에 천거되지 못했으며, 평생 포의로 은거자수(隱居自修)하였다.

충청남도 공주의 충현서원(忠賢書院)의 별사(別祠)에 배향되었다. 영조 28년 추증되어 문목(文穆)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저서로는 《고청유고 孤靑遺稿》가 있다.

○ 성하국(成夏國)

한말의 학자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호는 나설(蘿雪)이다. 그의 학문은 뜻이 깊고 문장 재화(文章才華)하여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고종조에 벼슬로는 찬의(贊議)에 이르렀다.

○ 신겸계(申兼濟)

조선 숙종조의 문신이다. 본관은 고령이고, 부친은 신학(申潁)이다. 숙종 34년(1708) 식년시에 합격하고, 관직은 판결사(判決事)에 올랐으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 신곡(申鶴)

평산인으로 선조 초에 고령현감을 지냈으며 임진왜란으로 엄친(嚴親) 신정(申貞)을 모시고 보령으로 피신하여 보령 오천면 오포리 선동(蟬洞)에 자리 잡았다. 그는 원래 토정 이지함 선생과 친하여 도의지교를 맺었으며, 동인(洞人)이 선박(仙泊)이라 했던 것을 선동으로 고치고 세거했다.

○ 신정(申禎)

본관이 평산으로 일찍이 학문을 익혀 명성이 자자했으며, 은사(隱仕)로 뽑혀 관직이 용안현감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었다. 임진왜란 중에 오천면 오포리에 은거했다.

○ 신학(申潯 1645(인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도원(道源), 호는 만회당(晩悔堂)·만천(晩川)이다. 중엄(仲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용(涌)이고, 아버지는 사에 득홍(得洪)이다.

1673년(현종 14) 통덕(通德)으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674년(숙종 즉위년) 가주서(假注書)가 되었다.

1677년 지평(持平)에 이어 정언(正言)을 역임하고 전라도의 흉년에 대하여 위민책(爲民策 :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1689년 장령(掌令)이 되어 홍문록(弘文錄)에 등록되었으며, 이듬해 헌납(獻納)·집의(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1694년 승지에 이르렀다.

○ 신형식(申亨湜)

조선 고종 때의 무관이다. 본관은 평산이고, 철종 5년(1854)에 출생하였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으로는 사용(司勇)을 거쳐 부사맹(副司猛)에 올랐으나 30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 심재숙(沈在淑)

본관은 청송이고, 청송부원군 심운의 후손이다. 호는 월재(月齋)이다. 여러 주향(州鄉)의 수령을 지내며 선정의 기록이 남아 있는 문신이다.

○ 안대진(安大進 1561~1604)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호는 면재(沔齋), 자는 퇴지(退之)이다. 명곡 이산보의 문인이다.

선조 19년(1585)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동년에 중시(重試)에 올라 예문관 한림학사에 들어갔다.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공을 세워 선무·호성·청난 등 3개 부문 모두에 원종훈(原從勳) 1등에 녹(錄)되고 춘추관 및 홍문관 제학, 세자시강원 좌부빈객 등을 거쳐 4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조참판과 가선대부에 증직되었다.

그의 묘소는 웅천읍 소항리 서오개에 있으며, 보령 오천에는 그가 지은 임진왜란 당시의 명나라 구원군 계급장군청덕비가 있다.

○ 안사탁(安士擢 1510~1578)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지방(之防)이다. 진사 안자문(安子文)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학문의 길에 들어서서 꾸준히 글을 읽었으며, 유림의 추천으로 화릉(和陵)참봉에 올랐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의 부친 안자문이 남포에 입향했고, 안대진의 조부이다.

○ 안윤손(安潤孫 1450(세종 32)~1520(중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홍조(弘祖). 참찬 성(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삼시령(司贍寺令) 철산(鐵山)이고, 아버지는 현감 극변(克辨)이다.

1474년(성종 5) 생원·진사시에 잇따라 합격하고 1476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478년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어서 기사관이 되어 한명회가 남효온 등 재야사림을 비방 탄핵하려 하자 이를 변호하였다. 1482년 검토관(檢討官)으로 경연에 참여하면서 내수사장리(長利)의 혁파를 건의하였다.

이듬해 홍문관부교리가 되어 왕명을 받고 궐군(闕軍)을 적발하였고, 곧 이어 전주에 내려가서 수령의 불법행위와 교육 현황을 조사, 감독하고 왔다. 1484년 지평이 되어서는 안주판관 이빈(李濱)의 비행을 고발하여 처벌하였고 충청도관찰사 이공(李拱)이 무능하다고 탄핵, 체직시켰다.

그 뒤 장령이 되어 언론의 창달과 기강확립에 힘쓴 뒤 1494년 회령통관이 되어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다. 1500년(연산군 6)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으나, 때마침 침입해 온 왜구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곧 복직되어 1502년 사간원대사간을 지냈다.

이듬해 형조참의가 되었는데 청백리로 이름났다. 중종반정 이후 한성부우윤과 좌윤을 지내고 1507년(중종2) 대사헌에 이르렀다. 그 뒤 함경도절도사·한성부좌윤을 역임하고, 1512년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의 아들 안자문(安子文)이 기묘사화 이후 보령에 낙향하면서 보령지역에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여 왔다. 안대진의 고조이다.

○ 여엄대사(麗嚴大師 862(경문왕 2)~930(태조 13))

신라 말 고려 초의 승려. 선승(禪僧). 해동사무외(海東四無畏) 중 1인이다. 경주김씨(慶州金氏)로 충청도 남포(藍浦) 출신이다. 9세 때 무량수사(無量壽寺)로 출가하였으며, 《화엄경》을 공부한 뒤 19세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러나 교종(敎宗)의 가르침이 진실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아님을 느끼고 참선에 뜻을 두었다. 그 뒤 송엄산 성주사(聖住寺)에서 선법(禪法)을 현양하고 있는 무염(無染)을 찾아가서 수년 동안 수행하였다.

무염이 입적하자 남쪽으로 내려가 영각산(靈覺山)에 있는 심광(深光)의 밑에서 수년 동안 수행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운거(雲居)의 지도를 받았다. 수년 동안 정진한 끝에 오도하여 운거의 법맥을 전해 받고 909년(효공왕 13)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전란이 심하여 월악(月嶽)과 미봉산(彌峯山)으로 피하였다가 소백산에 은거하였다. 그때 그의 덕을 흠모한 고려의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 강훤(康萱)이 태조에게 상문(上聞)하자, 태조는 지평(砥平) 보리사(菩提寺)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그뒤 후학의 지도에 전념하다가 입적하였다. 태조는 대경대사(大鏡大師)라는 시호와 함께 현기(玄機)라는 답호를 내렸다. 비는 양평군 용문면 보리사 터에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제자로는 융천(融闡)·흔정(欣政) 등 500여 명이 있었다.

○ 염계신(廉梯臣 1304(충렬왕 30)~1382(우왕 8))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서원(瑞原 : 지금의 경기도 과주). 아명은 불노(佛奴). 자는 개숙(愷叔). 첨의중찬(僉議中贊)을 지낸 승익(承益)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 세충(世忠)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원나라에 가서 평장사(平章事)로 있던 고모부인 말길(末吉)의 집에서 자랐다. 원나라의 태정황제(泰定皇帝)를 시종해 총애를 받다가 고려에 들어와 어머니를 만나보고, 다시 원나라에 건너가서 상의사(尙衣使)가 되었다. 뒤에 다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귀국을 요청해 정동성낭중(征東省郎中)에 임명되어 돌아왔다.

그는 동료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와 노비의 소송은 모두 관계당국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충숙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다시 원나라에 건너가서 익정사승(翊正司丞)이 되었다.

뒤이어 절강성(浙江省)에 나가 중정원(中政院)의 전화(錢貨)를 회계하게 되었다. 이 때 관기들이 뇌물을 주어 매수하려 하는 것을 모두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원나라 순제(順帝)가 특별히 등용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병으로 다시 귀국하였다.

충목왕 때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수성익대공신(輸誠翊戴功臣)으로 봉해졌다. 뒤이어 도침의평리(都僉議評理)가 되었고, 1349년(충정왕 1)에 찬성사가 되었으며 이듬 해 하정사(賀正使)로 원나라에 갔다.

1354년(공민왕 3)에 좌정승이 되었다가 곧 우정승이 되었다.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에 봉해지고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이 되었다.

그 때 원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 고려에 구원을 청하자, 유탁(柳濯) 등과 함께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원나라에 갔다가 그 해 10월에 공민왕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였다.

1356년에 친원과 기철(奇轍) 일당을 숙청한 뒤 서북면도원수가 되어 원나라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 해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겸하였다.

1358년에 문하시중이 되었으며, 1361년에 관직과 명망이 최고위에 이르자 사직하였다. 그 뒤 다시 기용되어 1363년에 우정승이 되었으나, 홍건적의 난 때 어머니를 버리고 피난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고신(告身)에 서경(署經)되지 못하고 파면되었다. 그 이듬해 영도침의사사(領都僉議司事)가 되었는데, 이 때 신돈(辛旽)에게 아부하지 않아 미움을 받았으나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1371년 오로산성(五老山城)을 정벌할 때 서북면도통사가 되어 이기고 돌아와서 곡성백(曲城伯)에 봉해졌다. 그 해 딸이 신비(愼妃)로 책봉되었다.

우왕이 즉위하자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었고, 곧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가 되었으며 충성수의동덕논도보리공신(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염제신의 8세손인 염경원(廉慶遠)이 보령에 입향한 이래로 그의 후손들이 보령에 살면서 1921년 미산에 수현사(水絃祠)를 세우고 그의 영정을 봉안했다.

○ 오인영(吳麟泳 1844~?)

조선말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동북이다. 호는 취송(翠松)이다. 고종 7년(1870)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으로는 대사성에 올랐으며, 대대로 공주지역에 살았으나, 만년에 보령에 하향 은거했다.

○ 원수신(元守身)

중국어에 능통하여 조선 태종 때 명나라에 드나들며 대명외교에 많은 공훈을 남긴 원민생(元閔生)의 5대손이다. 본관은 원주이고, 선조 27년(1594)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때는 충청도 전의에서 왜군을 맞이하여 싸워 많은 공을 남겼다.

뒤에 전라도에서 부사(府使)를 지내고, 광해군 5년(1611)에는 훈련대장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 원유정(元有貞)

본관은 원주이고, 선조조에 관직이 익위사시(翊衛司侍)에 올랐다.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유수춘(柳秀春)과 함께 화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 유발(柳潑 1762~1832)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유원(惟源), 호는 덕린(德隣)이다. 낙봉(駱奉) 유현(柳軒)의 후예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부모에 효도하였으며, 벼과의 우애에 남달리 뛰어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문장이 뛰어났으며, 학행(學行)으로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우의정 강로(姜潏)가 지은 행장이 있고, 문집이 있다.

사가 유호근의 증조부이다.

○ 유순익(柳舜翼 1559(명종 14)~1632(인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중(勵仲)이고, 호는 지강(芝岡)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판결사였던 유사규(柳思規)의 아들로 이황의 문인이고, 선조 15년(1582)에 사마시에 합격, 이어 1599년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1606년 면천군수, 예조좌랑, 병조좌랑, 함경도 도사, 집의, 판결사, 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광해군 때에 이이첨이 폐모론을 주장할 때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서궁(西宮)에 입직하면서 반정군이 들어올 때 궁궐호위를 완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여 공을 세우고 병조, 공조참판에 이어 양주목사를 거쳐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청천군(靑川君)에 봉해졌다. 인조 3년(1625)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 유정(惟政 1544~1610)

조선 중기의 승려. 승병장. 속성은 풍천임씨(豐川任氏). 속명은 응규(應奎). 자는 이환(離煥), 호는 사명당(四溟堂) 또는 송운(松雲), 경상남도 밀양 출신이다.

일찍이 황여헌(黃汝獻)에게 수학하였고, 부모를 여의고 김천 직지사로 출가한 뒤 승과에 합격하였고, 그 뒤 직지사의 주지를 지냈으며, 1575년(선조 8) 선종의 중망(衆望)에 의하여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인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의 휴정(休靜)을 찾아가서 선리(禪理)를 탐구하였다.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수도하던 중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유점사(楡岾寺)에 있으면서 인근 아홉 고을의 백성들을 구출하였다.

이 때 조정의 근왕문(勤王文)과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하였다. 그 곳에서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이 되어 의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의 진초 역할을 담당하였다. 1593년 1월 명나라 구원군이 주축이 되었던 평양성 탈환의 혈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604년 8월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었고, 전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1605년 4월에 귀국하였다.

그 뒤 병을 얻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1610년 설법하고 결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제자들이 다비하여 홍제암(弘濟庵) 옆에 부도와 비를 세웠다. 밀양의 표충사(表忠祠), 묘향산의 수충사(酬忠祠)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문집인 《사명당대사집》 7권과 《분충서난록 奮忠蔓難錄》 1권 등이 있다.

○ 윤석보(尹碩輔)

조선 연산군조의 문신이다. 자는 자임(子任)이고, 본관은 칠원(漆原)이다. 성종 2년(1471)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언관으로서 직언을 했던 사실이 화근이 되어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유배되었다가 그 이듬해 죽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신원되고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 윤순(尹洵 1554~1611)

본관은 무송이고 조선 선조조에 벼슬은 사과(司果)에 이르렀다.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훈으로 광국원종훈(光國原從勳)에 녹(錄)되고,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남포로 하향(下鄉)하여 여생을 보냈다. 아들은 인필(仁澤)이며, 그의 후손들이 주로 보령지역 무송 윤씨를 이루었다.

○ 윤인필(尹仁澤)

본관은 무송이다. 1550년 남포현 웅천에서 출생했으며, 1575(선조 8)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상의원 직장이 되었다. 윤근수(尹根壽)를 도와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을 세우고 광국공신록(光國功臣錄) 원종훈(原從勳)에 수록되었으며, 이어 부호군(副護軍)에 올랐다.

○ 윤자운(尹子雲 1416(태종 16)~1478(성종 9))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무송(茂松). 자는 지망(之望), 호는 낙한재(樂閑齋). 소종(紹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집현전학사 회(淮)이고, 아버지는 경연(景淵)이다.

1438년(세종20) 진사가 되고, 1444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검열을 시작으로 집현전 부수찬·이조좌랑·사간원좌헌납, 응교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집현전부수찬으로 있을 때 수사관(修史官)이 되어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1453년(단종1)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과 병권을 장악하자 그의 요속(僚屬)으로 활약하였다.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이 되어 승정원동부승지·도승지에 올랐다가 1460년(세조6) 어머니 상으로 일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때 세조가 여진족의 모런위(毛隣衛)를 정벌하기 위해 장군감을 구할 때 단연 그가 뽑혀 기복(起復)되어 이조참판이 되고 무송군(茂松君)에 봉해져 군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원정에서 돌아와 인수부윤(仁壽府尹)이 되었는데 3년상을 치르기를 원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 뒤 병조판서, 의정부우참찬에 올랐다.

이 때 마침 함경도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그를 함길도체찰사에 임명해 난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시애가 이미 관찰사·절도사와 여러 진장(鎭將)을 죽이고, 또 그마저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둘러싸 7일이나 지키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적(賊)이 정부를 속이는 위조문서에 서명하고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세조는 그를 위로하고 1469년에 우의정으로 승진시켰다. 그 뒤 곧 좌의정이 되었다가 이듬해 영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성종이 즉위하자 좌리공신(佐理功臣) 등이 되어 무송부원군 겸 예조판서(茂松府院君兼禮曹判書)에 봉해졌다. 그리고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1476년(성종 7) 다시 우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그의 후손들이 임진왜란 때 보령에 입향하여 세거하여 왔으며, 웅천 관당리 문헌사(文憲祠)에서 제향한다. 이 사우는 원래 1494년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에 건립되었으나, 그곳에 사는 후손들이 쇠락하여 관리가 부실해짐에 따라 1725년 웅천읍 소황리 지역에 사는 윤자운의 후손들이 위패를 모셔다가 웅천 소황리에 재 건립하였다. 그러나 소황리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1992년 현 위치인 웅천 관당리에 다시 세웠다.

○ 윤직(尹潑 1619~1681)

본관은 무송(茂松)으로 문헌공 윤자운(尹子雲)의 후손이며, 자는 청원(淸源)이다. 부호군 윤인필(尹仁湲)의 3남으로 태어났다. 인조 14년(1636) 18세로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과(副司果)에 이르렀다. 그후 용양위오위장(龍驤衛五衛將)으로 소현세자를 도와 인조19년 수하병사를 이끌고 영병장(領兵將) 유림(柳琳) 장군을 도와 금주성(지금의 금산)에서 청병(淸兵)과 교전하여 금주성 방어에 공헌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웅천 소황리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에 대한

수령의 수탈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기도 했다. 사후에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에 증직되었으며, 웅천 독산리에 묘소가 있다.

○ 이경백(李慶伯 1561~1580)

본관은 한산이고, 영의정 이산해의 장자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문장에 능하였다. 사마시에 오르고 그후 문과에 급제, 앞날이 촉망되었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 이경석(李慶錫 1685~?)

본관은 한산이다. 토정 이지함의 7대손이다. 1711년(숙종37)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장령에 올랐다.

○ 이경재(李景在 1800(정조 24)~1873(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계행(季行), 호는 송서(松西)·소은(紹隱). 태중(台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학영(學永)이고, 부친은 현감 희선(羲先)이다.

1822년(순조 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그 뒤 규장각직각을 비롯하여 이조참의·이조참판·평안도관찰사·대사간·대사헌·부제학·한성판윤 등 내외 요직을 역임하고 고종 대에 이르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그의 묘소가 청소면 죽림리에 묘비와 함께 있었는데 2004년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그는 보령 한산이씨 입향조인 이치(李穰)의 형인 이질(李秩)의 후손이다.

○ 이경전(李慶全 1567~164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 치(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지번(之蕃)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산해(山海)이다.

1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0년(선조23) 24세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96년 예조좌랑·병조좌랑을 지내고, 1608년 정인홍(鄭仁弘) 등과 함께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옹립을 꾀하는 소북 유영경(柳永慶)을 탄핵하다가 강계에 귀양갔다.

이해 광해군이 즉위하자 풀려나와 충흥도(忠洪道)·전라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1618년(광해군10) 한평군(韓平君)을 습봉(襲封)하고 좌참찬에 올랐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서인들과 사귀어 생명을 보전하고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였다.

이어 한평부원군(韓平府院君)에 진봉되고, 1637년에 장유(張維)·이경식(李景奭) 등과 함께 삼전도(三田渡)의 비문 작성의 명을 받았으나 병을 빙자하고 거절하였으며, 1640년 형조판서를 지냈다. 문필이 뛰어나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로는 《석루유고》가 있다.

그의 묘소가 보령 주교면 고정리 고만 선영에 있다.

○ 이경탁(李慶倬 1572~1612)

본관은 한산이고 호는 반금(伴琴)이며 충간공 이산보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평안감사, 시강원 사서, 사간원 정언을 역임했다. 광해군 때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직언을 하였다가 외직인 함경도사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41세로 사망했다.

○ 이경회(李慶會)

조선 선조 때의 공신이다. 그는 호를 백운처사(白雲處士)라고 하였으며, 본관은 한산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서행(西幸)할 때, 백의(白衣)로 호종(扈從)하여 그 녹훈(錄勳)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 이고(李阜, 1588~1664)

본관은 한산이고 이경전의 셋째 아들로 호는 유봉(酒峯)이며, 1623년 사마시에 오르고, 그 학문이 세상에 알려졌다. 광해군조에 이이침을 제거할 것을 상소하는 등 끝은 절개가 추상같았으나 그 후 세상을 한탄하고 벼슬길에는 나서지 않은 채 고향에 머무르면서 학문을 벗삼아 여생을 마쳤다. 묘소는 아산 신창에 있다.

○ 이공준(李公俊)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홍주이며, 목사공과의 15세손으로 선조 때 사마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중에는 경상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했으며, 뒤에 호조판서를 역임 의정부좌찬성에 올랐다. 그는 출천지효(出天之孝)로 유명했다.

○ 이관식(李觀植 1769~1883)

조선후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전의이다. 정조 24년에 무과에 오르고, 순조8년 경상수군 절도사를 역임하고 가선대부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올랐으며 순조 30년 중추부동지사에 이르렀다. 병조참관에 증직되었다. 조선 중기 무신 지형(枝馨)의 6대손이며 세선(世選)의 5대손이다. 묘는 남포 대덕동(현 봉덕리 대덕굴)에 있다.

○ 이교면(李敎冕 1853~1921)

본관은 전의이고 희승(熙昇)의 아들이다. 조선 고종 때의 무관이다. 고종 10년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도총부도사, 남해현감, 상원군수겸 평양진관병마동첩절도사(祥原郡守兼平壤鎭管兵馬同僉節度使)에 별군관(別軍官)을 거치며 공을 세워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묘는 비인 남당리에 선영에 있다.

○ 이교원(李敎元 1851~1938)

호는 우송당(又松堂) 본관은 전의이다. 응식(應植)의 손(孫)이다. 고종 5년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도정선전관(都政宣傳官), 오위도총부경력(五衛都摠府經歷), 남포현감을 역임하고, 당상선전관(堂上宣傳官), 위원군수,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을 지낸 후 고종 31년에 절충장군겸황해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묘는 남포 대덕동에 있다.

○ 이구(李久 1586~1609)

본관은 한산이고 이경전의 차자로 호는 후곡(後谷)이며, 18세에 사마시에 오르고, 검열에 뽑혔으며 20세에 증광문과에 합격했으나, 24세에 조졸했다. 이후의 동생이며, 묘소는 단양에 있다.

○ 이규덕(李圭憲 1816~?)

조선말기 고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기재(杞齋)이다. 남포현의 익재공파 인물이다. 부친은 이정영(李鼎榮)이다. 고종 2년(1865) 식년시에 병과로 합격하고 찰방, 정언을 역임했다.

○ 이기(李夔)

본관은 수안으로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문신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군수를 역임하였다. 중종반정 때 유순정과 함께 적극 참여하여 중종반정 후 정국공신(靖國功臣) 요산군(遼山君)에 올랐다. 그후 자헌대부겸지의금부오위도총부도총관(資憲大夫兼知義禁府五衛都摠府都摠管)에 올랐다. 만년에 보령 청소면에 낙향하였고, 후손들이 세거하여 왔다. 청소면 죽림리 죽하마을에 그의 사당인 요산사(遼山祠)가 있다.

○ 이대충(李大忠)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보문(寶文)이고 임영대군의 후손이다. 인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찰방을 역임하였다. 그 후 국운이 어지러울 때 인조를 남한산성에 호위하여

모시고 침략해 오는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으나, 끝내는 중과부적으로 분전하다가 1637년(丁丑年) 전사한 무인이다. 나라에서 그의 공을 가상히 여겨 포상하려 했으나 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훈록을 공표하지 못하고 원종훈(原從勳)에 기록하였을 뿐이다.

○ 이덕온(李德溫 1562(명종 17)~1635(인조 13))

조선 중후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화(士和), 호는 구촌(龜村). 임영대군 구(臨瀛大君璆)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호남군 뇌(湖南君雷)이며, 어머니는 경주정씨(慶州鄭氏)로 군수 한원(漢元)의 딸이다.

1585년(선조 18) 사마시에, 159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경까지 임금을 호종하고 세자책봉으로 민심을 수습하도록 건의하였다. 성균관 학유에 임명되고, 세자를 용강으로 배종하였다.

그 뒤 승문원박사·주서를 지내고, 1593년 환도하여 호성훈(扈聖勳)을 받았다. 그 뒤 예조·병조의 낭관, 사예·전적·수찬·필선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북청판관·성주목사 등을 거쳐, 1606년 동래부사에 임명되어 비변책(備邊策)을 상소, 임금의 가납(嘉納)을 얻었다.

1607년 동부승지를 거쳐 우부승지에 올랐으나 1608년 광해군이 즉위,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박해하자 직간하여 대북파에 의하여 관직이 삭탈되었다. 보령 주산면 증산리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 뒤 관직이 복귀되었고, 곧 울산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주산 증산리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다음해 이괄(李适)의 난에 임금이 공주까지 내려가자 나아가 호종하고 난이 평정되자 다시 병을 핑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저서로는 유집 20권과 유어(類語) 40권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는 것은 5권 2책의 《구촌집》이 있다.

그가 만년에 써서 충청수영 영보정에 걸려진 영보정효등왕각체계해현판은 명작으로 꼽힌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지역에 세거해 오고 있다.

그의 묘와 재실이 주산면 증산리에 있으며, 묘소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이장 될 위기에 처했으나, 축대 보강을 한 후 남겨 놓아 도로 옆에 위치하게 되었다. 1997년 마을 입구에는 그의 행장을 바탕으로 만든 사적비가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 이도중(李度中)

조선말기의 학자이다. 호는 신재(新齋)이고,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현종조에 은일(隱逸)로 세마(洗馬)에 올랐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남당의 성리학을 따른 학자이다.

문집인 신재집(新齋集)이 있다. 한원진의 학문을 철저히 존송하여 사후에 남당영당(南塘影堂)에 배향되었다.

○ 이동근(李東根 1644~1712)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생부는 무(裘)의 아들인 인빈(寅賓)으로 당숙 오빈(梧賓)에게 출계하여 이경전의 사증손(嗣曾孫)이 되었다. 1669년 사마시 합격, 1689년 증광문과에 합격하고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 근무할 때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원으로 있던 지역에 선정비가 있다고 한다.

○ 이두현(李斗鉉)

조선후기 무신이다. 본관은 수안(遂安)이고, 순조 32년에 청소면에서 출생하였다. 무과에 급제하고 공주중군(中軍)과 원주중군을 지냈으며, 뒤에 운봉현감을 거쳐 충청수사, 친군해방영병방검가선대부검지훈련원사여산부윤(親軍海防營兵房兼嘉善大夫兼知訓練院事礪山府尹)을 역임하였다,

○ 이두훈(李斗薰)

본관은 전주이고, 청라면 의평리 출신이다. 고종 24년 벼슬이 사헌부감찰에 이르고, 고종 35년 비인군수로 부임해서는 5년간 치민(治民)하여 칭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가 이임하던 날에는 많은 군민이 성밖에 부복하여 재임을 호소했다 한다. 1907년 융희 1년에는 비서감(秘書監)에 이르렀다. 비인에 그의 선정비가 있다.

○ 이래(李來, 362(공민왕 11)~1416(태종 16))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경주, 초명은 래(徠). 자는 낙보(樂甫)·안국(安國). 아버지는 우정언(右正言) 존오(存吾)이다. 1371년 아버지 존오가 신돈(辛旽)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유배되어 율화병으로 죽고, 이어 신돈이 처형되자, 10세의 어린 나이로 전객녹사(典客錄事)에 특임되었다. 1383년(우왕 9) 문과에 급제하고, 공양왕 때에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에 올랐다. 1392년(공양왕 4) 정몽주가 살해되자, 그 일당으로 몰려 계림(鷄林)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서 공주에 은거하였다.

1399년(정종 1) 좌간의대부로 등용되고, 이듬해인 1400년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추충좌명공신(推忠佐命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곧 좌군동지총제가 되었고, 계림군(鷄林君)으로 봉작되었다. 1402년(태종 2) 첨서승추부사(僉書承樞府事)가 되었다가 그 해 대사간을 거쳐 공조판서에 승진되었다.

이듬해에 예문관대제학이 되었고, 1407년 경연관을 거쳐 세자의 스승인 좌빈객(左賓客)을 지냈으며, 1408년에 지의정부사 겸 판경승부사에 이르렀다. 태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경절(景節)이다.

○ 이만(李滿 1660~1730)

본관은 한산이고 호는 석정(石亭)이다. 이지함의 6대손이며 정래(禎來)의 아들이다. 숙종 36년(1710)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다. 묘소는 주교면 고정리에 있다.

○ 이몽규(李夢奎 1510~1563)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천휴당(天休堂)이다. 1510년 서울 백악산 아래 장의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신중하여 대인(大人)의 기품을 보였고, 총명하여 일찍부터 글을 읽어 10세에 대의(大義)에 통하고, 학문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중종 경자년(庚子年)에 약관(弱冠)의 나이에 사마시에 응시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당시 시국의 어수선함을 보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장인 김극성(金克成)이 벼슬을 권했으나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평소 부귀와 영달에 뜻이 없고 전원생활을 동경해 오던 그는 장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처가의 별장이 있는 보령으로 낙향하였다.

보령의 집 후원에 서실(書室)을 마련하고 현관을 천휴당(天休堂)라 하였다. 서실에서 서책(書冊)을 벗하며 산천을 유람하며 덕성을 넓혔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에게 학문과 덕행을 깨우치니 그의 이러한 생활 모습에 대한 칭송이 인근에 자자하였다. 또한 성균관에 가서는 여러 선비들로부터 중망(重望)을 받았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는 여러 사람의 우려림의 대상이 되었다. 1563년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몽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 장례를 돕고, 상복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부녀자들까지도 슬퍼하였다 하며, 고을 사람들은 육식과 가무를 삼감이 한 달을 넘었다 한다.

1721년 보령 청라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배향하였다.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에 추증되었다. 율곡 이이가 지은 행장록(行狀錄)이 있고, 묘는 보령시 죽정동에 있으며 죽정동 대로변에는 신도비가 있다.

○ 이몽열(李夢說 1542(중종 37)~1607(선조 40))

조선 인조 때의 문인이다. 호는 둔옹(遯翁)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완원군(完原君)의

현손이다. 인조 때 부흥 도정(博興都正)으로 청난공신(淸難功臣)에 올라 원중훈에 녹하였다. 그후 보령에 하향하여 조존성(趙存性) 이상우(李商雨)와 더불어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도의(道義)와 향풍(鄉風)을 교화하고 향약을 제정하는 등 공로를 많이 남겼다.

○ 이무(李袤 1600(선조33)~1684(숙종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연지(延之), 호는 과암(果菴). 조부는 이산해(李山海), 아버지는 이경전(李慶全)이다. 부인은 유희발(柳希發)의 딸이다. 자신의 형들이 문재가 있어 일찍 관직에 나가 요절한 관계로 늦게 과거에 응시하여 1629년(인조 7)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641년 정언(正言)에 이어 지평이 되었다. 1649년 허목(許穆)과 같이 폐고(弊錮)되었다가 복직하여 해미현감, 지평, 서천군수 등을 역임했는데 서천군수 재임 시절에는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칭송을 받기도 했다.

1660년(현종 1) 대사헌 대사간을 지냈으며 이때 복상(服喪) 문제로 남인(南人)의 윤선도와 일을 함께 하다가 그가 유배되자 사직했다가 1675년에 다시 대사헌에 이어 이조참의가 되었다. 이때 정여립(鄭汝立)의 난, 즉 기축옥사에 연좌되어 처형된 백유양(白惟讓)의 신원과 정개청(鄭介淸)의 서원복구를 상소하였다. 그 후 행사직(行司直)·이조참판·대사성·대사헌·우참찬·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680년(숙종 6)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으로 관직이 삭탈되었고, 이성(利城)·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고향 보령으로 돌아와 85세로 사망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관직이 회복되었다. 묘소는 보령시 대천동에 있다.

○ 이민제(李敏躋 1686 숙종12~1742 영조18)

자는 사구(士求), 본관은 전주이다. 1717년(숙종 43) 33세 때 사마시에 급제하여 능주 목사(綾州牧使)를 역임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목사 언유(彦維)의 아들이다. 묘는 주산면 창암리 남전에 있다. 참봉 태제(泰躋)의 차남 창수(昌壽)를 계자로 삼았다.

○ 이방일(李邦一 1724~1805)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관보(寬甫). 증조가 세선(世選)이다. 1763년(영조 39) 영흥부사를 지냈으나 파직당하여 단천에 유배되었다. 1766년 경상좌도수군절도사가 되고, 1769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영광군수를 역임하고, 1773년 남양부사를 지냈다. 1776년(정조 즉위년) 경기도수군절도사에 이어 1778년 좌포도대장이 되었으나, 1779년 관내의 무녀(巫女)들을 단속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당하였다.

곧 어영대장에 복직되었으나 1780년 궁궐의 경비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삭직되었다가 1782년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다. 1784년 우포도대장이 되고 이어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랐으며, 1786년 총용사가 되었으나 평해현에 유배당하였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789년 다시 어영대장에 임명되었으나 곧 파직되었으며, 1791년 다시 총용사·어영대장·금위대장을 거쳐 대호군에 이르렀다. 묘는 선영인 비인 남당리에 있다.

○ 이사주(李思周)

본관은 공주이고 조선초기의 무인이다. 성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수군절제사에 올랐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여 무인의 귀감이 되었으며, 황해도 수군 절도사에 올랐다. 만년에는 관직을 버리고 보령시 청소면에 낙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 이산광(李山光 1550~162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는 죽림처사(竹林處士) 또는 동계(東溪)이며, 본관은 한산이다. 영의정 이산해의 동생이다. 국가의 종계(宗系)를 바로잡고, 정여립 사건에 공을 세워 광국·평난(光國平難)원종훈(原從勳)에 녹(錄)되었고, 선조의 의주 행차에 호성하기도 했다. 음사로 참봉, 사평 등을 거쳐 홍산현감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 이이첨이 폐모론을 주장하자 종손 이부(李阜)와 함께 이이첨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이첨의 면전에서 그를 공박하였다가 배척당하여 오서산 아래 청라 금자동으로 낙향하여 귀학정을 짓고 시주(詩酒)로 소요하였다. 구봉 송익필과 친분이 두터웠다. 김복한이 지은 묘비명이 있다.

○ 이산두(李山斗 1680(숙종 6)~1772(영조 4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자양(子仰), 호는 나졸재(懶拙齋), 할아버지는 명길(鳴吉)이고, 아버지는 필(泌)이다.

1714년(숙종 40)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732년(영조 8)에 유생으로 강경거수(講經居首)가 되어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혜를 받았다. 이듬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1758년에 판결사를 역임하였다.

그 뒤 1767년에는 참판에서 지중추부사로 추천을 받아 이듬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일찍이, 시위(試闈)에 들어가 강(講)을 하였는데 한 자를 잘못 읽었음을 깨닫고 강이 끝나면서 이 사실을 실토하자, 대관이 놀라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밝히려 하느냐고 하였다.

그는 남이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여 나 자신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겠는가라고 하여 듣는 이들이 경탄하였다. 남포현감(藍浦縣監)으로 천거되어 현감을 역임하면서 외직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겨우 초옥 몇 칸만 남게 되었는데, 남들은 그가 새로 관직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영조조의 청백리였다.

기로소에 들어갔을 때 영조는 그를 자주 볼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공인에게 그의 도상(圖像)을 그려 오라 하고, 원손에게 ‘九十歲像’이라는 네 글자를 쓰게 하였다. 시호는 청헌(淸憲)이다.

○ 이산보(李山甫 1539(중종 34)~1594(선조 2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거(仲擧), 호는 명곡(鳴谷). 증 영의정 색(穡)의 7대손이며, 할아버지는 치(穉)이고, 아버지는 지무(之茂)이며, 어머니는 능성구씨(綾城具氏)이다. 작은아버지인 지함(之菡)을 사사하였다. 1567년(명종 22) 사마시를 거쳐 1568년(선조 1) 증광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의 추천으로 춘추관에 들어갔다. 그 뒤 전적(典籍)·해미현감·정언 등을 지냈으며, 왕명을 받고 순안어사(巡按御史)로 북도(北道)를 순찰하고 돌아와 수찬·교리·지평··헌납·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577년 양모의 상을 당해 관직을 사직하고 서천에 돌아갔다가 다시 사인·집의·사간·응교·직제학 등을 지냈으며, 당론을 끝까지 진술하다가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종부시정에 좌천되었다. 1년 뒤 다시 집의로 전임했고, 이어 동부승지·대사간·우승지를 지냈다.

1585년 부제학 김우옹이 이이·정철을 논박하자 이를 반박해, 선조로부터 충절이 있다는 칭찬을 받고 대사헌으로 특진하였다. 뒤에 이이·박순·정철의 공적을 논하다가 사간원의 탄핵으로 경상도와 황해도의 관찰사로 전직되었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인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대사간의 자리에서 난국을 수습하고, 이듬 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1591년 황해도 관찰사로 있다가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 등 서인이 화를 당하자 이에 연루, 곧 파직되어 고향인 보령에 내려가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扈從)했고, 대사간·이조참판·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명나라 군대가 요양(遼陽)에 머물면서 진군하지 않자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을 설득해 명군을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북도와 삼남지방의 도검찰사(都檢察使)로 나가, 지난날의 선정에 감복한 도민들의 적극 협조로 무사히 해결하였다. 1594년 대기근이 들자 동궁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구휼에 힘쓰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에 추봉되었다.

보령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신도비와 묘소가 보령 주교면 고정리에 있다.

○ 이산해(李山海 1539(중종 34)~1609(광해군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이다. 조부는 치(禰)이고, 부친은 내자시정(內資寺正) 지번(之蕃)이다.

어려서부터 작은아버지인 지함(之菡)에게 학문을 배웠다. 1558년(명종 13) 진사가 되고, 156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등용되고, 이듬 해 홍문관정자가 되어 명종의 명을 받아 경복궁대액(景福宮大額)을 썼다. 이어 부수찬이 되고 1564년 병조좌랑·수찬, 이듬 해 정언을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다.

1567년(선조 즉위년) 원접사종사관(遠接使從事官)으로 명나라 조사(詔使)를 맞이한 뒤 이조정랑·의정부사인·사헌부집의·상의원정(尙衣院正)·부교리를 역임하고, 직제학이 되어 지제교를 겸하였다. 이어 교리·응교를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마친 뒤 1570년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다. 1577년 이조·예조·형조·공조의 참의를 차례로 지내고 대사성·도승지가 되었다.

1578년 대사간이 되어 서인 윤두수·윤근수 등을 탄핵해 파직시켰다. 다음 해 대사헌으로 승진하고 1580년 병조참판에 이어 형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오르고, 다시 이조·예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제학·대제학·판의금부사·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를 겸하였다. 1588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 무렵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다음 해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으며,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책록되고,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이듬해 정철이 건저(建儲) 문제를 일으키자 아들 경전으로 하여금 정철을 탄핵하여 강계로 유배시켰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호조판서 윤두수, 우찬성 윤근수 등 서인의 영수급을 파직 또는 귀양보내고 동인의 집권을 확고히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해 개성에 이르렀으나, 나라를 그르치고 왜적을 침입 하도록 했다는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고 파면되어 백의(白衣)로 평양에 이르렀으나, 다시 탄핵을 받아 평해(平海)에 중도부처(中途付處)되었다.

1595년 풀려나서 영돈녕부사로 복직되고 대제학을 겸하였다. 북인이 다시 분당 때 이이첨·정인홍 등과 대북파가 되어 영수로서 1599년 재차 영의정에 올랐다.

이듬 해 파직되었다가 1601년 선조가 죽자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맡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신동으로 불렸으며, 특히 문장에 능해 선조조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서화도 잘해 대자(大字)와 산수묵도(山水墨圖)에 뛰어났으며, 용인의 조광조묘비와 안강의 이언적 묘비를 썼다. 이이·정철과 친구였으나 당파가 생긴 뒤로는 멀어졌다. 저서로 《아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의 묘소는 처음에는 보령 귀두리(歸頭里, 현 갈머리)에 있었으나, 예산 대술면으로 옮겼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과 예산에 세거한다.

〈이산해 설화〉

조선 선조 때의 명신 이산해에 관한 설화로. 이산해 탄생담과 동서 분당을 예언한 이야기가 있다. 이산해의 아버지 이지번이 명나라에 사신이 되어 갈 때 산해관에서 유숙하면서 집에 있는 부인과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지번의 부인도 같은 날 남편과 동침하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이산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안에서는 이지번의 부인을 의심하여 내치려 하다가 이산해의 삼촌 이지함의 만류로 참았는데, 이지번이 귀국하여 꿈꾼 사실을 말하여 부인의 결백함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꿈꾼 곳의 이름을 따서 ‘산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었고 몽중행위가 현실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위대한 인물에 결부된 신이한 출생담의 성격을 가진다.

이산해는 남사고(南師古)와 송송정(宋松亭)에 앉아 서쪽으로 안령(鞍嶺)과 동쪽으로 낙봉(駱峯)을 가리키며 뒷날에 조정에 반드시 동서의 당(黨)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가 《어우야담 於于野譚》에 전한다. 그밖에 이산해의 본관인 한산이씨의 후손이 창성하게 된 유래를 말한 풍수설화 등이 있다.

○ 이석현(李奭鉉)

본관은 수안이고 현종 11년(1845)에 출생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부호군을 거쳐 첨중추 삼척영장 절충장군(僉中樞三陟營將折衝將軍)에 이르렀다.

○ 이성룡(李成龍 1600~1653)

본관은 농서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구원군 장수였던 이여매의 손자이며, 이여송의 종손(從孫)이다. 명과 후금의 1616년 심하지역(深河之役)에 부친 헌중(憲忠)과 함께 출전했다가 명군이 패하자 조선으로 피신해 왔고, 명나라의 계속되는 송환요구를 피하여 옥성부원군 장만(張晩)의 주선으로 충청수사 백선남에게 의지하여 청소면에 피신하여

살았다. 이때 청소면의 진주강씨 강수남(姜壽男)의 딸과 혼인하였고, 훗날 후손들이 강화도 부근으로 이주하여 우리나라 농서이씨를 이루게 되었다. 그의 묘는 청소면 야현리 따블 마을 뒷산에 있다.

○ 이세욱(李世煜)

1654년생으로 호는 매창(梅窓)이고, 본관은 전주다.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문인으로 학문이 깊었으며, 행의(行義)가 단정하여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숙종 19년(1693)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 이승익(李承益 1812~1869)

본관은 한산이고 호는 서호(西湖)이다. 1840년 사마시 합격, 헌종 10년(1844)에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으로는 이조참판에 올랐다. 문집이 있다, 영의정 이태종의 증손으로 보령에 살았다.

○ 이승춘(李承春)

본관은 우봉(牛峯)이고, 조선 성종조의 문신이다. 황해관찰사를 지낸 길배(吉培)의 손자이며, 생원으로 문과에 올랐으며, 연산군조 1504년에는 옥당(玉堂)에 올라 예리한 논조로 국사를 논하였으며, 벼슬은 성균관대사성에 올랐다. 갑자사화에 집안이 연루되어 손자와 함께 미산 늑전리로 은거했다. 묘소는 늑전리에 있다.

○ 이승호(李承浩)

조선 선조 때의 무신이다. 본관은 공주(公州)이고, 선조 28년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때는 중군하여 여러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그는 벼슬이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에 오르고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선조조에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는 등 무신으로서 공을 많이 세우고는 만년에 보령 청소에 낙향하여 여생을 마쳤다.

○ 이시방(李時昉 1594(선조 27)~1660(현종 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명(季明). 호는 서봉(西峯)이다. 아버지는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귀(貴)이며, 영의정 시백(時白)의 아우이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유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담해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군사를 모아 반란군을 토벌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로 피란하기에 앞서 순검사가 되어 먼저 강화에 가서 군비를 정비하고 경계를 엄히 했다. 왕이 도착한 뒤에는 8도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듬해 광주목사로 남한산성방어사를 겸했다. 1632년 한성부의 좌·우윤이 되었다. 이어 인목대비가 죽자 국장도감과 산릉도감의 제조가 되었다. 1636년 나주목사로 나갔다가 전라도관찰사로 승진했다.

이 때 조정에서는 남도의 군사를 동원해 평안도를 방어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양서(兩西)의 백성을 모아 대처하도록 하고 남도민은 군량미 조달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호란이 일어날 조짐이 뚜렷해지자 입암산성(笠巖山城)을 수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즉시 군사를 동원해 남한산성의 위급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죄로 정산(定山)에 유배되었다. 1640년에 사면되어 제주목사로 나갔다. 이듬해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광해군이 죽자 손수 염습하였다.

1642년 병으로 직책을 그만두었으나 겨울에 광주수어사(廣州守禦使)가 되었다. 그러나 심기원의 역변(逆變)이 일어나, 그의 형 시백과 함께 관계되었다는 흉서사건으로 해를 입었다.

1647년에는 병조참판이 되고, 가선대부에 승계(陞階)되었다. 이듬해 공조판서에 올랐다. 1649년 인조가 죽자 산릉제조를 거쳐 형조판서가 되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고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10월 사은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들어가 외교 수완을 발휘해,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도록 했다. 다시 수어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 뒤 공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고, 김자점(金自點)의 모역사건이 일어나 그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현종이 즉위하자 공조판서로서 판의금부사를 겸하여 재차 호남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개수하다가 이듬해에 병으로 죽었다. 저서로는 ≪서봉일기≫가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그의 묘소와 신도비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숲재(牛峙)에 있다.

○ 이심(李深 1666~1720)

본관은 한산이다. 이지함의 6대손이며 정래(禎來)의 아들, 이만의 동생이다.

숙종 31년(1705)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울산부사를 역임하였다.

○ 이심현(李心鉉)

본관은 수안이고 철종 5년(1854)에 출생하였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오위도총부사용(五衛都摠府司勇)을 거쳐 사맹(司猛)에 올랐다.

○ 이언유(李彦維 1652 효종3~1711 숙종37)

자는 지경(持卿) 본관은 전주이다. 사마(司馬)와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역임하였으며, 증이조판서이다. 사헌부 지평 백린(伯麟)의 아들이다. 묘는 주산면 창암리 남전에 있다.

○ 이영견(李永肩 1403(태종 3)~1482(성종 13))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수안(遂安). 호는 석재(石齋). 완(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갑인(甲仁)이고, 아버지는 구로(求魯)이다.

일찍이 생원이 되고, 1429년(세종 1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1445년 이조정랑이 되고, 1447년 병조정랑으로 연분답험(年分踏驗 : 세금을 매기기 위하여 실제로 생산 현장을 조사함)차 전라도에 파견되었다. 1454년(단종 2) 좌사간·우사간을 거쳐, 1456년(세조 2) 첨지중추원사가 되었다.

이어서 예조참의·이조참의를 거쳐 1464년 인수부윤(仁壽府尹)이 되었다. 1470년(성종 1)부터 4년간 나주목사로 재직하였는데, 때마침 기근이 들어 정부의 금지책에도 불구하고 장문(場門)이라는 시장이 개설되자 수령으로서 금압하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홍문관교리를 거쳐 응교에 이르렀으며, 뒤에는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성품이 청렴결백했으며, 학문이 고결하고 특히 시문이 뛰어났다.

○ 이에환(李禮煥 1772~1837)

호는 난국재(蘭菊齋)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웅천 수부리 출생으로 익재 이제현의 후손이다. 15세에 성당 정혁신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숙재 조병덕과 도의로 교류하였으며, 빈궁을 극복하고 학문에 진력하여 경사에 밝은 학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학행으로 나라에서는 고종조에 지평(持平)에 증(贈)하였다. 마을에서는 향음례(鄉飲禮)를 자주 주도하여 일가끼리 화목하고 충효를 권장하며 교육과 풍속을 바르게 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율곡, 김장생, 송시열, 한원진의 학통을 계승하여 그 정통성을 보령 남포지방에 확립시켰다. 유고집으로 난국재집(蘭菊齋集)이 있다.

○ 이완(李琬 1577~1648)

본관은 전주이며, 부친은 완원군의 증손인 부흥도정(傅興都正) 몽열(夢說)이다. 증봉 조현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음사로 사섬시주부(司贍寺主簿) 한성겸참군(漢城兼參軍)을

역임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파천할 때 진진(眞展)을 모시고 영변까지 갔다가 종씨(從氏)가 부산진 전투에서 정발(鄭撥)과 함께 순절하고, 중씨(仲氏)가 금산전투에 조헌(趙憲)과 함께 순절하자 하직하고 내려와 파주의 선영에 의혼묘(義魂墓)로 모셨다. 부친 몽열이 보령에 거주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어 만년에 보령에 은거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보령지역의 전주이씨 완원군파를 이루며 세거해 오고 있다, 그의 묘소는 보령시 화산동 화현에 우부승지를 역임한 송영대(宋榮大)가 짓고 성군관장 최익(崔益)이 써서 1917년 세운 묘비와 함께 있다.

○ 이완(李浣 1668~1730)

본관은 한산이고, 이지함의 6대손이다. 정래(禎來)의 아들이며, 이만, 이심의 동생이다 1693년 사마시에 합격, 숙종28년(1702) 식년시에 합격하고, 사헌부지평을 역임하였다.

○ 이완진(李完鎭)

본관은 전주이고 이원익의 후손으로, 호는 오운(梧雲)이다. 생원으로 벼슬길에 올라 좌랑과 현감을 지냈다.

○ 이용(李榕 1687~1737)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창여(暢汝), 초명은 근(根)으로, 공조판서 이유민의 아들이다. 1721년 식년시에 급제하고 사간원 사간, 승정원 우부승지를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 삼척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 평생을 효우와 청렴결백으로 살았다. 웅천 소황리에 묘가 있다.

○ 이우명(李遇明 1804~1863)

본관은 연안, 자는 경소(景昭), 호는 광현(廣軒)이다. 강재(剛齋) 송치규(宋釋圭)의 문인이다. 청라에 살면서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 영의정을 지낸 남공철(南公澈), 대사성 소식(小石), 김우순(金遇淳) 등과 교유한 유학자이며 시인이다. 그의 시문집인 필사본 광현시집(光軒詩集)이 전해오며, 청라 가소정에 그의 시가 게시되어 있다.

○ 이원백(李源白)

본관은 수안이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공을 세워 절충장군이 되고 충익위장(忠翊衛將)에 올랐다.

○ 이원춘(李元春)

조선말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수안이고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에 이르렀다.

○ 이원태(李源泰)

본관은 수안이고 고종 1년(1864)에 출생하였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사용(司勇)·사맹(司猛)을 거쳐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올랐다.

○ 이유민(李裕民, 1658(효종9)~1729(영조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덕유(德裕). 개국공신 지란(之蘭)의 후손이며, 명로(明老)의 증손, 문주(文柱)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핵(翮)이며, 어머니는 이승효(李承孝)의 딸이다. 이승효는 이몽규의 증손자이다.

1696년(숙종 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병조좌랑·부안현감을 거쳐 홍주목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은 권문세가의 횡포를 조정에 알려 토지를 백성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충주·의주 등 각 지방관을 지내고, 수원부사가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림으로써 왕으로부터 표리(表裏 : 속과 겉의 옷감)가 하사되었다.

1714년 지평·장령·정인 등을 거쳐 1718년 승지에 이어 형조참의가 되고, 이듬해 여주목사, 뒤에 함경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721년(경종 1) 한성부좌윤, 이어 형조참판이 되었다. 이 해 이진유(李眞儒) 등 소론에게 배척을 당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 보령 웅천(당시 남포)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1725년(영조 1) 사직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병조판서에 특진되고,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728년 공조판서로서 이인좌(李麟佐)의 난의 평정을 도와 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도총관·지의금부사를 지냈다. 뒤에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이유민의 외가는 보령 이몽규가였고, 처가는 웅천 소황리의 강릉최씨가였던 관계로, 보령지역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그의 묘소가 웅천 소황리에 있다.

○ 이응식(李應植 1787~1864)

조선후기의 무신이다. 호는 송윤(松潤), 본관은 전의이다. 정조 11년(1787)에 출생하여 순조 15년 무과에 오르고 홍양현감과 상주영장을 거쳐 선전관을 지내고 후천, 선천, 영변의 부사를 거쳐 통제사를 지냈다. 그후 동지중추부사에 오르고 포도대장, 총융사, 한성부좌윤, 병조·공조 참판, 지의금부사를 역임했으며, 승정대부에 배(拜)했다.

시호는 경숙(敬肅)이다. 조선 중기 무신 지형(枝馨)의 6대손이며 세선(世選)의 5대손이다. 묘소는 남포 대덕동에 있다. 봉덕리에 있던 고가(古家)인 이현구 가옥이 이응식의 집으로 전해오기도 한다.

○ 이의풍(李義豊 1693~1754)

조선영조 때의 무신이다. 자는 중성(仲星)이고, 본관은 전의이다. 벼슬이 영조 때 (1754) 어영대장(御營大將)에 이르렀다. 조선중기 무신 이세선(李世選)의 손(孫)으로 묘소는 경기도에 있다.

○ 이익현(李翼鉉)

본관은 수안이고, 조선후기의 무신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올랐다.

○ 이인기(李仁奇)

본관은 수원이다. 관직은 봉익대부 판밀직사(奉翊大夫判密直事)에 올라 치적을 남겼다.

○ 이인묵(李仁默)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전의로 부친은 이광익이다. 숙종 39년(1709)에 출생하여 영조 17년(174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서서는 봉사·직장을 거쳐, 외직으로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 이인빈(李寅賓 1625(인조 3)~1695(숙종 2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은경(殷卿), 호는 설루(雪樓).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경전(慶全)이고, 아버지는 판서 무(袤)이다. 어머니는 유희발(柳希發)의 딸이다.

1677년(숙종 3) 감시제에서 수석,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1678년(숙종 4)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679년 정언으로서 대사간 최문식(崔文湜), 헌납 이화진(李華鎭), 지평 이한명(李漢命)·배정휘(裴正徽), 정언 김준상(金雋相)과 합사하여 이유정(李有漬)의 옥사를 빌미로 송시열(宋時烈)을 예를 오도한 죄인으로 몰면서 안치형에 처할 것을 청했으나 가납되지는 않았다.

이 해 다시 대신 허적(許積)·민희(閔熙) 등과 함께 송시열을 안치형에 처할 것을 집요하게 청했으나, 역시 수락되지 않았다.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선발되고 정언·수찬·지평을 거쳐 6년에는 부수찬·장령을 거쳐 다시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정언 재직 때는 대사간 최문식과 함께 조지석(趙祉錫)을 탄핵하여 체차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경신환국(庚申換局)이 발생하여 남인이 대거 축출됨으로써 이후 약 10년 동안 침체해 있다가 기사환국 이후인 1691년에 다시 장령으로 기용되었다. 그 해 숙종이 현종(顯宗)의 능침(陵寢)을 살피기 위해 능행을 준비하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행차를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해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을 거쳐 약 2년 동안 장령으로 활동했고, 1693년 헌납을 거쳐 사간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는 허적(許積)과 가까웠고, 여흥 민씨 민암(閔黯) 가계와 통혼하는 등 대체로 탁남(濁南)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다. 묘소는 보령 관촌에 있다.

○ 이인정(李麟禎)

본관은 공주이고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다. 선조 때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경서에 몰두하다가 뒤에 외직으로 현감에 올랐다.

○ 이자(李滋 1683~1743)

본관은 한산이고 이지함의 6대손이다. 정래(禎來)의 아들이며, 이만, 이심, 이완의 동생이다. 숙종 34년(1708)에 식년문과에 합격하고 벼슬이 사간원정언에 올랐다.

○ 이정덕(李禎德)

본관은 한산이다. 숙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으로는 사헌부집의, 사간원사간에 올랐다.

○ 이정민(李貞敏 1556~163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자정(子正), 호는 옥계(玉溪). 아버지는 홍산현감 향성(享成)이다. 젊어서 박지화(朴枝華)에게 배웠고, 또한 이이(李珥)를 스승으로 섬겼다.

글솜씨로 이름이 있었는데 1590년(선조 23) 소과(小科)에 합격하였고, 1594년 이몽학(李夢鶴)의 난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홍주목사 홍가신(洪可臣)을 도와 난을 진압하는데 힘써 뒤에 청난공신(淸難功臣)에 녹훈되기도 하였다.

의금부도사·감찰 등을 역임하였고, 1619년(광해군 11) 당진현감 재직시 공홍도순검사(公洪道巡檢使) 권반(權盼)에 의하여 탐오수령으로 탄핵받으면서 관력을 마치게 되었다.

그가 거처하던 세심대(洗心臺)는 경치 좋기로 도성 내에서도 제일이었다 하는데, 광해군이 빼앗고 대신 벼슬을 주었으나 그는 이를 피하여 오서산(烏棲山) 아래로 돌아갔다. 만년에는 보령 옥계(玉溪)에 거주하고 이를 호로 삼았다. 날마다 일기를 썼고 이를 《파안록 破顏錄》이라 하였는데 시사문제를 꺼리지 않고 직필하였으니 사람들이 일컬어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 하였다. 청라 옥계리에 옥계정(玉溪亭)을 짓고 소요했으며, 그 옆의 석벽(石壁)에 ‘玉溪’ 2자를 새겼다.

○ 이정암(李廷菡 1541~160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중훈(仲薰), 호는 사류재(四留齋)·퇴우당(退憂堂), 서울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진사 달존(達尊)이고, 아버지는 사직서영(社稷署令) 당(宕)이다. 이조참판 정형(廷馨)의 형이다.

1558년(명종 13)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1561년(명종 16)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벼슬길에 나가 1565년 승정원주서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 성균관전적·공조좌랑·예조좌랑·병조좌랑, 이듬해 전라도도사를 역임하면서 치적을 올렸다.

이어 1571년 예조정랑·사헌부지평으로 춘추관의 직책을 겸임하고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연안부사가 되어 군적(軍籍)을 다시 정리했으며, 선정을 베풀어 부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 뒤 1587년 동래부사가 되어 내왕하는 일본인들의 폐단을 근절시켰다. 1591년 첨지중추부사·장례원판결사·승지·공조참의·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조참의로 있었는데, 선조가 평안도로 피난하자 뒤늦게 호종(扈從)했으나 이미 체직되어 소임이 없었다. 아우인 개성유수 정형과 함께 개성을 수비하려 했으나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져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황해도로 들어가 초토사(招討使)가 되어 의병을 모집해 연안성을 지킬 것을 결심하고 준비 작업을 서두르던 중 도내에 주둔한 왜장 구로다(黒田長政)가 5,000~6,000명의 장졸을 이끌고 침입하자, 주야 4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해 그 공으로 황해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1593년 병조참판·전주부윤·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596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죄수를 임의로 처벌했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다가 다시 지중추부사가 되고, 황해도관찰사 겸 도순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해서초토사(海西招討使)로 해주의 수양산성(首陽山城)을 지키기도 하였다. 난이 끝나자 풍덕에 은퇴해 시문으로 소일하다가 몇 년 뒤에 죽었다.

1604년 연안 수비의 공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월천부원군(月川府院君)에 추봉, 좌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연안 현충사(顯忠祠)에 제향되었다. 그리고 이몽학 난을 평정한 공로로 1922년 보령의 화암서원에 제향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이 보령에 거주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례초 喪禮抄》·《독역고 讀易攷》·《왜변록 倭變錄》·《서정일록 西征日錄》·《사류재집》 등이 있다.

○ 이정영(李鼎榮)

본관은 경주이고 익재공파이다. 주산 동오리에 살았다. 호는 우가현(尤可軒)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자라서는 난국재(蘭菊齋) 이예환(李禮煥)의 문인으로 수업하여 남당학파의 성리학을 따랐다. 고종조에 학행으로 동몽교관에 올랐으며, 문집인 우가현유고가 있다. 그의 아들 이규덕이 문과에 급제해서 정언 벼슬을 역임했다.

○ 이정익(李禎翊 1655(효종 6)~1726(영조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봉거(鵬舉), 호는 애천(崖軒)이다. 토정 이지함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필천(必天)이다. 1678년 사마시 합격, 1684년 식년문과 합격하고 예조참의,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경종조의 신임사화 때 무고로 삼수(三水)로 귀양갔다가 4년 만에 풀려나 경주부윤이 되었다. 경주부윤시에 고조부인 토정의 유고를 모아 『토정집』을 발간했다.

○ 이제암(李齊岳)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부친은 이천령(李千齡)이다. 영조 16년(1740) 증광문과에 오르고 벼슬은 승정대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 이제현(李齊賢 1287(충렬왕 14)~1367(공민왕 16))

고려 후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초명은 지공(之公),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 또는 역옹(櫟翁)이다.

1301년 성균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어서 과거에 합격하였다. 1314년 상왕인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원나라의 수도 연경(燕京)으로 가서 만권당(萬卷堂)에 머물게 됨으로써 그의 재원(在元) 생애가 시작되었다. 충선왕은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 원나라에 있으면서 새로이 만권당을 짓고 서사(書史)를 즐기며 원나라의 학자 문인들을 드나들게 하였는데, 그들과 상대할 고려측의 인물로서 이제현을 지명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제현은 중국의 유명 일류

문인들과 잦은 접촉을 통하여 학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1320년 고려에 들어와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가 되고,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그런데 그 해 겨울 충선왕이 참소를 받아 유배됨으로써 그의 재원생애도 6년 만에 끝나게 되었다. 충선왕의 유배로 인한 정세변화는 고려의 정치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뒤이어 고려의 국가적 독립성을 말살시키고 고려를 원나라의 내지(內地)와 같은 통치행정구역인 성(省)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 입성책동(入省策動)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제현은 1323년 원에 들어가 입성반대 상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

1324년 재상의 지위에 오른 후 1339년 조적(曹頤)의 난이 일어난 끝에 충혜왕이 원나라에 붙잡혀가자 그를 쫓아 원나라에 가서 사태를 수습하여 왕이 복위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1348년 충목왕이 죽자 원에 가서 왕기(王祺-공민왕)를 추대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지만 실패하였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여 새로운 개혁정치를 추진하려 할 때 정승에 임명되어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4번에 걸쳐 수상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1353년 지공거가 되어 이색(李穡) 등 35인을 등과자로 선발하였다. 1356년 친원과 기철(奇轍) 등을 제거하는 반원운동이 일어나자, 문하시중이 되어 사태수습에 나섰다 다음해에 치사하고 관직에서 아주 물러났다.

정치가로서의 이제현은 당시 고려가 원의 부마국(駙馬國)이라는 현실을 시인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존립과 사회모순의 극복에 노력하였다.

학자로서의 이제현은 뛰어난 유학자로 성리학의 수용·발전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그는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백이정(白頤正)의 제자였고, 그의 제자가 이곡(李穀)과 이색 부자였다는 학통으로 보아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성리학 뿐 만 아니라 문학부문에서도 대가를 이루어 많은 시문을 남겼다. 한편 빼어난 유학적 지식과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史略』을 저술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저술로 현존하는 것은 《익재난고(益齋亂藁)》 10권과 《역옹패설(櫟翁稗說)》 2권이다. 흔히 이것을 합해서 《익재집》이라고 한다.

목은 이색이 이제현의 묘지명을 지으면서 “도덕의 으뜸이요, 문학의 종장이다(道德之首文學之宗)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후세에 커다란 추앙을 받았고 경주의 금강서원, 금천의 도산서원에 제향되었다. 그리고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제현의 후손들이 조선초기 이래로 보령지역에 거주하였으며, 후손들에 의해 조선 후기 보령시 미산면에 그를 기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용암영당(삼사당)이 세워졌다.

○ 이조묵(李祖默 1792 정조16~1840 현종6)

자는 강다(絳茶), 호는 육교(六橋)이다. 이조판서 이병정의 아들이고, 이조판서 이창수의 손자이다. 학문과 예술에 조예가 깊어 시는 당나라 옥계 이상운을, 글씨는 진나라 산음 왕희지를, 그림은 원나라 대치 황공망을 배웠고, 금석학의 고증에도 조예가 깊었다.

당시 청나라의 대학자인 담계 옹방강을 만났을 때 시서화(詩書畵)가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평가 받았다. 저서로는 『나려낭림고(羅麗琅琳考)』 『육교고략(六橋考略)』 『탁비비결(拓碑秘訣)』이 있다. 묘는 주산면 창암리 남전에 있다.

○ 이종생(李從生 1423(세종 5)~1495(연산군 1).

조선 전기의 무신.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계지(繼之). 아버지는 병조판서에 추증된 극명(克明)이다. 1460년(세조 6)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갔다. 창신교위에 초수(超授)되었고, 북정(北征) 도원수 신숙주의 군관으로 공이 있어 선략장군이 되었다. 1461년 선절장군(宣節將軍)이 되어 의흥위대호군(義興衛大護軍)이 되었고. 1464년 어모장군이 되어 동관진첨절제사(潼關鎭僉節制使)가 되고, 1466년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다.

1467년 이시애의 난 때 북청 만령(蔓嶺)에서 위장(衛將)으로서 선봉에서 적(賊)을 대파한 공으로 개신 후에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함성군(咸城君)에 봉해졌다. 이듬 해 건주위(建州衛) 야인을 친 공으로 영변대도호부사가 되었다.

1473년 내금위장이 되었다가 이어 충청도병사가 되었다. 1479년 윤필상의 건주위 정벌 때 호분위장(虎賁衛將)으로 출전해 선봉으로 싸워 공을 세우고 부상을 입었다. 1481년 영안남도병사 겸 북청도호부사, 1485년 경상우병사가 되었다. 명장으로 주덕(酒德)을 겸했다는 평을 들었다.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 이준경(李浚慶 1499(연산군 5)~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皐)이다.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531년(중종 26)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한림을 거쳐 1533년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다. 1541년 홍문관직제학·부제학으로 승진되고 승정원승지를 지냈다. 그 뒤 한성부우윤·성군관대사성을 지냈고, 중종이 죽자 고부부사(告訃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1545년(인종 1) 을사사화 때는 평안도관찰사로 나가 있어 화를 면하였다.

1548년(명종 3) 다시 중앙으로 올라와 병조판서·한성부판윤·대사헌을 역임했으나 1550년 정적이던 영의정 이기의 모함으로 충청도 보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 해 석방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어 대사헌과 병조판서를 다시 지내고 형조판서로 있다가 1555년 을묘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도순찰사로 출정해 이를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우찬성에 오르고 병조판서를 겸임했으며, 1558년 우의정, 1560년 좌의정, 1565년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하성군 군(河城君鈞:선조)을 왕으로 세우고 원상(院相)으로서 국정을 보좌하였다.

이 때 기묘사화로 죄를 받은 조광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을사사화로 죄를 받은 사람들을 신원하였다. 1571년(선조 4)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선조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 이지번(李之蕃 1508~1575)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형백(馨伯), 호는 성암(省菴)·사정(思亭)·구옹(龜翁). 아버지는 관관 치(稹)이고, 지함(之菡)의 형이며, 선조 때 영의정 산해(山海)의 아버지이다. 천문지리에 모두 정통하였다. 인종 때 문음으로 추천되어 장례원사평이 되었으나 당시 윤원형이 국권을 잡아 횡포하므로 벼슬을 버리고 단양의 구담(龜潭)에 집을 짓고 정신을 수양하며 세월을 보냈다.

항상 푸른소 [靑牛] 를 타고 강가를 오르내리고 또 칩닝쿨로 큰 줄 [索] 을 만들어 구담의 양쪽 벽에 붙들어매고 날아가는 학을 만들어 매달아 타고 내왕하니 사람들이 보고 신선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선조 즉위 후에 청풍군수를 지냈다. 그의 묘가 보령 고정리 고만에 있다.

○ 이지인(李志仁)

본관은 수원이고 고려말 명현(名賢) 자송(子松)의 후예로, 이잠(李鋌)의 아들이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숙천부사까지 올랐다. 임진왜란 때 종군하여 진주성 싸움에서 왜군을 무찌르며, 치열한 싸움 끝에 중과부적으로 형인 이경인(李景仁), 이덕인(李德仁)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한 충신이다.

○ 이지함(李之菡 1517(중종 12)~1578(선조 11))

조선 중기의 학자·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형백(馨伯) 또는 형중(馨仲)이며 호는 수산(水山) 또는 토정(土亭)이다. 색(穡)의 후손으로, 현령 치(稹)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만형인 지번(之蕃) 밑에서 글을 배우다가 뒤에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 들어가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후일에 그가 수리(數理)·의학·복서(卜筮)·천문·지리·음양·술서(術書) 등에 달통하게 된 것도 서경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573년(선조 6) 추천으로 조정에 천거되어 청하(清河 : 지금의 포천) 현감이 되었고, 재직중 임진강의 범람을 미리 알아서 많은 생명을 구제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듬해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으나 1578년 아산 현감으로 다시 등용되었고, 부임한 즉시 걸인청(乞人廳)을 만들어 일정한 정착지가 없는 걸인들을 구제하였으며, 노약자와 기인(飢人 : 굶주린 사람)을 구호하였다.

생애의 대부분을 마포 강변의 흙담 움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냈으며, 그 때문에 ‘토정’이라는 호가 붙게 되었다. 토정이 의학과 복서에 밝다는 소문이 점차 퍼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일 년의 신수를 보아 달라는 요구가 심해짐에 따라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토정비결》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대 성리학의 대가 조식(曹植)이 마포로 찾아와 그를 도연명(陶淵明)에 비유하였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죽은 뒤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되었고, 이어서 보령의 화암서원(花華書院)에도 제향되었다. 1713년(숙종 39) 학덕이 인정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고만(高巒)에 위치한 묘역은 이지함과 그의 형제와 존·비속의 14기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지함의 학문과, 전해지는 여러 일화로 인하여 명당자리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 이지형(李枝馨 1608~1669)

조선 중기 무신이다.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인조 22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남포현감을 2회 중임(1645~1648)하는 등 보령과 인연이 깊은 무신이다. 효종조에는 전라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가선대부에 올랐으며, 그 후에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삼도수군통제사로 해안을 순시할 때는 해전에 유리할 해로를 개척하였으며, 세병관(洗兵館)을 개축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후에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올랐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에 있다. 그의 아들 세선(世選)도 무과에 올라 통제사를 역임했으며, 세선은 남포현에 입향한 장수황씨 황대명의 사위가 되었으며, 세선의 차자 광조(光肇)의 후손들이 남포 봉덕리를 중심으로 세거해 왔고, 많은 무장(武將)을 배출했다.

○ 이찬(李鄴)

본관은 공주이고 고종 4년(1867)에 출생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는 학부교관궁내부비서랑을 거쳐 은진, 노성, 보령의 현감을 지냈다.

○ 이창섭(李昌燮)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1747년 진사에 합격하고, 영조 30년(1754)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현감을 역임했다.

○ 이창수(李昌壽 1710(숙종 36)~1777(정조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덕옹(德翁). 세종의 아홉째 서자 영해군(寧海君) 당(塘)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민제(敏躋)인데, 생부는 태제(泰躋)이다. 판중추부사를 지낸 창의(昌誼)의 동생이다.

1740년(영조16)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그 해 정언이 되었으며, 선천부사(宣川府使)·교리·응교·집의·부교리·부응교·승지·황해수사·우승지·영흥부사(永興府使)·경상우병사, 대사성을 거쳐 1754년 대사간에 올랐다.

1756년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음해 병으로 체직되었으며, 그 뒤 도승지·부제학, 이조참판, 판윤, 내의원제조·병조판서·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61년 평안감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우참찬·지경연, 병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으며, 1763년 해남(海南)으로 귀양갔다가 곧 풀려났다.

이듬해 이조판서로 다시 등용되어 판의금부사·한성판윤·예문관제학·형조 판서·수어사·내의원제조·홍문관제학·판돈녕부사를 두루 역임한 뒤, 1772년 마지막으로 수어사(守禦使)를 지냈다. 1778년(정조 2) 문헌(文獻)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 그의 묘가 주산면 창암리 남전에 있으며, 아들 이병정이 지은 묘비가 있다. 유고집 2권과 간찰집 3권이 있다. 이창수의 증손자 이교빈(李教彬 1820~1886)이 주산 창암리에 입향한 이후 이창수의 후손들이 여기에 세거하게 되었다.

○ 이치(李穰)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할아버지는 대사성 우(塢)이다. 지함의 아버지이며 산해(山海)의 할아버지이다. 1504년(연산군 10) 찬성을 지낸 작은아버지 파(坡)와 함께 사화에 연좌되어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에 풀려났다.

1507년(중종 2) 사마시에 합격, 학행으로 천거되어 금오랑(金吾郎)에 제수되었다. 이어 한성부참군·사헌부감찰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우봉현령(牛峯縣令)과 수원통관을 지냈다. 효성이 지극하여 항상 노래자(老萊子)를 본받아 어머니를 섬겼다. 관리가 되어서는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그의 묘가 보령 주교면 고정리 고만에 있다.

○ 이대중(李台重 1694(숙종 20)~1756(영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자삼(子三), 호는 삼산(三山). 색(穡)의 후손이며, 또 질(秩)의 후손으로, 질은 치(稹)의 형이다. 정기(廷慶)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행(莘)이고, 아버지는 참봉 병철(秉哲)이다. 이희조(李禧朝)의 문인으로 1717년(숙종 4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730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5년(영조 6) 지평으로, 신임사화 때 화를 입은 노론 4대신의 신원(伸冤 :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을 주장하다가 분당을 일삼는다는 탄핵을 받아 흑산도에 위리안치되었고, 그 이듬해에 영암으로 이배되었다.

그 뒤 양사·세자시강원 등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740년에 다시 지평이 되어 좌의정 유봉휘(柳鳳輝), 영의정 조태구(趙泰耆)의 관작을 추탈할 것과 당시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그의 아버지 묘를 ‘王’자산맥(山脈)에 쓰고 나서 지사(地師)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죄를 들어 파직시킬 것을 주청하다가 도리어 갑산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대신들의 주청으로 풀려나와 부교리·황해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거쳐 예조참판·부제학·호조판서 겸 예문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저서로는 《삼산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묘는 홍성 결성에 있다.

○ 이하춘(李賀春)

호는 남옥재(藍玉齋)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일민당(逸民堂) 이양원(李養源)의 문인으로 숙종조에 생원이 되고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집의(執義)에 올랐다.

○ 이학영(李學榮 1880~1864)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선렴재(善濂齋)이다. 부친은 이경식(李敬植)이며, 익재 이제현의 후손으로 주산 동오리에서 세거했다. 백씨(佰氏)와 함께 난국재 이에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고, 당시의 유학자 숙재 조병덕과 종유(從遊)할 때도 도의로써 상교(相交)하였다. 효성이 지극한 효자로 3년간 시묘살이를 했으며, 고종 22년 학행으로 사헌부감역에 증직되었다.

○ 이효근(李孝根 1662~1713)

본관은 한산이고, 호는 소헌(蘇軒)이며, 이인빈의 아들이며, 이무의 손자이다. 168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91년 별시문과에 합격하였으며, 사간원 정언을 역임했다. 묘소는 관촌에 있다.

○ 이후(李厚 1585~1612)

본관은 한산이고, 이경전의 장자로 19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호당(湖當)에 있다가 전랑(銓郎)이 되었으나 조졸(早卒)하였다. 묘소는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있다.

○ 이희승(李熙昇 1806~1879)

본관은 전의이고, 순조 6년(1806)에 출생하였다. 순조 2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 충청병마우후가 되고, 현종 4년에는 당상관으로 승진 선전관이 되고 다시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황해도 수군절도사를 거쳐 가선대부로 승차(昇次)하고 뒤에 전라도병마절도사, 오위도총부부총관, 한성좌윤이 되고 등단하여 총융사, 병조참관에 올랐다. 조선중기 무신 이세선(李世選)의 후손으로 관식(觀植)의 아들이며, 묘소는 남포 대덕동에 있다.

○ 이희완(李熙完 1830~1869)

조선말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전의이다. 순조 30년(1830)에 출생하여 현종 13년 무과에 급제하고 오위도총부도사에 이어 청주영장이 되고,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 뒤에 충청도수군절도사, 훈련원도정, 동부승지에 이르고 가선대부에 오르고 경상도좌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조선중기 무신 이세선(李世選)의 후손으로 응식(應植)의 아들이며, 묘소는 남포 대덕동에 있다.

○ 인발(印潑)

본관은 교동(喬洞)이고, 조선 선조 때의 관직은 선전관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선조 15년(1592)에는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왜군을 여러 곳에서 무찌르는 데 크게 공을 세워 정난원종2등공신(靖難原從二等功臣)에 올랐으며, 보령 청소면 죽림리에 거주했다.

인조 때 청군의 침입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왕을 수호하기 위하여 청군을 맞이하여 남한산성에서 용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와 관련된 임진왜란 때의 진주성 전투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선조 16년(1593) 7월 16일조에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李時言)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진주를 외원(外援)할 목적으로 삼가(三嘉) 고현(古縣)에서 진군(進軍)하였는데, 척후장인 안인무(安仁武) · 김억린(金億麟) 등이 와서 고하기를 ‘발가벗은 남자가 수풀 사이에서 걸어 나오기에 잡아서 물어 보았더니 「나는 본래 충청도 보령(保寧)에 사는 정로위(定虜衛) 인발(印潑)이다. 충청 병사의 군관(軍官)으로 6월 23일 함안에서 진주로 옮겨 갔는데, 왜적이 이달 22일 아침 나절에 의령에서부터 무수히 쳐들어와서 본주(本州)의 동문 밖 산 위에 주둔하여 많은 포를 일제히 쏘았다.

적세를 탐지하려고 와서 함께 성 안에 있던 중국 군사 20여 명은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한 것을

보고는 즉시 성에서 나갔다. 우리의 제장(諸將)으로는 창의사 김천일(金千鎰), 경상 우병사 최경회(崔慶會), 충청 병사 황진(黃進), 본주 관관 성수경(成守慶), 김해 부사 이종인(李宗仁), 거제현령 김준민(金浚民), 사천 현감 장윤(張潤), 태안 군수 윤구수(尹龜壽), 결성 현감 김응건(金應健), 당진 현감 송제(宋悌), 남포 현감 이예수(李禮壽), 황간 현감 박몽열(朴夢說), 보령 현감 이의정(李義精), 본주 목사 서예원(徐禮元) 등이 성 안에 유진(留陣)하고 있었는데 이달 20일 오후에 왜적 2백여 명이 동쪽의 성 밑으로 진격해 왔다. 얼마 후에 접전하였는데 여러 명이 화살에 맞아 퇴각하였다.

22일부터 28일까지 왜적이 사면을 포위하였는데, 그 넓이가 5리 가량이나 되었으며 나머지 군사를 1일정이나 2일정, 혹은 4일정 되는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인근 각 고을의 요해처가 될 만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가득히 모여 매복하여 아군의 사이를 격리시켜 외원(外援)을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대나무로 높은 사다리를 많이 만들고 그 사다리마다 진흙을 발라 가지고 성 안을 압박하고 그 위에서 포를 쏘아대어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므로 성 안에서 탄환을 맞아 죽은 자가 하루에 1백여 명씩이나 되었다.

병사 황진(黃進)도 28일 이마에 탄환을 맞고 죽었다. 29일 오후에 왜적의 모든 진(陣)이 성 밑으로 가까이 와서 일시에 성을 함락하니, 성 안에서는 혈전을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며, 성 안의 장사와 대소 남녀들의 생사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나는 그때 신북문(新北門)을 지키고 있었는데 힘껏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성 밖으로 뛰어내려 시체 속에 묻혀 있다가 밤을 틈타서 몰래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험한 길을 걸어가 순찰사에게 진주성이 함락된 연유를 고하려는 참이었다.」 고 했다.」 하였습니다.」

○ 입수(任洙)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묵가(默可)이다. 승택(昇鐸)의 아들이다. 성당(性堂)의 문인으로 일찍부터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송능규(宋能圭), 김용근(金龍根) 등과 교유했다.

○ 임정식(任廷式)

조선 숙종 때의 무신이다. 호는 신재(愼齋)이고, 본관은 풍천이다. 숙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이 되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는 물론 초야에 있을 때도 여러 모로 공을 세우는 등 진흩한 공이 있으므로 가선동충주(嘉善同中樞)에 오르고, 은사(恩賜)로 종2품에 올랐다.

○ 임종선(任從善)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장흥(長興). 급(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서종(瑞宗)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헌(獻)이며, 어머니는 서원염씨(瑞原廉氏)로 고려 말 좌우정승·문하시중·

서북면도통사 등을 지내고 곡성부원군(谷城府院君)에 봉하여진 계신(悌臣)의 딸이다.

가문을 배경으로 음직으로 출사하여 부사를 역임하고, 1419년(세종 1)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 : 병과에 해당함)로 급제하였다. 사간원사간·전라도관찰사 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고, 가선대부에 올랐으며, 집구시(集句詩)에 능하여 명성을 얻었다.

○ 임태두(任泰斗)

조선 말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풍천이다. 현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가서는 황주우후겸 토포사(黃州虞侯兼討捕使), 북청우후, 전주영장을 역임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 임태희(任泰希 1830~1892)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노오재(老梧齋)이다. 전재(全齋)의 문인으로 경학을 연구하고 성리학에 독실하여 후학으로 하여금 학문을 깨우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문집으로 노오재집이 있다.

○ 임향(任珦)

본관은 풍천이며 고려 공민왕 때의 문신으로 벼슬이 정승(政丞)에까지 올랐으나, 승려 신돈(辛旽)의 실정(失政)에 맞서 상소를 올려 항의도 하고, 직소를 하다가 홍주 고구도(古丘島)에 유배되었고, 이어 남포 죽도(竹島)에 이배되었다. 유배가 풀린 후 주산면 동오리에 정착했고, 그의 후손들이 보령지역에서 세거해 오면서 풍천임씨정승공파를 이루게 되었다.

○ 임흥순(任興淳)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신재(訊齋)이다. 돈간재 조진학(敦良齋 趙鎭鶴)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성리학에 깊은 뜻을 두고 연구하였다. 문집이 있다.

○ 정혁신(鄭赫臣 1719(숙종 45)~1793(정조 17))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경주(慶州). 일명 덕구(德耆). 자는 명준(明峻). 호는 성당(性堂). 보령 주포 출신. 아버지는 언주(彦柱)이다.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사숙문인이다.

1780년(정조 4) 학행으로 천거되어 광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보령 오서산 아래 청소 성연리 임천(林泉)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노래한 산중시를 많이 남겼고, 장재(張載)의 《서명 西銘》을 강론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그의 심성론은 한원진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하락이수변화출입설 河洛理數變化出入說〉을 저술, 1년에 24절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해설하였다. 또,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경의일득록 大學經義一得錄》을 저술하였다.

특히 많은 문인(門人)을 양성하였는데, 그들이 보령지역 남당학파의 학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도 이건운(李健運), 이문복(李文福), 이시덕(李時德), 박도환(朴道煥), 이상문(李相文), 이에환(李禮煥), 백사형(白師亨)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도 특히 李健運의 문인이 이돈필(李敦弼)이며, 그의 문인이 김복한(金福漢)으로서 홍주의병의 수장이었고, 이어서 항일독립운동의 큰 맥을 이루었다.

이에환(李禮煥)은 남포 웅천 동향의 백사형(白師亨), 이상문(李相文), 오익양(吳益讓) 동문들과 학풍을 일으켰다. 일찍이 효행으로 이름이 났으며, 1790년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저서로는 《성당집》 5권 2책이 있다.

○ 정홍순(鄭弘淳 1720(숙종46)~1784(정조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의중(毅仲), 호는 호동(瓠東). 영의정 태화(太和)의 후손이다. 1745년(영조 2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설서·이조정랑·지평·교리·이조참판 등을 거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호조판서로 10년 간 재직하면서 재정 문제에 특히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 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렸다.

1762년 호조판서로서 예조판서를 겸해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상(喪)에 장의(葬儀)를 주관하면서, 장헌세자의 의복과 금침에서부터 악모대리(幄帽帶履) 등 미세한 것까지 한쪽씩 떼내어 그때의 문부(文簿)와 함께 봉하여 수자(守者)를 단속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1777년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 앞서 세자의 장례 때 상례의 풍부 여부를 알고자 당시 예조판서였던 그를 대령하게 했는데, 그가 곧 서리를 시켜 당시 간직해두었던 것을 내어다 보이자, 정조는 부장품이 풍부하고 예에 빠진 것이 없음을 보고 매우 가상히 여겨 곧 우의정에 제수했으며, 이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가 정민(貞敏)으로 내려졌다가, 뒤에 충헌(忠憲)으로 개시(改諡)되었다.

묘가 천북면에 있다.

○ 조계원(趙啓遠 1592(선조25)~1670(현종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자장(子長), 호는 약천(藥泉). 준수(俊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남(孳)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존성(存性)이다.

조창원의 동생이다. 신흘(申欽)의 사위로 숙부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뒤에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이 되었다.

1616년(광해군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인조반정 후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을 거쳐 형조좌랑이 되었다. 1631년 일시 파직당하였다가, 그 뒤 1636년 병자호란 때 유장(儒將)으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사헌부장령(司憲府將令), 옥당의 수찬(修撰)·교리(校理)를 거쳐 사간이 되었다. 이 때 김상헌(金尙憲)이 탄핵당하자 이를 힘써 구원하였다. 1641년 세자시강원보덕으로서 볼모로 심양(瀋陽)에 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청나라의 요구로 명나라의 진저우(錦州) 공격에 참가하게 되자 그를 시종,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성을 쌓는 기계(奇計)를 써서 세자 일행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심양에서 돌아와 수원부사·홍청감사(洪淸監司)·동부승지·예조참의·강화유수·도승지·경상감사 등을 거쳤다. 1654년(효종 5)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고 경기감사·전라남도감사를 거쳐 1659년 함경감사, 형조와 공조 참판, 동지의금부사를 지냈다.

1662년(현종 3) 형조판서에 이르러 사직하고 보령의 탐동에 은퇴하여 한가한 여생을 보냈다. 그뒤 조정으로부터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만년에 보령에서 민전(民田)을 광점(廣占)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 조병덕(趙秉惠 1800(정조 24)~1870(고종 7))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유문(孺文), 호는 숙재(肅齋). 동지중추부사 최순(最淳)의 아들이다. 일찍이 홍직필(洪直弼)과 오희상(吳熙常)의 문하를 출입하며 학문을 닦았다.

1852년(철종 3) 음보(蔭補)로 지평이 되고, 1859년 경연관이 되었다. 이어 이조참의를 거쳐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동문의 임헌회(任憲晦) 등과 병칭되던 한말의 거유였으며, 성리학자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의 선대가 남포현에 입향한 이래 미산 삼계리에 주로 거주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이재(李穡)·김원행(金元行)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홍직필에게서 이어받아 문하의 김병창(金炳昌) 등에게 전수한 중심인물이었다. 저서로 《숙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그의 묘소와 신도비가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에 있다.

○ 조병흥(趙秉興 1848~1917)

본관은 양주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 때의 문신으로 감역을 제수 받았고, 진안현감을 역임했다. 한원부원군 조창원의 8대손으로 1867년 전라도 임피 관아에서 보령 죽정동의 옛집에 와서 살았다.

○ 조영진(趙榮進 1703(숙종29)~1775(영조5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여읍(汝揖). 희석(禧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태휘(泰彙)이고, 아버지는 부사 규빈(奎彬)이며, 어머니는 민진후(閔鎭厚)의 딸이다. 숙재 조병덕의 고조이다. 신임사화 후 아버지가 벼슬을 버리고 향촌 남포에 은거 하였으므로 역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가, 1744년(영조 20) 42세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를 거쳐, 남원부사로 재임 중인 1756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정언을 배수받았다.

1759년 동부승지·한성좌윤을 거쳐 대사헌에 올랐고, 1761년 도승지로서 사도세자의 처형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한때 파직되었으나 다시 대사헌으로 기용되었다.

이어 예조와 병조의 참판을 역임한 뒤 황해도·경기도 관찰사로 외직을 거쳤으며, 오위도총부도총관·지중추부사를 지낸 뒤 형조판서에 올랐다. 사관(史官)은 그의 성품이 너그럽고, 의리를 지키며, 공명을 탐하지 않아 풍파(風波)의 시기에도 화를 입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시호는 정헌(定獻)이다. 문집으로 『운석유고(雲石遺稿)』가 있고, 묘는 보령 미산면 삼계리에 있다.

○ 조오(趙塙)

한말의 학자로 본관은 한양이고 호는 양리재(兩理齋)이다. 설천(雪川) 이봉상(李鳳祥)의 문인이다. 학생으로 추천에 의해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올랐다. 유고가 있다.

○ 조유춘(趙囿春)

조선 영조 때의 무신이다. 숙종 46년(1720)에 출생하여 영조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봉사(奉事), 주부(主簿)를 거쳐 방어사·승지·곡산부사 등을 역임했다. 본관은 한양이다.

○ 조존성(趙存性 1554(명종9)~1628(인조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수초(守初), 호는 용호(龍湖)이며 할아버지는 준수(俊秀)이고, 아버지는 증좌찬성 남(擘)이다. 어머니는 이몽규(李夢奎)의 딸이다. 성훈(成渾)·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이다.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더욱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으며, 특히 이항복(李恒福)·신경보(辛慶普) 등과 친하였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館)에 들어가서 검열이 되었다.

이듬해 대교에 승진되었으나 모함을 입어 파면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 있다가 이듬해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에 가서 다시 대교에 복직되고, 이어 전직에 승진되었다.

예조좌랑·정언을 역임할 때 남방의 왜구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죄없는 백성들만 괴롭힌 격이 되어 그들에 대한 회유 정책을 철회하고 힘으로 물리칠 것을 강변, 이를 성사시켰다. 이듬해에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병부상서 석성(石星)에게 우리 나라에서 명군을 철수하려는 것을 중지시키고, 또 초황(哨黃 : 화약연료) 수만 근을 가지고 와 그 공으로 직장에 승진되었다.

1597년 어사로 군량미를 운반했는데, 그 양이 무려 40만 섬을 넘어 군량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한다. 1601년 강화부사가 되어 1년 만에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그 뒤 호남어사·충주목사·단산군수를 역임했는데 가는 곳마다 선치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1613년(광해군5) 광해군의 생모 추존에 반대하여 파직당하고, 1623년 인조반정 뒤에 형조·호조의 참판, 부총관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검찰사(檢察使)로 왕을 공주로 호종(扈從)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지의금부사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뒤에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왕이 강화도로 가면서 분조(分朝)의 호조판서에 임명되어 세자를 따라 전주에 갔으나 돌아와 병사하였다. 시조 4수가 《해동가요》에 전한다. 시호는 소민(昭敏)이다.

화암서원에 배향된 이몽규의 외손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머니 이씨를 보령의 외가 외삼촌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의주 행재소로 달려갔으며, 광해군 때 파직 당하자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 보령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은거하면서 보령지역과 많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 조중구(趙重九 1850~?)

본관은 양주이고, 자는 정여(正汝)이며, 고종 25년(1888)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도사(都事) 등을 역임했다. 숙재 조병덕의 형 조병헌의 장손자이다.

○ 조창원(趙昌遠 1583(선조16)~1646(인조2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대형(大亨), 호는 오은(梧隱). 아버지는 지돈녕부사 존성(存性)이며, 인조의 국구(國舅)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0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종군하였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별좌(別坐)·의금부도사 등을 지냈다. 광해군의 난정이 심해지고

아버지가 옥사에 연좌되어 화를 당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 보령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인조반정 후 형조좌랑에 제수되었다. 직산현감으로 나가 민심을 무마하고 많은 치적을 올렸다. 군자감정에 승진되었다가 다시 여산군수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인천부사 재직시 딸이 인조의 계비(繼妃：莊烈王后)로 간택되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영돈녕부사에 배수되었다. 시호는 혜목(惠穆)이다.

조창원이 광해군 때 부친 존성과 함께 보령에 머물 때 장렬왕후가 된 딸을 잉태하게 되었고, 이어 직산현감으로 가면서 직산관아에서 장렬왕후를 낳았다 한다. 조선말기 양주 조씨의 사패지가 폐지된 충청수영 내에 주어지면서 그의 묘소가 이곳에 이장되었다가 다시 경기도로 이장된 관계로 오천에서 지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 조충희(趙忠熙 1849~1886)

본관은 양주이고, 호는 수오(遂吾)이다. 고종 12년(187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수찬, 주서, 이조참의, 대사성 겸 선전관을 역임하였고, 광양현감과 영광군수를 지냈다. 숙재 조병덕의 아들로 당숙 병위(秉璋)에게 양자되었다.

○ 조현명(趙顯命 1690(숙종16)~1752(영조2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이며, 할아버지는 상정(相鼎)이고, 아버지는 도사(都事) 인수(仁壽)이다.

1713년(숙종 39) 진사가 되고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1721년(경종 1) 연잉군(延鯨君：뒤의 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겸설서(兼說書)로서 세제 보호론을 주창, 소론의 핍박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왕세제 보호에 힘썼다.

영조 즉위 후 용강현령, 지평·교리를 역임하고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발생하자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종군하였다. 난이 진압된 뒤 그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 풍원군(豊原君)에 책봉되었다. 이후 대사헌·도승지를 거쳐 1730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영남의 남인을 무마하고 기민(饑民)의 구제에 진력하였다. 이어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뒤 1734년 공조참판이 되면서부터 어영대장·부제학, 이조·병조·호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740년 경신처분 직후 왕의 특별 배려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뒤이어 좌의정에 승진하였다. 이 때 문란한 양역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군액(軍額) 및 군역부담자 실제 수의 파악에 착수, 이를 1748년 《양역실총 良役實總》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1750년 영의정에 올라 군역법의 제정을 총괄하고 감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했으나,

대사간 민백상(閔百祥)의 탄핵을 받아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조문명·송인명(宋寅明)과 함께 영조조 전반기의 원론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노소탕평을 주도했던 정치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다 하여 군문·군액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어염세의 국고 환수, 결포제 실시 등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한 경세가이기도 하였다. 당색을 초월하여 진신(縉紳) 사이에 교유가 넓었는데 김재로(金在魯)·송인영·박문수(朴文秀) 등과 특히 친밀하였다. 저서로 《귀록집》이 있고, 《해동가요》에 시조 1수가 전하고 있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벌말 마을 뒷산에 묘소가 있고, 마을에 재실과 고종 때 영의정 이유원이 지은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1980년대 건립한 것이다.

○ 채극철(蔡克哲)

조선 중기의 학자이다. 중종 23년(1528)에 출생하였다. 본관은 인천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촉망받는 서생이었으나 초시에 급제하고도 정미사화(丁未士禍)의 비극을 보고, 대과에 오를 것을 단념하고 고향인 보령 청소에 돌아와서 은거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학문이 깊으니 여러 사람들이 그를 숭정처사(崇禎處士)라고 하였다.

○ 채덕서(蔡德瑞)

숙종 1년(1660)에 출생한 문신이다. 호는 오성(五星), 본관은 인천이다. 숙종조에 문과에 오르고 관직으로는 예조참판에 이르렀으며, 노년에는 기로소(耆老所)에서 예우를 받았다.

○ 채명윤(蔡明胤)

1652년생으로 채시상의 아들이며, 채팽윤·채성윤이 동생이다. 조선 숙종 15년(1689)에 증광문과에 올랐다. 자는 중선(仲宣)이고 호는 오축제(五祝齋), 본관은 평강이다. 관직은 교리에 올랐으며, 성리학과 이기학(理氣學)에 능통한 학자였다.

○ 채성윤(蔡成胤 1659(효종 10)~1733(영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중미(仲美). 호는 구봉(九峰)이다. 할아버지는 진후(振後)이고, 아버지는 현감 시상(時祥)이다.

1684년(숙종 1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형 명윤(明胤)도 1689년(숙종 1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도승지·대사간을 역임한 팽윤(彭胤)은 그의 동생이다. 거주서·검열·대교·지평·정언을 거쳐 공주목사로 나갔다가 이후 승지·우부승지 및 한성부좌윤을 역임하였다.

○ 채시상(蔡時祥)

본관은 평강이다. 숙종 17년(1691)에 진사에 오르고 학문과 덕행으로 명성이 높았다. 아들 명윤, 성윤, 팽윤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갔을 뿐아니라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 채신문(蔡愼文)

본관은 인천이고 영조 11년(1735) 출생하였다. 순조조에 성균관 진사에 오른 문신이다.

○ 채여인(蔡汝仁)

광해 2년(1610)에 출생한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호는 상정(相汀)이고, 본관은 인천이다. 예빈시정(禮賓寺正)을 지낸 채흥해(蔡興海)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이르렀다. 그 후 뜻한 바 있어 관직을 버리고 야(野)에서 구휼에 진력하니 인근의 칭송이 높았다.

○ 채완묵(蔡完默)

본관은 평강이고 호는 번천(樊川), 조선시대 말기의 학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깨우쳐 약관에 6경에 통하고, 그의 학문이 널리 퍼짐에 따라 서생들이 운집하여 그의 가르침에 모두 탄복하였다. 여러 벗들이 그의 학문과 함께 경앙(敬仰)하니 학자로서 후진양성을 하며 일생을 마친 석학이다.

○ 채유후(蔡裕後 1599(선조 32)~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이다. 17세에 생원이 되고, 1623년(인조 1)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집의(執義)로서 인조를 호종하였다. 김류(金濼) 등의 강화천도 주장을 반대하고 주화론에 동조했다가 구금되었고, 1638년 석방되었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사망하자 예조참의로서 호상(護喪)을 맡아보았으나 행상(行喪)할 때 담군(擔軍)에게 백건(白巾)을 쓰게 했다는 탄핵을 받아 사임하였다.

중년 이후 술을 좋아하여 때때로 주실(酒失)을 저질러 인조의 눈밖에 났으나, 1646년 이조참의로서 지제교(知製敎)가 되어 누구도 싫어하는 강빈폐출사사교문(姜嬪廢黜賜死敎文)을 지어 다시 현용(顯用)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강빈사건에 반대 견해를 취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 소장하고 있던 교문을 짓는 데 필요한 사육전서(四六全書)를 모두 불태워버릴 만큼 후회했다고 한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이조참관 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고, 여러 차례

대사헌을 거친 뒤 1657년 대제학으로서 《선조수정실록》 편찬의 책임을 졌으며, 곧이어 예조판서·우참찬에 승서되었다.

현종이 즉위하자 찬집청당상(撰集廳堂上)으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병으로 죽었다. 죽고 난 뒤 실록 편찬의 공으로 송정대부(崇政大夫)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호주집》이 있다.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 채옹만(蔡膺萬)

조선 숙종·경종 때의 문신이다. 채성윤의 아들이다. 자는 수언(綏彦)이고, 본관은 평강이다. 숙종 때인 1717년 진사에 오르고 경종 3년(1723) 증광문과에 올랐으며, 관직은 지평에 이르렀다.

○ 채정묵(蔡定默)

본관은 평강이다. 벼슬은 군수에 올라서 이속(吏屬)의 민폐를 일소하여 백성편에서 치적함으로써 이속들이 많이 두려워했다 한다.

○ 채준현(蔡俊賢)

인조 12년(1634)에 출생한 현종조의 문신이다. 채여인(蔡汝仁)의 아들로 일찍부터 학문과 덕망으로 향리에서 칭송이 자자하더니 뒤에 문과에 급제하고 현종 때 한성좌윤을 지냈다.

○ 채팽윤(蔡彭胤 1669(현종 10)~1731(영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이다. 할아버지는 진후(振後)이고, 아버지는 현감 시상(時祥)이다.

1687년(숙종 13)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냈고, 뒤에도 호당(湖堂)에 선임된 자들과 은대(銀臺: 승정원의 다른 이름)에 나아가 시부를 지어 포상을 받았다. 그가 쫓겨나 노닐 때면 언제나 숙종이 보낸 내시가 뒤따라 다니며, 그가 읊은 시를 몰래 베껴 바로 숙종에게 올리게 하리만큼 시명(詩名)을 날렸다.

1691년 세자시강원의 벼슬을 거쳐 1694년 정언(正言)에 있으면서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으나,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묘출향(文廟黜享)을 주장한 이현령(李玄齡)의 상소에 참여했다 하여 삭제되었다.

그 뒤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지내다가 1724년 영조의 즉위로 승지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도승지·대사간을 거쳐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어 감시장시관(柑試掌試官)이 되었으나 성균관 유생들이 전날 양현(兩賢)의 모독과 관계되었다 하여

응거(應擧)를 거부, 교체되는 파란을 겪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특히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해남의 두륜산(頭輪山) 대화사중창비(大花寺重創碑)와 대흥사사적비(大興寺事蹟碑)의 비문을 찬하고 썼다. 저서로 《희암집》 29권이 있고, 《소대풍요 昭代風謠》를 편집하였다.

○ 채홍리(蔡弘履)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다. 자는 사술(士述)이고, 본관은 평강이다. 부친은 채의공, 조부는 채응조다. 영조 42(1766)에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 문집이 있다.

○ 천귀득(千貴得)

호는 덕암(德庵)이고, 본관은 영양(潁陽)이다. 청양군 장평면에서 출생하고 만년에는 보령 청소면 성연에서 거주하였다. 숙종 6년(1686)에 일어난 경신대출척사건에 김석주 김수항 정치화 등 공신과 함께 보사원종일등훈(保社原從一等勳)에 녹(錄)되었다.

○ 천만리(千萬里 1543(중종 38)~?)

영양천씨(潁陽千氏)의 중시조로 조선 선조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했다. 그의 자는 원문(遠文)이며, 호는 사암(思庵),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명나라 말기에 무과에 장원하고 태청전수위사겸총독오군사(太淸展守衛使兼總督五軍師)를 역임하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영량사겸총독장(領糧使兼總督將)으로 아들 상(祥), 희(禧) 형제와 함께 이어송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군량수송을 담당하였으며, 평양 광산 동래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그 후 정유재란 때에도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서 전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나자 1600년(선조 33) 8월 만세덕(萬世德)·이승훈(李承勛)은 귀국하였으나, 그는 따라가지 않고 조선에 머물러 살았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생각하여 그를 화산군(花山君)에 봉하고 전(田) 30결(結)을 급복(給復)하였으며 그의 아들 상도 뒤에 한성윤에 승진시켰다.

저서로 시 44수와 문 2편이 《사암천문집》에 전한다. 고성(高城)의 호암사(虎巖祠), 청도의 황강사(皇岡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숙종 때는 그의 전공을 길이 빛내기 위해 대보단(大報壇)을 설단(設壇)하여 종향(從享)하게 하였다. 그의 묘는 전북 남원에 있으나 대전 유성과 부여 읍에 집성촌이 있고,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에도 집성촌이 있어서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1989년에는 후손들이 송학리에 신도비를 세웠다.

○ 최맹호(崔孟浩)

조선 초기 성종 18년(1487)에 출생한 문신이다. 본관은 양천이고 호는 호연(浩然)이다. 이조참판 최응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밝았으며, 중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봉사(奉事)·직장(直長) 등 여러 벼슬을 거쳐 백천군수 연산현감 등을 지냈다. 그는 선정을 베푸는 선비로 학문이 특히 뛰어났었다.

○ 최석근(崔碩根)

조선 세종 22년(1422)에 태어난 학자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주부(主簿) 등 여러 벼슬을 거쳐 병조참의에 이르렀으나 세조의 등극과 함께 단종의 참사 소식을 접하고 탄식한 끝에 보령현으로 은거, 여생을 보낸 학자다.

○ 최세경(崔世慶)

본관은 해주이고 호는 졸수설(拙修髯)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학행에 모범적이어서 현종조에 덕산현감을 역임하였다.

○ 최웅(崔雄)

조선 세조 때의 학자이다. 그는 세조 8년(1458)에 병조참의 최석근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통천이다.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에 오르고 그후 여러 벼슬을 거쳐 이조참판에 올랐다. 그는 벼슬길 보다는 성리학에 뜻을 둔 깊은 학자로 한훤당 김굉필, 정여창 등과 함께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한 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 최종호(崔終浩)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중종9년(1514)에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승지, 병조첨지(兵曹僉知)를 역임하고, 선조 때는 왜군을 토벌하는 데 전공이 있어 삼도수사(三道水使)를 지냈다.

86세에 부총관(副總管)으로서 치사(致仕)하고 집에서 사망한 강직한 무인이었다. 선조가 예관(禮官) 이원익(李元翼)을 파견하여 제문을 보냈다.

○ 최진명(崔振溟)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봉혁(鵬革)이고 호는 호은(湖隱)이다. 광해 1년(1609)에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문장이 탁월하여 많은 칭찬을 받았었다. 일찍이 사마시에 올라 진사가 되고 뒤에 문과에 급제하고 보령현감도 지냈다.

○ 최치원(崔致遠 857(문성왕 19)~?)

신라 하대의 학자·문장가.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 경주 사랑부출신이다. 최치원이 868년(경문왕 8)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2년간 낙양(洛陽)을 유랑하면서 시작(詩作)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문명(文名)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은 879년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군대장의 종사관이 되어 지은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에 의해서이다.

885년 귀국할 때까지 1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며 고운(顧雲)·나은(羅隱) 등 당나라의 여러 문인들과 사귀어 그의 글재주는 더욱 빛나게 되었다.

29세로 신라에 돌아와 국내에서도 문명을 떨쳐 귀국한 다음해에 왕명으로 대승복사 비문을 비롯하여 성주사대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등 이른바 4산비명을 지었다.

귀국한 뒤, 처음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배운 경륜을 펴보려 하였다. 그러나 진골귀족 중심의 독점적인 신분체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함을 깨닫고 외직(外職)을 원해 890년부터는 대산군(大山郡)·천령군(天嶺郡)·부성군(富城郡) 등지의 태수를 역임하였다.

894년에는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서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사회모순을 외면하고 있던 진골귀족들에게 그 개혁안이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했던 것이다.

이에 최치원은 신라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0여 세 장년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소요자방(逍遙自放)하다가 마침내 은거하였다. 성주사지의 대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를 지었고, 남포 맥도의 병풍마위에도 그가 소요하면서 글씨를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최택(崔澤)

본관은 양천이고 중종 28년(1531) 태어났다. 자는 중함(仲函)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중추원에서 사맹사정(司猛司正)을 거쳐 외직으로 나가 박천군수에 이르렀다.

○ 최호(崔湖 1536(중종 31)~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수부(秀夫). 아버지는 벽동군수 한정(漢禎)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1576년(선조 9) 무과중시에 장원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1594년에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었는데 야인들의 감파보(甘坡堡) 침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견책을 받았다. 1596년 충청도수군절도사로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보령현감 남포현감 등과 함께 홍주성으로 들어가 목사 홍가신(洪可臣)과 함께 주장(主將)이 되어 홍주성에서 난군을 방어하고 이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듬해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충청수군을 이끌고 칠천량해전에서 원균(元均)과 함께 참전하였으나, 패배하자 충청수사 최호와 전라우수사 이익기는 바다에 뛰어내려 전사했다. 최호의 나이 62세였다. 1604년 이몽학의 난 평정에 세운 공로로 청난공신(淸難功臣) 2등에 추록되고, 1615년(광해군 7) 찬집청(撰集廳)의 주청으로 임난공신록에도 추록되었다. 시호는 충원(忠元)이다. 그의 고향인 전북 옥구에는 유적지 충의사와 유품으로 만든 묘가 있다.

○ 추수경(秋水鏡 1530~1600)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 자는 청하(淸河), 호는 세심당(洗心堂). 추계추씨(秋溪秋氏)의 시조 적(適)의 후손이며, 안찰사 섭(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병부상서 서(墅)이고, 아버지는 이부시랑 천일(天日)이다. 중국 오현군(五賢郡) 출신으로 1591년(선조 24) 명나라의 무강자사(武康刺史)가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여송(李如松)을 따라 부장(副將)으로 아들 노(蘆)와 적(荻)을 데리고 원병의 일원으로 환국하였다.

그 뒤 광산·동래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전주에서 살았다.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추봉됨으로써 후손들이 본관을 전주로 삼았다.

부여의 충현사(忠賢祠)에 제향되었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지역에 산재되어 살고 있다.

○ 홍규(洪圭)

본관은 남양이다. 어려서부터 문무를 겸비하여 자라서는 철종 2년에 무과에 장원하고 벼슬길에 올라서는 사직(司直)·호군(護軍)을 거쳐 대호군(大護軍)에 올랐으며, 그뒤 고종 4년에는 한성부 관윤에 올랐으나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보령 죽정동에 내려와 은거하였다.

○ 홍병위(洪秉璋)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호는 연사(蓮史)다. 부사(府使)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문필이 향리에서 높았다.

○ 황석명(黃碩鳴 1612~1685)

조선후기 무신이며 본관은 장수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 26년(1648) 도총부도사, 무과시관(武科試官), 1659년 경상좌우후, 1657년 가산현감 이천현감, 갑산부사를 역임했다.

○ 황유손(黃有孫 1625~1674)

조선후기 무신이며 본관은 장수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1666년 선전관, 1673년 무겸(武兼)을 역임하고 이어서 오위도총부도사, 충청우후를 역임하였다.

○ 황즙(黃菴 1560~1613)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 호는 송재(松齋)이며 세종조의 명상(名相) 황희의 현손이다. 6세에 부친을, 17세에 모친을 여의고 당숙인 黃允吉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황즙은 임진왜란 직전 황윤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신으로 일본에 갈 때 당숙을 따라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때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충청병사 黃進도 황윤길의 군관으로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황진과 황즙은 모두 황윤길의 당질들이었다. 황윤길의 도요토미 침략 의도를 경계하는 복명은 우리 역사에 유명한 사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병조참판에 제수된 황윤길이 사망하니 시신을 수습하여 경기도 고양시 지족동 선산에 안장하고, 난을 피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호서의 비인현 저동으로 낙향하였다.

비인현 저동에서 七友堂이라는 집을 짓고 독서하며 은거하고 있던 중에, 정유재란 때 總管使 韓孝純의 부탁으로 군량미 600여석을 수집하여 보냈다. 이 공으로 인하여 통훈대부 예빈시직장의 벼슬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전쟁 후 전후 복구를 위하여 국가에서 철을 모으는데, 충청도순찰사 張晩의 부탁으로 철 4천근을 수집하여 상납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사후에 1616년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에 증직되었다. 그의 아들 황정직이 보령 웅천 황교리에 정착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보령지역에 세거해 오고 있으며, 그의 묘는 웅천읍 대창리에 있다. 이호민(李好民) 찬(撰), 오정(吳靖) 서(書)의 묘비가 있다.

○ 황철중(黃喆曾 1662~1720)

조선후기 무신이며. 본관은 장수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1715년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1718년 중추부도사, 무과시관, 고원군수를 역임하였다.

○ 황헌(黃火+憲)

조선후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장수(長水)로 세종조의 영의정 희(喜)의 후손이다. 순조 5년(1805)에 웅천 황교리에서 출생했다. 순조조인 1829년에 전시무과(殿試武科)에 급제하여 전략장군 용양위부호군으로 마해권관(馬海權管)에 올랐으며, 후에 다시 동북면 병마사가 되었으며, 좌관중(左官中) 마해(馬海-현 함북 청진)에서 1865년 순직하였다. 묘소는 미산에 있다가 주산 신구리로 옮겼다.

2. 근·현대 인물

강두형 강영국 강영석 강태우 고순정 김광제 김기면 김년수 김노동 김덕원 김동순 김면희
 김복한 김사구 김상덕 김상억 김상우 김상익 김상준 김성희 김승렬 김양현 김영선 김윤환
 김익현 김정덕 김정제 김정철 김종대 김지정 김창진 김현교 김화식 문상철 민재국 민정훈
 박명진 박선화 박성학 박영삼 박영철 박영휘 박인화 박제무 박종화 박지양 박창화 박학진
 백관형 백규수 백낙관 백낙철 백창균 복혜숙 상리현 서정갑 신 건 신명윤 신 섭 신응선
 신직선 심영택 심의덕 염두섭 오병화 오창교 유기태 유문수 유석두 유성희 유영중 유준근
 유호근 윤건오 윤 길 윤명오 윤석기 윤석봉 윤 호 이경식 이계권 이교석 이규구 이근수
 이기하 이명종 이병규 이병태 이봉구 이사성 이상낙 이상락 이상률 이상식 이상억 이석구
 이선규 이승갑 이승영 이원량 이응규 이응복 이응주 이익호 이일태 이재휘 이정문 이정현
 이종래 이종완 이종철 이채우 이철원 이필규 이필규 이학구 이학영 이항규 이희인 임경순
 임세준 임계호 임도호 임성순 임승재 임운백 임의준 임재혁 임창호 임태하 임학준 임희준
 전양진 전재진 정찬호 정철모 조구원 조병문 조 수 조익순 조일원 조종욱 조진학 조태하
 천규현 최상집 최 익 최종태 최태휘 최환주 한민희 황두현 황석현 황시현 황영주 황 온
 황윤석 황의돈 황재현 황 직 황 직 황 찬

○ 강두형(姜斗馨)

본관은 진주이고 주포면 주교리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를 7기로 졸업하고 임관된 후 여수·순천반란사건 및 제주도 폭동진압에 중대장으로 참전, 심한 전상(戰傷)을 입기도 했다. 6.25전쟁 때는 흥천지구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혈전을 계속하였던 제17연대장, 제2사단 작전참모를 역임하고 훈공(勳功)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그 후 미국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서 수학, 국방대학원 수료, 육군준장에 승진, 중앙정보부제7국장, 제2사단장을 역임하고 퇴역했다.

○ 강영국(姜永國 1878~1946)

본관은 진주이다. 김사구와 함께 3.1운동을 주동하였다가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청소면 재정리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며 독립의식을 고취시킨 애국지사이다.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 강영석(姜永錫)

본관은 진주이다. 주산면 동오리 출신으로 1922년생이다. 광복 후 대한청년단주산면

단장(大韓靑年團珠山面團長)으로 활동하면서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지하활동을 통하여 공산당에 저항할 선전공작을 단행하던 중 적에게 잡혀 사망했다. 1951년 강영석 동지 추모회가 주산면 금암리에 그의 충령비를 세웠다.

○ 강태우(姜泰愚)

본관은 진주이다. 안면도 출신으로 보령군 어업조합장, 국민회보령군지부장, 원흥주6군 상무사점장 등을 지냈고, 1970년 보령충훈탑 건립위원장으로 활약했다.

○ 고순정(高淳貞)

본관은 제주이고 오천면 소성리 출신이다. 1930년에 관임관고시(判任官考試)에 합격하고 관직에 올랐으나 고향발전을 위해 낙향 오천우편국장을 역임하면서 오천항의 수로 개척, 고적보존에 공헌한 바 크다. 1950년 오천 번영회장에 오른 뒤에는 오천항 매립공사와 오천시장(鰲川市場) 개설 등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 김광제(金光濟 1866~1920)

보령 웅천읍 평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다. 초명은 홍제(弘濟) 또는 홍제(洪濟)였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첨정에 이르렀다. 동학농민운동 때는 동학군 진압에 나섰으며, 1896년 이세영 황재현 등과 함께 남포에서 의병을 일으켜 남포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서울로 빠져나갔다. 1905년에 배일 및 내정부패를 규탄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1907년 대구에서 출판사인 광문사(廣文社)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사장 서상돈(徐相敦)과 함께 〈국채일천삼백만환보상취지서 國債一千三百萬珣報償趣旨書〉라는 격문을 전국에 발송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제의하였다.

그 요지는 대한국민 2천만명이 담배를 끊어 1개월간 담배값 20전씩을 3개월 저축하면 1천3백환이 되므로 전국민이 3개월간 단연(斷煙)하여 그 돈으로 이완용 내각이 일본으로부터 차관한 1천3백만 환을 갚아서 경제적 예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서울에서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을 비롯한 민족언론기관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은 결과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한말국권회복운동 가운데 중요한 운동의 하나가 되었다.

1910년 만주로 망명, 압록강 대안의 동로홍묘자(東路紅廟子)에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유학생들과

제2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려다 일본경찰에 잡혔다. 사망 후 마산에 안장되었으나 1927년 고향 보령의 평리로 이장했고, 1947년 추모비를 고향 평리에 세우고 추모행사를 거행했으며,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997년 그의 유고집이 발간되었고, 2008년 묘소 정비가 이루어졌다.

○ 김기면(金箕冕 1846~1933)

본관은 광산이고, 호는 만송(晩松)이다. 현종 12년(1846)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시작하여 사서삼경에 정통하였으며, 뛰어난 인재임을 감지한 보령현감이 동몽교관으로 추천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그의 학문을 후진들에게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통탄한 나머지 국력을 설명하며 인신(人臣)으로서 일사보국(一死報國)함이 충절임을 강론한 선비였다. 문장이 탁월하여 그가 지은 초토사신도비문(招討使神道碑文) 등 많은 문장이 전한다.

○ 김년수(金年秀)

자는 한여(漢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가훈을 승습(承襲)하여 효우(孝友)하였다. 흥년에는 향리에 진흥하여 많은 인명을 구하기도 한 인사다. 청소면에 그의 송덕을 기리는 목비(木碑)가 서 있었다. 그의 은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많다.

○ 김노동(金魯東 1899~1958)

김복한의 차자로 청라 장현리 운대(雲臺)에서 태어났고 숙부에게 입양되었다. 자는 성구(聖九)이고 호는 행해(杏海)이다. 부친 김복한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유호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해방 후 성균관장에 추천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오서산 중에서 상고산방(尙古山房)이라는 서재를 만들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문집 행해집이 있다.

○ 김덕원(金德元)

웅천 노천리 출신으로 1905년 출생했다. 일제시대인 1941년 무창포어업조합이사, 1944년 오천면장, 웅천면장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대한식량공사 보령군분사장(保寧郡分社長), 보령수리조합이사, 충청남도정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웅천중학교 설립에 공헌하였다.

○ 김동순(金東淳)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월정(月汀)이다. 1875년 웅천 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견문을 넓혀 학문과 문학에 박학(博學)한 유림계의 인물이었다.

○ 김면희(金冕喜)

1862년 주산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이다. 면암 최익현의 문인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자는 건중(建重)이고, 호는 한매재(寒梅齋), 김노영(金魯永)의 아들이다. 학생으로 박문원(朴文院) 기자관(記者官)에 올랐고, 민중식의 홍주의병에 참가 공을 세웠으나 홍주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공주현병대,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그 후에도 독립운동을 하여 공을 세운 독립투사다. 문집으로 한매재집이 있다.

○ 김복한(金福漢 1860~1924)

본관은 안동, 자는 원오(元五), 호는 지산(志山)이다. 홍성군 소향리 조휘곡에서 김봉진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선원 김상용의 후손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성장하면서 농은 이돈필에게서 수학하여 남당 한원진의 학설을 배웠다. 33세에 별시문과에 합격한 후 교리(校理)를 거쳐 형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승정원 승지에까지 올랐으나,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여 오던 1894년 4월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 홍성으로 내려왔다.

그 후 을미년(1895년)에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에 분개하여 지역 유림들인 이설, 안병찬 등과 의논하여 의병을 일으켰다가 함께 하기로 했던 홍주목사 이승우의 배반으로 실패했다.

1897년 4월 보령 길현(吉峴, 현 청라면)으로, 그리고 이어서 운대(雲臺, 청라면 울띠)로 이사하여 은거하면서 쓰러진 집과 무너진 담에서 벌레와 뱀이 나와도 편안하게 지냈다. 그리고 후학양성에 전념하면서 최익현 윤석봉 유희근 조구원 심의덕 임한주 등과 학문을 논하였으며, 웅천의 집성당, 동대동 심의덕가 등에서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주관하면서 지역의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이어 조정에서 성균관장에 임명하여 불렀지만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1907년에는 민심을 선동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보령군 관노청에 구금되었다가 공주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왜경이 의병의 소재지를 대라며 곤봉으로 무수히 난타한 다음 총을 쏘며 위협하였으나 명중을 면하여 살아났다. 이때의 모진 고문으로 생전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식사와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하였다. 공주 감옥에서 풀려난 후 1907년 보령에서 다시 서부면 이호리 산수동으로 이거하였다.

1919년 동지 유림들과 연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 글을 보내 독립을 청원하는 장서운동을 계획하였는데, 마침 영남 유종(儒宗) 광종석도 같은 일을 계획함에 이들과 함께 서명하여

장서를 보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다시 공주감옥에 투옥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1922년 홍성 이호리 산수동에 인지재(仁智齋)라는 서당을 짓고 시국(時局)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으로 하여 항일정신을 고취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1924년 병이 더욱 깊어져 65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그의 묘소는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산수동에 있다. 그의 문집 지산집(志山集)이 전해온다. 보령5열사의 한 사람으로 추앙된다.

○ 김사구(金思九 1879~1948)

본관은 무주이다, 1919년 3월 10일 이병철(李秉喆)·고광춘(高光春)·한기석(韓基錫)등 8명과 함께 보령군 청소면 성연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주민들을 규합, 진당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인 후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4월 12일에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해 5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8월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경의 감시를 받아왔다.

○ 김상덕(金商惠 1852~1924)

본관은 경주이고, 상촌 김자수의 후예이다. 호는 위관(韋觀)이며 자는 정사(正斯)다. 보령 천북에서 태어나, 고종 25년(1888)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규장각 직각, 대사성을 지냈고 1896년 홍주 관찰사를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1906년 홍주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자수하여 체포되어 유형 판결을 받고 전북 옥구의 고군산 군도에 유배되었다. 풀려나와서는 천북에서 은거하면서 천일대(天一臺)를 만들고 북향재배하면서 나라 잃은 억울함을 달랬다.

천북 궁포리에 그의 옛집이 ‘김직각댁’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진 채 남아있고, 대천 문화원에서 세운 천일대비가 있다. 남당학과의 학맥을 이었으며 이설(李偈), 김복한(金福漢), 유희근(柳浩根), 조구원(趙龜元) 등과 우의가 두터웠다. 그의 묘는 주포면 보령리에 있다. 1906년의 의병활동으로 1991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김상억(金商億)

본관은 경주이고 주산 금암리에서 출생했다. 호는 국정(菊廷)이다. 일본 옹본(熊本 : 구마모토)의학전문학교(熊本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관직에 올라 충청남도위생과장, 충청남도도립병원장을 지냈다.

○ 김상우(金商雨)

조선말기 고종 때의 학자이다. 호는 기천(杞泉), 본관은 경주이다. 주산에서 살았다. 고종 2년(1865)에 출생하고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호학하고 백가서(百家書)에 능통하였고, 성균관박사에 오르면서 경연관을 겸하여 명성이 높았다.

○ 김상익(金商翊)

본관은 경주이고, 고종 15년(1878)에 출생하였다. 오랫동안 학문의 길에 있었으나 40세 이후에 관계에 진출하여 구례·담양 군수를 역임하였으나, 국운이 기울자, 이를 비관하고 관직을 버린 채 고향인 남포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 김상즙(金商楫)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노주(蘆洲)로서 1862년 웅천 노천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덕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자라면서 익숙해진 덕행(德行)은 그의 문학과 병행하여 향리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학들이 많았다.

○ 김성희(金成喜)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송당(松堂)이다. 현종 13년(1847)에 출생하여 관이 통정대부 중추원의관에 올랐다. 동학농민운동 때 호서의 선무사(宣撫使)로 내려와서 민심수습에 공이 컸다. 시작(詩作)과 서예(書藝)에 일가견이 있었으며, 완당(阮堂) 필법으로 유명하였다.

○ 김승렬(金承烈)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경무(景武), 호는 죽하(竹下)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문장과 경사(經史)에 밝았고, 필체가 뛰어났다. 추사 김정희의 묘비를 쓰기도 했으며,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기도 했다.

○ 김양현(金亮鉉)

본관은 광산이고 주산 유곡리 출신이다. 서울휘문고보를 졸업하고 당진군수, 충청남도 양정과장·학무과장·문화과장·지방과장을 지내고 대전시장,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했다.

○ 김영선(金永善 1918~1986)

정치가. 보령 주산면 유곡리 출생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1942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1944년 전라남도 진도군수로 부임한 뒤 전라남도 수산과장으로 재직 중 8·15광복을 맞았다.

1948년 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을 거쳐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으로 보령에서 당선되었으며, 제3·5대에도 국회의원으로 계속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민주당(民主黨) 소속 경제통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58년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2년간 경제논설을 집필하였다.

또, 이때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려고 흥한경제연구소(興韓經濟研究所)를 세워 경제부흥의 대비책을 연구하였다. 4·19혁명으로 민주당이 집권하자 장면(張勉)내각의 재무부장관으로 입각하여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중, 이듬해 1961년 5·16으로 좌절되었다.

한때 투옥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나 박정희 정부에 발탁되어 1970년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을 거쳐 그해부터 1973년까지 국토통일원장관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주일대사로 외교일선에 나서서 5년여간 활약하였다. 1979년 5월 제12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이듬해 9월까지 경제계의 발전적 단합에 내실을 거두었다. 서독 성수공로훈장(星綬功勞勳章)을 받았다.

그는 지역사회 개발에도 공이 많으며, 특히 대천간석지 700여 정보의 광활한 면적 축제공사(築堤工事), 그리고 청천저수지공사를 완성하는 데 공이 컸다.

○ 김윤환(金潤煥 1870~1936)

본관은 통천(通川)이고 호는 청암(淸庵)이다. 1891년(고종 28) 증광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소경원 참봉,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한산군수, 정산군수, 의성군수, 회덕군수, 만경군수, 내장원경을 역임했다.

치가(致家)하여 만석(萬石)의 부호(富豪)가 되었으며 웅천지역에 윤창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남포면 신흥리에 거주하다가 장년기에 공주로 이거했다. 그는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참작하여 춘궁기에 정조(正租) 95석을 출고하여 불우한 농민을 돕는 등 어려운 형편의 농민을 도우니 칭송이 대단하였다. 그의 구휼활동을 기리는 송덕비가 여러 곳에 있다. 일제시대 공주의 갑부이며 유지인 김갑순(金甲淳)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남포면 창동리에 윤창암을 세웠으며, 묘는 남포면 옥동리에 있다.

○ 김익현(金翊鉉 1905~1952)

본관은 광산이고 자는 인숙(人叔)이며 호는 오현(烏軒)이다. 김극성의 14대손으로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에서 태어난 교육자이다. 어려서 한학을 하고 이어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자의 길에 나갔으며, 청양화성초등학교에서의 제자인 송요찬(宋堯讚)은 후일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내각수반을 지내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위당 정인보 및 육당 최남선과 친교를 다지면서 항일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제에 의해 감시의 인물로 지목되어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역곡, 구항, 부성 등 타향을 맴돌아야 했다. 1945년 광복 후 초대 청소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남포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작고하였다.

○ 김정덕(金正勳)

본관은 경주이다. 일찍부터 교사생활을 시작하여 국민학교 교사에서 대천중학교, 공주고등학교 등 여러 중고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했다. 그는 심오한 교육이론으로 47년간 교육에 종사한 공헌이 높이 평가되는 인물이다.

○ 김정계(金廷濟 1881~1962)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정파(耕波)이며 보령 주산면 주야리에서 태어났다. 임흥준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김동삼(金東三)이 소백채구(小白菜溝)에서 민족교육을 위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치하였을 때에 총무를 맡아 활약하였다.

한편, 1920년 3월 상해 임시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한족회 및 군정부의 여준(呂準) 등 27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한 결과, 한족회의 조직을 변경할 때에 실업과장에 임명되었으며 또한 상무사장(商務司長)으로도 활약하였다.

1921년 1월에는 왕청현(汪淸縣)에서 대한독립군정서에 가입하여 강철구 박길화 등과 함께 부여지방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23년 3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다시 만주로 망명하여 1925년에 정의부가 조직되자 박정조(朴正祚) 백남준(白南俊)과 함께 재만한인의 생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1926년에는 정의부(正義府)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27년 4월에는 만주지방으로 이주한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함께 농민호조사(農民互助社)를 조직하여 산업상 생산의 증가, 교육발전, 위생과 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고, 이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묘소는 웅천면 죽청리에 있다.

○ 김정철(金正喆)

본관은 경주이고 웅천읍 관당리 출신이다. 교육계에 투신하여 여러 직에 활동한 이래 서천군교육장, 논산군교육장, 대전시교육장을 역임하면서 교육행정에 공헌한 바 크다.

○ 김중대(金鍾大)

본관은 김해이고, 1909년 천북면 신덕리에서 출생했다. 보령, 예산, 공주, 강경, 천안, 영도, 수원, 대전, 동인천, 순천, 부산진 등의 경찰서장을 거쳐 충청남도경경무과장, 치안국 치안계장을 역임한 후 퇴직, 1965년 보령농지개량조합장을 지냈고 1981년 사망하였다.

○ 김지정(金知貞, 1889~1948)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보령시 웅천읍 평리에서 태어났다. 백관형(白觀亨)에게 수학하였고, 면암 최익현과 삼희당 윤석봉을 따르면서 지역유림으로 활동하였다. 집성당(集成堂) 활동에 족제(族弟) 김일정(金一貞)과 함께 성력을 다하였다.

1919년 고종의 국상이 발표되자 스승 백관형과 함께 상경하였다. 그리고 파리장서운동이 추진되자 여기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서명유림 중에는 가장 나이가 적은 30세였다.

이 결과 체포되어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향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왜경의 감시에 시달렸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김창진(金昌震)

본관은 김해이고, 호는 청사(靑史)이다. 김일손(金駟孫)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고종조 1885년에 수계(壽階)로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다. 한일합방 후 국운이 기운 것을 한탄한 나머지 두문불출하였으며, 왜정(倭政)의 유혹에 단연 항거한 학자다. 어려서 임천(林川)에서 미산으로 이거하여 여생을 보냈다.

○ 김현교(金顯喬)

본관은 김해이고 호는 우석(愚石)이다. 1881년 웅천 평리에서 태어났다. 학문이 깊었으며, 문필이 뛰어난 선비였다.

○ 김화식(金華植)

보령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말년에 홍성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유인석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유인석 의병진에서 활동한 애국지사이다. 유인석 사후 스승의 글을 모아 소의신편(昭義新篇)을 지었다.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 현재 그의 흔적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윤석봉의 문집이나 조문록(弔文錄) 그리고 집성당 제관록 등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보령의 화서학과 인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문상철(文相哲)

본관은 남평(南平)이고 주포면 보령리 출신이다. 금융계에 들어가 1959년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원장, 1961년에는 한국은행부총재, 1962년에는 은행감독장을 지내고, 1967년에는 국민은행장, 1970년에는 조흥은행장에 올랐다.

○ 민재국(閔載國)

본관은 여흥이고, 호는 월파(月坡)다. 학문이 깊었으며, 유행(儒行)으로 혹은 문필(文筆)로서도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 민정훈(閔鼎勳)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어려서부터 대의(大義)를 존중하고, 학업에 전력한 한 고을의 학자였다.

○ 박명진(朴明鎭)

본관은 밀양이고, 남포면 읍내리에서 출생했다.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계에 투신, 충청남도경찰국 부국장, 철도경찰부국장, 제일관구부국장(第一管區副局長), 치안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고 치안에 공을 세웠다. 6.25 때 화를 당하여 생을 마쳤다.

○ 박선화(朴善和)

본관은 밀양이고 성주면 개화리 출신이다. 일찍 조실부모하고 가계가 빈궁하였으나 근검절약하여 성가(成家)를 한 후 여러 사람을 도운 독지가다. 그는 춘궁기(春窮期)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축(餘蓄)하였던 전곡을 나누어주어 구휼하였으며 지방교육에 사재를 털어 개화사숙(開花私塾)을 열어 배움의 길을 터줬다. 송덕비(頌德碑)가 있다.

○ 박성학(朴性鶴)

본관은 밀양이고 주산면 야룡리에서 거주하였다. 일제 때 학령이 초과한 아동과 극빈 자녀들이 가르침을 못 받는 것을 개탄하고 용강학원(龍岡學園)을 설립하고 수백명의 문맹소년들의 앞날을 밝혀 주었으며, 주산면장 재임시에도 주산초등학교, 주산중학교의 교육시설 확장에 노력하는 한편, 여러 기관의 확장, 주산 임시정거장의 신설 등 향리를 위한 공헌으로 신망이 높았다.

○ 박영삼(朴英三)

밀양인으로 오천면 삼시도에 거주하면서 도서민의 권리증진과 도서개발을 위한 일에 일생을 바쳤다.

○ 박영철(朴永哲 1855~1912)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호는 남계(藍溪)다. 공주 수촌(水村)에서 남포군 심동리에 옮겨 살았다. 고종 연간에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고, 이어서 사헌부 감찰에 올랐다.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자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일본정부 및 통감부에 장서(長書)를 보내 준엄한 문장으로 크게 꾸짖어 책망하면서 화이(華夷)는 서로 어지럽혀질 수 없으며, 인수(人獸)는 서로 합해질 수 없음을 밝혔다. 한번 글을 보내서 답장이 없자 다시 보내기에 이르렀고, 또 답이 없자 세 번째 글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화(華)이고 너희들은 오랑캐이며, 우리들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짐승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저들의 비위를 크게 거슬러 통감부에 압송되었고 일본에 붙잡혀 보내졌다. 그러나 저들도 의롭게 여기고 귀가시켜 시골에서 편안히 직업에 종사하며 살도록 하였지만, 돌아와서도 항상 분한 기운이 남아있어, 또 장서(長書)를 보내 일본 대관(大官) 계태랑(桂太郎)과 본군주재소를 크게 꾸짖기를 전(前)의 글 보다 더욱 심하게 하였다.

남포 헌병 주재소에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다. 고초를 겪은 후 석방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사망하였다. 묘소는 처음에 웅천 대천리에 있었다.

○ 박영휘(朴永徽)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기죽당(淇竹堂)이다. 개화리에 거주했던 학자이다. 학문에 뜻을 두고 백가저서(百家諸書)를 탐독하여 학문이 높았다. 행의(行義)가 숭고하고 글을 잘했다. 문집인 기죽당문고가 있다.

○ 박인화(朴仁和)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송파(松坡)다. 주산 주림산 아래에서 태어나 학행이 탁월하여 광무 6년 11월 8일 칙명으로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다.

○ 박제무(朴濟茂)

본관은 반남이다. 경기도 광주출신으로 통정대부 도정(都正)을 역임하고, 만년에는 청라면에 은거하였다.

○ 박종화(朴鍾和)

호는 호은(湖隱)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주산면 삼곡리 출신으로 신장이 6척 5촌인 거인이었다. 그는 문필에도 탁월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돕는 데도 술선수범을 보였다. 흉년일 때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주 시혜를 함으로써 세인(世人)들이 그를 가리켜 선인(善人)이라고 칭송했던 인사다.

○ 박지양(朴芝陽)

본관은 반남이고 호는 기정(綺庭)이다. 여러 주군에 출재(出宰)하여 치적이 높았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여러 사람을 돕고 구조하니 사람들이 칭송하는 인물이었다.

○ 박창화(朴昌和)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겸헌(謙軒)이다. 미산면 개화리에서 출생하여 옥재 백관형에게 수학하였고, 서도(書道)에 따른 필법은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에게 수필(受筆)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 박학진(朴鶴鎭)

1905년 남포면 읍내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시대부터 법조계에 투신하여 1951년에는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홍성지원, 전주지법정읍지원, 춘천지법 판사를 거쳐,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전주지법 금산지원장 등을 역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8년 사망하였다.

○ 백관형(白觀亨 1861~1929)

호는 옥재(玉齋)이고 자는 경국(敬國)이며, 본관은 남포(藍浦)이다. 보령 남포면 양기리에서 백사량(白師亮)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수재(秀才)로 유명하였으며, 성장하여서는 의암 유인석, 면암 최익현, 삼희당 윤석봉에게서 수학하였다.

1906년 민중식의 홍주의병진에 참모로 가담하였고, 한일합방 후인 1916년에는 충북 괴산군의 만동묘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여기서 백관형은 유림들에게 항일투쟁을 역설하다가 괴산 경찰서에 체포되어 투옥 중 5일간 단식투쟁을 하였다. 그 후 보령경찰서에 이송되어서는 실신의 악형을 당하였으나 굴하지 않았다.

고종의 국상에 참여하기 위해 유준근 그리고 제자 김지정 등과 함께 상경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조선독립은 우리들 이천만의 요구이다. 우리들은 손병희의 후계자로서 조선독립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술한 애원서(哀願書)라고 제목을 붙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서명하여 총독에게 발송하는 한편 운집한 대중들 앞에서 낭독하다가 왜경과 충돌하고 체포되었다. 일명 「12인등의장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전국 유림들이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우리의 독립 여망을 전하는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를 보냈는데, 전국 유림대표 137명 중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이어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8일간 단식을 하니 왜경이 차고 있던 긴 칼로 강제로 입을 열게 하는 과정에서 양 볼에 선혈이 낭자하였다. 옥고를 치른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일제가 시행하는 여러 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저항하였다.

삼희당 윤석봉이 웅천 대천리에 집성당을 창건함에 지역의 다른 유림들과 성력(誠力)을 다하였다. 웅천 수부리에서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의 묘소는 처음에는 대천 명천동에 있었으나, 최근 웅천읍 구룡리 예전산으로 이장하였으며, 그의 제자 박성철이 지은 묘비가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올려 추서하였다. 보령 5열사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된다.

○ 백규수(白奎洙 1827~1868)

본관은 남포이고 호는 혜산(蕙山)이다. 웅천 구룡리 장좌동에서 태어났으며, 학문의 길에 들어서는 역사(歷史)·율력(律曆)·산수(算數)·백가기예(百家技藝) 등을 관통하니 세상 사람들이 광세위학(曠世偉學)이라 하였다. 율곡과 남당의 학문을 따랐으며, 숙재 조병덕, 매산 홍직필, 전재 임헌회, 석당 정구석 등과 교유했다. 그는 후학을 양성하는 데 사장(射場)을 만들고는 선비 가슴 속에 일책(一策)도 없이 문묵(文墨)만을 논담(論談)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하며 무술도 가르쳤다. 또 개간과 육축(六畜)을 권장하고 자신도 시행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다.

○ 백낙관(白樂寬 1846~1883)

본관은 남포(藍浦)이고 자는 경교(景敎), 호는 추강(秋江)이다. 보령 주산면 동오리 오상동에서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참관을 지낸 백홍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족속인 혜산 백규수(蕙山 白奎洙)에게 수학하면서 주경야독하여 일찍이 학문에 통달하였다.

1881년(辛巳年) 정월 백낙관은 충청도 내에 통문을 돌려 유생들과 연명(聯名)으로 척왜상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소문을 조정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비 문제만 어려워져서 포기하고 말았다.

1882년(壬午年) 다시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상경하였지만, 이때는 조정에서 척사상소를 하는 유생들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서 한 달이 되도록 상소문을 전달할 수 없어, 홀로 5월 4일 밤에 남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 남산 봉화는 국가의 안위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잘못을 범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봉화를 올린 즉시 봉수 감관에게 체포되어 장어영(將御營)에 수감되었고, 장어영 대장이 밤에 어전에 상소 사실을 아뢰었다.

당시 초야의 유생으로서 왜를 배척하고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사람은

백낙관이 처음이었다. 특히 명성황후가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결탁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기 아들로 세자 책봉을 승인 받고, 하나부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과, 왜의 침략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왕에게 바른말을 하지 못하는 척신(戚臣)들을 처벌하라는 주장은 아무나 하기 어려운 용기였던 것이다.

이 상소로 인하여 투옥되었던 백낙관은 얼마 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석방되었다. 그러나 청군이 들어와 군란을 진압하고, 이어 권력을 잡은 민씨 세력에 의해 다시 체포되어 국문을 당한 후 범상부도(犯上不道)죄로 처형당하였다. 나이 38세였다. 이리하여 백낙관은 항일 위정 척사 운동에서 충청도 지역 최초 희생자가 된 것이다.

그후 1908년 죄인 대장에 올라있던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는 조치가 행해져서 백낙관도 범상부도죄가 사면·신원되었다.

이러한 백낙관의 행적들은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추강집> <기려수필> 등에 기록되어 오고 있다. 또 그의 우국충정에 대하여 백범 김구는 “烈은 義 속에 담겨있으니 추강의 큰 절개는 마땅히 義士라 써야 한다”면서 ‘秋江白義士’라는 비액을 써주었고, 장면 부통령은 “어진 군자의 충군우국(忠君憂國)하는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이와 같이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산 김창숙, 위당 정인보 현산 이현규 등이 백낙관의 우국충정을 추모하는 글을 써서 그의 행적을 기렸다. 현재 백낙관의 묘소는 주산면 창암리 창말에 있으며 문집인 추강집이 있다. 보령5열사의 한 사람으로 추앙된다.

○ 백낙철(白樂喆 1861~1940)

본관은 남포, 자는 명숙(明淑) 호는 취송(翠松)이다. 족형인 추강 백낙관에게서 수학했다. 효성이 지극했으며 유교문풍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당대의 지역 유학자들인 윤석봉 윤명오 김복한 김상덕 유호근 등과 교유했다.

○ 백창균(白彰均 1912~1991)

본관은 남포, 호는 청양(淸陽)이고 자는 종한(宗漢)이다. 보령 웅천읍 구룡리 장자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조부에게 배우고, 이어 지역의 유명 한학자들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배워서 한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산수와 문장과 명사(名士)들을 좋아한 선비였다. 김구 정인보 오세창 김승렬 장면 김창숙 등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일생 동안 많은 문장을 남겼는데, 문집인 장옥난고(藏玉亂稿)가 있다.

○ 복혜숙(卜惠淑 1904~1982)

보령시 동대동 406번지에서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 복기업(卜箕業)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 이화학당과 일본 요코하마의 기예학교(技藝學校)를 수료하고 18세에 배우가 되어 1881년까지 400여 편의 영화와 연극에 출연했으며, 대한영화배우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1994년 10월 28일 보령시 동대동 도로변 공원에 우리나라 원로 배우들의 성력(誠力)으로 동상을 건립했다.

○ 상리현(尙利鉉)

본관은 목천이다. 주산면 야룡리에 거주하며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1930년대 초 주산에 보령지역 중등학교 설립제안이 있게 되자 향리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하는 학교 설립이 요망됨을 깨닫고, 임경순 임세준과 함께 자금을 회사하여 주산농업전수학교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때 상리현은 담 20마지기를 회사하였다. 이리하여 보령지역에서 최초로 주산에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의 주산 중·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이 주산농업전수학교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가 주산초등학교 앞에 세워졌다.

○ 서정갑(徐廷甲)

본관은 달성이고, 남포면 양항리 출신이다.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 연희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1952년에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1958년 동국대학교 교수, 1962년에는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62년에는 고등고시 행정과 시험위원, 1964년, 1966년에는 사법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하고 1968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상법총칙(商法總則)』 『신상법(新商法)』 등 다수가 있다.

○ 신건(申健)

자는 성립(聖立)이고,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가정에서 수학하였으나 유림으로서 모범이 되는 덕과 언행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오천향교 건립에 공이 컸다.

○ 신명윤(申命潤)

본관은 평산이고 호는 심재(心齋)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는 장성해서 성리학에 밝은 학자로 널리 알려져 사림의 추천으로 참봉(參奉)에 올랐다.

○ 신섭(申櫟 1838~1899)

본관이 평산(平山)이고, 자는 성방(聖芳) 호는 율농(栗農)이며 평산신씨 문희공파

(文僖公派) 인물이다. 일찍이 화서학과 김평묵의 제자로 학문에 힘써 의리와 위정척사의 사상에 철저하였다. 1874년 경기도의 여러 유생들을 이끌고 소두(疏頭)가 되어 황묘(皇廟: 萬東廟)복설 상소를 주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신사위정척사운동(辛巳衛正斥邪運動) 시기에는 경기도 유생을 대표하여 다시 외세를 배척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전라도 금갑도에 4년 간 유배 당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형제들과 함께 비인 율리로 낙향하여 은거하면서 후학 지도를 필생의 업으로 삼았다. 그의 자호(自號) 율농(栗農)도 ‘율리의 농부’라는 의미로 지어진 것이다.

이때 배운 제자 중에 운초(雲樵) 문석환(文奭煥, 1870-1925)은 병오 홍주의병 때 서기(書記)로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 생활을 한 항일애국지사였다.

그리고 申櫟은 양주에서 낙향한 동문 윤석봉(尹錫鳳), 그리고 남포 지역 유생인 조진학(趙鎭鶴)과 함께 1898년에 웅천 대천리에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影堂)인 집성당을 창건하는 데, 대표 맡기인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지역 유림들에게 창건 통문을 돌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개월 후 62세의 나이로 남포의 천곡(泉谷) 집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집성당 활동과 항일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함께 비인에 낙향한 그의 형제들인 申석, 申桂, 申峽은 파평윤씨가들과 함께 집성당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많은 지역 선비들과 항일 위정척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를 하였다. 따라서 신섭가의 비인 입향은 파평윤씨의 입향과 함께 당시 이 지역 유림사회에 화서학파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 신응선(申應善 1834~1921)

본관은 평산이며, 평산신씨 문희공파 인물이다. 고종 30년(1893)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교리, 수찬, 응교를 거쳐 좌우승지를 역임하고 도승지에 올랐으며, 승정원의 기강을 세우는 데도 공을 세웠다. 뒤에 가선대부에 이르고 문필이 뛰어났다.

말년에 보령에 살면서 학문활동을 했으며, 문집인 심당집이 있다.

○ 신직선(申稷善 1853~1927)

보령 화산동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유칠(幽七), 호는 경재(經齋)이다. 김복한 유효근 조구원 등과 함께 활동한 남당학파의 학자이다. 1923년 경기도 고양으로 이거하였다가 다시 보령 남포 봉덕리에 와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하였으나 연고가 없어 유공자 서훈이 되지 않았다.

○ 심영택(沈永澤 1867~1901)

본관은 청송이고 자는 명보(命甫) 호는 옥담(玉潭)이다. 심의덕(沈宜惠)의 아들이다. 옥담이라는 호는 주자의 고향인 옥산(玉山)과 율곡의 고향인 석담(石潭)에서 취한 글자이다. 그가 일찍부터 성리학 연구에 심취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찍이 부친에게 배우고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으며, 문장으로 유명하였다. 부친 심의덕(沈宜惠, 1845~1910)과 함께 호론(湖論)을 지지하며, 보령 유림계에서 활동했으며, 학문이 뛰어나 유림계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미처 학문적 뜻을 이루어 보기도 전에 35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부친을 비롯한 주변의 학자들이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 심의덕(沈宜惠 1845~1910)

1876년 세거지인 경기도 김포에서 보령 궁촌동으로 이거한 후, 동대동 등에 옮겨 살면서 성리학 연구에 힘쓴 지역의 유학자로 본관은 청송, 자는 윤여(潤汝) 호는 창산(菴山)이다. 유호근, 김복한, 이설, 조구원, 김상덕 등과 함께 남당 한원진의 의리를 따르는 학문적 지기로 활동했으며, 이들과 이기론을 강론했다. 이러한 의리 사상을 바탕으로 을미사변 후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윤석봉 조구원 유호근 등과 함께 연명하여 격려문을 보내고,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상실되었을 때는 지역유림들과 함께 세금납부 거부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의 5대조 심조(沈潮)는 호가 정좌와(靜坐窩)인데, 조선 후기의 뛰어난 성리학자였다. 심의덕의 학문은 5대조의 학문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 염두섭(廉斗燮)

본관은 파주이고 미산면 용수리 출신이다. 그는 일찍부터 선진국가를 두루 시찰하고 우리나라를 깨우쳐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미산면 용수리에 사재를 털어 유신학원(維新學園)을 개설하고 수년간 학생을 가르쳤던 덕망가다. 유신학원은 미산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송덕비가 있다.

○ 오병화(吳炳和)

본관은 보성이고 호는 정석(貞石)이다. 1883년 웅천 평리에서 출생했다. 학문적 재능과 도덕심이 강하고 참봉에 올랐으며, 지역 유림계의 인물로 활동했다. 일생동안 사회 선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 오창교(吳昶敎)

본관은 보성이고 웅천 수부리 출신이다. 일찍이 관직에 올라 보령군청 산업과장,

충청남도 지방과장, 서무과장을 역임하였다. 청양군수를 지낼 때는 산간 오지인 청양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퇴직 후에는 대한교육보험 충남지사장을 역임했다.

○ 유기대(柳翼台)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조선시대 말기 고종초에 무과에 급제하여 호군(護軍)·대호군(大護軍)을 역임하고 오위장(五衛將)에 이르렀으나, 국운(國運)의 비운(悲運)을 탄식하고 관직을 버린 채 고향인 주포에 내려와서 만년까지 역학에 심취, 일생을 마쳤다.

○ 유문수(柳文洙)

본관은 진주이고 주포면 마강리 출신이다. 일찍부터 교육계에 투신하여 교사생활부터 학교장 재임까지 충남의 페스탈로찌로 불릴 만큼 교육자로서 귀감이 되었던 교육가다. 특히 보령교육계에 만년까지 종사하여 그 참된 인품으로 교육에 미친 영향이 컸다. 대천여자 상업고등학교장, 대천고등학교장 등을 거쳐 보령중학교 재임 중 1990년 타계하였다.

○ 유석두(柳錫斗)

본관은 진주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사용(司勇), 사맹(司猛)에 올랐다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주포 마강리에 내려와 은거했다.

○ 유성희(柳聖熙)

본관은 진주이고 주포면 마강리에서 출생하였다. 1935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미산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장을 지냈다. 순박한 교육자로 충남 교육계에 미친 공헌이 크다.

○ 유영중(柳英中 1921~1951)

보령 주포면 출신이다. 일본군 학도병으로 중국 장사(長沙)에서 탈출하여, 중국 중앙군 작전을 지원하여 대적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입대하여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유준근(柳濬根 1860~1920)

보령 대천의 녹문마을에서 생원(生員) 유형(柳馨)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순경(舜卿), 호는 우록(友鹿)인데, 대마도 유배시 면암 최익현이 지어준 것이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재종형 유호근(柳浩根)과 원근의 선비들을 따라 바른말을 듣고 의리를 따르며, 주경야독하여 우암 송시열의 의리론(義理論)을 숭모(崇慕)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면암 최익현은 전국 유림들에게 세금 납부 거부 투쟁을 역설하였고 이에 유준근은 보령 유림들과 연명하여 통문을 돌리고 세금 납부 거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1906년(병오년) 민중식이 홍산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의병진에 가담하여 홍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유병장(儒兵將)의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홍주성이 무너지자 모두 피신하기 급급했지만, 침착하게 의병관련 기록을 소각한 후 왜적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른 8명의 의사와 함께 일본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이때 면암 최익현도 이곳에 유배되어 함께 있게 되어 배움을 청하고 제자의 예를 갖추었으며, 면암의 병이 깊어지자 자식처럼 주야로 간호하였다.

4년 만인 1909년 고국에 돌아온 후 늦게 아들을 낳았으나 일제의 호적에 올리지 않아 경찰서에 불려가 온갖 협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입적을 허락하지 않았다.

1912년 고종황제의 밀명에 의해 돈헌(遯軒) 임병찬(林炳瓚)이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을 때 충청도지역 대표자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19년 문일평(文一平) 등과 함께 〈12인등의장서〉를 연명하여 총독부에 전달하는 한편, 종로 보신각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낭독하는 활동으로 3.1만세 시위확산에도 모하였다.

또 1919년 서울에서 심산 김창숙 등과 함께 파리장서운동 추진을 협의하고, 전라도에 내려가, 계화도에서 은거하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동참을 설득하였으며, 그도 유림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1920년 일제의 유교 어용화 정책 반대와 유교 윤리의 진작을 위하여 경향(京鄕)의 유림들이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를 설립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이때 보령 지역의 대표로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예산 대흥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왜경은 행인들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는 왜경에게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 얼마 후 1920년(庚申年) 8월 그 전염병으로 향년 61세에 녹문 본가에서 서거하였다.

1977년 정부에서는 건국포장을 추서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올려 추서하였다. 묘는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고잠마을에 있으며, 1980년에 이병권 지음 황면주 씬의 묘비가 있고, 2003년에 황의천 지음 보령시장 이시우 세움의 항일운동사적비가 있다. 최근 의사의 묘역을 새롭게 정화하였다

○ 유호근(柳浩根 1853~1925)

보령 내항동 녹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선직(善直)이며, 호는 사가(四可)이다. 스스로 학문하여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호론(湖論)을 존신하였다. 일제시대 보령 청라 옥계리에서 사가재(四可齋)라는 서실(書室)을 만들고 후진을 가르치면서 주변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의리를 강론하고, 유교적 문풍(文風)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보령향교 화암서원, 웅천 집성당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 유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김복한 이설 심의덕 등과 우의가 두터웠다.

1906년 민중식 의병진이 홍주성을 점령하자 55세의 나이로 윤석봉 김상덕 채광묵 등의 유림들과 함께 홍주성에 들어가 의병진에 가담하였고, 1919년 유림들이 파리장서운동을 전개했을 때 우리나라 유림대표 137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명했다.

1925년 73세의 나이로 청라에서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묘소는 청라 내현리에 있다가 2002년 내항동 선영(先塋)으로 이장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생전에 많은 제자를 길렀으며, 문집인 『사가집(四可集)』이 있다.

○ 윤건오(尹建五 1835~1918)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성극(聖極), 호는 화정(花汀·華汀)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일찍이 사서삼경 등 경전을 두루 독학하였다. 1874년 신첩(申櫻)을 비롯한 경기 유생들이 서원 철폐 과정에서 철폐된 만동묘(萬東廟)를 복설해 달라는 상소문을 작성하여 대궐문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이때 윤건오는 독소지임(讀疏之任)을 맡아서 활동하였다.

한말 시국의 어수선함 속에서 재종질인 윤석봉과 함께 1890년 세거지인 양주에서 비인 율리 석천(石川)마을로 낙향하였다. 곧 웅천 대천리에 이주하였다. 1896년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자손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자르면 華夷와 人獸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단발을 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그 치욕을 잊을 길이 없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다가 머리를 깎고 죄인을 자처하려다가 자손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도 華西·重菴·省齋의 大義를 찾았으며, 임종 시에는 자손들에게 ‘今此裕昆狀(자손들아 이제는 영결하노니) 矢心判獸夷(금수와 오랑캐를 구분하라)’라는 戒子詩를 남길 정도로 철저한 성리학적 의리론자였다. 그의 묘는 부여군 내산면 괴목리에 次子 尹錫禧가 撰한 묘비와 함께 있다.

○ 윤길(尹浩 1882~1943)

본관은 파평이고, 주산 증산리에서 출생하였다. 1914년 5월에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대한교민광선회(大韓僑民 光鮮會)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귀국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고, 격문과 미국에서 발행한 「신한민보(新韓民報)」 여러 부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윤이병(尹履炳)등과 화합하고 활동에 착수하려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15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및 강도협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 중에 소위 칙령에 의거하여 징역 5년 3월로 감형되었다. 석방된 후에는 고향에 머무르면서 남포청년상회(藍浦靑年商會)를 조직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상업에 종사하는 상점 같았으나, 항일운동 하는 조직체로 활동하다가 왜경의 제지로 문을 닫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묘는 주산면 증산리에 있다.

○ 윤명오(尹命五 1856~1938)

본관은 파평이고, 호는 노포(老圃)이다. 윤건오의 서제(庶弟)로 형인 윤건오와 재종질 윤석봉과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낙향하여 웅천 노천리에서 거주하였다. 을미사변 후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利原·積城·丹陽 군수를 역임하였고, 한일합방 후에는 독립의군부 남포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현재 그가 남긴 자료는 웅천 성동리의 제방사실비(堤防事實碑)가 있다. 군수를 역임할 때는 淸白하게 하여 그의 善政碑가 여러 곳에 세워져 있다.

○ 윤석기(尹錫祺 1860~1927)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수경(壽卿), 호는 지산(芝山)이다. 본관은 파평이다. 윤건오의 아들이다. 부친에게 학문을 배우고, 삼종형 윤석봉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부친과 함께 웅천 대천리에 이주하여 스승인 윤석봉과 함께 집성당에서 강의(講義)하면서 예속과 문풍을 진작시키는 것을 필생지계(畢生之計)로 삼았다.

살고 있던 대천리에 시장과 초등학교가 만들어지자 이를 피하여 미산 늑전으로 이사할 정도로 철저한 성리학적 가치관을 지닌 선비였다, 지역의 여러 유림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백관형 이교헌과 절친했다.

○ 윤석봉(尹錫鳳 1842~1910)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운서(雲瑞),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동당(洞堂) 서응순(徐應淳)과 진암(鎭菴) 박홍수(朴洪壽) 문하에 나아가 수학 하였고, 이어서 37세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에게, 이어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문하에 나가서 수학하면서 화서학파의 의리를 체득하였으며, 최익현 유인석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동문으로 교유하였다. 1888년 경기도 양주에서 충청도 비인으로 재종숙 윤건오(尹建五)와 함께 낙향하였다.

거기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2년 뒤 1890년 보령 웅천읍 대천리에 이주하여 후학을 가르치면서 1895년 홍주의병장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僖) 등 호서 지역의 남당학과 학자들과 의리로서 교유하였다.

1898년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웅천 대천리에 주희와 송시열 양부자(兩夫子) 영당(影堂)인 집성당(集成堂)을 세우고 의리를 강론하면서 항일 위정척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1906년 민중식이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키자 65세의 고령임에도 참여하였다가 45일간의 구류 후 풀려났다. 이때의 과정을 기록한 「홍경일기(洪京日記)」는 홍주의병 운동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07년에는 지역에서 의병을 선동하고 민심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김복한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러나 65세의 고령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투옥 생활로 얻은 지병이 악화되어 얼마 후인 1910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의 손자 윤주하가 다시 고향인 양주로 돌아갔고, 후에 고향으로 묘소도 옮겨 갔으나, 개발과정에서 유실되었다. 삼희당문집이 있다.

○ 윤호(尹濼)

본관은 무송(茂松)이고, 호는 송재(松齋)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여 각지에서 투쟁대열에 참여하였다. 1919년 국내로 잠입하여 독립군의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1921년에는 김좌진 장군 지휘 아래 군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에서 활동했다. 세계혁명대회에 참석하고, 그후 독립운동단체인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의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하여 중외일보(中外日報)에 적을 두고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독립투사다.

○ 이경식(李慶植 1770~1834)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희렴와(希濂窩)이다. 익재 이제현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재능이 있던 선비였다. 자라면서 많은 서적을 역학(力學)하여 학자로서 신망을 얻은 인물로 뒤에 유림의 추천으로 교관(敎官)에 올랐다. 또한 효행이 탁이한 선비로 이름났다.

집안의 학자인 난국재 이예환 등과 교유했고, 숙재 조병덕이 지은 행장, 송래회가 지은 묘갈명이 있다. 그의 아들 이학영, 손자 이규구, 외손 심의운 심의풍 형제, 심의운의 아들 심주택 등이 모두 학문으로 유명했다.

○ 이계권(李啓權)

호는 지산(芝山)이고, 본관은 함평(咸平)이다. 효우하고 근엄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남달리 뛰어났다. 흉년에 극빈자를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많은 백미(白米)를 시혜하여 도움을 주는 등 공이 많았던 인사다. 문행(文行)이 또한 뛰어났었다.

○ 이교석(李敎奭 1861~1927)

본관은 전의이고, 호는 이운(怡雲)이다. 고종 22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선전관으로 시작하여 초계군수, 훈련원도정, 장흥부사를 거쳐 광무 1년(1897)에 증추원의관, 평리원검사, 경무부장을 역임하고 광무 6년 종2품 가선대부 농상공부협판(協辦)을 지내고 뒤에 홍주군수를 지냈다. 관직생활 30여 년간 청백리로 이름났다. 남포 대덕동 출신으로 묘는 비인 남당리에 있으며, 조선중기 무장(武將) 이세선(李世選)의 후손이다.

○ 이규구(李圭龜 1825~1891)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동소거사(東沼居士)이다. 조부는 이경식(李敬植), 부친은 이학영(李學榮)이며, 익재 이제현의 후손으로 주산 동오리에서 세거했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에 열중하여 학자로서 일가견을 이루었다. 자손과 후진의 교육에 힘쓰니 후에 학행으로 동부승지에 증직되었다.

○ 이근수(李根壽)

자는 영조(永祚)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일찍부터 의지할 곳이 없더니 근검하여 치가(治家)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룬 뒤, 궁한 사람들을 고루고루 구휼하여 향리에서 칭송이 높았다.

○ 이기하(李起夏)

본관은 완산이고 호는 소산(素山)이다. 고종조에 관직은 주사(主事)였으나 시문에 능하였다. 현감까지 올랐다.

○ 이명종(李鳴鍾 1893~1954)

보령 청소면 죽림리 출신이다. 1919년 3월 6일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廣川里)에서 동지들과 조선의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8일에 큰 글씨로 쓴

선언문 2매를 작성하여 광천(廣川) 장터와 용암리(瓮岩里)에 게시하고 주민들을 규합하며 독립선언문 다수를 등사하여 가가호호 및 광천 장날에 운집한 군중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었다

동년 4월 28일에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동년 6월 7일 경성복심 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올려 추서하였다. 청소면 국도변에 그의 공적비가 세워졌다.

○ 이병규(李秉奎 1850~?)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부당(芙蓉堂)이다. 계성군파이다. 부친은 대원군 집권기에 수사 등을 역임한 이장렴(李章濂)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수사 등을 역임했다. 말년에 웅천 수부리로 낙향하여 시문으로 선비들과 교류했는데, 윤석봉 윤건오 이사육 임상호 이관영 등이다.

○ 이병태(李秉台)

본관은 성주이고 남포면 소송리 출신이다. 충청남도 토지개량과장, 그리고 충청북도 산업국장을 역임했다.

○ 이봉구(李鳳九 1847~1907)

본관은 우봉이다. 현종 13년(1847)에 태어나 고종 6년(1869)에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 길에 올라 절충장군신과진병마첨절제사(折衝將軍新坡鎭兵馬僉節制使)에 올라 북방 수비에 임하기도 했으며 평해(平海)군수를 역임했고, 고종 24년(1887)에는 내금위장(內禁衛將)에 오르고 그후 충청도 수군절도사에 올랐을 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대응했다. 1907년 사망했다. 오천에 그의 장자 오천군수 이병묵(李炳默)이 세운 송덕비가 있다.

○ 이사성(李思聖 1883~1949)

본관은 전주이고 임영대군파이다, 호는 의산(義山)이다. 보령 웅천 대창리에서 출생한 독립투사다.

1906년 5월 민종식(閔宗植)의 홍주의진(洪州義陣)에 가담하여 선봉장 박영두(朴永斗)와 함께 소모장에 임명되었다. 그후 이한구(李漢龜)와 같이 임천(林川)·한산(韓山) 등지의 의병을 모집하고자 임천에 도착하였다가 피체되어 동년 11월 평리원(平理院)에서 소위 “정사(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난을 일으키는 율(律)”로 유배 10년을 언도받았다. 그뒤 1906년부터 1923년까지 서천군 한산면 송림리(松林里)에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1919년에는

3·1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일경의 이목을 피해 부안군 위도면(蝸島面) 진리(鎭理)에서 은거하였으나 생활고로 인하여 7년간 걸식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가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올려 추서하였다. 그의 묘는 주산면 증산리에 있다.

○ 이상락(李相洛)

본관은 수안(遂安)이고, 호는 수당(睡堂)이다. 고종 10년(1873)에 출생하였다. 문학에 뜻을 두고 수려한 문장으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그 명성으로 충의위참봉(忠義衛參奉)의 관직이 내렸으나 한일합방의 비보를 접하고는 청소면에 은거하여 후인들에게 충용지도를 교도하였다.

○ 이상락(李相樂)

본관은 경주이다. 세무공무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하고 보령군수에 이르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충남 도의원, 대천수리조합장, 보령산림조합장을 역임했다. 대천간척지와 청천저수지공사 및 준공에 많은 공로를 쌓았으며, 대천해수욕장 개발에도 공헌 한 바 크다. 송덕비가 세워졌다.

○ 이상률(李相律)

본관은 경주이고, 남포면 월전리 출신이다. 8.15광복 후 충남경찰국 경찰관, 청양·태안·보령·논산의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보령군농회장(保寧郡農會長)을 거쳐 정계에 투신하려하던 중 6.25동란 때 화를 당하여 생을 마쳤다.

○ 이상식(李相湜)

수안인으로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하여 감찰서장(監察署長) 철경서장(鐵警署長) 등을 역임하다가 6.25에 흥변을 당했다.

○ 이상억(李相億)

본관은 경주이고 남포면 월전리에서 출생하였다. 일본구택대학(日本駒澤大學) 한학과를 졸업하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학무국 촉탁을 거쳐 해방후 문교부 편수관을 지냈다.

○ 이석구(李錫九 1880~1956)

본관은 전주(완원군파)이고 청라면 의평리에서 출생하였다. 1847년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올랐다. 가산(家産)이 2만석의 대지주였다.

그는 서울 송인동에 동덕소중고교(東德小中高校)를 설립하고, 보성전문학교에 기부하기도 했으며, 성균관대학에 거재(巨財)를 희사하여 대학교로 승격시키는 데 많은 공을 세워서 육영사업에 남달랐다.

1934년에는 대천면 대천리에 의평농장(蟻坪農場)을 설치하여 소작인의 금비대금(金肥代金)을 보조하는 등 소작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많은 공민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동덕여자고등학교주(校主), 성균관대학교 명예총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받았다. 보령 각지에 송덕비가 있다.

○ 이선규(李善圭)

호는 한은(漢隱)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천성이 염정(廉貞)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며, 벗들과 우애가 돈독하였다. 자선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므로 향리에서 흠양하였다.

○ 이승갑(李承甲)

본관은 한산이고 호는 옥서(玉西)다. 1878년 청라면 옥계리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효자로 통했으며, 국운이 기울므로 자기집에 사숙(私塾)을 설치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을 구휼하였고, 연말에는 향리 노인들에게 황육(黃肉)을 증진(贈進)하고, 스승 사가(四可)에게는 두석(斗石)을 때로 증진(贈進)하는 등 많은 사람을 도운 애국자다.

○ 이승영(李升榮)

본관은 경주이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으로는 충무위우부장(忠武衛右部將)에 올랐다.

○ 이원량(李元亮)

본관은 용인이고 1909년 주포면 신대리 출신이다.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직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청양, 당진, 홍성, 예산군수를 역임했다.

○ 이응규(李應珪 1874~1959)

남당학파의 학문을 계승한 청라의 유학자로 본관은 한산이고, 자는 계경(계卿)이며 호는 건당(健堂)이다. 토정 이지함의 후손으로 을사조약 때 납세 거부운동, 김성당 활동 등에 참여하는 등 일찍부터 보령의 유림계에서 활동하여 왔고, 김복한 이설 유효근 등과 교류했으며, 특히 성헌 임한주와는 절친했다.

○ 이응복(李應復 1880~1956)

보령 웅천읍 평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겸오(謙五)이고, 호는 돈암(敦庵)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어려서부터 근면성실한 천성으로 학문에 힘썼다. 南塘 韓元震의 학문의 경향을 따랐지만, 나중에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의 문하에 종유(從遊)하기도 했다.

윤석봉이 창건한 集成堂의 활동과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이곳에서 강학하는 데 힘썼다. 일제침략기와 민족분열기의 어려운 시대배경 속에서도 세태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의리 정신에 입각한 전통 선비정신을 유지하였던 유학자였다. 유고집으로 돈암문집이 있다.

○ 이응주(李應疇 1878 己酉15~1957)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우경(禹卿)이다.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남전에서 출생하였으며, 이조판서 이창수(李昌壽)·이병정(李秉鼎)의 후손으로 조선후기 문인 이조묵(李祖默)의 증손자이며 한말의 무신(武臣)이다.

1900년 육군무관학교 졸업생(제 1회)으로 그해 6월에 대한제국 육군참위에 취임하고 시위연대에서 견습을 끝낸 후 강계 진위대에서 복무했다. 1900년 육군보병부위에 오르고 친위 1연대, 진위 2연대, 충청도 각부 순초(巡哨)에 복무하였고, 정3품에 올랐다.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다. 1907년 3월에 보시위 1연대 육군2등군사 진위보병 2대재 복무 중 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은거비분(隱居悲憤) 속에 생을 마쳤다. 묘는 주산면 창암리 남전에 있다.

○ 이익호(李翊鎬 1872~1940)

본관은 전의이고 호는 아석(我石)이다. 약관인 1893에 무과에 올라 남행선전관(南行宣傳官)을 역임하고, 웅천면장, 주산면장 등 30여 년 간 지방 공직을 역임하였다. 웅천·남포면장 재직시에 보통학교와 농업전수학교 설치에 공헌하였으며, 간선에 의한 충청남도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남포 대덕동 출신으로 충청수사를 역임한 이희눌(李熙訥)의 손자이다. 1927년에는 대천에 대천산업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 이일태(李一太)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영운당(瀛雲堂)이다. 유학에 뜻을 둔 학자로 특히 예학에 밝았으며, 유림으로서 고결한 품격이 높아 사림들의 추천으로 통덕랑(通德郎)에 이르렀다. 문집과 유고가 있다.

○ 이재휘(李再輝)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삼현당(三賢堂)이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남달랐으며, 동생 덕휘(德輝)도 효행이 남달라서 형과 함께 3년 시묘를 하여 지역에서 많은 감탄을 하였다.

○ 이정문(李正文)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인재(忍齋)다. 백파(白波) 김준근(金駿根)의 문인으로 남당 한원진의 성리학설에 연원을 두는 학자이다. 지기(志氣)가 뛰어나며 박문역행(博文力行)하고 신망이 높은 학자였다. 그의 손자 돈암(敦庵) 이응복(李應復)도 학문이 뛰어난 선비였다.

○ 이정현(李正鉉 1917~1989)

주포면 신대리 출신으로 본관은 용인이다. 대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고학으로 선린상업학교를 마친 후 잠시 서산 금융조합에 몸담았으나, 뜻한 바 있어 일본 도쿄에 유학하여 일본대학 전문학부 법학과에 재학 중 1939년 도쿄의 풍도(豊島) 지역에서 김오수(金五秀)·김정수(金正洙) 등 1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독서회(讀書會)·동지회(同志會)를 조직하고 일제의 식민지정착을 반대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어 1941년 10월 상택(桑澤) 고무공장에 공원으로 침투, 동지들을 규합하여 항일민족사상을 고취하던 중 50여 동지가 일경에 피체되어 1943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도쿄의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고국에 돌아와 향리에 보령고등공민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는데, 공립의 보령중학교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흡수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묘는 대전 국립묘지에 있다.

○ 이종래(李鍾來)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만오(晩梧)이다. 남포면 월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관직은 참봉에 이르렀다.

○ 이종완(李鍾浣)

본관은 여주(驪州)이고, 호는 석촌재(石村)이다. 학문에 깊었으며, 특히 경사에 밝았다. 관직으로 참봉에 올랐다.

○ 이종철(李鍾轍)

본관은 성주이다.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앞날이 촉망되었으나, 기우는 국운을 통탄한 나머지 벼슬길보다 향리에 묻혀 여러 가지 공헌한 바 크다.

○ 이채우(李採雨 1865~1936)

남포면 월전리 출신이다. 1919년 7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소재 군정사(軍政司)에서 파견한 김영순(金永淳)을 만나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군정사독판(軍政司督辦) 유동열(柳東說) 명의의 군령(軍令)을 작성, 약 30매를 인쇄하여 이시우(李時雨), 이증로(李曾魯)를 경상남도 방면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권총 2정을 이시우에게 교부하였다가 전남 장성군 황룡면(黃龍面)에서 이증로가 검거됨으로써 서울에서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1921년 2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사문서위조죄 및 정치범처벌령 위반과 강도예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이철원(李哲源)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추강(秋江)이다. 1900년 주산 증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주산 옥성학교(玉成學校)를 졸업한 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3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이에 가담하였다가, 이어 고향 주산에 내려와 마을의 친인척들을 규합하여 주립산에 올라가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왜경의 검거를 피하여 빠져나갔다. 그해 5월 상해로 망명했다.

중국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수학하고 1920년에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 1933년에는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재학 중 철학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1934년 귀국하여 1937년에는 흥업구락부사건(興業俱樂部事件)으로 투옥되고, 1942년에는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함남 흥원에서 피체, 1943년에 북경으로 탈출하였다가 8.15해방 후 귀국하였다.

8.15해방 후에는 미군정청공보부장, 제2대 대한민국공보처장, 대한조선공사사장, 세계 통신사사장, 월간세대사사장, 그리고 사이공대회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 이필규(李弼圭)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운평(雲坪)이다. 주산 야룡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34년 수원고등 농림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농업고등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전남 농촌진흥원장, 시험연구위원 등을 거치고, 우리나라 농사대사전 집필위원, 한국대사전 집필위원을 역임했다. 현대 우리나라 농학의 석학(碩學)이며, 농업발전에 심력(心力)을 경주한 선구자다. 1968년 10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박사 학위패를 받았다.

○ 이필규(李弼珪)

본관은 한산이고 호는 화은(華隱)이다. 고종조에 참봉을 지내다가 고향인 한산에 내려갔다. 재덕(才德)을 겸비한 선비로 학문에도 깊이 뜻이 있었다. 보령으로 이거하고는 후진을 가르치며 이웃에도 고루 혜택을 주며 산 선비이다. 시주(詩酒)로 율적인 마음을 달래며 국운을 걱정하며 생을 마쳤다.

○ 이학구(李鶴九)

본관은 전주이고 청라면 장산리 출신이다. 고등전형(高等銓衡)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남도지방과장, 당진군수를 역임하고 충청남도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에 올랐다.

○ 이항규(李恒圭)

주산면 증산리 출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사립 옥성학교(玉成學校) 창설에 주동적 역할을 하였고, 1919년 주립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20년 보령군 청년회 회장에 추대되었고, 1921년 장항선철도개설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 이희인(李羲仁)

본관은 공주이고 호는 석남(石南)이다. 채완묵(蔡完默)의 문인으로 학행이 뛰어나서 여러 사람들의 모범이었다. 유림들의 추천으로 문묘직원(文廟直員)이 되었다.

○ 임경순(任敬淳 1890~1957)

본관은 풍천이다. 기재(箕宰)의 아들로 주산면 황율리에 거주했으며 1930년대 초 주산에 보령지역 중등학교 설립제안이 있게 되자, 향리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하는 학교 설립이 요망됨을 깨닫고, 임세준(任世準) 상리현(尙利鉉)과 함께 자금을 회사하여 주산농업전수학교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리하여 보령지역에서 최초로 주산에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의 주산 중·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이 주산농업전수학교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가 주산초등학교 앞에 세워졌다.

○ 임세준(任世準 1895~1964)

본관은 풍천으로 유학자 태석(泰錫)의 아들이다. 주산 금암리에 거주했으며, 1930년대 초 주산에 보령지역 중등학교 설립제안이 있게 되자 향리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하는 학교 설립이 요망됨을 깨닫고, 임경순(任敬淳) 상리현(尙利鉉)과 함께 자금을 회사하여 주산농업전수학교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리하여 보령지역에서 최초로 주산에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의 주산 중·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이 주산농업전수학교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가 주산초등학교 앞에 세워졌다.

○ 임계호(任啓鎬)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취하(醉霞)이다. 주산면 주야리에서 출생하여 학문에 전심하여 사서(四書)에 정통하고 시문에 능하였다. 1896년 궁내부 주사에 오르고 1904년에는 순명비인산(純明妃因山)에 봉금보집사(奉金寶執事)에 오르고, 그 뒤 칙명으로 6품승훈랑(六品承訓郎)에 이르렀다. 고향에서 육영사업에 공을 세우니 많은 사람이 추앙하였다.

○ 임도호(任道鎬 1870~1940)

조선시대 고종 때의 무신이다. 본관은 풍천이고 임향(任珦)의 후손이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진해현감 부호군(副護軍)까지 올랐으나, 국운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갑오년에 사임하고 남포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 임성순(任性淳 1877~1954)

본관은 풍천, 호는 수헌(水憲)이다. 삼회당 윤석봉의 문인이고 성재 유중교를 사숙하여 성리학에 돈독했으며, 남포향교와 집성당에서 활동한 유림이다. 성동리 제방 건설과 성동리 중보수리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임승재(任昇宰)

본관은 풍천이고 웅천 평리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25 동란 때는 군의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이때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 임윤백(任允白 1790~1861)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호은(湖隱)이다. 일찍부터 글을 읽었으며, 매산 홍직필 문하에 드나들며 학문을 넓혔다. 석학 임헌회, 유현 조병덕과 교유하기도 한 학자로 예학에 특히 밝았다. 임성순(任聖舜)의 손자이다. 노오재 임태희의 부친이며 임홍준의 조부이다.

○ 임의준(任義準 1845~1900)

본관은 풍천이고 자는 치경(致敬), 호는 난포(蘭圃)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는 노오재

임태희(老梧齋 任泰希)에게서 배웠다. 본성이 강의(剛毅)하고, 경륜(經綸)이 있었다. 동학 농민운동 때 의병을 일으킬 것을 주창하고, 임상호(任尙鎬) 임학준(任學準) 김성희(金成喜) 채성구(蔡聖龜) 최돈욱(崔敦郁) 이병제(李秉濟) 조정순(趙靖淳) 등과 함께 거의(舉義) 하여, 홍주성에 들어가 초토사 이승우를 도와 토포영 순무중군(討捕營巡撫中軍)이 되어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로로 갑오군공록에 올랐다.

○ 임재혁(任在爌 1927~1991)

1927년 12월 14일 출생하여 1941년 전주사범을 졸업하고 1946년부터 교직생활에 들어가 미산, 웅천에서 근무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대천시교육장을 지냈다.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한갈, 사백(思白), 만과(晩杷)이며 보령 주산면 아룡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제시대에 독립사상이 투철하여 전주사범 재학 중 ‘우리회’ ‘석류회’ 단체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에 참가했다가 1945년 2월 5일 검거되어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8.15해방으로 풀려났다. 한국교육자대상을 비롯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서예에도 뛰어나 충남교육서예가협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전유천국민학교장, 대동국민학교장을 거쳐 산내국민학교장 재임 중 타계하였다.

○ 임창호(任昌鎬)

호는 난곡(蘭谷)이고, 본관은 풍천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언행이 일치하였으며, 사숙을 설치하여 글을 가르쳤다. 빈궁한 사람에게 흉년에 시혜를 자주하여 칭송이 높았다.

○ 임태하(任泰夏 1822~1892)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삼호당(三乎堂)이다. 임항의 16대손으로 상백(祥白)의 넷째 아들로 1822년 주산 황율리 율동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천성이 순박하고 준수하였으며, 어려서 부터 유교의 학문을 익히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7세에 부친을 여의고, 이어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니 효심의 정성과 예의를 평생 동안 한결같이 하였다.

큰형과 장조카가 일찍 사망함에 의지할 곳 없는 형수를 정성으로 보살피고, 둘째형 사망에는 양자를 하여 집안을 일으켜 주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내일처럼 하며, 우애를 한결같이 하면서 지역을 교화하여 율동의 30여 집이 한 우물로 여러 대가 살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당을 삼호당이라 하고, 항상 기쁘게 독서 하면서 자손을 가르치고, 동리의 배움에 뜻을 가진 학동을 가르치는 일을 즐겁게 하여, 집안과 동리에 미풍양속을 너럭하게 함으로써 한 고을의 귀감이 되었다.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4년 후 아미산 중대암 뒤 봉우리에 장례하였고, 아들 임학준은

그 아래에 묘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삼호당실기(三乎堂實記)가 있다. 약재(約齋) 송병화(宋炳華)가 쓴 행장기(行狀記)가 있다.

○ 임학준(任學準 1850~1930)

본관이 풍천이며, 호는 노은(老隱)이다. 삼호당 임태하의 아들로 울동에서 태어나 성품이 어질고 용모가 준수하며 언행이 신중하였다. 부친의 뜻을 항상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효성이 지극한 선비였으니, 부친이 돌아가시자 아미산 봉우리에 장례를 하고 그 아래 묘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상서 김명진의 특별 추천으로 친군영군사마(親軍營軍司馬)를 역임하였으므로 훗날 ‘임사마’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향리의 선비들인 임의준 임상호 김성희 최돈욱 이병제 조정순 채성구 등과 유희군을 모아 홍주목사 이승우를 도와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향리에서 여러 선비들과 힘을 모아 향약을 조직하고 이를 시행하여 고을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두문불출 하였으며,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소식을 접하고는 이관영과 함께 아미산 중대암에 들어가 자정생활을 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자 북향통곡하고 옛 절의 충신을 본받고자 하였으며, 1919년 고종황제가 봉어하자 애통해 하면서 상대암에 들어가 고종황제의 영정을 만들어 봉안하고, 술일을 먹으며 삭망에 분향 통곡하면서 고종황제와 나라 잃은 울분을 달랬다. 나라 잃은 울분 속에서 지내던 임학준은 1930년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후 그의 유지가 잇든 아미산 상대암에 사당을 세우고 고종황제와 부친 임태하 그리고 임학준의 영정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며 제향하자는 논의가 유림들 사이에서 일어나 상대사(上臺祠)라는 사당이 건립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대암의 시초이다.

○ 임희준(任熙準)

본관은 풍천이고 웅천 대창리 출신이다. 웅천금융조합장과 웅천면장을 지냈고 충청남도 평의원(評議員)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64년 42세로 죽었다.

○ 전양진(田穰鎭 1873~1943)

본관은 담양이며, 자는 성서(成瑞)이고 호는 추성(秋城)이다. 담양인 통어사 전운상의 후예로 고종 임신년에 결성면에서 출생하여 아산(牙山) 땅에서 무예를 연습하였다. 갑오년 동학운동 때에 동학군 수십 명을 일갈해서 물리쳤으며, 을미년에 한규설이 연대장에 임명하였으나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을 사양하였다.

나중에 청소 죽림리로 이거했다. 기미년에는 지산 김복한 등과 함께 파리평화회의에 보낸 장서에 서명한 사건으로 대구감옥에 투옥되어 옥고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72세에 세상을 떠나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인 전용학과 전용옥은 김복한의 문인으로 뛰어난 학자였다. 1995년 독립포장이 추서되었다.

○ 전재진(田載鎭)

본관은 담양(潭陽)이고, 호는 눌암(訥岩)이다. 고종조에 감역(監役)이 되었다.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웃과 사귀고 접빈이례(接賓以禮)하며, 덕에 사니 여러 사람이 그를 따랐다 한다.

○ 정찬호(鄭燦好)

온양인으로 호는 청계(淸溪)이며, 시문에 능통하고, 일찍이 유도(儒道)에 입문하여 보령 향교 전교를 거쳐 성균관 전적(典籍)에 취임하여 유도창달(儒道暢達)의 공으로 사성(司成)에 이르렀다. 만년에 다시 낙향하여 보령은 물론이고 인근 서천 비인 등지의 서원·사우의 도유사로 후진 양성과 교육에 전력하였다.

○ 정철모(鄭喆模)

본관은 동래이고 주포면 보령리 출신이다. 전라북도에서 관직에 올라 진안 금산 군수를 역임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업무국장을 지냈다.

○ 조구원((趙龜元 1851~1911)

보령 청라 유학(幼學)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호는 청농(靑農)이다. 남당(南塘)의 대의(大義)를 존신(尊信)하였으며, 북암 이설, 지산 김복한, 사가 유희근, 위관 김상덕, 창산 심의덕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들과 함께 남당연보(南塘年譜)를 간행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윤석봉 등과 함께 내원사(內院寺)와 자신이 운영하던 둔산서당(遯山書堂)에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1896년 윤석봉 등과 함께 유인석 의병진에 글을 보내 의병진을 지원하였으며, 집성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유고를 만들기 위해 모은 자료가 유실되어 문장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 조병문(趙炳文 1858~1893)

본관은 한양이고, 자는 현옥(賢玉), 호는 옥서(玉西)이다. 초명은 병찬(炳瓚)이다. 숙재

조병덕의 고제(高弟)인 눌재(訥齋) 조호원(趙數元)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자라서 글을 알고는 재능이 고명(高明)하고 충절이 뛰어났었다. 고종조에 있었던 전시(殿試)에서 책문(策文)의 과격한 언론이 당국의 시기로 인하여 옥고를 당하고는 벼슬길에 미련을 버리고 산천을 주유하며 학문을 벗삼아 지내다가 36세에 사망하였다.

유고로 옥서실기가 있다.

○ 조수(趙瑒)

본관은 한양이고, 호는 야암(野庵)이다. 이봉상(李鳳祥)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일가견을 이루었다. 특히 심성이기변론(心性理氣辯論)으로 유명하여 경학(經學)에 추천되었다.

○ 조익순(趙翊淳 1868~1952)

본관은 양주이고 호는 송암(松庵)이다. 부친은 숙재 조병덕의 제자인 돈간재 조진학이다. 일찍이 부친에게 수학하여 한학에 정통한 한학자로, 위관 김상덕 등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전통적 유교질서를 지키려 노력했고, 후진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많은 문장이 남아 있으며, 문집인 송암유고가 있다.

○ 조일원(趙一元 1860~1950)

본관은 한양이고 호는 소산(蘇山)이며 자는 문유(文有)이다. 보령시 화산동에서 출생했다.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고종 28년(1891) 증광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며 건문을 넓히고, 고향에서 후학지도에 전념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1950년 91세로 타계했다. 시집 3권과 문집 4권이 전한다.

○ 조종욱(趙鍾郁)

본관은 한양이고 호는 정재(靜齋)이다. 선비의 가문에서 태어나 유인(孺人)의 기틀에서 자라 순수하고 덕기(德器)가 증용(從容)하며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넓었다. 그는 백가서에 명찰(明察)하고 육영사업에도 힘쓰는 등 영리를 구하지 않고 봉사로 일생을 마친 선비이다.

○ 조진학(趙鎭鶴 1836~1902)

본관은 양주이고 호는 돈간재(敦良齋)이며, 숙재 조병덕의 문인이다. 경전을 연구하여 학문에 일가견을 이루었으며, 고종조에 학덕과 문학으로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으로

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당시 유림계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1898년에는 화서학과 윤석봉, 신섭 등과 함께 집성당(集成堂)을 창건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아들 조익순(趙翊淳) 또한 학문으로 유명하였다. 문집이 만들어졌으나 멸실되어 없어졌다.

○ 조태하(趙泰夏)

본관은 한양이고 호는 석정(石汀)이다. 오천면 소성리 출생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깊이 글을 읽고는 도(道)와 예(禮)에 정통하였으며, 문장 서예도 비범하여 비록 벽지에 살고 있으나 많은 후학들이 모여들어 그 지도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학행으로 동몽교관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따르지 않고 오직 학자로서의 길만 택하였다. 그 뒤 그의 제자로서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활동한 인물이 많았으며 그는 삼강록(三綱錄)에 기록되었다.

○ 천규현(千奎賢)

본관은 영양(潁陽)이고 주포면 송학리 출신이다. 교육 독지가로서 고향에 교육기관이 없음을 통감하고 너넉지 못한 가산(家産) 중에도 옥답(沃畝) 600평을 회사하여 송학간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에 협력하니 현재의 송학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송덕비가 있다.

○ 최상집(崔相集 1849~909)

최상집은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출신으로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자(字)는 중일(重日, 仲一) 호(號)는 남호(南湖)이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1906년 민종식(閔宗植)은 부여군 내산면 지티에서 의병을 일으켜 홍산, 서천, 판교, 웅천, 남포, 보령, 광천, 결성을 거쳐 홍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이 병오홍주의병이다. 이때 최상집은 58세의 노령임에도 의병을 모집하는 소모장(召募將)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왜병의 반격으로 홍주성이 무너지면서 포로가 되어 유준근 이석 안항식 신보균 신현두 이상구 문석환 남규진 등과 함께 대마도 유배형을 받고 기약 없는 기간의 고생을 하면서도 저들의 헐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절의를 지켰으니, 최상집을 비롯한 이들을 ‘홍주의병 대마도 9의사’라고 한다.

몇 번에 걸친 감형이 이루어져 3년 만인 1908년 10월 석방되어 고국에 돌아왔으나, 의병운동의 후유증으로 병이 들어 이듬해인 1909년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2년도에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업적을 발굴하고 2006년도에 웅천 대천리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부여군 외산면에 있던 묘를 추모비 뒤편의 언덕에 옮겼다.

○ 최익(崔益)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회산(檜山)이며 자는 중겸(仲謙)이다. 결성에서 출생하였고 청라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어렸을 때는 청농 조구원, 사가 유희근에게서 글을 배웠고, 1897년 이후에는 보령 길현에서 김복한에게 시경과 주변록 등 시의교육을 받았다.

1909년 대한매일신보 편집에 종사했을 무렵 일진회에서 한일합방 성명서를 내자 이에 대한 반박 논설 ‘한국동포에게 고함’ (12월 7일)을 발표하였다. 이 논설문은 1905년 황성신문에서 낸 ‘시일야 방성대곡’ 이란 사설과 쌍벽을 이루는 구국의 명문이었다.

1920년 군산에서 상계에 투신하여 재계의 거성으로 명성을 떨쳤다. 해방 후에는 정계에서 활약한 바도 있었으나 정치생활을 청산하고, 이후 성균관장에 선임되어 유교 부흥에 힘썼다.

○ 최종대(崔鍾台)

본관은 강릉이고, 호는 연암(燕岩)이다. 주산면 창암리 출신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관직을 거친 후 부산·광주·대전의 사세국장(司稅廳長)을 역임하였다.

○ 최태휘(崔泰輝)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국여당(菊如堂)이다. 일본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대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광복 후 대한부인회 보령군지부장에 오르고, 부녀자 생활개선 지도에 노력한 바 크다. 또한 시문에 능숙했다.

○ 최환주(崔煥周)

본관은 경주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남달리 뛰어났으며, 흉년일 때는 어려운 사람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던 인사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

○ 한민희(韓珉熙)

본관은 청주다. 남포면 신흥리 출신으로 대전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관직을 거친 후 충청남도 회계과장을 역임하고 농업협동조합충청남도지부장에 올랐다.

○ 황두현(黃斗顯 1871~1954)

본관은 장수이고 호는 송촌(松村)이다. 황찬의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무과에 급제하고 효력부위 수문장(效力副衛守門將)에 올랐으나, 한일합방이 되자 관직을 버리고 부친을 따라 미산 용수리에 은거하였다.

1914년 심전면장, 이어 미산면장을 18년간 지내면서 도화담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개척하는 데 힘썼고, 미산초등학교 설립 때는 6천평의 대지를 희사하는 등 학교설립에 앞장섰다. 미산면장 외에도 보령군 초대 농회장(農會長), 보령군산림조합장, 부여홍산 금융조합장 등을 역임한 향리의 독지가였다. 생전에 그의 송덕비가 세워졌으나 “나의 일생에 비가 설만큼 유명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서 스스로 땅속에 묻어버렸다.

○ 황석현(黃奭顯 1886~1945)

보령 웅천 구룡리 출신이다.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은필(殷弼) 호는 지추(之秋)이다. 황온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친에게서 한학을 배우고 전통적 유교질서를 배웠으나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을 배웠고. 남포청년회 평의원(評議員), 진흥회 부회장, 남포소작회 상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에 힘썼다. 그 후 만주에 건너가 반만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고향인 보령에서 지내다가, 1945년 국내에서 항일운동으로 체포되어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옥사했다.

○ 황시현(黃始顯 1889~1946)

보령 웅천 구룡리 출신이다.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원익(元翼), 호는 계룡당(鷄龍堂)이다. 선친 황직이 세운 남포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졸업했다. 8년여 간 웅천면장을 역임하면서 무장포 도로 개설, 성동리 제방건설, 웅천시장 이전 등의 많은 치적있다. 또 재임시 지방 발전에 私財를 아끼지 않았다. 면민들에 의해 송덕비가 세워졌다.

○ 황영주(黃溟周 1926~1992)

본관은 장수이고 호는 석곡(石谷)이다. 보령시 화산동에서 태어났다. 김영선 의원의 비서관을 역임했다. 성품이 강(剛)과 유(柔)를 겸비하고 청렴결백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여 한학과 신학(新學)을 겸비하였다. 만년까지 후학들을 지도하였으며, 채근담(菜根潭)을 비롯한 많은 번역문이 있다. 말년에는 보령지역 발전을 위하여 보령신문과 보령문화연구회를 창립하는 데 산과역을 하였다.

○ 황온(黃穩 1860~1938)

보령 웅천읍 구룡리 화망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字)는 사윤(士允) 호는 지지당(遲遲堂)이다. 황희(黃喜)의 15대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싫증내지 않았다.

일찍이 왜구에 불복(不服)하여 단발과 창씨개명도 끝까지 거부하였으며, 일제가 실시하는 신식교육에 반대하고 효·우애·숭조·자손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적 유교질서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았던 초야의 선비였다. 그가 생전에 필사해 놓은 『신안사영건기(新安祠營建記)』는 남포 신안사(新安祠)의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 황윤석(黃允石 1929~1961)

여성 법조인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사학자 의돈(義敦)의 딸이다. 진명여자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1952년에 제3회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고, 195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의 여자판사가 되었다.

1960년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선구여성(先驅女性)으로 표창받고, 그해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여성법률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961년 여성문제연구회 실행위원회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일찍 죽자 여성단체에서 고인의 뜻을 추모하여 사법고시 준비생을 위한 윤석장학회를 설립하였다.

○ 황의돈(黃義敦 1890(고종 27)~1964)

역사학자·교육자. 호는 해원(海圓). 본관은 장수이다. 서천 출생이고 기주(麒周)의 아들이며, 증산리 유학자 주계 이사욱(李思彧)의 생질이다. 대대로 터전이 웅천에 있어 웅천에 거주했다. 전통적인 유학 가문에서 태어나 1894년 할아버지 태현(泰顯)에게서 한학을 배워 17세 되는 1906년까지 한서 수십 권을 통독하여 해박한 지식을 쌓았다.

1907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근대식 학교인 군산공립보통학교 보습과(補習科)에 입학해 1년 만에 수료하고 그 뒤 2년 간은 서울과 일본 동경을 내왕하며 근대 학문을 섭렵하였다.

1909년 일제의 침략으로 국운이 존망의 위기에 놓였음을 직시하고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북간도 중영촌(中營村)으로 이주, 명동학교(明東學校)를 창설하고 국사교육 등을 통한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1910년 일제의 강압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귀국,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방면으로 다시 망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승훈(李昇薰) 등의 만류로 망명을 포기하고, 안주·가산·정주 등지에서 국사교육을 맡아 후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11년 안창호(安昌浩)가 설립한 대성학교(大成學校)에서 국사교육을 맡았으며, 1913년에는 향리에 돌아와 청년들에게 국사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1916년 YMCA강당에서 국사 강연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며, 재직하고 있던 휘문의숙의 교사직에서 파면되기도 하였다. 1920년 이후 약 20여 년 간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국사와 한문을 강의하였고,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원도 겸임하였다.

1938년 이후 일제의 침략전쟁인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국사·국어교육이 금지되자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조선일보사 기자가 되었다. 조선일보사 기자 재직시에는 고적조사를 담당했으며,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1940년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기자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은거하였으며, 52세 때인 1942년에는 불교에 귀의하여 오대산에 입산, 방한암(方漢巖) 선사를 사사하였다.

말년에는 주로 국사와 불교의 선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교육에 진력하다 75세로 죽었다.

그의 생애는 자신이 술회하였듯이 초년에는 한문학, 중년에는 사학(史學), 말년에는 선학(禪學)에 종사하는 등 세 번이나 배움의 길을 바꾸었으며, 이는 국권상실 시대에 국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 그 주된 뜻이 있었다.

저술로는 《대동청사(大東靑史)》·《조선신사(朝鮮新史)》·《중등조선역사(中等朝鮮歷史)》 등의 사서와 《화담 서경덕전》·《이목은전》·《안의사(중근)전》·《손의암(병희)전》 등 전기 다수, 그리고 〈갑오혁신운동과 전봉준〉 등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그의 딸인 황윤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였고, 아들 황석연도 판사를 역임했다. 묘는 경기도 고양 지축동 선산에 묘비와 함께 있다.

○ 황재현(黃載顯 1848~1903)

본관은 장수(長水)이고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세종 때의 명재상 황희의 16대 손이며, 응천에서 태어났다. 1878년 31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에 제수되었다.

이 무렵의 우리나라는 1876년에 개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화파들에 의해서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였다. 외세의 침략 앞에 백척간두에 선 국가의 운명과 무너져 가는 국가 질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향에 내려와 처벌을 무릅쓰고 1881년 3월 일본침략 반대와 국내 방비를 강조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상소를 올린 후 그는 국가와 왕을 모욕했다 하여 의금부에 끌려가 5-6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그 해 6월 전남 진도의 금갑도(金甲島)에 유배되었다. 그 후 1884년 10월 3년 4개월의 위리안치 유배생활에서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 은거하던 중,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그 해 8월 충청도소모종사관

(忠淸道召募從事官)의 밀지(密旨)를 받고 부임하여 모병(募兵)에 종사하였다. 조정에서는 공주승첩에 공이 있다 하여 선략장군 선전관(宣略將軍宣傳官)에 임명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 발생하였는데, 충남지방에서도 김복한 이설 안병찬 등이 주도하여 홍주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 홍주 을미의병은 정산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났고,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던 이세영이 홍산으로 몰래 빠져나와 1896년 2월 남포로 와서 황재현, 이관, 김홍제 등과 의병을 일으켜 남포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남포성 전투의 자세한 상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황재현은 이 의병운동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지역민들의 석방 탄원 소지로 석방되었다.

의병운동이 실패하자 웅천 황교리 광암에서 초가집을 짓고 윤석봉 등 지역 유림들과 외세 침략을 걱정하면서 은둔하다가 1903년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보령 5월사의 한 사람으로 추앙된다.

○ 황직(黃稷 1852~1912)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의경(義景)이다. 철종 3년(1852) 출생으로 서울 출신이며, 고종 조인 1872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으로는 통정대부 오위장(五衛將)에 이르렀다. 재임 중 한일합방의 비보에 접하고 형 황찬과 함께 보령 미산으로 낙향하였다.

○ 황직(黃稷 1858~1909)

호는 국사(菊史) 자는 사종(士宗), 본관은 장수로 황희의 15대손이다. 웅천 구룡리 화망 출생으로 기골이 장대한 역사(力士)의 풍모였다. 한말에 비적(匪賊)과 폭도가 성행하여 민심이 소란할 때 고을을 지키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향약을 제정하여 약장(約長)으로 활동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지역을 방어하는 등 남포일대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남포에 명덕학교(明德學校)라는 학교를 세우고 독립사상을 고무시켰다. 또 은밀히 항일 운동을 하던 중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공주헌병대에 끌려가 갓은 고문을 겪고, 재판 후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 출옥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 황찬(黃 禾+贊 1844~1921)

본관은 장수이고, 조선말기 무과에 올라 선략장군 행 부장(宣略將軍行部將)을 역임하고 한일합방에 울분을 머금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미산면 용수리에 은거하며 일생을 시서(詩書)로 지냈다. 병조참판 백홍수의 사위이다.

3. 효행(孝行) 인물

강석진 고득천 고이대 고필문 구만원 김경회 김계환 김노정 김박제 김상기 김순국 김영돈
 김영래 김철희 김 함 노 흠 박만중 박세주 박승건 백경진 백남균 박태진 서한경 송하섭
 신광제 신상돈 신석봉 신응수 염동하 오상순 오성호 오수현 오시조 오정희 윤세원 이규철
 이기상 이기주 이백귀 이선원 이승협 이재풍 이재운 이종홍 이지창 이호정 임경준 임금모
 임은모 임현욱 임현정 임희영 조병흠 조봉한 조중환 진상관 천기완 최광필 최인환 최종응
 최진규 한덕이 황엽 황유업 황정직

○ 강석진(姜錫鎭)

본관은 진주다. 청라면 장산리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격이 온순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유림의 추천으로 성균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 고득천(高得天)

본관은 제주이고 고이대의 아들이다. 효심이 지극하여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올랐다.

○ 고이대(高二大)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부모님 병환에 대소변을 살폈으며, 단지(斷指)하여 효도하는 등 그의 효행이 귀감이 되므로 사후에 사헌부 감찰로 증직되었다.

○ 고필문(高弼文)

본관은 제주이고 고득천의 셋째 아들로 삼대효자이고 동몽교관에 올랐다.

○ 구만원(具萬元 1689~1754)

본관은 능성이다. 구계우의 6대손이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이어 어머니마저 부친을 따라 자결하니 조부슬하에서 성장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였을 뿐 아니라, 성장해서는 조부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조정에서 이를 알고 특별으로 정려가 내려졌다.

○ 김경회(金慶會)

그는 학문이 탁월하고 효우가 겸전하며 고향에서 칭송의 소리가 높으므로 사람들이 예조에 천거해서 예서(禮書) 3권을 하사하게 하였다.

○ 김계환(金啓煥 1765~1825)

본관은 광산이고 호는 오은(烏隱)이다. 1783년(정조7) 증광생원시에 합격했다. 어려서부터 영재로 6세에 당시(唐詩)를 배우고 자라서는 경사(經史)에 통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신명(神明)의 덕으로 설중(雪中)에서 게(蟹)를 구하고, 빙중(氷中)에서 고기를 얻어 부모를 공양한 기적(奇蹟)이 있었다. 정려가 청소면 성연리에 있다.

○ 김노정(金魯貞)

본관은 경주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양친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조석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이 두터웠다. 부모의 병환이 위중할 때 손가락을 잘라 수 일간 명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증직하였다.

○ 김박제(金珀濟)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성은(聲隱)이다. 일생을 두고 효성을 바친 효자로 특히 삭망에는 주렴산 후록(後麓) 선산(先山)과, 주산면 황률리 친산에 성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생정상(生庭喪)에도 거려읍혈(居廬泣血)하며 예제(禮制)를 지켜 향(鄉)에서 천거하여 남포문묘 직원(直員)이 되었다.

○ 김상기(金商綺)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연암(延庵)이다. 남포 양기리에서 살았다. 면암 최익현의 문인으로 부친의 병환이 위독할 때 살을 베고, 단지하고 약재를 올렸으며, 상을 당하고는 시묘 3년을 했다. 윤석봉 문하에서 종유(從遊)했다.

○ 김순국(金順國)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호는 이재(怡齋)다. 조선 명종 때 사람으로 웅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고난 효자로 향시 부모님을 하늘같이 섬겼으며, 모친이 병석에 눕게 되자 때때로 대소변을 관찰하며 약을 썼으며 새벽에는 정화수를 떠 놓고 북두칠성에 빌기도 했다.

모친의 상을 당하여는 너무나 애절한 나머지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기절까지 하였다. 그의 효행은 그후 널리 알려져 선조3년(1570)에 효행으로 정릉참봉(靖陵參奉)에 오르고, 그의 부친이 또한 병석에 누워 8년간을 지냈을 때도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절지주혈(折指注血)하여 3개월간이나 목숨을 연장시키기도 하였다.

○ 김영돈(金榮敦)

본관은 통천(通川)이고 호는 남계(南溪)다. 그는 고종조에 구례현감(求禮縣監)으로

가선대부에 올랐었으나 모친이 병석에 누운 지 28년간이나 지성으로 모신 효심이 가륜하여 여러 사람의 칭송에 올랐다. 효로서 협판(協辦)에 올랐다.

○ 김영래(金永來)

본관은 광산이다. 청소면 성연리 출생으로 노경에 이른 양친을 지성으로 봉양하여 항상 즐겁게 효도 할 뿐만 아니라 향리에서 경로연을 주최하여 윤리 도의 선양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성균관장의 표창이 있었다.

○ 김첨희(金瞻喜 1829~1889)

본관은 경주, 김한(金漢)의 후손으로 자는 여상(汝相)이다. 웅천 죽청리 출생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양친을 봉양하는 데 남달리 뛰어났다. 양친이 병석에 눕게 되면 하늘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거상 3년을 치르니 모두 감탄하였다.

고종 때 경북궁 중수에는 재정의 궁핍을 듣고 모금하여 925냥을 바치기도 했다. 조정에서 가상히 여겨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증하고 정려를 내렸다. 웅천 죽청리 도로변에 정려각이 있고 구룡리에 족후손 김승렬이 쓴 묘비가 있다.

○ 김함(金涵)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대진(大振)이다. 천부적으로 효심이 지극하여 부친이 설사를 하니 자신이 손수 그 옷을 세탁하고 하인에게는 맡기지 않았다. 약재로 쓰기 위해 생선을 구할 때 생선이 서산(西山)에서 나오는 기적도 있었다. 향(鄉)과 도(道)의 추천으로 경종 때 승지로 증직되었다.

○ 노흠(盧洽)

본관은 교하(交河)이고 호는 상청당(常靑堂)이다. 그가 12세 때 난을 만나 부친을 모시고 이천(利川)에 다다랐을 때 왜병이 그의 부친을 해치려고 함에 그는 애걸하며 생명을 구해줄 것을 호소하다가 분연히 힘을 내어 적을 죽였다. 그의 효도에 대한 정성을 높이 사서 나라에서는 강음현령(江陰縣令)으로 벼슬을 내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 박만중(朴萬鍾)

본관은 고령이다. 효행으로 국무총리와 총무처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 박세주(朴世胄 1641~1725)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정수재(靜水齋)다. 박승건의 아들로 어렸을 때 모친이 병으로 침을 맞으려 할 때 자기가 먼저 목에 침을 꽂은 다음 어머니에게 침을 맞아도 아프지 않으니 침을 맞으라고 청할 만큼 효도가 지극했으며, 그가 13세 때에는 용인군수가 있던 부친 박승건이 병으로 고생할 때 겨울에 죽순을 먹고싶다고 하자 눈 속의 대밭에 나가서 천신(天神)께 빌어 죽순을 구했다. 이 죽순으로 부친은 완쾌할 수 있었다.

또한 부친이 상주목사로 근무할 때 병이 들었을 때 단지(斷指)하여 소생시켰으며, 모친의 병환에도 단지하여 효험을 보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효행을 높이 사서 정려를 내렸다. 그의 정려가 미산면 도화담리에 부친의 정려와 함께 있다. 그의 후손들이 개화리를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다.

○ 박승건(朴承健 1609(광해군 1)~1667(현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자이(子以). 판서 충원(忠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현(好賢)이고, 아버지는 봉례(奉禮) 안행(安行)이다. 1630년(인조 8) 중형(仲兄) 승휴(承休)와 함께 진사가 되고, 165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에 보임되었다. 이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을 거쳐, 1652년에는 정언(正言)·사서(司書)·직강(直講)·예조정랑을 지냈다.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는 형조판서 허적(許積)을 논핵하였으며, 1661년(현종 2)에는 지평(持平)·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를 역임하고, 이듬해에는 장령(掌令)이 되었다. 1663년에는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올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들어가다가 지병이 도져서 도중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그는 사신의 임무를 마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겨, 그 뒤에도 계속 조정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 뒤 제용감정(濟用監正)을 거쳐, 1664년 9월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재직하던 중 관곡을 방출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민역(民役)에 충당한 사실로 가자(加資)되었다.

송시열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어 왕래하였으며,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함을 높이 사 숙종조에 효자정려가 내려졌다.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문이 있다.

○ 백경진(白景鎭)

본관은 남포이고 호는 만송(晩松)이다. 효로서 가선대부에 올랐다.

○ 백남균(白南均)

본관은 남포이고, 자는 윤보(允甫), 호는 무은(武隱)이며, 심당 신응선(心堂 申應善)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효우가 돈독하여 6세에 조모상을 당하여 호곡하는 것을 알았고, 13세에 모친 병환에 대변의 맛을 보고, 상을 당하여는 3년 시묘를 하여 세인들이 그 효성을 칭송했으며, 지산 김복한은 천장(薦狀)을 썼다.

○ 백태진(白泰鎭 1804~1882)

본관은 남포이고 호는 국사(菊史)이다. 성리학에 깊었으며 예기(禮記)에 명찰(明察)하고 효도에 남달랐다. 부친의 병환에 대변을 맛보고, 설중에 부어(鮒魚)를 구하고, 90여 세 부친이 자주 대소변을 바지에 흘려도 손수 거두었다. 고종조에 향리에서 추천하여 효로서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이 증직되었다. 숙재 조병덕과 학문을 강론하기도 했다.

○ 서한경(徐漢慶)

본관은 달성(達城)이고 자는 공근(公謹)이다. 그는 남달리 재조(才操)와 행세(行勢)가 탁월하였던 사람이다. 부친의 병환이 위급해지자 좌우의 손가락을 단지하여 피를 넣어 드림으로써 부친의 병환을 완쾌하게 하였다. 천문과 연력(年曆)을 연구하여 지략이 뛰어나므로 사람들이 따랐으며 효행으로 정려가 내려져서 사람들이 또한 그를 화정처사(和貞處士)라 불렀다. 정려는 청라면 옥계리에 있다.

○ 송하섭(宋夏燮)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학문이 밝고 본래 효도함을 천직으로 하고 부친의 병환에는 단(壇)을 모아 천신에게 호소하고, 병이 위독할 때는 절지관혈(折指灌血)한 효자다.

처 정씨(鄭氏)도 효심이 지극하여 포상이 있었고, 완문이 있다.

○ 신광제(申光濟)

본관은 고령이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였으며, 그는 특히 경서(經書)의 효행편을 습득했다. 모친의 병환에 단지하여 피를 입에 넣어드림으로써 그 효도를 군수가 듣고 감탄하여 경옥고를 보낸 바 있으며, 그가 여막에 거주할 때 한 그릇의 죽과 한 접시 소금으로 연명하며 게가 걸어다녀도 먹지 않고, 물속에 옮겨주는 지성의 효심이었다. 그의 효행으로 지평의 벼슬이 내렸다.

○ 신상돈(申相敦)

본관은 평산이다. 모친이 중풍으로 13년 간 병석에 누웠을 때 대소변을 받으며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며, 모친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부락민들이 힘을 모아 청라면 신산리에 효자비를 세웠다.

○ 신석봉(申錫鵬 1819~1864)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성오(聖五)이고 직장(直長) 재진(在晉)의 셋째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24세에 부친이 병환이 있어 밤낮으로 하늘에 빌고 자기가 대신하기를 기원하면서 의대(衣帶)를 풀지 않고 탕약을 맛보고 받들었으며, 상을 당함에 이르러는 애통으로 여윈 몸이 제도에 지나쳐 몇 번이나 기절하기도 했다.

또 모친의 병환에도 정성을 지극히 했고, 상을 당해서도 한결같이 술과 육식을 삼가고 잔치 마당에 나가는 것을 금하면서 예의를 다하였고,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하고 슬퍼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처음 초상 때와 다름없이 하였다. 위로는 2명의 형을 섬기고 아래로는 여러 아우들을 어루만져 형제간에 우의가 돈독했다. 지역 유생들의 공론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청라면 장현리 후손 신경섭 가옥의 대문에 현판이 걸려있다.

○ 신응수(申應秀 1778~1839)

본관은 평산이고 오천면 출신이다. 부모 모시기를 하늘같이 아는 인물로서, 부친의 병환이 위급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늘에 기도하고 앞냇물에 가니 부어(鮒魚)도 같고 은어(銀魚)와도 같은 고기를 잡아다가 봉탕(捧湯)한 즉 득효(得效)하였고, 모친의 병환에는 정성껏 간호하고 약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청사(廳舍)에 화재가 일어나 충천할 때도 불길을 돌보지 않고 모친의 병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친을 놀라지 않게 위로하였다.

모친이 임종하려 할 때는 손가락 피를 내어 입에 넣어드렸으며, 모친상을 당하여는 장례비가 여의치 않아 통곡하다가 꿈을 꾸고 집 뒤 우측 돌아래에 가본즉 6냥(六兩)이 나옴으로 안장할 수 있었다. 3년간을 보리고개 때도 상식(上食)에는 비반불상(非飯不上)하였다. 그는 효로써 통정대부 승정원우승지겸동지의금부사(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同知義禁府事)에 오르고, 1892년에는 정려가 내려졌다. 오천면 오포리에 효자각이 있다.

○ 염동하(廉東夏 1872~1930)

본관은 파주이고 호는 용은(龍隱)이다. 고려 때 염제신의 후손이다. 그는 남달리 선현을 모시는 공지가 있어 그의 성력(誠力)으로 수현사(水絃祠)를 창건하였으며, 그의 부친이 병환에서 신음하자 뱀의 쓸개가 약효가 있다고 하여 눈 속에서 사방으로 뱀을 구하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어 하늘을 우러러 여러 차례 울면서 기도하자 쌓인 눈이 녹으며 섬돌아래에서 뱀이 나타나, 잡아서 약재로 사용하여 부친의 병을 고쳤다. 성균관에서 명륜록(明倫錄)에 수록되었다.

○ 오상순(吳相舜 1802~1862)

본관은 보성, 자는 여충(汝忠)이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항시 부모공양에 최선을 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서 죽는날 까지 지극한 아픔이었다. 조모 임씨를 모시는 데 성력을 다하여 사람들이 죽히 감동하였다. 임씨는 본래 병이 많아서 그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탕(侍湯)하면서 의복의 건대를 풀지 아니 하였고, 부축하고 굽어 주면서 공경하고 신중히 하였다. 때때로 등에 업고 편안하게 하여드리기도 하였다.

임씨가 사망하여 상중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예의를 준수하고 웃지 않으며, 심한 노여움으로 얼굴색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며, 조모가 좋아하던 음식을 종신토록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조모상을 마침에 이르러서도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고, 장사(상업)로써 더욱 선조를 받드는 예의범절을 엄격하게 하였다. 제사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 음식을 먼저 먹지 못하게 하였으니, 효심에서 이루어진 바였다. 정려가 내려져서 웅천 성동리 내성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다.

○ 오성호(吳成鎬)

본관은 보성이고 호는 송재(松齋)다. 종신(終身)으로 성묘하는 효자로서 현종조에 수직(壽職)으로 통정에 올랐다.

○ 오수현(吳壽顯)

본관은 해주이고 청소면 야현리 출신이다. 관직으로는 동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부친이 병석에 누웠을 때 자리를 뜨지 않고 시탕하였으며, 그 부친이 엄동설한인데도 수박 먹기를 청하므로 들에 나가 하늘에 기도하기를 수박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한 지 얼마 안 가서 수박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정성으로 부친의 병이 완쾌되었다 한다. 유럽의 추천으로 나라에서 정려가 내려졌다. 청소면 야현리에 효자각이 있다.

○ 오시조(吳始祚)

본관은 보성이다. 어려서 모친의 병이 위급할 때 천지신명께 기도하여 단지하고 피를 넣어드리니 소생하였으며, 그러나 수일 후 부친상을 당하였으므로 3년간 시묘하면서 예절을 한결같이 하였다. 동몽교관에 올랐다.

○ 오정희(吳鼎熙 1833~1867)

본관은 보성이고, 오상순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즐기며 꾸준히 문학을 하더니 자라서는 갈력지효(竭力至孝)하여 예의를 존중하였다. 특히 상중의 예의는 예학에 기본을 두니 모두 그의 예의를 존중하기에 이르렀다. 효로써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렸다.

○ 윤세원(尹世元)

본관은 무송이다. 웅천 소황리 출신으로 효심이 지극한 인물로 유럽에서 추천되어 성균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 이규철(李圭澈)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관수(寬秀)이다. 효도로써 동몽교관에 올랐다.

○ 이기상(李基商)

본관은 전주이다. 지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여 그 높은 뜻으로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증직되었다.

○ 이기주(李基周)

본관은 전주이고 이기상(李基商)의 동생이다. 통덕랑(通德郎)으로 효자비가 웅천읍 죽청리에 있다.

○ 이백귀(李百貴)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삼현당(三賢堂)이다. 지성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어머니의 병환에 열지공양(裂指供養)함과 동시에 여러 효행을 높이 사서 정려를 내렸다. 삼현리에 효자비각이 있다.

○ 이선원(李善元 1582~?)

본관은 성주(星州)이고 자는 백인(伯仁)이다. 1608년(광해8) 증광생원시에 합격했다. 부모가 병석에 눕게되자 병환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잠을 자지 않고 공주 청주 등 하루에도 200리 길을 왕래하면서 약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부모님의 병환이 차도가 없었다.

하루는 약을 구해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약봉지 천 개면 무엇 하겠느냐, 부모님 병환엔 옥마산 고사리가 제일 이다’ 하고는 사라졌다. 그길로 바구니를 가지고 눈밭을 헤치고 옥마산에 올랐지만 겨울이라 고사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는 눈밭 속에 주저앉아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쳐다보며 호소했다. 그 때 하늘에서 고사리는 네 무릎 앞에 있지 않느냐 하고 소리가 나서 그 곳을 파보니 고사리가 있어 부모님께 약을 해 드렸다.

그후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잉어가 먹고 싶다고 했다. 잉어를 구하러 옥동리 동곡으로 갔다. 몹시 추운 날씨였다. 강변에 구멍을 파고 앉아 잉어가 잡히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새벽에 몸이 얼어붙는 것도 모르고 통곡하니 얼음구덩이에서 잉어 한 마리가 솟아 올라와서 천지신명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약을 해 드렸다. 그후 1655년 정려가 내려지고, 마을 이름이 효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다. 효자각이 남포면 소송리에 있다.

○ 이승협(李承協)

본관은 한산이고 자는 중화(仲華)이다. 효행으로 교관에 올랐다.

○ 이재풍(李在澧)

본관은 용인이다. 효성이 남달리 뛰어나더니 모친이 병석에 눕자 꿈속 계시로 양약(良藥)을 얻어 구하고는 모친을 소생시켰다. 고종조에 동몽교관에 이르렀다.

○ 이재운(李濟運)

본관은 한산이다. 영조조에 효행으로 지평 벼슬에 올랐다.

○ 이종홍(李鍾洪)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희선재(希善齋)이다. 숙재 조병덕의 문인으로 참봉에 이르렀다. 그가 4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복제중(服制中)에 제례(制禮)를 갖추고 머리를 빗지 않았으며, 계모가 병에 걸렸을 때도 약재(藥材)에 최선을 다하였다. 효도가 뛰어난으로 향(鄉)과도(道)에서 추천하여 정려를 내렸다.

○ 이지창(李之昶)

조선 영조 때 그가 37세 때에 모친의 병환을 당함에 시탕하고 사력으로 공양하여 그 효심이 모범이 되므로 지평의 벼슬이 내려졌다.

○ 이호정(李鎬鼎 1800~1860)

본관은 우봉(牛峯)으로 효행이 지극하여 1885년 사헌부 감찰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이 정려는 훼손되었다가 2005년 후손들의 노력과 도비·시비를 지원받아 현 위치에 건립하였다. 그 내력을 적은 비석이 앞에 있다.

○ 임경준(任敬準)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평헌(萍軒)이다. 숙재 조병덕의 문인으로 부친이 기질(奇疾)로 병석에 누웠을 때 최선의 간호를 하였고, 임종을 앞에 두고 단지봉공(斷指奉供)하였고, 모친상을 당해서도 언제나 묘 앞에 나가 혈곡(血哭)하는 효자였으며, 또한 처인 구씨(具氏)도 지극한 효부였다.

○ 임경모(任兢模)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거역재(居易齋)이다. 적은 농사를 지어 빈한하였으나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여 효자의 칭송을 받았으며, 노력하여 사류(士類)가 되었다.

효로써 감찰에 증직되었다.

○ 임은모(任恩模 1804~1868)

본관은 풍천(豐川)이며,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조석 문안 인사를 거르지 않았고, 부모 허락 없이 출타를 하지 않으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극진히 간호하는 등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불효라 생각하여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고 상을 치렀으며, 3년상이 끝난 뒤에도 두문불출하는 등 효행이 특출했다. 1884년 정려가 내려졌다.

○ 임헌옥(任憲玉)

본관은 풍천이다. 효로써 고종조에 참봉에 올랐다.

○ 임헌정(任憲鼎 1858~1932)

본관은 풍천이고, 호는 호은(湖隱)이다. 천성이 명민(明敏)하고 박통(博通)하여 문학에 뛰어났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극하여 크게 모범이 되므로 고종조에 의관(議官)에 오르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 임희영(任熙榮)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부친의 지병을 19년간 보살피기를 하 루같이 하였다. 수직(壽職)으로 통정에 올랐다.

○ 조병흡(趙炳翕)

본관은 한양이다. 우국지사 조일원의 아들로 효심이 돈독하여 어머니의 병환에 단지(斷指)로 주혈(注血)하여 목숨을 살렸으며, 부친이 3.1운동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조석봉양과 시탕(侍湯)범절을 지극한 정성으로 했다. 성균관장의 표창이 있다.

○ 조봉한(趙鳳漢)

본관은 한양이고, 효행으로 성균관장의 표창이 있다.

○ 조중환(趙重煥)

본관은 한양이다. 그는 조실부모하고 백씨(伯氏) 댁에서 양육되었으나 일찍이 타계한 부모의 산소를 지성으로 관리하며 삭망으로 성묘하고 그 백씨 댁이 원거리임에도 매일 같이 문안 오며 효심과 우애가 지극함으로 성균관장의 표창이 있었다.

○ 진상관(陳相寬)

성격이 강건하고 농촌을 굳게 지키는 의지의 농부로서, 효행이 으뜸됨으로 성균관장의 표창이 있었다.

○ 천기완(千基浣)

본관은 영양이다. 주교면 송학리 출신으로 부친이 병환일 때는 차라리 자기에게 아픔을 줄 것을 하늘에 호소하기도 하고, 부친의 시중드는 모습에 누구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부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드렸으며, 한번은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구하고 자기는 익사 직전에 이르렀으나 마침 지나가는 어부들이 구해준 일이 있었다. 수사(水使)와 인근 7읍에서 효행으로 추천하여 동몽교관에 올랐다.

○ 최광필(崔光弼 1553(명종 8)~1608(선조 4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정로(廷老). 예빈시참봉 사순(士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왕손사부 복경(福慶)이고, 아버지는 감찰 영(暉)이다. 1588년(선조21) 생원이 되고, 이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모시고 조종현(朝宗縣)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때 부친의 상을 당하였으므로 그곳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당시는 왜적이 살인과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광필만은 한사코 떠나지 않고 낮에는 산속에 들어가 왜적을 피하고 있다가 밤에는 다시 여막(廬幕)으로 되돌아오곤 하였다. 이에 거주민들이 그 성효(誠孝)에 감복하여 어렵사리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면 꼭 그에게 나누어주었고 마치 친척처럼 대하며 보살펴 주었다.

상복을 벗고 나서 성균관 전적과 형조·예조의 좌랑, 봉상시 주부를 거친 다음 공조 정랑으로 승진하였으며 예안 현감(禮安縣監)으로 외방에 나갔다. 그리고 중국 군대가 동정(東征)할 때를 당하여 몇 번이나 접반관(接伴官)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중국 장수들이 공을 매우 중히 여겼다.

궁궐을 세우는 역사(役事)가 일어나자 상소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는 토목 공사의 폐해를 극언(極言)하는 한편, 20여 조에 걸쳐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언급하는 등 시취(時諫)를 자못 저축한 결과 얼마 뒤에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백성의 고달픈 사정을 진달하다가 파직 당하였다. 이로부터 다시 벼슬하지 않았다.

나중에 조정에서 그가 평소부터 지극한 행실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고 승정원 도승지의 관직을 추증하였다. 그의 후손들이 보령 소항리에 입향하여 세거 해오고 있으며, 그가 받은 정려도 보령으로 이전해 와 웅천 대천리에 세웠다. 그의 묘소도 최근 통달산으로 이장했다.

○ 최인환(崔仁煥)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어른을 공경하며 경로사상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므로 제11회 아버지 날을 맞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이 있었다.

○ 최중응(崔鍾應)

본관은 경주다. 어려서부터 효자로 칭송되었다. 부친이 전염병에 걸리므로 백방으로 시약(施藥)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병환이 위급해지자 열지주구(裂指注口)를 두 번 하여 1일간 목숨을 연장시켰다. 포양문(褒揚文)이 있다.

○ 최진규(崔鎭奎)

본관은 경주다. 부모님을 모시는 정성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부친의 병환에 엄동설한인데도 미꾸라지 2두말을 잡아 약재로 사용하여 효험을 보기도 했다. 그의 효행이 표창되었다.

○ 한덕이(韓德履)

본관은 청주이고 자는 여양(汝良)이다. 모친이 병환에 있을 때 아들로써 바치는 정성을 하늘이 알 것인가 하고 세인(世人)이 극찬한 효자다. 상을 당하고는 한결같이 예의를 준수하고 신석(晨夕)에 성묘하였다. 삼강록(三綱錄)에 올랐다.

○ 황엽(黃燁 1782~1844)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여화(汝華), 호는 양모재(兩慕齋)이다. 양덕현감 황상원(黃相輓)의 아들로 백부 황상희(黃相羲)에게로 입적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천성이 효성스럽고 생각과 양가의 부모를 섬기는 절차에 있어서 각각 성경(誠敬)을 다하였다. 1821년 양부가 심한 병을 만나 여러 달 침중(沈重)하여 기식(氣息)이 다하여 담연(痰涎)에 빠져서 침을 빨지 못하니 매번 손으로 턱을 누르고 혀를 입에 들어 넣어 빨아 들이마셔서 밖으로 꺼냈다. 항상 똥 맛을 보고 동정을 살폈으며, 질병에 힘써 간호하기를 다하였다.

또 양어머니가 이질에 걸렸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넷물고기가 약이 된다고 하니 몸소 사방으로 가서 구하여 잡아오는데, 항상 수족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굳은살 부분의 표면이 터서 갈라지기도 했다. 하루는 넓은 물웅덩이를 뒤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은 이미 저물어 초조하고 급해지니 연못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읍(號泣) 할 때 홀연히 수면 위에 물고기가 숨쉬는 것 같은 징조가 있어 다시 그 웅덩이를 뒤지니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선조를 받드는 데 이르러는 정성스런 예로 제사지내고, 모든 아우들과는 즐거움으로 우애하고, 가족들과는 기뻐함으로 돈독하고 손님을 맞이함에는 충실함으로 하였다.

유생들의 찬장(薦狀)이 남아있다.

○ 황유업(黃有業 1628~1708)

본관은 장수이고 호는 치재(恥齋)다. 익성공 황희의 후손이며 사포서 별제 정직의 손자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어머니 조씨가 등에 등창이 나서 증세가 위급해지니 입으로 농즙을 빨아서 효험을 보았으며, 그 후 또 고질병으로 3년을 시달렸는데, 옷에서 의대(衣帶)를 벗지 않고 지성으로 병을 돌보았으며, 대변의 달고 씹을 맛보았다. 그러나 기운이 떨어 집에 임하여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뒷머리에 종기가 나서 위급한 지경에 이르니 종기를 빨아서 병이 낫게 하였고, 또 중증(重症)으로 갑자기 기운이 막힘에 이르니 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 3일을 희생시켰다.

어머니 제사에 살아있는 꿩 제수를 사방에서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홀연히 어둠속에서 날던 꿩이 땅에 떨어져서, 꿩을 거둬서 제사에 드리니 일족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효성을 칭찬하였으며, 추원(追遠)하는 정성을 늙어서까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강희51년(1712) 4월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다. 대창리 접동골에 조부 황정직 정려와 함께 있다.

○ 황정직(黃廷直 1581~1657)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자승(子繩) 호는 쌍벽당(雙碧堂)이다. 황희의 6대손이며 황즙의 아들이다. 부친의 병이 심해짐에 의복과 요대를 벗지 않고 밤낮으로 옆에서 모셨으며, 약과 차는 반드시 몸소 맛보고, 침과 뜸은 반드시 자기 몸에 시험하였고,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넣어드리는 등 극진한 효도를 하였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하고, 또한 부인이 사망하니 한꺼번에 두개의 상여로 경기도 선산 가기가 어려워 남포의 남쪽 증산리 북쪽 산에 터를 잡고 장사를 지냈다. 묘 아래에 여막을 짓고 날마다 무덤에 성묘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때 어머니가 옛 집에 거주하고 있어 묘소와의 거리가 10리나 되었는데, 가서 살피어 뵙고 하는 것을 추위나 더위에도 그치지 않았다. 항상 제수는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함에 힘썼다.

하루는 성묘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서 큰 고기가 뛰어올라 모래가에 누워 있어서, 가지고 가서 제사에 공양하고, 부친 재기(再墓)가 장차 다가옴에 미쳐서는 공이 가난하여 제수가 변변치 못하여 슬픔이 되었는데, 홀연히 승냥이 무리들이 산돼지 한 마리를 쫓아 죽여 산 아래에 두고 가니 제사에 공양할 수 있었다. 향리의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효성에 감탄하였다.

1625년 생원 李馨元 등 40여 인이 한 고을의 공론을 모아서 공의 효행을 논열하고, 태수 및 순찰사에게 알리니 순찰사가 조정에 아뢰었고, 인조가 가상하게 여겨서 정려를 내리고, 사포서별제에 제수하였다. 벼슬에 나가 병자호란 때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강화도에 들어갔을 때 조정에서 독자와 형제가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라는 명이 있어 공은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며 난을 피했다가 적이 물러간 후 옛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지냈다. 그의 묘소는 웅천 대창리에 있으며, 정려는 원래 황교리 광암에 있었으나, 공군사격장 관계로 대창리로 이전하였다.

4. 보령 · 남포현감 및 수군절도사

1) 보령현감

번호	현 감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재임기간
1	조원(趙瑗)	선조6년(1573) 1월 9일		
2	박지(朴技)	선조8년(1575) 8월 7일	선조8년(1575)12월 12일	4개월
3	김윤걸(金允傑)	선조9년(1576) 1월 21일	선조9년(1576) 8월	7개월
4	김황(金滉)	선조9년(1576) 9월 21일	선조14년(1581) 8월 19일	4년11개월
5	김재민(金齋閔)	선조14년(1581) 10월 2일	선조15년(1582) 2월 24일	4개월
6	원사용(元士容)	선조15년(1582) 3월 13일	선조16년(1583) 12월 30일	1년9개월
7	민열(閔說)	선조17년(1584) 2월 9일	선조17년(1584) 12월 20일	10개월
8	허일(許鎰)	선조18년(1585) 1월 10일	선조22년(1589) 6월 일	4년5개월
9	안윤호(安潤瑚)	선조22년(1589) 7월 7일	선조22년(1589) 7월 19일	12개월
10	유송인(柳崇仁)	선조22년(1589) 8월 19일	선조23년(1590) 4월 18일	8개월
11	이대이(李大頤)	선조23년(1590) 6월 6일	선조24년(1591) 2월 22일	8개월
12	김호념(金好恬)	선조24년(1591) 윤3월 1일		
13	이의정(李義精)			
14	이지효(李止孝)	선조26년(1593) 8월 8일		
15	황응성(黃應聖)	선조28년(1595) 9월 20일		
16	유비(柳斐)	선조30년(1597) 7월 20일		
17	이충일(李忠一)	선조31년(1598) 3월 15일	선조31년(1598) 11월 일	8개월
18	허정식(許廷式)	선조31년(1598)12월 24일		
19	최간(崔衍)	선조33년(1600) 4월 10일	선조33년(1600) 12월 15일	8개월
20	유연(俞淵)	선조34년(1601) 1월 28일	선조34년(1601) 6월 2일	5개월
21	성영우(成永遇)	선조34년(1601) 7월 2일	선조34년(1601) 10월 일	3개월
22	강주(姜籟)	선조34년(1601)11월 20일	선조35년(1602) 2월 26일	4개월
23	정영국(鄭榮國)	선조35년(1602) 3월 27일	선조36년(1603) 4월 26일	1년1개월
24	강의봉(康儀鳳)	선조36년(1603) 7월 13일		
25	이여하(李汝賀)	선조37년(1604) 4월 22일		
26	박언룡(朴彦龍)	선조40년(1607) 2월 6일	광해군2년(1610) 3월 26일	3년1개월
27	조색(趙穡)	광해군2년(1610) 4월 1일	광해군3년(1611) 9월 28일	1년5개월
28	전형(全瀟)	광해군3년(1611) 11월 6일	광해군4년(1612) 7월 3일	8개월
29	이함일(李涵一)	광해군4년(1612)10월 10일	광해군4년(1612) 12월	2개월
30	김정후(金廷厚)	광해군5년(1613) 2월 18일	광해군5년(1613) 6월	4개월
31	조신준(曹臣俊)	광해군5년(1613) 8월 6일	광해군5년(1613) 11월	3개월
32	윤자신(尹自莘)	광해군5년(1613)12월 17일	광해군9년(1617)	3년5개월

33	정신남(鄭信男)	광해군9년(1617) 8월18일	광해군14년(1622) 1월8일	4년5개월
34	김종진(金宗振)	광해군14년(1622) 4월18일	인조1년(1623) 4월22일	1년
35	박진(朴璿)	인조1년(1623) 5월2일	인조1년(1623) 6월25일	1개월
36	전벽(田闢)	인조1년(1623) 8월11일	인조3년(1625) 8월15일	2년
37	권집(權集)	인조3년(1625) 10월17일	인조4년(1626) 1월27일	3개월
38	강윤형(姜允亨)	인조4년(1626) 3월4일	인조5년(1627) 4월9일	1년1개월
39	윤효영(尹孝永)	인조5년(1627) 5월15일	인조5년(1627) 12월	6개월
40	윤효영(尹孝永)	인조6년(1628) 2월20일	인조6년(1628) 8월8일	6개월
41	권성오(權省吾)	인조6년(1628) 11월19일	인조7년(1629) 4월	6개월
42	최진명(崔振溟)	인조7년(1629) 윤4월3일	인조9년(1631) 6월10일	2년2개월
43	유신로(柳莘老)	인조9년(1631) 8월20일	인조11년(1633) 11월7일	2년3개월
44	박진필(朴震弼)	인조12년(1634) 1월12일	인조12년(1634) 6월10일	5개월
45	오희윤(吳熙胤)	인조12년(1634) 7월15일	인조14년(1636) 9월	1년11개월
46	최문활(崔文活)	인조14년(1636) 8월15일	인조16년(1638) 월	2년1개월
47	민하(閔賀)	인조16년(1638) 10월25일	인조21년(1643) 7월15일	4년9개월
48	김종필(金宗泌)	인조21년(1643) 8월16일	인조22년(1644) 10월16일	1년2개월
49	최탁(崔琢)	인조22년(1644) 12월6일	인조24년(1646) 3월7일	1년3개월
50	한득양(韓得良)	인조24년(164) 3월6일	인조26년(1648) 1월26일	1년10개월
51	한상현(韓尙玄)	인조26년(1648) 윤3월1일	효종2년(1651) 3월	3년
52	권흥익(權興益)	효종2년(1651) 4월22일	효종3년(1652) 2월9일	10개월
53	구의준(具義俊)	효종3년(1652) 2월22일	효종4년(1653) 3월29일	1년7개월
54	이수창(李壽昌)	효종4년(1653) 11월17일	효종5년(1654) 7월22일	8개월
55	김한문(金漢文)	효종5년(1654) 7월19일	효종6년(1655) 4월22일	9개월
56	남천택(南天澤)	효종6년(1655) 5월27일	효종8년(1657) 10월14일	2년5개월
57	황도굉(黃道宏)	효종8년(1657) 12월11일	효종10년(1659) 1월2일	1년1개월
58	곽준창(郭浚昌)	효종10년(1659) 1월24일	현종1년(1660) 2월22일	1년1개월
59	정숙주(鄭叔周)	현종1년(1660) 3월9일	현종1년(1660) 12월26일	9개월
60	최응천(崔應天)	현종2년(1661) 2월20일	현종5년(1664) 12월19일	3년10개월
61	임영(任映)	현종6년(1665) 1월8일	현종7년(1666) 1월29일	1년
62	안후창(安後昌)	현종7년(1666) 2월24일	현종9년(1668) 6월	2년4개월
63	유지발(柳之發)	현종9년(1668) 8월12일	현종11년(1670) 윤3월	1년8개월
64	이운림(李雲林)	현종11년(1670) 3월17일	현종11년(1670) 4월22일	1개월
65	이순원(李舜元)	현종11년(1670) 6월7일	현종12년(1671) 11월3일	1년5개월
66	강필주(姜弼周)	현종12년(1671) 12월2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3년6개월
67	김익창(金益昌)	숙종1년(1675) 6월7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1년
68	유화(柳榑)	숙종2년(1676) 8월12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11개월
69	박신지(朴身之)	숙종3년(1677) 8월16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1년1개월
70	최기(崔紀)	숙종5년(1679) 9월2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1년

71	강산두(姜山斗)	숙종6년(1680) 11월1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1년7개월
72	정유징(鄭有徵)	숙종8년(1682) 8월1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1년4개월
73	이석조(李碩祚)	숙종10년(1684) 1월26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5개월
74	주택정(朱宅正)	숙종10년(1684) 7월2일	숙종1년(1675) 윤5월22일	3개월
75	강세보(姜世輔)	숙종10년(1684) 12월·11일	숙종10년(1684) 12월13일	2일 遭父喪
76	신후(申廔)	숙종11년(1685) 1월19일	숙종11년(1685) 9월	8개월
77	이곤(李琨)	숙종11년(1685) 10월19일	숙종14년(1688) 3월	2년5개월
78	오명로(吳命老)	숙종14년(1688) 8월6일	숙종16년(1690) 7월	2년3개월
79	김시경(金始慶)	숙종16년(1690) 8월8일	숙종16년(1690) 12월15일	4개월
80	안정(安靖)	숙종17년(1691) 1월22일	숙종18년(1692) 6월	1년5개월
81	김환(金煥)	숙종18년(1692) 8월3일	숙종20년(1694) 5월1일	1년9개월
82	윤석(尹楫)	숙종20년(1694) 윤5월15일	숙종22년(1695) 5월	2년
83	심당(沈槿)	숙종22년(1696) 6월23일	숙종23년(1697) 6월17일	1년
84	박인(朴鱗)	숙종23년(1697) 8월17일	숙종24년(1698) 7월	11개월
85	남세진(南世珍)	숙종24년(1698) 9월4일	숙종24년(1698) 12월30일	3개월
86	권우형(權宇亨)	숙종25년(1699) 3월17일	숙종26년(1700) 10월	1년7개월
87	이재춘(李再春)	숙종26년(1700) 12월19일	숙종28년(1702) 12월	2개월
88	조지중(趙之重)	숙종29년(1703) 2월2일	숙종31년(1705) 6월15일	2년4개월
89	한재원(韓在垣)	숙종31년(1705) 8월4일	숙종33년(1707) 6월15일	1년10개월
90	명정구(明廷耆)	숙종33년(1707) 9월7일	숙종34년(1708) 6월15일	9개월
91	신이형(申以衡)	숙종34년(1708) 7월	숙종37년(1711) 2월	2년7개월
92	권대림(權大臨)	숙종37년(1711) 4월	숙종38년(1712) 5월	1년1개월
93	문덕린(文德麟)	숙종38년(1712) 7월	숙종40년(1714) 10월	2년3개월
94	정중호(鄭重虎)	숙종40년(1714) 11월	숙종42년(1716) 3월	1년4개월
95	김진래(金晉來)	숙종42년(1716) 5월	숙종43년(1717) 1월	8개월
96	심득양(沈得良)	숙종43년(1717) 10월19일	숙종44년(1718) 2월	11개월
97	이문표(李文標)	숙종44년(1718) 3월	숙종46년(1720) 7월	2년4개월
98	김천서(金天敘)	숙종11년(1685) 10월19일	경종1년(1721) 5월1일	6개월
99	김명은(金鳴殷)	경종1년(1721) 6월28일	경종3년(1723) 4월9일	1년10개월
100	노삼방(盧三邦)	경종3년(1723) 5월7일	영조1년(1725) 9월2일	2년4개월
101	장세문(張世文)	영조1년(1725) 10월8일	영조3년(1727) 12월15일	2년2개월
102	김성택(金聖澤)	영조4년(1728) 2월27일	영조4년(1728) 3월28일	1개월
103	강일규(姜一珪)	영조4년(1728) 4월8일	영조6년(1730) 11월	1년7개월
104	이한상(李漢相)	영조6년(1730) 3월	영조9년(1733) 2월	2년11개월
105	남태량(南泰良)	영조9년(1733) 2월	영조9년(1733) 4월	2개월
106	권람(權覽)	영조9년(1733) 6월	영조10년(1734) 4월21일	10개월
107	정희규(鄭熙揆)	영조10년(1734) 6월16일	영조10년(1734) 12월7일	6개월
108	송희찬(宋熙瓚)	영조11년(1735) 1월15일	영조11년(1735) 8월5일	7개월

710 • 인물

109	권집 ○	영조11년(1735) 10월16일	영조12년(1736) 8월	10개월
110	박형운(朴亨潤)	영조12년(1736) 9월16일	영조15년(1739) 1월21일	2년4개월
111	이행민(李行敏)	영조15년(1739) 2월15일	영조18년(1742) 5월21일	3년3개월
112	정옥(鄭玉)	영조18년(1742) 7월11일	영조19년(1743) 12월20일	1년5개월
113	윤택휴(尹澤休)	영조20년(1744) 1월3일	영조20년(1744) 6월15일	5개월
114	김익헌(金益憲)	영조20년(1744) 9월3일	영조20년(1744) 12월15일	3개월
115	김홍택(金弘澤)	영조21년(1745) 2월28일	영조21년(1745) 6월	4개월
116	이민곤(李敏坤)	영조21년(1745) 10월1일	영조23년(1747) 4월8일	1년6개월
117	정권(鄭權)	영조23년(1747) 6월10일	영조24년(1748) 6월13일	1년
118	조경(趙擎)	영조24년(1748) 7월20일	영조26년(1750) 1월	1년1개월
119	이기덕(李基德)	영조26년(1750) 3월3일	영조26년(1750) 6월	3개월
120	조명운(趙命胤)	영조26년(1750) 9월3일	영조26년(1750) 12월15일	3개월
121	정언충(鄭彦忠)	영조27년(1751) 3월17일	영조28년(1752) 10월10일	1년7개월
122	강시현(姜始顯)	영조28년(1752) 11월28일	영조29년(1753) 2월20일	3개월
123	이정중(李廷重)	영조29년(1753) 4월15일	영조29년(1753) 10월	6개월
124	안치택(安致宅)	영조29년(1753) 12월16일	영조30년(1754) 3월13일	3개월
125	홍양한(洪亮漢)	영조30년(1754) 5월2일	영조32년(1756) 3월10일	1년10개월
126	박치용(朴致隆)	영조32년(1756) 3월30일	영조33년(1757) 1월	10개월
127	이두운(李斗運)	영조33년(1757) 2월18일	영조36년(1760) 1월	2년11개월
128	박효원(朴孝源)	영조36년(1760) 4월22일	영조38년(1762) 11월6일	2년7개월
129	정택(鄭擇)	영조38년(1762) 11월7일	영조39년(1763) 7월5일	8개월
130	이명계(李命啓)	영조39년(1763) 7월	영조40년(1764) 8월	1년1개월
131	이수일(李秀逸)	영조40년(1764) 10월	영조42년(1766) 6월18일	1년8개월
132	조세선(趙世選)	영조42년(1766) 7월	영조45년(1769) 6월	2년11개월
133	김낙풍(金樂豊)	영조45년(1769) 7월10일	영조48년(1772) 7월	3년
134	전진상(田晉祥)	영조48년(1772) 8월6일	영조49년(1773) 1월8일	5개월
135	이성오(李性吾)	영조49년(1773) 1월	영조49년(1773) 2월	1개월
136	정홍덕(鄭弘德)	영조49년(1773) 3월6일	정조2년(1778) 1월24일	4년10개월
137	심국현(沈國賢)	정조2년(1778) 2월10일	정조5년(1781) 6월	3년4개월
138	이복휘(李福徽)	정조5년(1781) 6월13일	정조6년(1782) 3월28일	9개월
139	임옥(任玉)	정조6년(1782) 5월6일	정조7년(1783) 6월	1년1개월
140	최훤(崔煥)	정조7년(1783) 7월1일	정조9년(1785) 7월	2년
141	손석주(孫碩周)	정조9년(1785) 9월13일	정조10년(1786) 4월	7개월
142	이일운(李日運)	정조10년(1786) 6월8일	정조12년(1788) 12월	2년6개월
143	김상원(金尙源)	정조13년(1789) 1월13일	정조15년(1791) 6월	2년5개월
144	오정근(吳正根)	정조15년(1791) 7월6일	정조17년(1793) 12월26일	2년5개월
145	이조범(李祖範)	정조18년(1794) 2월26일	정조18년(1794) 10월4일	9개월 사망
146	이여충(李汝忠)	정조18년(1794) 10월11일	정조20년(1796) 12월26일	2년2개월

147	송문술(宋文述)	정조20년(1796) 12월27일	정조21년(1797) 8월13일	8개월
148	한영규(韓永逵)	정조21년(1797) 8월28일	정조24년(1800) 윤4월15일	2년9개월
149	이동환(李東煥)	정조24년(1800) 윤4월 21일	순조2년(1802) 1월6일	1년9개월
150	정한(鄭澣)	순조2년(1802) 1월22일	순조2년(1802) 5월10일	4개월
151	민사선(閔師宣)	순조2년(1802) 5월17일	순조2년(1802) 9월11일	4개월
152	이현수(李顯秀)	순조2년(1802) 9월	순조3년(1803) 3월11일	6개월
153	이위달(李渭達)	순조3년(1803) 3월30일	순조4년(1804) 12월6일	9개월
154	남도중(南度中)	순조4년(1804) 12월26일	순조6년(1806) 7월	1년7개월
155	홍희현(洪羲玄)	순조6년(1806) 8월9일	순조8년(1808) 12월	2년4개월
156	함정희(咸正禧)	순조9년(1809) 1월7일	순조11년(1811) 8월10일	2년7개월
157	윤효식(尹孝植)	순조11년(1811) 8월19일	순조13년(1813) 11월	2년3개월
158	이기명(李耆明)	순조13년(1823) 12월23일	순조15년(1815) 7월	1년7개월
159	강최현(姜最顯)	순조15년(1815) 7월20일	순조17년(1817) 10월5일	2년3개월
160	원재성(元在誠)	순조17년(1817) 10월15일	순조19년(1819) 12월25일	2년2개월
161	김수종(金秀鍾)	순조20년(1820) 1월13일	순조22년(1822) 7월9일	2년6개월
162	송재순(宋在淳)	순조22년(1822) 7월30일	순조24년(1824) 12월22일	2년5개월
163	김노혁(金魯赫)	순조25년(1825) 1월15일	순조27년(1827) 윤5월4일	2년5개월
164	이시련(李是鍊)	순조27년(1827) 윤5월17일	순조29년(1829) 6월24일	2년
165	이희신(李羲臣)	순조29년(1829) 7월12일	순조33년(1833) 7월	4년
166	최치헌(崔致憲)	순조33년(1833) 8월22일	헌종1년(1835) 6월5일	1년10개월
167	김명효(金命孝)	헌종1년(1835) 6월29일	헌종2년(1836) 9월7일	1년3개월
168	김지태(金持泰)	헌종2년(1836) 9월20일	헌종4년(1838) 5월25일	1년9개월
169	신의익(申義益)	헌종4년(1838) 6월19일	헌종8년(1842) 1월21일	3년7개월
170	이정서(李鼎叙)	헌종8년(1842) 2월15일	헌종9년(1843) 12월26일	1년10개월
171	구종록(具鍾祿)	헌종10년(1844) 1월20일	헌종11년(1845) 12월27일	1년11개월
172	한승렬(韓升烈)	헌종12년(1846) 1월20일	헌종13년(1847) 6월24일	1년5개월
173	이방현(李邦鉉)	헌종13년(1847) 7월29일	헌종15년(1849) 3월	1년8개월
174	이우신(李又新)	헌종15년(1849) 4월24일	철종1년(1850) 12월26일	1년8개월
175	장인원(張仁遠)	철종2년(1851) 2월7일	철종2년(1851) 윤8월23일	7개월
176	이인구(李麟九)	철종2년(1851) 9월21일	철종2년(1851) 10월6일	15일
177	장돈근(張敦根)	철종2년(1851) 11월6일	철종3년(1852) 2월	3개월
178	이현익(李顯益)	철종3년(1852) 3월9일	철종4년(1853) 3월12일	1년
179	이구동(李九東)	철종4년(1853) 4월11일	철종7년(1856) 6월	3년2개월
180	김제금(金濟肯)	철종7년(1856) 7월16일	철종11년(1860) 6월25일	3년11개월
181	안익선(安益善)	철종11년(1860) 6월	철종12년(1861) 6월15일	1년
182	노락(盧樂)	철종12년(1861) 8월	철종13년(1862) 1월	5개월
183	김금순(金肯淳)	철종13년(1862) 2월	고종1년(1864) 6월	2년4월
184	박공진(朴公鎭)	고종1년(1864) 6월10일	고종2년(1865) 12월20일	1년6월

185	이원호(李源浩)	고종3년(1866) 1월21일	고종3년(1866) 12월 15일	11개월
186	김선주(金善柱)	고종4년(1867) 1월24일	고종4년(1867) 6월	5개월
187	안시윤(安時潤)	고종4년(1867) 7월16일	고종4년(1867) 8월30일	45일
188	방효함(方孝涵)	고종4년(1867) 9월28일	고종6년(1869) 12월21일	2년3개월
189	천우현(千禹鉉)	고종7년(1870) 1월22일	고종7년(1870) 7월 17일	6개월
190	강이호(姜履浩)	고종7년(1870) 8월10일	고종8년(1871) 9월 18일	1년1개월
191	이규안(李奎顔)	고종8년(1871) 9월18일	고종11년(1874) 1월 19일	2년4개월
192	이태현(李泰鉉)	고종11년(1874) 2월27일	고종13년(1876) 5월	2년3개월
193	이희눌(李熙訥)	고종13년(1876) 6월10일	고종15년(1878) 6월	2년
194	이교복(李教復)	고종15년(1878) 7월25일	고종17년(1880) 5월	1년10개월
195	이교필(李教弼)	고종17년(1880) 7월10일	고종19년(1882) 6월	1년11개월
196	심의홍(沈宜弘)	고종19년(1882) 8월7일	고종20년(1883) 4월27일	8개월
197	양주성(梁柱星)	고종20년(1883) 4월27일	고종21년(1884) 12월 10일	1년8개월
198	이정필(李正弼)	고종21년(1884) 12월 10일		
199	구연창(具然昌)	고종22년(1885) 10월26일	고종24년(1887) 11월 24일	2년1개월
200	오정선(吳正善)	고종24년(1887) 11월 24일	고종27년(1890) 6월 6일	2년7개월
201	민치일(閔致一)	고종27년(1890) 6월 6일	고종29년(1892) 4월 29일	1년10개월
202	이상규(李庠珪)	고종29년(1892) 4월 29일	고종30년(1893) 12월 20일	1년8개월
203	이봉구(李鳳九)	고종30년(1893) 12월 20일	고종30년(1893) 12월 28일	8일
204	조병주(趙秉周)	고종31년(1894) 2월 17일	고종31년(1894) 10월 6일	8개월
205	이교철(李教哲)	고종31년(1894) 11월 3일	고종34년(1897) 3월	2년4개월
206	박제경(朴齊璟)	고종34년(1897) 3월 13일	고종36년(1899) 1월 20일	1년10개월
207	박홍양(朴鴻陽)	고종36년(1899) 2월 11일	고종37년(1900) 6월 18일	1년4개월
208	권성수(權聖洙)	고종38년(1901) 1월 28일	고종38년(1901) 6월 14일	5개월
209	성보영(成輔永)	고종8년(1901) 8월 27일	고종38년(1901) 11월 1일	2개월
210	박원명(朴源明)	고종39년(1902) 1월 26일	고종39년(1902) 5월 7일	3개월
211	박승철(朴勝轍)	고종39년(1902) 8월 6일	고종39년(1902) 10월 14일	2개월
212	임백용(任百溶)	고종40년(1903) 2월 6일	고종42년(1905) 9월 14일	2년7개월
213	신석구(申奭求)	고종42년(1905) 10월 9일	고종43년(1906) 윤4월 25일	7개월
214	이규백(李奎白)	고종43년(1906) 5월 20일	1911년 2월 6일	4년11개월

2) 남포현감(1529~1766.6)

번호	현 감 명	취 임 일	이 임 일	재임기간
1	최경(崔瓊)			
2	여중온(呂仲溫)	중종26년((1531) 7월	중종31년(1536) 8월	5년1개월
3	박응희(朴應禧)	중종21년(1536) 8월	중종32(1537) 6월	10개월
4	박의손(朴義孫)	중종32년((1537) 8월	중종34(1539) 10월	2년2개월

5	최린(崔麟)	중종34년((1539) 12월		
6	옥순효(玉順孝)	중종39년((1544) 8월	명종1년(1546) 9월	2년2개월
7	김이상(金履祥)	명종1년(1546) 11월	명종3년(1548) 1월	1년2개월
8	윤문(尹雯)	명종3년(1548) 3월	명종4년(1549) 1월	10개월
9	원효양(元孝良)	명종4년(1549) 3월	명종5년(1550) 12월	1년9개월
10	유세화(柳世華)	명종6년(1551) 1월	명종7년(1552) 10월	1년9개월
11	윤번(尹繡)	명종7년(1552) 12월	명종10년(1555)	
12	김세응(金世應)	명종12년(1557) 11월	명종14년(1559) 5월	1년6개월
13	구현복(具玄福)	명종14년(1559) 10월	명종15년(1560) 3월	5개월
14	임몽서(任夢瑞)	명종15년(1560) 5월	명종16년(1561) 3월	10개월
15	오임(吳任)	명종16년(1561) 3월	명종17년(1562) 8월	1년5개월
16	이란수(李鑿壽)	명종17년(1562) 9월	명종22년(1567) 1월	4년11개월
17	이몽원(李夢元)	명종22년(1567) 9월	선조4년(1571) 9월	4년
18	윤택(尹澤)	선조4년(1571) 10월	선조5년(1572) 9월	11개월
19	최미수(崔眉壽)	선조5년(1572) 10월	선조6년(1573) 2월	4개월
20	박응장(朴應張)	선조6년(1573) 3월	선조8년(1575) 9월	2년6월
21	박지진(朴知進)	선조8년(1575) 11월	선조9년(1576) 6월	7개월
22	임팔원(任八元)	선조10년(1577) 1월	선조11년(1578) 4월	1년3개월
23	김세범(金世範)	선조1년(1578) 5월	선조11년(1578) 8월	3개월
24	신상절(申尙節)	선조11년(1578) 9월	선조12년(1579) 9월	1년
25	유냉(柳冷)	선조12년(1579) 10월	선조13년(1590) 10월	1년
26	이빈(李蘋)	선조13년(1580) 12월	선조16년(1583) 12월	3년
27	이옹(李翁)	선조17년(1584) 1월	선조19년(1586) 12월	2년11개월
28	이상민(李尙閔)	선조20년(1587) 2월	선조25년(1592) 2월	5년
29	이예수(李禮壽)	선조25년(1592) 2월	선조26년(1593) 6월	1년4개월
30	이영경(李迎慶)	선조26년(1593) 8월	선조28년(1595) 2월	1년6개월
31	박동선(朴東善)	선조28년(1595) 3월	선조31년(1598) 1월	2년10개월
32	윤의(尹顛)	선조31년(1598) 2월		
33	소문진(蘇文震)	선조32년(1599) 8월	선조32년(1599) 12월	4개월
34	민형(閔澗)	선조33년(1600) 1월	선조33년(1600) 8월	7개월
35	유민(柳旻)	선조33년(1600) 9월	선조34년(1601) 8월	11개월
36	우정보(禹廷祿)	선조34년(1601) 8월	선조34년(1601) 12월	4개월
37	조원상(趙元祥)	선조35년(1602) 2월	선조39년(1606) 12월	4년10개월
38	장준(張俊)	선조40년(1607) 1월	선조40년(1607) 7월	6개월
39	이완(李完)	선조40년(1607) 8월	광해군1년(1609) 7월	1년11개월
40	강혜(姜諫)	광해군1년(1609) 8월	광해군2년(1610) 3월	7개월
41	황집(黃輯)	광해군2년(1610) 4월	광해군1년(1610) 12월	8개월
42	이서(李曙)	광해군3년(1611) 2월	광해군3년(1611) 4월	2개월

714 • 인물

43	차방언(車邦彦)	광해군3년(1611) 4월	광해군1년(1611) 10월	6개월
44	임영(林英)	광해군4년(1611) 10월	광해군4년(1612) 10월	11개월
45	안여○(安汝○)	광해군4년(1612) 12월	광해군5년(1613) 7월	7개월
46	권채(權采)	광해군5년(1613) 11월	광해군9년(1617) 2월	3년3개월
47	이시립(李時立)	광해군9년(1617) 4월	광해군12년(1620) 11월	3년7개월
48	이억(李嶷)	광해군13년(1621) 5월	광해군14년(1622) 9월	1년4개월
49	이정(李靖)	광해군14년(162) 12월	인조1년(1623) 3월	3개월
50	조현경(趙玄慶)	인조1년(1623) 5월	인조1년(1623) 7월	2개월
51	강설(姜僕)	인조1년(1623) 8월	인조1년(1623) 12월	4개월
52	이정언(李廷彦)	인조2년(1624) 1월	인조2년(1624) 7월	6개월
53	성시우(成時雨)	인조2년(1624) 9월	인조3년(1625) 6월	9개월
54	정상고(鄭尙古)	인조3년(1625) 8월	인조5년(1627) 9월	2년1개월
55	유흥원(柳興元)	인조5년(1627) 10월	인조8년(1630) 10월	3년
56	박우(朴瑀)	인조8년(1630) 11월	인조10년(1632) 8월	1년9개월
57	이호연(李浩然)	인조10년(1632) 9월	인조11년(1633) 1월	4개월
58	손종로(孫宗老)	인조11년(1633) 2월	인조12년(1634) 3월	1년1개월
59	위정보(魏廷寶)	인조12년(1634) 4월	인조12년(1634) 6월	2개월
60	김호(金灝)	인조12년(1634) 8월	인조13년(1635) 11월	1년3개월
61	이경선(李慶善)	인조14년(1636) 1월	인조14년(1636) 12월	11개월
62	민준○(閔俊○)	인조15년(1637) 1월	인조15년(1637) 2월	1개월
63	정취도(鄭就道)	인조15년(1637) 3월	인조17년(1637) 4월	1개월
64	박안인(朴安仁)	인조15년(1637) 5월	인조18년(1640) 7월	3년2개월
65	정린(鄭潁)	인조18년(1640) 8월	인조19년(1641) 12월	1년4개월
66	남두방(南斗榜)	인조19년(1641) 12월	인조21년(1643) 3월	1년3개월
67	박명한(朴鳴漢)	인조21년(1643) 4월	인조21년(1643) 12월	8개월
68	조형(趙衡)	인조22년(1644) 1월	인조23년(1645) 6월	1년5개월
69	이지형(李技馨)	인조23년(1645) 7월	인조26년(1648) 8월	3년1개월
70	민승(閔昇)	효종1년(1650) 1월	효종2년(1651) 12월	1년11개월
71	안충로(安忠老)	효종1년(1651) 12월	효종5년(1654) 11월	2년11개월
72	홍우민(洪禹民)	효종5년(1654) 12월	효종6년(1655) 6월	6개월
73	나팔기(羅八紀)	효종6년(1655) 7월	효종8년(1657) 12월	2년5개월
74	정운망(鄭雲望)	효종9년(1658) 2월	효종9년(1658) 12월	10개월
75	박진경(朴震卿)	효종10년(1659) 1월	효종10년(1659) 8월	7개월
76	이방렬(李邦烈)	효종10년(1659) 8월	현종1년(1660) 4월	8개월
77	남옥(南沃)	현종1년(1660) 8월	현종3년(1662) 6월	1년10개월
78	한간(韓侃)	현종3년(1662) 6월	현종5년(1664) 12월	2년6개월
79	안시익(安時翊)	현종6년(1665) 1월	현종6년(1665) 12월	11개월
80	나득성(羅得星)	현종7년(1666) 1월	현종8년(1667) 6월	1년5개월

81	이진창(李振昌)	현종8년(1667) 8월	현종9년(1668) 6월	10개월
82	이국화(李國華)	현종9년(1668) 7월	현종9년(1668) 12월	5개월
83	민최(閔最)	현종10년(1669) 1월	현종10년(1669) 3월	2년6개월
84	최양필(崔良弼)	현종10년(1669) 3월	현종11년(1670) 2월	11개월
85	권극중(權克中)	현종11년(1670) 6월	현종14년(1673) 8월	3년2개월
86	이항(李炕)	현종14년(1673) 9월	현종15년(1674) 6월	9개월
87	이행등(李行登)	현종15년(1674) 8월	현종15년(1674) 10월	2개월
88	남궁섭(南宮燮)	현종15년(1674) 10월	숙종2년(1676) 5월	1년7개월
89	안근(安根)	숙종2년(1676) 10월	숙종5년(1679) 12월	3년2개월
90	서내원(徐來遠)	숙종6년(1680) 2월	숙종6년(1680) 8월	6개월
91	남두명(南斗明)	숙종6년(1680) 8월	숙종11년(1685) 7월	4년11개월
92	정상박(鄭尙樸)	숙종11년(1685) 8월	숙종13년(1687) 1월	1년5개월
93	장석한(張錫韓)	숙종13년(1687) 2월	숙종13년(1687) 12월	10개월
94	고위규(高緯奎)	숙종14년(1688) 12월	숙종16년(1690) 3월	1년3개월
95	김중(金重)	숙종16년(1690) 4월	숙종16년(1690) 12월	8개월
96	박세화(朴世華)	숙종16년(1690) 12월	숙종17년(1691) 6월	6개월
97	서종망(徐宗望)	숙종17년(1691) 7월	숙종18년(1692) 2월	7개월
98	이태현(李泰顯)	숙종18년(1692) 3월	숙종18년(1692) 12월	9개월
99	황탁(黃鐸)	숙종19년(1693) 2월	숙종22년(1696) 4월	3년2개월
100	권성대(權聖大)	숙종22년(1696) 5월	숙종23년(1697) 12월	1년7개월
101	구시익(具時翊)	숙종24년(1698) 2월	숙종24년(1698) 7월	5개월
102	신명원(申命元)	숙종24년(1698) 8월	숙종25년(1699) 2월	6개월
103	허책(許策)	숙종25년(1699) 3월	숙종25년(1699) 12월	9개월
104	이수영(李秀英)	숙종26년(1700) 2월	숙종26년(1700) 12월	10개월
105	윤적경(尹積慶)	숙종27년(1701) 2월	숙종28년(1702) 6월	1년4개월
106	이송제(李松濟)	숙종28년(1702) 8월	숙종30년(1704) 12월	2년4개월
107	김재장(金再璋)	숙종31년(1705) 2월	숙종32년(1705) 5월	1년3개월
108	채팽윤(蔡彭胤)	숙종32년(1706) 8월	숙종34년(1708) 6월	1년10개월
109	박전(朴堉)	숙종34년(1708) 8월	숙종36년(1710) 10월	2년2개월
110	이우춘(李遇春)	숙종36년(1710) 10월	숙종38년(1712) 10월	2년
111	이익(李杓)	숙종38년(1712) 12월	숙종41년(1715) 1월	2년1개월
112	권익상(權翼祥)	숙종41년(1715) 2월	숙종41년(1715) 10월	8개월
113	홍시걸(洪時傑)	숙종41년(1715) 10월	숙종44년(1718) 8월	2년10개월
114	이태원(李太元)	숙종44년(1718) 9월	숙종45년(1719) 5월	8개월
115	윤이신(尹以莘)	숙종45년(1719) 6월	경종1년(1721) 5월	1년11개월
116	손석조(孫碩祖)	경종1년(1721) 6월	경종3년(1723) 5월	1년10개월
117	신이형(申以衡)	경종3년(1723) 5월	영조1년(1725) 4월	1년11개월
118	김석좌(金碩佐)	영조1년(1725) 5월	영조2년(1726) 5월	1년6개월

119	이형등(李馨登)	영조3년(1727) 1월	영조3년(1727) 1월	8개월
120	김익겸(金益謙)	영조3년(1727) 10월	영조4년(1728) 10월	1년
121	유적(柳謫)	영조4년(1728) 7월	영조7년(1731) 7월	2년7개월
122	김상익(金相翼)	영조7년(1731) 8월	영조9년(1733) 6월	1년10개월
123	심필(沈泌)	영조9년(1733) 8월	영조11년(1735) 10월	2년2개월
124	이산두(李山斗)	영조11년(1735) 11월	영조13년(1737) 9월	1년10개월
125	목시경(睦時敬)	영조13년(1737) 9월	영조14년(1738) 3월	6개월
126	민원(閔瑗)	영조15년(1739) 4월	영조16년(1740) 11월	1년7개월
127	유만춘(柳萬春)	영조17년(1741) 2월	영조17년(1741) 12월	10개월
128	한일원(韓日遠)	영조18년(1742) 4월	영조23년(1747) 5월	5년1개월
129	조세선(趙世選)	영조23년(1747) 7월	영조26년(1750) 9월	3년2개월
130	김근(金根)	영조26년(1750) 9월	영조27년(1751) 6월	9개월
131	이세태(李世泰)	영조27년(1751) 8월	영조29년(1753) 8월	2년
132	이정수(李鼎秀)	영조29년(1753) 9월	영조30년(1754) 6월	9개월
133	정충언(鄭忠彦)	영조30년(1754) 9월	영조32년(1756) 1월	1년9개월
134	조경택(趙慶澤)	영조32년(1756) 7월	영조37년(1761) 4월	4년9개월
135	이몽신(李夢臣)	영조37년(1761) 4월	영조39년(1763) 2월	1년10개월
136	이인묵(李仁默)	영조39년(1763) 3월	영조41년(1765) 8월	2년5개월
137	이협(李峽)	영조41년(1765) 8월	영조42년(1766) 6월	10개월

3) 오천군수

번호	군수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김영기(金永基)	광무5년(1901) 7월	광무6년(1902) 2월	7개월
2	서병익(徐丙益)	광무6년(1902) 7월	광무6년(1902) 8월	1개월
3	이명하(李命夏)	광무6년(1902) 11월	광무8년(1904) 2월	1년3개월
4	이병묵(李丙墨)	광무8년(1904) 3월	광무8년(1904) 7월	4개월
5	이갑승(李甲承)	광무8년(1904) 12월	광무9년(1905) 5월	5개월
6	정상섭(丁相燮)	융희1년(1907) 7월	융희1년(1907) 11월	4개월
7	서상덕(徐相德)	융희2년(1908) 2월	융희4년(1910) 3월	2년1개월

4) 보령군수(일제시대)

번호	군수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홍석현(洪奭鉉)	1911년 2월 15일	1911년 3월 14일	1개월
2	이찬(李瓚)	1911년 3월 14일	1912년 5월 20일	1년2개월
3	김완진(金完鎭)	1912년 9월 4일	1915년 7월 31일	2년10개월

4	김영진(金永鎭)	1915년 8월 14일	1921년 2월 12일	5년 6개월
5	권익채(權益采)	1921년 2월 12일	1922년 5월 12일	1년 3개월
6	윤헌구(尹헌求)	1922년 5월 12일	1923년 3월 28일	10개월
7	강대철(姜大喆)	1923년 3월 31일	1925년 5월 29일	2년 2개월
8	이덕상(李惠相)	1925년 5월 29일	1928년 2월 18일	2년 9개월
9	김용성(金容晟)	1928년 3월 1일	1931년 5월 14일	3년 2개월
10	조풍호(趙豊鎬)	1931년 5월 15일	1933년 12월 23일	2년7개월
9	임시재(任是宰)	1934년 1월 6일	1934년 8월 13일	7개월
10	유익렬(劉益烈)	1934년 8월 30일	1936년 8월 24일	2년
11	박영준(朴永俊)	1936년 9월 3일	1938년 12월 6일	2년 3개월
12	정낙훈(鄭樂勳)	1938년 12월 6일	1941년 3월 30일	2년3개월
13	이관희(李觀熙)	1941년 3월 30일	1941년 5월 9일	2개월
14	남진우(南振祐)	1941년 5월 9일	1942년 3월 31일	10개월
15	이한일(李漢一)	1942년 3월 31일	1945년 5월 18일	3년2개월
16	고도위(高島威)	1945년 5월 18일	1945년 10월 15일	5개월

5) 수군절도사

水軍使道 次序(忠清水營事例集)

僉使	8.辛有定	16.王鄰
1.洪自海	9.金重寶	17.李推
2.辛悅		
	都節制使	兵馬水軍節度使
都節制使	10.金文發(1411.3在任)	18.具成亮
3.曹彦	11.崔龍和	
		都按撫處置使
僉使	兵馬水軍節度使	19.元胤(1420.10임명)
4.姜楊	12.李之實	20.邊灝(1422.4임명)
5.盧仲齊	13.柳濕(1405.7임명)	21.禹博
6.玄仁貴(1408.3재임)	14.趙秩(1409.10임명)	22.尹夏(1423.12임명)
	15.金尙旅	23.李尙興
兵馬水軍節度使		24.李中至
7.李龜鐵	都節制使	25.金益生

- | | | |
|-------------------|-------------------|----------------------|
| 26.池有容 | 60.卞宗仁 | 95.梁允英 |
| 27.盧龜祥 | 61.金世衡 | 96.南致勤(1543.12在任) |
| 28.金孝誠(1434.10임명) | 62.申末舟 | 97.池世芳(1544.6在任) |
| 29.申得海 | 63.河孟潤 | 98.韓琦(1545.11在任) |
| 30.李樺 | 64.柳睇 | 99.方好義(1545.11在任) |
| 31.尹重富(1440.7재임) | 65.吳純 | 100.金胤宗 |
| 32.李尙恒 | 66.尹末孫 | 101.尹先知 |
| 33.安崇直(1443.12임명) | 67.申用漑 | 102.李世麟(1550.9在任) |
| 34.李穰(1444.9임명) | 68.柳軒 | 103.崔守仁 |
| 35.朴培(1446.7임명) | 69.李良(1505) | 104.金淑 |
| 36.洪約(1447.11임명) | 70.南孝元(1506) | 105.鄭台誠 |
| 37.李屹 | 71.金五倫 | 106.金公奭 |
| 38.柳江 | 72.李長生(1509) | 107.吳滄 |
| 39.朴靖(1453.10임명) | 73.李胤宗 | 108.申○ |
| 40.金允壽(1455.12在任) | 74.鄭殷富 | 109.沈鏞 |
| 41.金師禹(1456.1임명) | 75.鄭允謙 | 110.李元祐(1559.7在任) |
| 42.李孝誠(1459.7임명) | 76.禹孟善 | 111.朴秀麟(1560.7在任) |
| 43.權軀(1460.11임명) | 77.沈順徑 | 112.尹先智(再)(1562.7在任) |
| 44.李宗孝 | 78.金良弼 | 113.李大伸 |
| 45.成貴達(1464.7임명) | 79.韓忠 | 114.許世麟 |
| 46.金嶠 | 80.高自謙 | 115.李欽禮 |
| 47.安仁厚 | 81.尹任(1523) | 116.李穰(1563재임) |
| 水軍節度使 | 82.黃琛(1523.7재임) | 117.申顯 |
| 48.金奉元 | 83.韓碩 | 118.洪致武 |
| 49.韓忠仁 | 84.李玉衡 | 119.宋重器(1566.6임명) |
| 50.申峻 | 85.朴琛 | 120.洪彥誠 |
| 51.金致云 | 86.朴世英 | 121.白惟倫 |
| 52.洪白涓 | 87.安瑞鳳(1528.8在任) | 122.鄭亨國 |
| 53.李純 | 88.柳泓(1532.2在任) | 123.金墀 |
| 54.朴擁 | 89.禹孟善(再)(1526在任) | 124.李龜深 |
| 55.河淑溥 | 90.金秀淵 | 125.奉訢(1572.11임명) |
| 56.李厚仁 | 91.金末孫 | 126.柳敬先 |
| 57.孫繼良(1482.5在任) | 92.元彭祖 | 127.李昕 |
| 58.金世勤 | 93.尹汝諧 | 128.徐山封 |
| 59.李朝陽 | 94.金瑚 | 129.柳夢龍 |

- 130.朴麟壽
131.梁思瑩
132.鄭元祥(1573,8임명)
133.金鉞
134.金璨
135.李淮壽(1587.12在任)
136.卞國幹(1587,12임명)
137.成應吉
138.劉克良
139.韓繼男
140.崔潤德
141.邊良俊(1592.6재임)
142.丁傑(1593.2在任)
143.具思稷(1594)
144.李純信(1594)
○ 崔湖(1596임명)
145.權俊
146.吳應台(1598)
147.朴名賢
148.吳應台(再)
149.李純信(1600.再)
150.柳珩
151.禹致績(1601.1임명)
152.成允文(1603)
153.裴興立(1604)
154.洪昌世(1605.10임명)
155.奇孝福(1606.3임명)
156.李光英
157.李侃
158.李燧
159.崔堯
160.柳止信
161.李英
162.李止孝(1612.임명)
163.李廷彪
164.鄭應聖(1626.8임명)
165.朴毅長
166.李慶裕
167.朴燁
168.金義直(1616.1임명)
169.申景澄(1617.11在任)
170.柳琳(1618.6임명)
171.李楹
172.李檐
173.李昌庭(1624.3在任)
174.金孝信
175.金起宗(1626.7임명)
176.鄭應聖(再)(1626,8임명)
177.奇宗獻
178.宋英望(南行)
179.李慶餘(1630.10임명)
180.白善男(1631 임명)
181.閔仁佶
182.宋英望(再)(1629.7在任)
183.李言暢
184.許完
185.柳持敬(1635.7임명)
186.奇宗獻(再)(1637.3在任)
187.李英達(1637.6임명)
188.金述(1639.9在任)
189.閔震益(1640.3임명)
190.一人削名
191.沈之溟
192.盧孝誠
193.全導性
194.金是聲(1648.2在任)
195.嚴愧(1648.9임명)
196.李坡
197.申堧(南行)(1651.12임명)
198.具義俊
199.李壽昌(1653.10임명)
200.金漢文(1654.6임명)
201.金素
202.李仁夏(1656.10임명)
203.元翻
204.李沂?
205.朴之墉
206.邊岌(1660.4임명)
207.李枝遠
208.李仁夏(再)(1662.2임명)
209.李尙敬(1664.3임명)
210.李璞(再)
211.申汝哲
212.鄭영(香英)
213.權道經(1669.11임명)
214.鄭斗齊
215.尹昌亨(1673.7임명)
216.李必馨
217.鄭德謙
218.趙師錫(1678.8在任)
219.李穰
220.李立身
221.尹時達(1681在任)
222.閔晟
223.韓侃(1684재임)
224.蘇斗山
225.韓樞
226.李枝遠(再)
227.金益勳(南行)
228.盧銓
229.鄭弘佑
230.禹弼漢
231.李光震
232.韓公俊
233.黃銓

- 225.李惠疇
226.洪夏明
227.李錫
228.金重三
229.申漢章
230.南崙
231.全百祿
232.尹慤
233.白時耆
234.李順坤
235.金洙
236.具鳳昌
237.張鵬翼
238.李漢珪
 남태징(1721.1.10임명)
239.鄭壽松(初)
240.崔鎮漢
241.申光夏
242.李夏禎(1721.윤6임명)
243.李徵休(1723.4임명)
244.洪時九(1724.3在任)
245.李復休(1725.8在任)
246.李彥祥(1725.10임명)
247.柳濬(1727.8임명)
248.柳星樞
249.尹宅鼎(1730.8임명)
250.朴鑽
251.李義翼(1734.2임명)
252.趙虎臣(1735.10임명)
253.許晶(1736.6.2임명)
 趙國彬(1736.6.1임명)
254.李行儉(1736.12임명)
255.田云祥
256.鄭壽松(再)(1738.10임명)
257.李命祥(1740.5임명)
258.趙德中(1742.2임명)
259.李漢弼(1742.6임명)
260.一人杖斃孳籍
261.尹光莘(1744.5임명)
262.李彥祥(再)(1745.1임명)
263.柳滢(1745.10임명)
264.具善行(1747.5임명)
265.吳命修
266.趙東晋(1748.8임명)
267.申思彦(1749.8임명)
268.孫鎮民(1750.9임명)
269.吳璞
270.徐宗伋(1753.12임명)
 趙載浩
271.李柱國(1754.윤4임명)
272.林時偶
273.具秉勳(1757.10임명)
274.張志豐(1758.12임명)
275.金範魯(1759.12임명)
276.安允福
277.田光國
278.李廷壽
279.李彥熙(1767.6임명)
280.李思觀
281.徐有大(補外)(1768.8임명)
282.徐命應
283.田光勳(1769.6임명)
284.一人無姓名
285.朴聖浹
286.李聖師(1772.7임명)
287.一人無姓名
288.李長赫(1774.12임명)
289.金麟瑞(1775.1임명)
290.元厚鎮(1776.11임명)
291.吳載熙(1777.10임명)
 柳鎮說(1778.10임명)
292.任崙(1780.7임명)
293.南憲喆
294.申瞰(1782.5임명)
295.李潤彬(1784.4임명)
296.趙心泰(1784.10임명)
297.李延弼(1786.8在任)
298.沈성?(土省)
299.洪仁默
300.邊慶遇
301.柳文植(1790.4在任)
302.金明遇(1791.5在任)
303.李潤謙
304.尹範叙(1794임명)
305.柳水源(1794.10在任)
306.閔光升
307.安禩
308.具明遠(1799在任)
309.李顯宅(1799임명)
310.李近胄
311.朴應浩(1802임명)
312.金守基(1803임명)
313.尹頤東
314.安宗厚(1807임명)
315.李吉培(1808임명)
316.李石求(1809임명)
317.元毅鎮(1810임명)
318.李謙會(1811임명)
319.趙義鎮(1812임명)
320.李載弘(1815임명)
321.趙在昇(1817임명)
322.李周鳳(1818임명)
323.具締
324.申純(1820임명)
325.尹相重(1826임명)

326.趙台錫(1824임명)	月日到)	362.任尙準
327.沈日永(1826임명)	347.徐箕淳(己行西詮 補外	363.李**(移插晉兵)
328.朴潤榮(1827임명)	甲寅三月二九日到)	364.李志鼎(丁卯二月到.1866
329.尹喜用(1629임명)	348.南錫禹(1854임명.甲寅五	임명) 自鐵原移拜 戊辰正
330.李貞坤(1830임명)	月日到)	月*****))
331.李載亨(1832임명)	349.李元熙(乙卯丁月日到 自	365.張厚植(戊辰三月到.1867
332.李栻	宣川移拜)	임명)
333.柳文儉(1834임명)	350.趙台顯(1856임명.丙辰五	366.趙存一(己巳四月二十八
334.李濟完(1836임명.丙申到	月到 自*川移拜)	日到,1869임명. 自鐵原
戊戌遞)	351.蔡東健(丁巳五月日到 自	移於)
335.金鍵(1838임명)	濟州移拜)	367.李圭顏(自江界移於)
336.沈有祖(1841임명)	352.申命溫(1857임명.丁巳十	368.李泰鉉(甲戌到.1875임명)
337.吳致賢	月日到)	369.李熙訥(丙子到.1876임명)
338.趙禹錫(壬寅二月初一日	353.宋在璿(戊午四月日到.1858	370.李教復(戊寅到.1878임명)
到 甲辰三月全兵)	임명. 以鐵原**移拜)	371.李教弼(庚辰到.1880임명)
339.李燭(1844임명)	354.李熙永(己未十二月二十	372.沈宣弘(壬午到)
340.鄭宅善(1846임명.丙午三	六日到.1859任, 辛酉正	373.梁柱宣(癸未到)
月到, 以胡 * *)	月全***))	374.李正弼(甲申到.1884임명))
341.李敏德(1846임명.丙午六月	355.金在徽(辛酉正月十三日	375.具然昌(乙酉到.1885임명)
到)	到.1860任 ****移拜, 辛酉	丁亥十一月日 移拜康*)
342.申紹(1847임명.丁未九月	七月****))	376.吳正善(丁亥到.1887임명)
到兵 戊申 四月遞 *)	356.徐相稷(辛酉八月十五日	377.閔致一(1889임명)
343.吳明善(1848임명.戊申四	到.1861임명)	378.李*
月到 庚戌 二月遞)	357.李承駿(壬戌四月到)	379.李庠珪
344.李倫叙(庚戌二月到)	358.李教獻(1863임명)	380.李鳳九
345.李南軾(1851임명.壬子四	359.申泰善(1863임명)	終
月到 ****))	360.李熙完	
346.吳顯佑(1853임명.癸丑三	361.李教昌(1864임명)	

숫자는 충청수영사레집의 기재 순서임, * 는 충청수영사레집의 판독 불가능 글자,

○는 충청수영사레집에 없는 수사임

연도 표시는 조선왕조실록 검색결과이며, 표시가 없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는 것임

5.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

1) 남포현 사마시 급제자

성명	시험연도	생년	본관	거주지	부친	형제
이관(李灌)	선조21(1588) 식년진사	1561	고성	남포	李집	李濬, 이필
이선원(李善元)	광해8(1616) 증광생원	1582	성주	남포	李汝珠	李德元
최업(崔業)	광해10(1618)식년진사	1585	강릉	남포	崔光弼	崔律,崔집
안우성(安遇聖)	인조11(1633) 식년진사	1600	광주	남포	安大進	安遇明
김명구(金命龜)	현종7(1666) 식년생원	1601	의성	남포	金德涵	金慶泰 金時泰
최비원(崔斐遠)	현종14(1673) 식년생원	1641	강릉	남포	崔집	崔益遠
황익증(黃益曾)	숙종5(1679) 식년생원	1651	장수	남포	黃有業	黃道曾
최익원(崔益遠)	숙종5(1679) 식년생원	1644	강릉	남포	崔斐遠	
황만증(黃晩曾)	숙종7 (1681) 식년생원	1649	장수	남포	黃有孫	黃得曾,黃斗曾,黃哲曾
이광조(李光肇)	숙종15(1689) 증광생원	1662	전의	남포	李世選	李昌肇, 李夏肇
이시개(李始開)	숙종16(1690) 식년생원	1652	전주	남포	李重奭	李元開
이홍재(李弘栽)	숙종25(1699) 증광생원	1670	경주	남포	李萬圭	李命栽,李雲栽,李碩栽
이홍재(李弘栽)	숙종25(1699) 증광진사	1670	경주	남포	李萬圭	〃
김경(金敬)	숙종25(1699) 증광진사	1650	광주	남포	金時輝	金雋, 金儀
진정린(陳挺麟)	숙종28(1702) 식년진사	1665	여양	남포	陳碩漢	陳挺龍, 陳挺龜
이석상(李碩相)	숙종31(1705) 증광생원	1668	한산	남포	李孝源	李碩權, 李碩遜
심득삼(沈得三)	숙종37(1711) 식년생원	1667	청송	남포	沈撥	沈得一, 沈得萬, 沈得九, 沈得兼
최일태(崔一泰)	숙종40(1714) 증광생원	1682	강릉	남포	崔壇	崔一大
권재(權梓)	경종3 (1723) 증광진사	1682	안동	남포	權聖大	權植 權彬 權檀
김석래(金錫來)	경종3 (1723) 증광진사	1689	무주	남포	金琥	金陽來 金明來
김양래(金陽來)	경종3 (1723) 식년생원	1695	무주	남포	金琥	金錫來 金命來
이세황(李世璜)	영조1 (1725) 증광생원	1683	전주	남포	李時芸	李世柱 李世命
도명원(都命元)	영조16(1740) 증광진사	1700	성주	남포	都聖中	都命虎 都命岳 都命一 都命夔
이익재(李益栽)	영조17 (1741)식년생원	1677	전주	남포	李漢翼	李恒栽 李謙栽, 李大栽
임주원(任住元)	영조35(1759) 식년진사	1726	장흥	남포	任以彦	任柱天
조영건(趙榮建)	영조41(1765) 식년생원	1727	양주	남포	趙奎彬(생) 趙興彬(양)	趙榮進

이진정(李鎭鼎)	영조41(1765) 식년생원	1724	완산	남포	李기成	
이흥규(李鴻逵)	영조50(1774) 증광진사	1732	청해	남포	李慶泰	李鵬逵, 李翔逵, 李羽逵
이성규(李星逵)	정조4 (1780) 식년생원	1749	청해	남포	李慶恒	李中逵, 李雲逵, 李天逵, 李昌逵
강술언(姜述言)	순조5 (1805) 증광진사	1794	진주	남포	姜行德	
박태진(朴泰鎭)	순조19(1819) 식년진사	1786	밀양	남포	朴載德	朴美鎭, 朴義鎭
조병헌(趙秉憲)	순조25(1825) 식년생원	1790	양주	남포	趙最淳	
조봉희(趙鳳熙)	헌종3 (1837) 식년생원	1810	양주	남포	趙秉憲	趙麟熙, 趙龍熙
이희익(李熙益)	헌종3 (1837) 식년생원	1795	경주	남포	李廷植	李熙鼎, 李熙泰
이희민(李熙民)	헌종6 (1840) 식년생원	1815	전의	남포	李應植	李熙壬, 李熙斗, 李熙完, 李熙順
이정환(李鼎漢)	헌종10(1844) 증광생원	1810	전주	남포	李황	李鼎九
조인희(趙麟熙)	헌종10(1844) 증광생원	1813	양주	남포	趙秉憲	趙鳳熙, 趙龍熙, 趙龜熙
김준근(金駿根)	헌종12(1846) 식년진사	1803	안동	남포	金箕淳	金愚根, 金好根, 金蓋根, 金鶴根
조기희(趙夔熙)	철종6 (1855) 식년생원	1811	양주	남포	趙秉素	
이규환(李圭桓)	철종9 (1858) 식년진사	1823	경주	남포	李時榮	李圭玄, 李圭鎭
조장희(趙章熙)	철종12(1861) 식년진사	1827	양주	남포	趙秉憲	趙明熙, 趙陽熙
조중달(趙重達)	고종2 (1865) 식년생원	1845	양주	양주	趙赫熙(생) 趙麟熙(양)	趙重鼎
이봉화(李鳳和)	고종2 (1865) 식년생원	1807	전주	남포	李應洙	
홍세삼(洪世燮)	고종2 (1865) 식년진사	1832	남양	남포	洪秉僖	洪正燮, 洪哲燮
백영수(白泳洙)	고종4 (1867) 식년진사	1842	남포	남포	白泰鎭	白奎洙, 白翼洙
황제현(黃悌顯)	고종7 (1870) 식년생원	1837	장수	남포	黃元根	黃孝顯, 黃榮顯, 黃德顯
오사권(吳史權)	고종7 (1870) 식년생원	1789	보성	남포	吳宗仁	吳世權
조병주(趙秉周)	고종11(1874) 증광진사	1837	양주	남포	趙正淳(생) 趙肯淳(양)	
김시수(金始秀)	고종17(1880) 증광생원	1852	연안	남포	金光淵(생) 金亮淵(양)	金泰秀, 金宗秀
유석준(俞奭濬)	고종22(1885) 식년진사	1864	기계	남포	俞鎭萬(생) 俞鎭一(양)	
임승재(任升宰)	고종28(1891) 증광진사	1852	풍천	남포	任尙鎬	
이종흥(李鍾興)	고종28(1891) 증광진사	1871	경주	남포	李圭玄(생) 李圭桓(양)	
김윤환(金閔煥)	고종28(1891) 증광진사	1874	통천	남포	金榮敦	
권진구(權鎭九)	고종31(1894) 식년생원	1852	안동	남포	權鶴圭(생) 權命圭(양)	權鍾奭
남성희(南星熙)	고종31(1894) 식년진사	1874	의령	남포	南廷觀(생) 南鍾晋(양)	南百熙

2) 보령현 사마시 급제자

성명	시험연도	생년	본관	거주지	부친	형제
김극성(金克成)	연산2 (1496) 증광생원		광주	보령	金孟權	
김극성(金克成)	연산2 (1496) 증광진사		광주	보령	金孟權	
황진(黃璉)	연산10(1504) 식년생원			보령		
김우필(金禹弼)	연산10(1504) 식년생원		광주	보령	金玲	
김극견(金克堅)	중종2 (1507) 식년생원		광주	보령	金公權	
이지무(李之茂)	중종38(1543) 식년생원		한산	보령	李穉	
이산해(李山海)	명종13(1558) 식년생원	1599	한산	보령	李之蕃	
이산해(李山海)	명종13(1558) 식년진사	1599	한산	보령	李之蕃	
이희삼(李希參)	명종13(1558) 식년진사	1534	경주	보령	李夢奎	
소개(蘇凱)	명종16(1561) 식년생원	1524	진주	보령	蘇遂榮	
이승헌(李承憲)	선조1(1568) 증광진사	1542	용인	보령	李堯年	李義憲 李宗憲
김삼로(金三老)	선조6(1573) 식년생원	1527	나주	보령	金胤乾	金承老 金仁老
임근(林瑾)	광해4(1612) 식년생원	1572	전주	보령	林弘宇	林瑾
이호(李)	광해8 (1616) 증광진사	1585	용인	보령	李夢龍	李暉, 李曦
김대명(金大鳴)	광해8 (1616) 증광진사	1569	광주	보령	金敬義	金善鳴 金應鳴
김응진(金應震)	인조2 (1624) 식년생원	1567	해남	보령	金永哲	金應雷
김영후(金榮後)	인조2 (1624) 식년생원	1601	광주	보령	金海壽	
조성호(趙聖豪)	인조8 (1630) 식년생원	1599	한양	보령	趙元博	
김명현(金命賢)	인조8 (1630) 식년진사	1605	광주	보령	金信行(생) 金謹行(양)	金明善
김해룡(金海龍)	인조17(1639) 식년생원	1583	원주	보령	金斗南	金見龍 金脩龍 金俊龍
김상행(金尙行)	인조20(1642) 식년진사	1604	광주	보령	金泰時	金立行
김서익(金瑞翼)	인조24(1646) 식년진사	1608	광주	보령	金鳴遠	金昌翼, 金忠翼
김정필(金廷弼)	인조24(1646) 식년진사	1615	광주	보령	金景福	金廷협
이상우(李商雨)	효종1 (1650) 증광진사	1621	한산	보령	李선(생) 李峻發(양)	
정준(鄭駿)	효종2 (1651) 식년생원	1619	계림	보령	鄭信男	鄭호
정호(鄭)	효종3 (1652) 증광생원	1615	계림	보령	鄭信男	鄭駿
이문욱(李文郁)	효종5 (1654) 식년진사	1616	경주	보령	李承孝	
김여남(金汝南)	현종1 (1660) 식년생원	1634	광주	보령	金榮後	
이정래(李禎來)	현종3 (1662) 증광생원	1636	한산	보령	李敬誼	李禎昌 李禎徵
이필천(李必天)	현종4 (1663) 식년생원	1625	한산	보령	李체	李必明, 李必晉, 李必亨, 李必有

김휴(金 休)	현종4 (1663) 식년생원	1636	안동	보령	金碩基	金鏞
이정석(李禎錫)	숙종1 (1675) 식년생원	1648	한산	보령	李必天	李禎翊
채준헌(蔡俊獻)	숙종1 (1675) 식년생원	1647	인천	보령	蔡汝仁	蔡俊吉, 蔡俊賢 蔡俊衡
임국주(林國柱)	숙종4 (1678) 증광진사	1635	나주	보령	林璟	林厦柱, 林漢柱
이정익(李禎翊)	숙종5 (1679) 식년생원	1655	한산	보령	李必天	李禎錫
채명운(蔡明胤)	숙종5 (1679) 식년생원	1652	평강	보령	蔡時祥	蔡成胤, 蔡禎胤, 蔡彭胤, 蔡宏胤
김시걸(金時傑)	숙종7 (1681) 식년진사	1653	안동	보령	金盛遇	金時保
이효근(李孝根)	숙종10(1684) 식년생원	1662	한산	보령	李寅實	李東根, 李道根, 李晦根
이설(李 洙)	숙종10(1684) 식년진사	1639	전주	보령	李惟澈	李梓, 李梧 李構, 李楷
이필진(李必晉)	숙종10(1684) 식년진사	1633	한산	보령	李澈	李必天, 李必明 李必亨, 李必괴
김철(金哲)	숙종13(1687) 식년생원	1659	안동	보령	金正雅	金撞, 金振 金持
채팽윤(蔡彭胤)	숙종13(1687) 식년진사	1669	평강	보령	蔡時祥	蔡明胤, 蔡成胤, 蔡禎胤, 蔡宏胤
한덕의(韓德儀)	숙종15(1689) 증광진사	1663	청주	보령	韓晟	韓德玄, 韓德裕
이선(李演)	숙종15(1689) 증광진사	1651	연안	보령	李文徵	李演, 李靚
임연(林演)	숙종16(1690) 식년진사	1644	평택	보령	林斗喬	林志,
이연(李演)	숙종17(1691) 증광진사	1653	연안	보령	李文徵	李演 李靚
이완(李浣)	숙종19(1693) 식년생원	1658	한산	보령	李禎來	李滿, 李深 李海, 李濡
이진적(李震迪)	숙종19(1693) 식년생원	1635	전주	보령	李命承	李震述
박기조(朴起祖)	숙종19(1693) 식년생원	1659	함양	보령	朴由經	朴昌祖
이세욱(李世煜)	숙종19(1693) 식년생원	1654	전주	보령	李梧	李世燭, 李世炳, 李世炫
채정윤(蔡禎胤)	숙종19(1693) 식년진사	1666	평강	보령	蔡時祥	蔡明胤, 蔡成胤 蔡彭胤, 蔡宏胤
윤시택(尹時澤)	숙종25(1699) 식년진사	1675	파평	보령	尹震齡	尹時浹, 尹時湊 尹時渙
이한(李澣)	숙종31(1705) 증광생원	1671	한산	보령	李禎錫	
이용(李瀾)	숙종37(1711) 식년생원	1683	한산	보령	李禎麟(생) 李禎鳳(양)	李涌
성집대(成集大)	숙종41(1715) 식년생원	1676	창녕	보령	成震彪(생) 成震豹(양)	成一大
이준(李濬)	숙종43(1717) 식년생원	1676	한산	보령	李禎麟	李瀾
이혼(李混)	경종1 (1721) 식년생원	1695	한산	보령	李禎億(생) 李禎達(양)	李津 李洙

이진(李津)	경종1 (1721) 식년생원	1686	한산	보령	李禎億	李洙 李混
조봉휘(趙鳳輝)	경종1 (1721) 증광생원	1683	한양	보령	趙유春(생) 趙유天(양)	趙鳳章
채광국(蔡光國)	경종1 (1721) 증광생원	1688	평강	보령	蔡櫛	蔡光澤
윤동순(尹東淳)	경종3 (1723) 증광진사	1696	파평	보령	尹健敎	尹東淵 尹東游
신전(申澗)	경종3 (1723) 증광진사	1697	고령	보령	申錫汝	
신광걸(愼光杰)	영조1 (1725) 증광생원	1684	거창	보령	愼益相	愼光勳 愼光休
유보중(兪普重)	영조1 (1725) 증광진사	1677	기계	보령	兪命麟	兪蕃重 兪耆重
이제암(李齊)	영조2 (1726) 식년생원	1690	전주	보령	李千齡	
최명후(崔鳴後)	영조3 (1727) 증광생원	1662	양천	보령	崔惟恒	
한후원(韓後遠)	영조9 (1733) 식년생원	1695	청주	보령	韓泰震	韓後遂 韓後述
김식(金)	영조9 (1733) 식년생원	1686	안동	보령	金聖漢	김익, 김적 김진.
이형운(李亨運)	영조9 (1733) 식년진사	1679	한산	보령	李孝根	李夏運, 李匡運 李休運
이광운(李匡運)	영조14(1738) 식년생원	1695	한산	보령	李孝根	李亨運, 李夏運 李休運
손하상(孫夏相)	영조16(1740) 증광생원	1721	평해	보령	孫翕	
이재운(李載運)	영조23(1747) 식년생원	1711	한산	보령	李學根	李顯運
이창섭(李昌燮)	영조23(1747) 식년진사	1719	전주	보령	李厚	李寅燮, 李羲燮 李光燮
이관(李寬)	영조23(1747) 식년진사	1702	한산	보령	李亨運	李完, 李만 李窩, 李연
김성국(金聲國)	영조32(1756) 식년진사	1730	광주	보령	金啓業	金聲憲
이응경(李凝慶)	영조32(1756) 식년진사	1717	전주	보령	李齊암(생) 李齊恒(양)	李徵慶 李承慶
김건(金鍵)	영조32(1756) 식년진사	1729	연안	보령	金載尙	金爚
이용서(李龍舒)	영조38(1762) 식년생원	1727	한산	보령	李만	李鳳舒 李驥舒
김중섭(金重燮)	영조38 (1762)식년진사	1726	원주	보령	金夢虎	金重炫
신종수(申宗洙)	영조47(1771) 식년생원	1734	고령	보령	申제(생) 申지(양)	申宗海 申宗漢
조택현(趙宅鉉)	영조49(1773) 증광생원	1733	한양	보령	趙완	
이수백(李秀白)	영조49(1773) 증광진사	1711	한산	보령	李혜	
이인채(李寅采)	정조4 (1780) 식년생원	1758	한산	보령	李允健	李斗來
김계환(金啓煥)	정조7 (1783) 증광생원	1765	광주	보령	金顯慶	金啓賢
이의준(李宜俊)	정조7(1783) 증광생원	1743	수원	보령	李鎭誠	李宜侃
이희경(李羲敬)	정조10(1786) 식년진사	1737	한산	보령	李憲永	李羲明 李羲成

김양흠(金亮欽)	정조10(1786) 식년진사	1763	광주	보령	金聲振	金命欽
김학연(金學淵)	정조14(1790) 증광생원	1759	연안	보령	金鍵	
이재동(李在東)	정조16(1792) 식년진사	1740	전주	보령	李恒燮	李在溫 李在亮
조진수(趙鎭壽)	정조19(1795) 식년생원	1773	양주	보령	趙宇喆	
이형재(李衡在)	정조22(1798) 식년생원	1764	한산	보령	李羲春	李性在
이명호(李明鎬)	정조22(1798) 식년진사	1767	전주	보령	李在東	李昌鎬
이문복(李文福)	정조22(1798) 식년진사	1754	한산	보령	李大榮	
이각채(李慤采)	순조1 (1801) 증광생원	1763	한산	보령	李이福	李毅采 李殷采
신명현(申命顯)	순조3 (1803) 증광생원	1776	평산	보령	申환	申國顯 申復顯
이부학(李傅學)	순조3 (1803) 증광진사	1768	한산	보령	李珣(생) 李瑾(양)	
조하영(曹夏永)	순조4 (1804) 식년생원	1767	창녕	보령	曹聖台	曹夏元 曹夏忠
김낙항(金洛恒)	순조5 (1805) 증광진사	1782	광주	보령	金亮欽	金洛嵩 金洛衡
조두현(趙斗鉉)	순조5 (1805) 증광진사	1769	한양	보령	趙堧	趙奎鉉
김홍근(金泓根)	순조7 (1807) 식년진사	1782	안동	보령	金最淳	金泰根 金禮根
이광복(李廣復)	순조9 (1809) 증광생원	1783	한산	보령	李灑溟	
김태근(金泰根)	순조10(1810) 식년생원	1778	안동	보령	金最淳	金泓根 金禮根
조하원(趙夏元)	순조13(1813) 증광생원	1766	창녕	보령	曹聖台	曹夏永 曹夏忠
이대술(李大述)	순조19(1819) 식년생원	1776	연안	보령	李雨龍(생) 李昌龍(양)	
이광년(李光季)	순조19(1819) 식년진사	1784	한산	보령	李寅采	李鼎季 李蕃季
성용주(成龍柱)	순조22(1822) 식년생원	1774	창녕	보령	成德雲	成龍申
이준(李準)	순조22(1822) 식년생원	1770	우봉	보령	李光冕	
김가균(金可均)	순조22(1822) 식년진사	1794	안동	보령	金炳常	金用均 金能均
구상은(具相殷)	순조25(1825) 식년생원	1786	능성	보령	具翼溟	具相夏 具相漢
조용수(趙龍洙)	순조25(1825) 식년진사	1784	한양	보령	趙邦鉉	趙寅洙,趙弘洙 趙希洙
채승영(蔡升永)	순조27(1827) 증광생원	1788	평강	보령	蔡弘達(생) 蔡弘僞(양)	蔡文永,蔡臣永 蔡河永
김지흠(金志欽)	헌종3 (1837) 식년진사	1770	광산	보령	金聲翰	
이제병(李濟秉)	헌종6 (1840) 식년생원	1806	한산	보령	李廣玄	李周秉 李直秉
조인수(趙寅洙)	헌종6 (1840) 식년생원	1793	한양	보령	趙邦鉉	趙龍洙,趙弘洙 趙采洙
신태두(申泰斗)	헌종9 (1843) 식년생원	1805	평산	보령	申錫輔	
신석룡(申錫龍)	헌종14(1848) 증광진사	1799	평산	보령	申在晋	申錫鳳,申錫鵬 申錫麟,錫麒
이준재(李準在)	철종1 (1850) 증광생원	1825	한산	보령	李羲浩(생) 李羲源(양)	李萬在

신범조(申範朝)	철종3 (1853) 식년생원	1814	평산	보령	申復顯(생) 申承顯(양)	申行朝
이교병(李敎秉)	철종6 (1855) 식년생원	1816	한산	보령	李廣履	李徽秉
유형(柳馨)	고종2 (1865) 식년생원	1830	전주	보령	柳蘭喆	
채정묵(蔡定默)	고종2 (1865) 식년진사	1835	평강	보령	蔡東爽	蔡長默
조석원(趙錫元)	고종4 (1867) 식년생원	1849	한양	보령	趙鍾滌	趙應元, 趙國元
신응선(申應善)	고종17(1880) 증광진사	1834	평산	보령	申祥朝	
이면직(李冕植)	고종22(1885) 증광진사	1855	한산	보령	李敎秉(생) 李彙秉(양)	李用植, 李元植 李兢植, 李範植
조일원(趙一元)	고종28(1891) 증광진사	1860	한양	보령	趙鍾萬	趙重元
채장묵(蔡長默)	고종28(1891) 증광진사	1847	평강	보령	蔡東爽	蔡定默
조중건(趙重健)	고종28(1891) 증광진사	1862	양주	보령	趙琮燮(양) 趙璋熙(생)	趙重厚
조길원(趙吉元)	고종31(1894) 식년진사	1878	한양	보령	趙鍾五(생) 趙鍾懿(양)	趙聖元 趙翊元
이관직(李觀植)	고종31(1894) 식년진사	1842	한산	보령	李敎秉	李冕植, 李元植 李兢植, 李範植
김사용(金思容)	고종31(1894) 식년진사	1865	무주	보령	金粹秉	金思舜
신대영(申大永)	고종31(1894) 식년진사	1861	평산	보령	申應善	申文永
김종학(金鍾學)	고종31(1894) 식년진사	1874	연안	보령	金永基	金鍾國

3)보령지역 연고 사마시 급제자

성명	시험연도	생년	본관	거주지	부친	형제
안자문(安子文)	중종05(1510) 식년진사		광주	경(京)	安潤孫	
이몽규(李夢奎)	중종35(1540) 식년생원		경주	경(京)	李仁臣	
이정암(李廷醜)	명종13(1558) 식년진사	1541	경주	경(京)	李宕	李廷함, 李廷馨, 李廷분, 李廷담
김태정(金泰廷)	명종16(1561) 식년진사	1541	광주	경(京)	金伯幹	金泰國, 金泰邦
조존성(趙存性)	선조06(1573) 식년진사	1554	양주	경(京)	趙擘	
이경백(李慶伯)	선조(1579) 식년진사	1561	한산	경(京)	李山海	李慶全, 李慶會
이경전(李慶全)	선조18(1585) 식년진사	1567	한산	경(京)	李山海	
이덕온(李德溫)	선조18(1585) 식년진사	1562	전주	경(京)	李雷	
최광필(崔光弼)	선조21(1588) 식년진사	1553	강릉	경(京)	崔영	崔光輔
이정민(李貞敏)	선조23(1590) 증광진사			경(京)		
이구(李久)	선조36(1603) 식년진사	1586	한산	경(京)	李慶全	李有, 李方, 李直, 李深, 李遠
김근행(金謹行)	선조38(1605) 증광진사	1582	광주	경(京)	金泰國	金信行, 金誼行
조창원(趙昌遠)	광해04(1612) 식년진사	1583	양주	경(京)	趙存性	趙宗遠, 趙啓遠

이부(李阜)	광해07(1615) 식년진사	1588	한산	경(京)	李慶全	李厚,李久,李袤
김의행(金誼行)	광해08(1616) 증광생원	1589	광주	경(京)	金泰國	金信行,金謹行
조계원(趙啓遠)	광해08(1616) 증광진사	1592	양주	경(京)	趙存性	趙宗遠,趙昌遠
윤흥경(尹興耕)	인조05(1627) 식년진사	1600	파평	홍주	尹期壽	尹興莘,尹興禮 尹興善,尹興殷
박승건(朴承健)	인조08(1630) 식년진사	1609	밀양	경(京)	朴安行	朴承仁,朴承休
윤도형(尹道亨)	인조11(1633) 식년생원	1602	무송	白川	尹洵	尹道全,尹道一
윤도전(尹道全)	인조13(1635) 증광생원	1607	무송	경(京)	尹詢	尹道亨,尹道一
조진석(趙晉錫)	인조11(1633) 증광진사	1610	양주	경(京)	趙啓遠	趙龜錫,趙禧錫 趙師錫,趙嘉錫
조구석(趙龜錫)	인조13(1635) 증광생원	1615	양주	경(京)	趙啓遠	趙晉錫,趙禧錫 趙師錫,趙文錫
윤도전(尹道全)	인조13(1635) 증광진사	1607	무송	경(京)	尹詢	尹道亨,尹道一
이취(李就)	인조17(1639) 식년진사	1618	한산	경(京)	李慶全	李厚,李久 李阜,李袤
조희석(趙禧錫)	효종01(1650) 증광진사	1622	양주	경(京)	趙啓遠	趙晉錫,趙龜錫 趙師錫,趙嘉錫
이두장(李斗章)	효종02(1651) 식년생원	1630	한산	경(京)	李峻成	
이관(李慣)	효종02(1651) 식년진사	1624	연안	경(京)	李時昉	李恢,李恒 李준,李憶
조가석(趙嘉錫)	현종01(1660) 증광생원	1634	양주	경(京)	趙啓遠	趙晉錫,趙龜錫 趙禧錫,趙師錫
조가석(趙嘉錫)	현종01(1660) 증광진사	1634	양주	경(京)	趙啓遠	趙晉錫,趙龜錫 趙禧錫,趙師錫
조사석(趙師錫)	현종01(1660) 식년진사	1632	양주	경(京)	趙啓遠	趙晉錫,趙龜錫 趙禧錫,趙嘉錫
이동근(李東根)	현종10(1669) 식년진사	1644	한산	경(京)	李寅實(생) 李梧實(양)	李道根
이문징(李文徵)	숙종01(1675) 식년생원	1629	연안	경(京)	李한	李龜徵,李悠徵 李休徵,李鳳徵
남세정(南世楨)	숙종07(1681) 식년진사	1649	의령	경(京)	南彦成	
김위성(金渭聖)	숙종10(1684) 식년진사	1643	광주	공주	金瑞翼	
이복운(李復運)	숙종15(1689) 증광생원	1664	한산	예산	李德運	
최문해(崔文海)	숙종08(1682) 증광생원	1653	해주	홍주	崔友聖	崔元海,崔振海 崔顯海
신명제(申命濟)	숙종16(1690) 식년생원	1667	고령	청주	申학	申文濟,申兼濟 申和濟,申寬濟
신명제(申命濟)	숙종16(1690) 식년진사	1667	고령	청주	申학	申文濟,申兼濟 申和濟,申寬濟
신문제(申文濟)	숙종17(1691) 증광진사	1672	고령	청주	申학	申命濟,申兼濟 申和濟,申寬濟
유경장(柳綱章)	숙종17(1691) 증광진사	1655	진주	경(京)	柳星五	柳圭章,柳知章
유규장(柳圭章)	숙종17(1691) 증광진사	1664	진주	경(京)	柳星五	柳綱章,柳知章
이병상(李秉常)	숙종31(1705) 증광생원	1676	한산	경(京)	李沆	

박정원(朴正源)	숙종43(1717) 식년생원	1685	밀양		朴台錫	朴亨源, 朴溥源 朴玄源
채응일(蔡膺一)	숙종43(1717) 식년진사	1686	평강	洪陽	蔡成胤	蔡膺萬
채응만(蔡膺萬)	숙종43(1717) 식년진사	1677	평강	洪陽	蔡成胤	蔡膺一
이태중(李台重)	숙종43(1717) 식년진사	1730	한산	결성	李秉喆	李華重, 李箕重 李衡重, 李商重
윤희일(尹喜一)	영조11(1735) 증광생원	1695	홍주	홍주	尹載慶	尹宗一, 尹海一 尹濟一
이창수(李昌壽)	영조11(1735) 증광생원	1710	전주	경(京)	李泰제(생) 李敏제(양)	李昌誼, 李昌文
한사태(韓師泰)	영조14(1738) 식년생원	1689	청주	청양	韓配魯(생) 韓配宋(양)	韓師吉
정홍순(鄭弘淳)	영조16(1740) 증광진사	1720	동래	경(京)	鄭錫三	
이인묵(李仁默)	영조17(1741) 식년진사	1709	전의	松禾	李光益	李仁點
채홍리(蔡弘履)	영조38(1762) 식년진사	1737	평강	경(京)	蔡義恭	
채신영(蔡臣永)	순조04(1804) 식년진사	1775	평강	경(京)	蔡弘履(양) 蔡弘達(생)	蔡文永, 蔡泰永 蔡賢永
이승익(李承益)	헌종06(1840) 식년진사	1812	한산	경(京)	李政在(양) 李大在(생)	李承謙
박홍양(朴弘陽)	철종01(1850) 증광진사	1818	반남	양주	朴齊聞	朴元陽, 朴茂陽
이완진(李完鎭)	고종02(1865) 식년생원	1839	전주	시흥	李時佐	李鶴鎭, 李鳳鎭
조중엽(趙重燁)	고종19(1882) 증광생원	1851	양주	목천	趙夔烈(생) 趙夔烈(양)	
이원직(李元植)	고종28(1891) 증광진사	1858	한산	경(京)	李承澈(양) 李承泌(생)	李能植
민익훈(閔益勳)	고종28(1891) 증광생원	1849	여흥	청양	閔種龜	
김민제(金敏濟)	고종28(1891) 식년진사				金商鳳(양) 金商惠(생)	
이승의(李承儀)	고종31(1894) 식년생원	1868	전주	경(京)	李世宇	
심택진(沈宅鎭)	고종31(1894) 식년진사	1874	청송	아산	沈在淑	沈世鎭, 沈國鎭 沈德鎭, 沈福鎭

4)보령지역 연고 문과급제자

성명	시험연도	생년	본관	거주지	부친	관직 및 기타
서거정(徐居正)	세종26(1444), 식년시	1420	대구		徐彌性	贊成, 文衡, 湖堂
김극성(金克成)	연산군4(1498), 별시(장원)	1474	광주		김맹권	우의정
이기(李夔)	중종14(1519), 식년시	1493	연안		李壽長	승지, 손(李貴) 증손(李時昉)
이준경(李浚慶)	중종26(1531), 식년시	1499	광주		李守貞	領議政, 翰林
김우필(金禹弼)	중종29(1534), 식년시		광주		金珍	直講
이정암(李廷醜)	명종16(1561), 식년시	1541	경주		李宕	知中樞府事, 翰林

이산해(李山海)	명종16(1561), 식년시 (장원)	1539	한산		李之蕃	文衡, 領議政
이산보(李山甫)	선조1년(1568), 증광시	1539	한산		李之戊	吏曹/判書), 翰林
김태정(金泰廷)	선조2년(1569), 알성시	1541	광주		金伯幹	參判, 조부(金文瑞, 증조(金克愼)
이경백(李慶伯)	선조13(1580), 알성시	1561	한산		李山海	承文院/正字
안대진(安大進)	선조19(1586), 알성시	1561	광주		安公弼	院正
최광필(崔光弼)	선조21(1588), 식년시	1553	강릉		崔영	禮曹/佐郎
이경전(李慶全)	선조23(1590), 증광시	1567	한산		李山海	判中樞府事, 湖堂
이덕온(李德溫)	선조24(1591), 식년시	1562	완산		李雷	承旨
조존성(趙存性)	선조23(1590), 증광시	1554	양주		趙擘	知敦寧府事, 翰林, 외조(李夢奎)
이당(李謙)	선조27(1594), 별시	1559	고성	남포	李佚	李茁의 曾孫
이안눌(李安訥)	선조32(1599), 정시	1571	덕수		李泌	提學, 禮曹/判書
이후(李厚)	선조36(1603), 정시	1585	한산		李慶全	湖堂, 吏曹/正郎
이구(李久)	선조38(1605), 증광시	1586	한산		李慶全	翰林
이경탁(李慶倬)	선조39(1606), 증광시	1572	한산		李山甫	咸鏡/都事, 正言
김신행(金信行)	광해4(1612), 식년시	1579	광주		金泰國	注書
채유후(蔡裕後)	인조1년(1623), 개시	1599	평강		蔡忠衍	吏曹/判書), 湖堂
조계원(趙啓遠)	인조6년(1628), 별시	1592	양주		趙存性	刑曹/判書
이무(李袤)	인조7년(1629), 별시	1600	한산		李慶全	禮曹/判書
조구석(趙龜錫)	인조26년(1648), 정시	1651	양주		趙啓遠	全羅/監司, 弘文館/吏
조진석(趙晉錫)	인조27년(1649), 정시	1619	양주		趙啓遠	掌令
박승건(朴承健)	효종1년(1650), 증광시	1609	밀양		朴安行	寺正
조가석(趙嘉錫)	현종1년(1660), 증광시	1634	양주		趙啓遠	吏曹/參議, 翰林
조사석(趙師錫)	현종3년(1662), 증광시	1632	양주		趙啓遠	左議政, 翰林
이정래(李禎來)	현종10(1669), 식년시	1636	한산		李敬誼	兵曹/正郎
신학(申潑)	현종14(1673), 식년시	1645	고령		申得洪	府尹, 玉堂
이직(李漫)	숙종1년(1675), 식년시	1651	한산		李禎昌	縣監
이인빈(李寅賓)	숙종4년(1678), 증광시	1625	한산		李袤	僉知事, 玉堂
김시걸(金時傑)	숙종10년(1684), 정시	1653	안동	보령	金盛遇	全羅/監司 弘文館/吏
이정익(李禎翊)	숙종10(1684), 식년시	1655	한산		李必天	承旨
신역(申稜)	숙종10(1684), 식년시	1650	고령	보령	申得洪	
채성윤(蔡成胤)	숙종10(1684), 식년시	1659	평강		蔡時祥	左尹, 翰林

송도석(宋道錫)	숙종 13(1687), 식년시	1652	여산		宋文明	郡守
채팽윤(蔡彭胤)	숙종 15(1689), 증광시	1669	평강		蔡時祥	提學, 刑曹/參判
채명윤(蔡明胤)	숙종 15(1689), 증광시	1652	평강		蔡時祥	校理
맹양호(孟養浩)	숙종 16(1690), 식년시	1658	신창		孟之梁	主簿
이효근(李孝根)	숙종 17(1691), 증광시	1662	한산		李寅賓	正言, 說書
이언저(李彦著)	숙종 20(1694), 알성시	1656	연안		李恢	持平, 조부(李時昉)
이유민(李裕民)	숙종 22(1696), 식년시	1658	청해		李翹	工曹/判書 외조(李承孝)
이근(李根)(榕)	경종 1년(1721), 식년시	1687	청해		李裕民	承旨, 司諫 외조(崔行遠)
이완(李浣)	숙종 28(1702), 식년시	1668	한산		李楨來	掌令
이정억(李禎億)	숙종 28(1702), 식년시	1665	한산		李必유	持平
이심(李深)	숙종 31(1705), 식년시	1666	한산		李禎來	掌令
신겸제(申兼濟)	숙종 34(1708), 식년시	1675	고령		申濬	判決事
이자(李滋)	숙종 34(1708), 식년시	1683	한산		李楨來	持平
이병상(李秉常)	숙종 36(1710), 춘당대시	1676	한산		李沆	文衡, 戶曹/判書 처부(徐宗泰)
이만(李滿)	숙종 36(1710), 증광시	1660	한산		李楨來	掌令
이경석(李慶錫)	숙종 37(1711), 식년시	1685	한산		李漫	掌令
이형등(李馨登)	숙종 43(1717), 식년시	1690	한산		李海	兵曹/佐郎
조현명(趙顯命)	숙종 45(1719), 증광시	1691	풍양		趙仁壽	領議政 弘文館/吏
채응만(蔡膺萬)	경종 3(1723년), 증광시	1677	평강		蔡成胤	持平, 姪(채제공)
김계백(金啓白)	영조 5(1729), 식년시	1689	광주		金益慶	掌令
송수겸(宋守謙)	영조 5(1729), 식년시	1697	여산	보령	宋龜錫	掌令
이태중(李台重)	영조 6(1730년), 정시	1694	한산		李秉哲	提學, 戶曹/判書
유억기(柳億基)	영조 11(1735), 정시	1699	진주	보령	柳晦章	생증조(柳卓然)
이창수(李昌壽)	영조 16(1740), 알성시	1710	전주		李敏제	玉堂
한태증(韓泰增)	영조 16(1740), 증광시	1703	청주		韓重鼎	直長, 외조(李禎來)
이제암(李齊岳)	영조 16(1740), 증광시	1690	전주		李千齡	
이인묵(李仁默)	영조 17(1741), 식년시	1709	전의		李光益	
채제공(蔡濟恭)	영조 19(1743), 정시	1720	평강		蔡膺一	玉堂, 조부(蔡成胤)
신기경(愼基慶)	영조 20(1744), 식년시	1720	거창	보령	愼廷傑	左·右尹
정홍순(鄭弘淳)	영조 21(1745), 정시	1720	동래		鄭錫三	玉堂
이창섭(李昌燮)	영조 30(1754), 증광시	1719	전주		李후	

채홍리(蔡弘履)	영조42(1766), 정시	1737	평강		蔡義恭	
김중섭(金重燮)	영조42(1766), 정시	1726	원주		金夢虎	
이우규(李羽逵)	영조44(1768), 식년시	1768	청해		李慶泰	증조(李裕民)
이주연(李柱延)	영조47(1771), 식년시	1729	연안	보령	李之曄	持平
조경규(趙景逵)	정조2(1778), 정시	1747	양주	남포	趙榮建	조부(趙奎彬)
이인채(李寅采)	정조7(1783), 증광시	1758	한산	보령	李允健	
이의채(李毅采)	정조19(1795), 정시	1756	한산	보령	李頤福	증조(李瀚)
이병구(李秉龜)	순조19(1819), 식년시	1776	한산	남포	李恒穆	
신이록(申履祿)	순조22(1822), 식년시	1783	고령	보령	申挺權(양) 申樂權(생)	조부(申宗海)
채동직(蔡東直)	순조22(1822), 식년시	1786	평강	보령	蔡中永	
이경재(李景在)	순조22(1822), 식년시	1800	한산	京	李羲先	증조(李台重)
신윤록(申允祿)	순조25(1825), 식년시	1798	고령	보령	申樂權	
백홍수(白弘洙)	헌종3년(1837), 식년시	1808	남포	남포	白星鎭	
구상은(具相殷)	헌종9년(1843), 식년시	1786	능성	보령	具翼溟	증조(具萬元)
이승익(李承益)	헌종10(1844), 증광시	1812	한산	경	李政在	
이규덕(李圭愷)	고종2(1865년), 식년시	1816	경주	남포	李熙益(양) 李鼎榮(생)	察訪
임상호(任尙鎬)	고종6년(1869년), 별시	1837	풍천	廣州	任大準	
오인영(吳麟泳)	고종7년(1870년), 별시	1844	동북	공주	吳禮鎭	
이희봉(李羲鳳)	고종13년(1876), 정시	1836	한산	남포	李護永	
조충희(趙忠熙)	고종12년(1875), 별시	1849	양주	경	趙秉璋(양) 趙秉惠(생)	吏曹/參議
백세진(白世鎭)	고종16(1879), 식년시	1823	남포	남포	白秉煦	
홍세섭(洪世燮)	고종18년(1881), 별시	1832	남양	경	洪秉僖	
조중구(趙重九)	고종25년(1888), 별시	1850	양주	남포	趙鳳熙(양) 趙龍熙(생)	
김상덕(金尙愷)	고종25년(1888), 별시	1852	경주	홍주	金昌載	
조중엽(趙重燁)	고종28(1891), 증광시	1851	양주	남포	趙夔熙(양) 趙明熙(생)	
신응선(申應善)	고종30년(1893), 별시	1834	평산	보령	申祥朝	
김병식(金炳軾)	고종25(1888), 별시	1848	안동	경(京)	金性根(양) 金奭根(생)	
김복한(金福漢)	고종29(1892), 별시	1860	안동	홍주	金鳳鎭	

6. 6.25전쟁시기 피랍 · 피살자

1) 피랍자

※ 주소는 원장부 그대로 따르고, 장부의 오기부분도 그대로 둠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일 납치장소

李相律	남	51	농회회장	50.8.10	남포 월진	卜日采	남	29	한청장교	50.8.9	주포 관창
朴明鎭	남	43	치안국과장	50.8.10	서울	朴鳳鎭	남	36	경찰관	50.8.11	남포 읍내
李豊求	남	62	변호사	50.8.10	서울	朴性熙	남	40	해운조합원	50.8.15	남포읍내
林洪燮	남	45	농업	50.7.21	청소 정진	嚴仁燮	남	24	면서기	50.8.17	천북 낙동
李弘性	남	37	면서기	50.7.22	청소 진죽	韓相一	남	31	농업	50.8.19	천북 궁포
金燁鍊	남	46	농업	50.7.22	청소 세정	崔學出	남	30	농업	50.8.21	천북 낙동
金得奉	남	46	농업	50.7.22	청소 진죽	李相煥	남	27	경찰관	50.8.22	천북 궁포
林龍浩	남	26	공무원	50.7.22	청소 세정	朴鶴來	남	23	농업	50.8.22	천북 신죽
李廷圭	남	33	농업	50.7.23	청소 세정	劉龍泰	남	27	농업	50.8.22	천북 학성
崔榮元	남	32	경찰관	50.7.23	청소 장정	鄭寅哲	남	34	한청간부	50.8.25	대천 대천
崔榮泰	남	20	교원	50.7.23	청소 장정	趙重浩	남	38	방첩대장	50.8.26	대천 동대
崔星煥	남	52	부읍장	50.7.23	청소 장정	白南喆	남	45	사원	50.8.26	대천 동대
蔡炳益	남	27	경찰관	50.7.24	청소 죽림	李重珪	남	24	농업	50.8.27	대천 대천
崔啓漢	남	38	한청단장	50.7.24	청소 장곡	申奭洙	남	37	공무원	50.8.29	대천 대천
金九鉉	남	22		50.7.24	청소 죽림	朴龍九	남	32	농업	50.9.3	대천 동대
李明湜	남	40	경찰관	50.7.24	청소 신송	申東陽	남	47	경찰관	50.9.5	대천 화산
金重奎	남	33	농업	50.7.25	미산 남양	金定洙	남	22	경찰관	50.9.10	대천 동대
金定來	남	57	농업	50.7.25	미산 남화	金昌旭	남	27	경찰관	50.9.13	대천 동대
申重燮	남	25	경찰관	50.7.25	청라 향천	崔鍾元	남	49	한청	50.9.13	대천 대천
李聖求	남	27	농업	50.7.25	청라 향천	姜順奎	남	21	농업	50.9.13	대천 동대
李容浩	남	25	농업	50.7.26	청라 향천	崔憲教	남	18	농업	50.7.20	남포 원산
車又善	남	52	농업	50.7.26	청라 장산	李相天	남	18	농업	50.7.20	남포 원산
朴性春	남	26	농업	50.7.29	청라 장현	白基鎬	남	18	농업	50.7.20	남포 월진
姜永錫	남	29	한청면단장	50.7.29	주산 동오	趙完倫	남	20	농업	50.7.20	남포 양항
白永鎬	남	25	경찰관	50.7.29	주산 신구	崔榮圭	남	19	농업	50.7.20	남포 양항
李南元	남	27	경찰관	50.7.29	서울 종로	朴高榮	남	20	농업	50.7.20	남포 양항
崔炳起	남	39	경찰관	50.8.4	주포 보령	李海成	남	21	농업	50.7.22	남포 삼현
柳振洙	남	41	경찰관	50.8.6	주포 마강	高聖在	남	24	농업	50.7.22	

金顯錫	남	23	농업	50.7.22	남포	소송	權根石	남	17	농업	50.7.30	웅천	대천
李洪烈	남	22	농업	50.7.22	남포	소송	金用淳	남	22	농업	50.7.30	웅천	대천
李秉龍	남	18	농업	50.7.22	남포	소송	金得錄	남	21	농업	50.7.30	웅천	대천
李龜熙	남	27	농업	50.7.23	웅천	수부	曹炳石	남	22	농업	50.7.30	웅천	대창
安永洙	남	19	농업	50.7.23	웅천	수부	權龍洙	남	20	농업	50.8.1	주산	창암
吳鍾武	남	27	농업	50.7.23	웅천	수부	沈奉安	남	25	농업	50.8.1	주산	유곡
任龜宰	남	23	농업	50.7.23	웅천	수부	金昌得	남	20	농업	50.8.1	주산	화산
白信鎬	남	23	농업	50.7.24	웅천	수부	金鍾培	남	21	농업	50.8.1	주산	화산
白允基	남	26	농업	50.7.24	웅천	수부	柳贊燮	남	25	농업	50.8.1	주산	유곡
金鍾九	남	19	농업	50.7.24	웅천	수부	羅喆周	남	18	농업	50.8.1	주산	신구
吳鍾眞	남	18	농업	50.7.24	웅천	평리	朴寬雨	남	23	농업	50.8.1	주산	화산
金孝基	남	21	농업	50.7.24	웅천	평리	金相培	남	21	농업	50.8.1	주산	화산
任世宰	남	25	농업	50.7.24	웅천	평리	林宰赫	남	21	농업	50.8.1	주산	화산
吳鍾秀	남	18	농업	50.7.25	웅천	평리	金龍鎬	남	22	농업	50.8.1	주산	화산
吳璣圭	남	24	농업	50.7.25	웅천	성동	柳殷相	남	30	농업	50.8.1		
李興雨	남	21	농업	50.7.26	웅천	성동	尹良善	남	20	농업	50.8.1	주산	신구
李龍植	남	21	농업	50.7.26	웅천	성동	尹完洙	남	21	농업	50.8.2	주산	신구
吳載圭	남	20	농업	50.7.26	웅천	성동	宋允洙	남	27	농업	50.8.2	주산	신구
任命宰	남	21	농업	50.7.26	웅천	성동	任文赫	남	24	농업	50.8.2	주산	주야
李祥求	남	21	농업	50.7.27	웅천	성동	朴春圭	남	23	농업	50.8.2	주산	주야
白南禧	남	20	농업	50.7.27	웅천	구룡	黃義烈	남	20	농업	50.8.2	주산	주야
白樂昆	남	22	농업	50.7.27	웅천	구룡	李英熙	남	25	농업	50.8.2	주산	주야
白樂輝	남	25	농업	50.7.27	웅천	구룡	李建柄	남	21	농업	50.8.3	주산	주야
金孟元	남	24	농업	50.7.27	웅천	죽청	任章淳	남	23	농업	50.8.3	주산	주야
具明熙	남	23	농업	50.7.28	웅천	죽청	任貞淳	남	27	농업	50.8.3	주산	주야
白連均	남	20	농업	50.7.28	웅천	죽청	朴文淑	남	24	농업	50.8.3	주산	주야
黃昌淵	남	21	농업	50.7.28	웅천	황교	任畿宰	남	23	농업	50.8.3	주산	주야
金順翼	남	23	농업	50.7.28	웅천	황교	申東哲	남	20	농업	50.8.3	주산	주야
金庄烈	남	30	농업	50.7.29	웅천	황교	梁泰成	남	20	농업	50.8.4	주산	금암
韓仁坤	남	25	농업	50.7.29	웅천	황교	張聖贊	남	34	농업	50.8.4	주산	황울
黃昇淵	남	19	농업	50.7.29	웅천	황교	李鍾敦	남	22	농업	50.8.4	미산	성주
金完植	남	23	농업	50.7.29	웅천	임용	李己奉	남	25	농업	50.8.4	미산	성주
柳炳燮	남	25	농업	50.7.29	웅천	임용	金永安	남	27	농업	50.8.4	미산	성주
白南元	남	26	농업	50.7.29	웅천	임용	白元春	남	23	농업	50.8.4	미산	성주
白南錫	남	25	농업	50.7.30	웅천	임용	金桂坤	남	22	농업	50.8.4	미산	성주

裴善浩	남	21	농업	50.8.4	미산	성주	
任太淳	남	18	농업	50.8.5	미산	성주	
李貴男	남	18	농업	50.8.4	미산	성주	
田浩德	남	25	농업	50.8.5	미산	성주	
金長天	남	18	농업	50.8.5	미산	성주	
朴龜和	남	28	농업	50.8.6	미산	개화	
朴鍾興	남	20	농업	50.8.6	미산	개화	
李圭白	남	19	농업	50.8.6	미산	개화	
俞相協	남	20	농업	50.8.6	미산	개화	
崔相烈	남	25	농업	50.8.6	미산	개화	
朴斗淳	남	30	농업	50.8.6	미산	개화	
朴貞圭	남	33	농업	50.8.6	미산	개화	
任明宰	남	19	농업	50.8.6	미산	개화	
申弘植	남	28	농업	50.8.6	미산	도화담	
李德圭	남	23	농업	50.8.6	미산	도화담	
任大興	남	21	농업	50.8.6	미산	도화담	
朴鍾顯	남	25	농업	50.8.6	미산	도화담	
趙南龍	남	25	농업	50.8.7	미산	도화담	
李圭鳳	남	23	농업	50.8.7	미산	도화담	
俞炳植	남	22	농업	50.8.7	미산	도화담	
趙南薰	남	28	농업	50.8.7	미산	도화담	
金一贊	남	26	농업	50.8.7	미산	도화담	
韓相愚	남	22	농업	50.8.7	미산	풍계	
姜錫基	남	32	농업	50.8.8	미산	풍계	
姜魯成	남	23	농업	50.8.8	미산	풍계	
李鍾京	남	27	농업	50.8.8	미산	풍계	
宋在元	남	23	농업	50.8.8	미산	풍계	
趙俊燮	남	25	농업	50.8.8	미산	용수	
李基宰	남	25	농업	50.8.8	미산	용수	
金遠文	남	23	농업	50.8.9	미산	용수	
金相欽	남	22	농업	50.8.9	미산	용수	
李相奉	남	22	농업	50.8.9	미산	용수	
李鍾近	남	22	농업	50.8.9	미산	용수	
李顯雨	남	29	농업	50.8.9	미산	용수	
任龍宰	남	26	농업	50.8.9	미산	용수	
沈相□	남	28	농업	50.8.10	미산	용수	
姜遠植	남	28	농업	50.8.10	미산	용수	
高武淳	남	25	농업	50.8.10	미산	용수	
金斗南	남	27	농업	50.8.10	미산	용수	
李章雨	남	20	농업	50.8.10	미산	용수	
吳鍾哲	남	22	농업	50.8.10	미산	용수	
任完淳	남	25	농업	50.8.11	미산	봉성	
任相翼	남	19	농업	50.8.11	미산	봉성	
任範淳	남	18	농업	50.8.11	미산	봉성	
任鍾石	남	24	농업	50.8.11	미산	은현	
金基元	남	21	농업	50.8.11	미산	은현	
李相宰	남	23	농업	50.8.11	미산	옥현	
金春滿	남	23	농업	50.8.12	미산	옥현	
李炳陸	남	32	농업	50.8.12	미산	늑전	
李昌茂	남	22	농업	50.8.12	미산	대농	
金榮培	남	21	농업	50.8.12	미산	대농	
白漢基	남	23	농업	50.8.12	미산	대농	
金海淵	남	23	농업	50.8.12	미산	대농	
宋永玉	남	21	농업	50.8.15	미산	대농	
朴性淳	남	23	농업	50.8.15	미산	대농	
宋俊鎬	남	21	농업	50.8.15	미산	대농	
金光洙	남	20	농업	50.8.15	미산	남심	
白桂元	남	21	농업	50.8.15	미산	남심	
白承万	남	22	농업	50.8.15	미산	남심	
任得宰	남	21	농업	50.8.15	미산	남심	
白一圭	남	22	농업	50.8.15	미산	남심	
金英熙	남	27	농업	50.8.15	미산	남심	
白用基	남	22	농업	50.8.15	미산	남심	
秋炳學	남	32	농업	50.8.15	미산	남심	
崔貞錫	남	28	농업	50.8.15	천북	신죽	
吳贊煥	남	25	농업	50.8.15	천북	신죽	
崔洪哲	남	28	농업	50.8.15	천북	신죽	
趙具淳	남	24	농업	50.8.15	천북	신죽	
崔鍾煥	남	25	농업	50.8.15	천북	신죽	
崔仲煥	남	19	농업	50.8.15	천북	신죽	

姜孝辰	남	20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三敦	남	24	농업	50.8.15	천북	낙동
李榮熙	남	25	농업	50.8.15	천북	신죽	李鍾植	남	24	농업	50.8.15	천북	낙동
金揆万	남	19	농업	50.8.15	천북	신죽	尹一奉	남	25	농업	50.8.15	천북	낙동
片首吉	남	26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寬在	남	25	농업	50.8.15	천북	낙동
申龍植	남	16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明鎭	남	25	농업	50.8.15	천북	낙동
李相玉	남	18	농업	50.8.15	천북	신죽	梁喜俊	남	18	농업	50.8.15	천북	낙동
劉載相	남	17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昌倫	남	24	농업	50.8.15	천북	낙동
劉培烈	남	19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容世	남	19	농업	50.8.15	천북	낙동
李炳春	남	26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孝南	남	18	농업	50.8.15	천북	낙동
具相俊	남	21	농업	50.8.15	천북	신죽	李鍾浩	남	19	농업	50.8.15	천북	학성
李龍雨	남	30	농업	50.8.15	천북	신죽	崔龍泰	남	24	농업	50.8.15	천북	학성
李鎭秀	남	27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光得	남	18	농업	50.8.15	천북	학성
金益洙	남	25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賢洙	남	18	농업	50.8.15	천북	학성
千甲成	남	21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玉用	남	25	농업	50.8.15	천북	학성
吳今哲	남	22	농업	50.8.15	천북	신죽	田寬鎭	남	18	농업	50.8.15	천북	학성
千錫己	남	30	농업	50.8.15	천북	신죽	李鍾河	남	18	농업	50.8.15	천북	학성
金東化	남	18	농업	50.8.15	천북	신죽	李壽南	남	26	농업	50.8.15	천북	학성
寄鎭福	남	18	농업	50.8.15	천북	신죽	李日範	남	23	농업	50.8.15	천북	학성
劉正在	남	22	농업	50.8.15	천북	신죽	洪在旭	남	28	농업	50.8.15	천북	학성
崔明煥	남	24	농업	50.8.15	천북	신죽	禹慶福	남	18	농업	50.8.15	천북	학성
姜智煥	남	20	농업	50.8.15	천북	신죽	申貞在	남	23	농업	50.8.15	천북	학성
黃達成	남	25	농업	50.8.15	천북	신죽	洪在右	남	28	농업	50.8.15	천북	학성
崔貞燮	남	26	농업	50.8.15	천북	신죽	申在賢	남	19	농업	50.8.15	천북	학성
金允煥	남	18	농업	50.8.15	천북	신죽	金仁厚	남	26	농업	50.8.15	천북	학성
郭海成	남	26	농업	50.8.15	천북	신죽	閔元植	남	27	농업	50.8.15	천북	학성
金性傳	남	31	농업	50.8.15	천북	장은	田福順	남	19	농업	50.8.15	천북	학성
林玉明	남	31	농업	50.8.15	천북	신덕	金榮學	남	24	농업	50.8.15	천북	학성
劉載賢	남	21	농업	50.8.15	천북	신덕	金壽相	남	18	농업	50.8.15	천북	학성
閔炳賢	남	18	농업	50.8.15	천북	신덕	金先福	남	29	농업	50.8.15	천북	공포
黃珠鉉	남	18	농업	50.8.15	천북	신덕	閔命洙	남	21	농업	50.8.15	천북	공포
孟東鎬	남	26	농업	50.8.15	천북	신덕	閔南福	남	27	농업	50.8.15	천북	공포
劉載益	남	22	농업	50.8.15	천북	신덕	劉先俊	남	22	농업	50.8.15	천북	공포
金鍾昨	남	23	농업	50.8.15	천북	신덕	崔喜錫	남	22	농업	50.8.15	천북	공포
鄭甲俊	남	17	농업	50.8.15	천북	낙동	韓相雲	남	29	농업	50.8.15	천북	공포
朴斗元	남	17	농업	50.8.15	천북	낙동	韓相德	남	27	농업	50.8.15	천북	공포

趙起奉	남	31	농업	50.8.15	천북	공포	
金應圭	남	24	농업	50.8.15	천북	공포	
金炯敦	남	28	농업	50.8.15	천북	공포	
朴晚圭	남	22	농업	50.8.15	천북	공포	
崔南龍	남	27	농업	50.8.15	천북	공포	
朴商仁	남	18	농업	50.8.15	천북	공포	
申永俊	남	20	농업	50.8.15	천북	공포	
洪性兆	남	20	농업	50.8.15	천북	하만	
趙壽福	남	21	농업	50.8.15	천북	하만	
梁在豊	남	23	농업	50.8.15	천북	하만	
金敬錫	남	22	농업	50.8.15	천북	하만	
趙順錫	남	28	농업	50.8.15	천북	하만	
成聖敦	남	22	농업	50.8.15	대천	궁촌	
李文熙	남	17	농업	50.8.15	대천	내향	
張海水	남	25	농업	50.8.15	대천	동대	
李相在	남	21	농업	50.8.15	대천	동대	
張甲成	남	25	농업	50.8.15	대천	동대	
金龍石	남	21	농업	50.8.15	대천	동대	
吳碩俊	남	25	농업	50.8.15	대천	동대	
申俊植	남	18	농업	50.8.15	대천	동대	
申潤喆	남	20	농업	50.8.15	대천	동대	
李桂成	남	19	농업	50.8.15	대천	동대	
趙炳高	남	28	농업	50.8.15	대천	화산	
李周先	남	30	농업	50.8.15	대천	화산	
黃義洙	남	22	농업	50.8.15	대천	화산	
金基燮	남	22	농업	50.8.15	대천	화산	
金箕贊	남	26	농업	50.8.15	대천	화산	
申春秀	남	28	농업	50.8.15	대천	화산	
申弼燮	남	29	농업	50.8.15	대천	화산	
申榮燮	남	24	농업	50.8.15	대천	화산	
申東贊	남	34	농업	50.8.15	대천	화산	
申元燮	남	18	농업	50.8.15	대천	화산	
李南復	남	30	농업	50.8.15	대천	화산	
林性煥	남	20	농업	50.8.15	대천	죽정	
林範圭	남	26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秉甲	남	27	농업	50.8.15	대천	죽정	
崔秉律	남	23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相旭	남	22	농업	50.8.15	대천	죽정	
金教貞	남	21	농업	50.8.15	대천	죽정	
金教秀	남	18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浩爽	남	18	농업	50.8.15	대천	죽정	
安承魯	남	17	농업	50.8.15	대천	죽정	
金日石	남	24	농업	50.8.15	대천	죽정	
梁順童	남	19	농업	50.8.15	대천	죽정	
朴鳳熙	남	18	농업	50.8.15	대천	죽정	
金永模	남	20	농업	50.8.15	대천	죽정	
朴弘根	남	17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龍九	남	23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俊浩	남	23	농업	50.8.15	대천	죽정	
權健洙	남	23	농업	50.8.15	대천	죽정	
金福煥	남	28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享九	남	25	농업	50.8.15	대천	죽정	
張喜泰	남	21	농업	50.8.15	대천	죽정	
鄭寅澈	남	23	농업	50.8.15	대천	죽정	
張元泰	남	18	농업	50.8.15	대천	죽정	
申光澈	남	18	농업	50.8.15	대천	죽정	
韓相復	남	23	농업	50.8.15	대천	죽정	
韓相高	남	17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鍾斗	남	21	농업	50.8.15	대천	죽정	
申錫澈	남	21	농업	50.8.15	대천	죽정	
朴有龍	남	21	농업	50.8.15	대천	죽정	
李昌斗	남	22	농업	50.8.15	대천	죽정	
林承洪	남	20	농업	50.8.15	대천	죽정	
趙載赫	남	17	농업	50.8.15	대천	요암	
俞炳熙	남	18	농업	50.8.15	대천	요암	
俞英植	남	19	농업	50.8.15	대천	요암	
李敬熙	남	20	농업	50.8.15	대천	요암	
趙倫權	남	18	농업	50.8.15	대천	요암	
李福國	남	19	농업	50.8.15	대천	신희	
薛龍在	남	23	농업	50.8.15	대천	요암	

金東儀 남 23 농업 50.8.15 대천 요암
 李明雨 남 25 농업 50.8.15 대천 요암
 李成熙 남 18 농업 50.8.15 대천 요암
 李相律 남 19 농업 50.8.15 대천 요암
 洪性龍 남 22 농업 50.8.15 대천 요암
 洪性周 남 21 농업 50.8.15 대천 요암
 洪性儀 남 19 농업 50.8.15 대천 요암
 李錫原 남 25 농업 50.8.15 남포 옥동
 白良燮 남 28 농업 50.8.15 남포 달산
 任昌宰 남 25 농업 50.8.15 남포 달산
 羅益淳 남 28 농업 50.8.15 남포 달산
 崔吉淳 남 19 농업 50.8.15 남포 달산
 丁昌鐵 남 23 농업 50.8.15 남포 달산
 崔學淳 남 18 농업 50.8.15 남포 달산
 崔鎮哲 남 18 농업 50.8.15 남포 달산
 李英熙 남 21 농업 50.8.15 남포 달산
 李敬熙 남 18 농업 50.8.15 남포 달산
 李學宰 남 21 농업 50.8.15 남포 달산
 白澤均 남 18 농업 50.8.15 남포 월전
 池得化 남 23 농업 50.8.15 남포 월전
 黃奉斗 남 30 농업 50.8.15 남포 월전
 李世熙 남 24 농업 50.8.15 남포 월전
 李錫斗 남 18 농업 50.8.15 남포 월전
 李松雨 남 18 농업 50.8.15 남포 소송
 李性熙 남 21 농업 50.8.15 남포 소송
 片昌模 남 34 농업 50.8.15 남포 소송
 李万熙 남 19 농업 50.8.15 남포 소송
 李秉龍 남 18 농업 50.8.15 남포 소송
 田溶昭 남 25 농업 50.8.15 남포 제석
 金世煥 남 19 농업 50.8.15 남포 창동
 宋喆周 남 20 농업 50.8.15 남포 창동
 林仁洙 남 21 농업 50.8.15 남포 창동
 金鍾玉 남 26 농업 50.8.15 남포 창동
 李昌雲 남 23 농업 50.8.15 남포 창동
 李昇鍾 남 26 농업 50.8.15 남포 창동

金顯植 남 20 농업 50.8.15 남포 봉덕
 吳順哲 남 26 농업 50.8.15 남포 봉덕
 金鍾權 남 28 농업 50.8.15 남포 봉덕
 金慶雨 남 25 농업 50.8.15 남포 봉덕
 羅用男 남 20 농업 50.8.15 남포 봉덕
 文鍾求 남 27 농업 50.8.15 남포 봉덕
 金鳳學 남 19 농업 50.8.15 남포 창동
 金仁培 남 23 농업 50.8.15 남포 양기
 金鍾洙 남 23 농업 50.8.15 남포 양기
 申東初 남 20 농업 50.8.15 남포 양기
 趙慶鉉 남 21 농업 50.8.15 남포 신흥
 金永常 남 17 농업 50.8.15 남포 신흥
 李明熙 남 24 농업 50.8.15 남포 신흥
 柳海云 남 27 농업 50.8.15 남포 신흥
 金有常 남 30 농업 50.8.15 남포 옥동
 吳炳甲 남 33 농업 50.8.15 웅천 수부
 羅均泰 남 22 농업 50.8.15 웅천 수부
 金基石 남 26 농업 50.8.15 웅천 수부
 林承煥 남 20 농업 50.8.15 웅천 수부
 任根鎬 남 27 농업 50.8.15 웅천 수부
 白仁均 남 28 농업 50.8.15 웅천 수부
 安權永 남 21 농업 50.8.15 웅천 수부
 任明淳 남 21 농업 50.8.15 웅천 수부
 金恒烈 남 28 농업 50.8.15 웅천 평리
 吳炳一 남 21 농업 50.8.15 웅천 성동
 任揆淳 남 21 농업 50.8.15 웅천 성동
 金聖泰 남 33 농업 50.8.15 웅천 관당
 金正海 남 22 농업 50.8.15 웅천 관당
 尹成根 남 24 농업 50.8.15 웅천 관당
 金一煥 남 19 농업 50.8.15 웅천 노천
 金龍元 남 22 농업 50.8.15 웅천 노천
 金昌集 남 25 농업 50.8.15 웅천 노천
 金達元 남 27 농업 50.8.15 웅천 죽청
 金弘冀 남 20 농업 50.8.15 웅천 죽청
 金鄉元 남 29 농업 50.8.15 웅천 죽청

金俊鎬	남	22	농업	50.8.15	웅천	죽청	李聖鳳	남	26	농업	50.8.15	미산	봉성
吳炳植	남	19	농업	50.8.15	웅천	구룡	李周榮	남	25	농업	50.8.15	미산	옥현
白樂昌	남	25	농업	50.8.15	웅천	구룡	白元基	남	21	농업	50.8.15	미산	대농
趙玉東	남	21	농업	50.8.15	웅천	구룡	金奇煥	남	27	농업	50.8.15	미산	내평
玉學用	남	20	농업	50.8.15	웅천	구룡	金長洙	남	23	농업	50.8.15	미산	내평
□海成	남	19	농업	50.8.15	웅천	대천	金敬煥	남	20	농업	50.8.15	미산	내평
徐富福	남	25	농업	50.8.15	웅천	대창	金炯玉	남	21	농업	50.8.15	미산	내평
金在文	남	23	농업	50.8.15	웅천	대창	金東銀	남	21	농업	50.8.15	미산	풍산
禹南浩	남	19	농업	50.8.15	웅천	대창	金德欽	남	22	농업	50.8.15	미산	풍산
李元植	남	18	농업	50.8.15	웅천	대창	金箕榮	남	23	농업	50.8.20	대천	내향
申萬哲	남	34	농업	50.8.15	웅천	독산	柳敏洙	남	22	농업	50.8.20	대천	내향
朴周淳	남	21	농업	50.8.15	웅천	독산	鄭載浩	남	26	농업	50.8.20	대천	내향
文根鎬	남	28	농업	50.8.15	웅천	독산	崔南龍	남	25	농업	50.8.20	대천	내향
申箕鉉	남	22	농업	50.8.15	주산	황율	徐洪燮	남	20	농업	50.8.20	대천	내향
任良淳	남	18	농업	50.8.15	주산	황율	林浩洙	남	20	농업	50.8.25	대천	명천
張聖贊	남	20	농업	50.8.15	주산	황율	朴奉信	남	20	농업	50.8.25	대천	명천
李敦熙	남	25	농업	50.8.15	주산	삼곡	金漢洙	남	20	농업	50.8.25	대천	명천
李相文	남	22	농업	50.8.15	주산	삼곡	金興培	남	20	농업	50.8.25	대천	명천
裴鍾洙	남	24	농업	50.8.15	주산	증산	李殷福	남	25	농업	50.8.25	대천	명천
李根泰	남	26	농업	50.8.15	주산	증산	吳德分	남	16	농업	50.8.25	대천	명천
朴萬和	남	23	농업	50.8.15	주산	창암	鄭從淳	남	30	농업	50.8.25	대천	명천
李昌根	남	22	농업	50.8.15	주산	삼곡	孫相喆	남	20	농업	50.8.25	대천	명천
趙南德	남	24	농업	50.8.15	주산	증산	朴大順	남	26	농업	50.8.25	대천	명천
李元求	남	22	농업	50.8.15	미산	개화	金英洙	남	30	농업	50.8.25	대천	명천
金一漢	남	24	농업	50.8.15	미산	개화	柳玄洙	남	31	농업	50.8.25	대천	명천
任翼淳	남	20	농업	50.8.15	미산	개화	尹玉根	남	26	농업	50.8.25	대천	명천
申陽浩	남	18	농업	50.8.15	미산	개화	崔東錫	남	28	농업	50.8.28	대천	명천
李相賢	남	19	농업	50.8.15	미산	용수	朴昌福	남	22	농업	50.8.28	대천	명천
金華柄	남	27	농업	50.8.15	미산	용수	鄭正喆	남	20	농업	50.8.28	대천	명천
金乙濟	남	20	농업	50.8.15	미산	용수	文奉二	남	29	농업	50.8.28	대천	명천
金日洙	남	29	농업	50.8.15	미산	용수	田中秀	남	33	농업	50.8.28	대천	명천
金鍾哲	남	22	농업	50.8.15	미산	용수	劉長振	남	25	농업	50.8.28	천북	신죽
金鍾大	남	20	농업	50.8.15	미산	용수	高順興	남	23	농업	50.8.28	천북	신죽
申相浩	남	20	농업	50.8.15	미산	봉성	崔弼龍	남	23	농업	50.8.28	천북	신죽
池在鳳	남	22	농업	50.8.15	미산	봉성	韓相模	남	22	농업	50.8.28	천북	신죽

李光玉 남 29 농업 50.8.28 천북 신죽
 李鉉澤 남 18 농업 50.8.28 천북 신죽
 鄭日東 남 22 농업 50.8.28 천북 신죽
 李鳳煥 남 23 농업 50.9.1 천북 신죽
 金興德 남 21 농업 50.9.1 천북 신죽
 禹鍾喆 남 27 농업 50.9.1 천북 신죽
 李斗榮 남 35 농업 50.9.1 천북 신죽

朴泰榮 남 23 농업 50.9.1 천북 신죽
 金上得 남 30 농업 50.9.1 천북 신죽
 林相順 남 22 농업 50.9.1 천북 신죽
 鄭昌鎬 남 20 농업 50.9.1 천북 신죽
 崔根培 남 20 농업 50.9.1 천북 신죽
 李甕烈 남 22 농업 50.9.1 천북 신죽
 劉福龍 남 20 농업 50.9.1 천북 신죽

2) 피살자

※ 원자료를 그대로 이기 함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金萃鍊	남	46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재정리	연기군조치원
金得奉	남	46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진죽리	연기군조치원
金九鉉	남	23	농업	1950.9.25	보령대천면	보령 청소면죽림리	연기군조치원
金重奎	남	33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서천군 문산면	보령시굴산면
金億培	남	55	농업	1950.9.25	보령시동대리	보령 미산면	보령시대천면동두리
金定來	남	57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함남여흥군장현면	보령시미산면간화리
金正洙	남	22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대천면대천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金尙旭	남	27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대천면동대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榮元	남	32	경찰	1950.9.25	예산군공동묘지	보령 청소면장곡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榮奉	남	26	교원	1950.9.25	예산군공동묘지	보령 청소면장곡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星漢	남	52	부면장	1950.9.25	예산군공동묘지	보령 청소면장곡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啓漢	남	38	농업	1950.9.25	보령대천면	보령 청소면죽림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根壽	남	39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주포면보령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學出	남	30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주포면보령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崔鍾元	남	49	여관업	1950.9.25	보령대천역	보령 주포면보령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李弘性	남	37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진죽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李廷圭	남	33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머재정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李相湜	남	40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신송리	보령시미산면간화리
李南元	남	27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시 동포면	서울시종로구
李相煥	남	27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시 동포면	서울시종로구
李聖求	남	25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리면항천리	서울시종로구
李容浩	남	24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리면항천리	서울시종로구
李重珪	남	51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리면대천리	서울시종로구
李相律	남	62	부농업회장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남포면월전리	서울시종로구
李豐求	남	62	변호사	1950.9.25	서울시	보령 보령면대천리	서울시종로구
林洪燮	남	45	농업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정전리	서울시종로구
林龍浩	남	26	농업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재정리	서울시종로구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朴風鎭	남	36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남포면읍내리	서울시종로구
朴性熙	남	40	해운조합원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남포면읍내리	서울시종로구
朴鶴來	남	23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남포면신죽리	서울시종로구
朴性春	남	26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남포면장현리	서울시종로구
朴龍九	남	32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남포면동대리	서울시종로구
申重燮	남	45	농업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시 청소면	서울시종로구
申爽秀	남	37	군서기	1950.9.25	대전형무소	동군동면동	서울시종로구
申東陽	남	47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대천면화산리	서울시종로구
白永鎬	남	25	경찰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주산면신구리	서울시종로구
白南喆	남	45	사원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주산면신구리	서울시종로구
姜永錫	남	29	농업	1951.9.25	주산중학교 뒷산	보령 주산면동오리	서울시종로구
姜順奎	남	21	농업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대천면동대리	서울시종로구
鄭寅哲	남	34	농업	1951.9.25	보령대천역앞	보령 대천면대천리	서울시종로구
趙鍾浩	남	34	농업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대천면동대리	서울시종로구
車又善	남	52	농업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대천면동대리	서울시종로구
韓相一	남	31	농업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천북면방포리	서울시종로구
嚴仁燮	남	24	면서기	1951.9.25	대전형무소	홍성군 결성면중리	보령시천북면
卜日宋	남	29	靑防	1951.9.25	대전형무소	보령 동면실창리	보령시천북면
柳根壽	남	41	경찰	1951.9.25	대전형무소	홍성군마강리	당진군합덕면우강리
蔡炳益	남	29	경찰	1950.9.25	대전형무소	보령 청소면죽림리	당진군합덕면우봉리

7. 총흔각 위패 봉안자

전 사 자		전사일	지 역	연 고 자		주 소
성 명	계 급			관계	성명	
가득순	하사	53.6.24.		자	가영희	천북면 신죽리
가재윤	경사	00.8.11.		처	이수우	동대동 340-37
강건하	일병	52.2.20.		모	이성여	청소면 정전리
강노완	상병	52.9.20.		처	오개춘	주산면 신구리
강문향	하사			모	김대희	청소면 정전리
강별기	이병					오천면 녹도리 9
강복희	상병	70.4.9.	오천	처	조순희	오천면 갈현리 602
강봉구	병장	53.5.23.	금화	모	김태아	주산면 동오리 65
강부길	체신			처	김청자	대천동 208
강사곤	일병	50.6.25.		모	변규일	주포면 연지리 48
강선구	일병			부	강병기	대천동 453-1
강선창	일병			모	임공임	미산면 풍산리

강수창	중사				이교순	신혹동 791-11
강신권	병장	91.3.31.		부	강광희	주포면 은포리 959-12
강신권	병장			부	강광의	주포면 은포리 689
강신우	상병	54.12.4.		부	강석희	주산면 창암리
강영수	이병	51.4.27.		부	강영두	주교면 주교리 707
강용태	병장			부	강수만	남포면 소송리
강용태	병장	78.4.8.	천북	처	최준옥	천북면 낙동리 921
강용호	상사				김영순	청라면 향천리 7-2
강용환	일병					
강우식	일병	51.2.20.		모	김대희	청소면 아현리 394
강원기	중위	51.10.7.		부	강노철	주산면 신구리 465
강정희	일병			처	전옥정	주교면 은포리 801
강재규	상병	69.6.5.		모	최점례	청라면 의평리 230
강창서	하사	53.6.25.		부	강갑동	오천면 원산도
강흥기	이병	52.11.14.		자	편신숙	오천면 소성리
강희복	일병					오천면 갈현리 640
강희천	병장	69.9.16.	수도육군병원	부	강명식	보령시 대천동 209
경상현	상병	85.9.20.	웅천	처	김기순	웅천읍 대창리 378-3
경희수	일병	51.11.25.	양구	모	유갑수	청소면 성연리 731
고명식	하사				이금순	청라면 장산리 72
고민갑	상병	73.7.18.		처	김진영	주산면 유곡리 49
고상순	병장	06.3.11.		처	임유순	미산면 도흥리 320
고석호	상사	94.4.2.	총대병순직	처	차승자	주산면 야룡리 119-1
고영재	병장			모	임희원	오천면 소성리
고재룡	교사	67.1.15.	청소	처	박희규	청소면 진죽리 279
고재성	중사			처	박경자	청라면 의평리 381-2
고형재	병장	52.5.25.	고성	부	고광현	남포면 삼현리 541
곽석환	하사	50.11.3.		부	곽연식	남포면 소송리
구본석	하사	82.12.8.	5685부대	부	구자득	대천동 384
구문희	상사				한정자	대천동 318
구연두	일병	53.9.6.		처	최종신	청라면 옥계리 733
구자봉	하사	53.5.1.	2연대	부	구정희	주산면 삼곡리 757
구자천	일병	53.2.10.		모	신학균	청라면 장현리 778
구춘희	중사	86.12.16.	주산	처	김월기	주산면 금암리 11
권백몽	병장	52.9.29.	금화	모	김금옥	천북면 사호리
권이각	하사			부	권형옥	미산면

권익총	하사			형	권이총	미산면
권정우	일병	51.5.20.	금화	모	김복임	청라면 라원리 133
권천수	일병	07.9.6.				청라면 향천리 180
권태복	하사	53.6.24.	금화	처	이영례	청소면 성연리 571
김강길	하사				윤영자	청소면 진죽리 112-2
김경수	일병	50.12.26.		모	황간난	청라면 향천리
김계원	상병	53.6.7.	인제	부	김정제	웅천읍 성동리 724
김광재	장용	55.6.26.		처	박 준	청소면 신송리 474
김권진	하사			부	김금옥	남포면 봉덕리
김규환	이병					
김금배	일병	50.6.26.		모	이봉수	청소면 진죽리 478
김금산	이병	68.3.18.	59훈	모	박갑인	내항동 29-1
김기덕	병장				신갑순	주포면 관산리 4
김기복	하사			형	김광두	미산면 평나리
김기선	병장	52.10.10.		모	이옥순	오천면 교성리 810
김기수	상병	91.6.15.		처	이 연	천북면 장은리 462
김기용	상병			형	김기운	미산면 도화담리
김기창	상병	05.4.24.				명천동 972-32
김기태	일병	50.7.25.	금화	모	강성녀	남포면 옥서리
김낙원	하사	50.6.25.		모	임족간	웅천읍 수부리
김남제	병장	64.9.27.	수도육군병원	모	신현녀	웅천읍 죽청리 848
김능근	하사			모	장영임	남포면 옥서리
김능원	소령					
김대성	병장	50.7.5.		자	김영주	천북면 사호리 302
김대원	일병	53.1.29.	고성	처	백창애	웅천읍 노천리 429
김대춘	하사	55.5.31.	금화	모	김순자	오천면 외연도리
김덕선	상병					
김덕호	상사	52. . .	금화	모	김성여	대천동 313-1
김도형	중사			부	김원형	청소면 아현리 27
김동구	하사	55.2.19.	9861부대	모	임윤점	주교면 주교리 112
김동규	하사	53.7.4.		모	정덕분	천북면 장은리 376
김동열	중사	51.11.4.	2052부대	자	김선옥	천북면 하만리 778
김동영	병장	50.11.4.	2052부대	처	장순분	천북면 하만리 778
김동영	중사	53.7.14.	8127부대	모	김한례	청라면 라원리 938
김동욱	하사				박봉순	동대동 723
김동일	상병	86.1.15.	대천	자	김상근	대천동 807

김동출	일병	54.3.1.		모	이 씨	주포면 보령리 437
김동출	하사	52.6.27.		부	김만기	주포면 고정리
김동환	병장	53.4.1.	고량포	부	김성제	미산면 남산리
김두성	병장				전종월	오천면 원산도리 1063
김득수	대위				오윤옥	천북면 신덕리 48-1
김령엽	상병	53.7.24.		모	이필례	주산면 야룡리 636
김만수	일병	68.9.1.		모	염기분	미산면 내풍리 219
김맹열	병장	53.7.24.	화천	모	이팔례	주산면 야룡리 639
김명열	병장	49.5.16.	3887부대	모	이성녀	웅천읍 노천리 354
김문호	하사			모	이병돈	청소면 재정리 52
김민수	이병			부	김종식	청라면 라원리 452
김병규	하사			모	이 씨	주포면 보령리 437
김병기	상병	71.7.30.	청룡부대	부	김복출	남포면 창동리 241
김병남	상병	52.6.12.	2887부대	모	김원정	청소면 신송리 382
김병찬	병장	52.6.30.		자	김정기	웅천읍 대창리
김보수	순경			부	김종률	미산면 내풍리 207-3
김보현	일병					
김복담	일병	53.7.9.		처	최서희	남포면 양항리
김복집	상병	51.9.11.		모	구 씨	웅천읍 황교리 515
김봉석	상사			처	김정자	
김봉영	중위	53.7.20.	화천	모	안성녀	청라면 장현리 526
김분희	상병			형	김창옥	보령시 주포면
김상기	병장			질	김벽제	웅천읍 황교리
김상배	일병	53.3.22.	양구	부	김용석	주산면 황평리 270
김상정	일병	51.5.31.		부	김철제	주산면 금암리
김석환	병장					웅천읍 황교리 571
김선덕	상병	52.10.12.	철원	부	김태근	주교면 관창리 749
김선철	하사	53.6.27.	영천	부	김천중	오천면 오포리 561
김선필	일병					
김성길	상사				박무규	주산면 금암리 491
김성배	일병	56.7.14.		부	김인상	주교면 신대리 1237
김성진	하사	55.6.27.	금성	처	안열순	오천면 원산도리 788
김성환	일병	51.8.11.		부	김동형	남포면 양항리 211
김성환	일병	50.8.7.		부	김용안	주교면 주교리 489
김세현	병장				신인철	오천면 소성리 14-4
김송배	상병	53.7.13.	금화	모	이숙임	남포면 양기리 212

김수경	상사					명천동 491-11
김수완	하사	52.10.24.	양구	부	김국현	청소면 성현리 241
김순태	하사	53.8.20.		모	박서례	웅천읍 독산리 45
김승열	이병	50.6.25.		자	김주행	청라면 황룡리 123
김신학	하사			자	김석구	대천동 해안무번지
김신환	하사				김옥수	남포면 봉덕리485-416
김실규	병장	53.5.10.	금화	처	편순희	명천동 75
김양겸	하사			처	유임건	미산면 도흥리
김영동	일병	53.7.13.	화천	부	김인석	남포면 신흥리
김영두	하사	53.6.14.	인제	부	김옥진	오천면 원산도리 460
김영무	상병	86.9.17.		부	김두현	동대동 232
김영석	병장	52.5.30.	금화	모	이소아지	죽정동 168
김영소	병장	85.8.2.	대천	부	김완병	대천동 555
김영수	노무	53.3.24.	5002부대	처	최오복	미산면 내평리 322
김영수	일병	50.12.26.	6사단	모	오옥매	청라면 장현리 496
김영식	상병	07.4.14.	보령			천북면 하만리 275
김영주	하사					
김영천	일병	62.7.12.	금화	부	김덕진	죽정동 125
김영철	병장	53.4.7.		모	윤대홍	동대동 672-8
김영철	이병	76.6.13.	98포대	부	김흥만	동대동 444
김영태	병장	81.11.10.	대천	처	이화분	동대동 823-3
김영태	하사	52.12.2.	양구	부	김종철	내항동 69
김영필	일병			부	김기현	남포면 옥서리 141
김영환	일병	54.11.24.	대구	처	이재순	주교면 관창리 245
김영환	일병	91.11.24.	자택	처	김정득	청라면 나원리 2
김옥동	일병	77.10.13.	원산도	처	최점순	오천면 원산도 고대도
김옥정	병장	80.12.15.		모	이 씨	성주면 개화리 320-3
김완식	상사				김옥천	오천면 소성리 449-2
김용국	하사	53.7.6.	금화	모	이연향	오천면 원산도리 228
김용근	이병	85.8.8.		부	김영복	죽정동 125
김용래	일병			처	안임분	오천면 원산도리
김용모	병장			처	김영애	명천동 479
김용배	경사					주산면 금암리
김용순	하사				정춘자	오천면 원산도리 349
김용원	하사			부	김철원	미산면 풍산리
김용제	병장	53.5.27.	강원	모	안임분	오천면 원산도리 4

김용진	소령				강호순	남포면 양항리 산7
김용팔	병장				문순자	주산면 황율리 164
김용환	병장			자	김병은	오천면 원산도리
김우성	하사					청소면 야현리 21
김우순	이병	51.12.4.	연천	처	조월금	요암동 527
김웅성	교사	80.2.27.	대천	처	신우희	대천동 343
김원문	상병	52.10.2.	금화	자	김정득	미산면 용수리
김윤근	병장	53.7.17.	금화	모	민준임	남포면 창동리
김윤식	이병	51.12.29.	훈련소	모	임성녀	웅천읍 두룡리 685
김응천	병장	87.6.6.			천옥연	주포면 봉당리 501
김이봉	병장	53.7.16.		부	김해순	동대동
김익배	준위	07.10.20.	보령			청소면 진죽리 372-12
김인귀	노무					주산면 금암리
김인기	상병	51.7.17.		처	이범례	웅천읍 수부리 761-3
김인우	병장	53.1.18.	금화	부	김금봉	웅천읍 두룡리 328
김재범	소위	52.4.12.	파주	모	성상삼	신혹동 19-3
김재성	상병	88.10.15.			이순진	옥계리417
김재수	일병	50.9.15.	2연대	모	이갑분	청라면 라원리 711
김재준	하사	53.6.16.	인제	모	박명옥	오천면 삼시도리
김적산	하사	50.10.23.	25연대	모	서산례	오천면 외연도리 223
김정수	중사	51.11.2.	강원	모	강소대	대천동 927
김정수	순경		김천	부	김종선	동대동
김정순	순경					
김정현	하사	53.5.7.	금화	부	김한연	청소면 야현리 88
김정호	병장	68.4.19.	6사단	모	백월선	웅천읍 구룡리 567
김종갑	상병	50.7.3.		모	정옥자	청소면 야현리 230
김종길	일병	74.7.29.	1사단	부	김준배	대천동 399
김종남	하사	53.7.16.	서울	모	박희분	천북면 낙동리 1000
김종배	상병			모	임숙임	남포면 양기리 212
김종복	하사	53.5.18.	금화	처	최정분	남포면 신흥리 241
김종성	소위	82.6. .	6사단	모	오혁점	대천동 59
김종식	하사			모	박희분	천북면 낙동리 1000
김종우	병장			부	김호배	미산면 삼계리
김종일	일병	89.12.2.	대천	처	이정례	동대동 106
김종철	일병	51.5.19.		모	서금분	오천면 갈현리 754
김종하	하사	52.9.24.		처	김복순	청소면 죽림리

김종호	병장			형	김종구	주교면 신대리
김중환	병장	53.6.14.	금화	자	김추자	청라면 황율리 97
김주배	하사	53.5.3.	금화	부	김병록	요암동 548
김주연	하사	07.1.31.	보령	처	신정순	성주면 개화리 산1-6
김준형	중사	84.2.2.	주포	처	김복순	주포면 관산리 250
김준환	소령	72.8.31.	9사단	부	김만월	웅천읍 노천리 336
김진국	상사				김병희	대천동 297-349
김진식	체신					
김진창	이병			부	김억돌	주교면 은포리
김진태	이병			부	김을송	주산면 창암리
김진태	하사	52.7.22.	양구	모	박노저	청라면 라원리 1079
김진호	일병	63.6.27.	7사단	모	김희남	명천동 95
김진희	훈병	50.8.7.		모	이 씨	명천동 919
김창배	병장	53.5.28.	금화	모	손성녀	청라면 소양리 137
김창순	일병			자	김영희	주교면 은포리 250-1
김창식	병장	53.8.16.	고성	모	김화분	오천면 원산도리
김창욱	순경	50.9.23.	대천	처	임정순	대천동 225
김창재	하사	51.4.24.		부	김영위	주포면 은포리 422
김창환	하사				정명환	남곡동 274
김춘기	병장	79.1.1.		모	김영숙	청소면 진죽리 358
김태웅	일병	60.4.15.		모	박성녀	청라면 향천리 18
김판종	일병	81.11.10.	대천	처	지양자	보령시 대동 475
김필한	소위	50.6.26.	시흥	부	김동역	대천동 195
김현빈	일병	52.8.6.	63병원	처	조규정	주포면 보령리 136
김현원	순경			처	이재순	주교면 은포리
김현찬	상사	50.8.1.		부	김용환	주포면 보령리 47
김형식	일병			모	신연수	미산면 풍계리
김형식	일병	86.12.16.		모	신윤순	주산면 금암리 355
김형제	일병			부	김로관	주포면 보령리
김형제	상병	83.9.23.	웅천	자	김동근	웅천읍 대창리 379
김홍배	일병	52.9.25.	장성	부	김평용	명천동
김홍배	일병					
김홍제	하사	51.1.19.	강원	처	이경옥	웅천읍 황교리
김훈열	일병			부	김동태	청라면 황룡리 1240
김흥기	중위	53.1.19.	금화	부	김동규	웅천읍 죽청리
김흥순	상병	56.10.21.		부	김흥선	웅천읍 대창리 334

김흥주	일병	51.3.20.		처	김순례	명천동 479
남상직	광복	41.1.12.	관당	손	남동화	웅천읍 관당리 683
노형근	광복	60.11.29.	경기	자	노희철	신혹동 251-1
류종근	일병			모	송일순	미산면 도화담리 174
라홍균	병장	64.5.29.	금화	모	유증여	웅천읍 관창리 753
명구영	하사	53.7.18.	인제			웅천읍
명노준	하사	53.4.28.	금화	자	명덕재	청소면 죽림리
문남윤	병장			모	김만예	청소면 아현리547
문동운	병장	50.8.8.	6사단	모	김만예	청소면 아현리547
문상근	일병	83.1.17.	고성	부	문종해	주포면 봉당리 258-2
문완근	하사	52.12.12.	연천	처	김계부	주산면 유곡리 439
문장해	하사	52.10.1.	화천			청소면
문천옥						
문희재	병장	07.2.21.	보령	처	차순예	동대동
박갑석	일병	50.9.10.	9연대	모	박근화	오천면 교성리 512
박갑순	이병	62.4.27.	116논산	자	박상일	화산동 172
박경수	병장				오선금	남포면 삼현리 4
박고음	노무	78.11.20.	대천	처	김소자	화산동 95
박광래	상사	03.6.3.		처	장동례	대천동 434
박규봉	상병	53.5.24.		모	초 씨	주포면 신대리 287
박규신	하사	52.10.14.		모	이성녀	청라면 옥계리 786
박노수	경위	51.10.18.	대둔산	모	강아지	대천동 307-1
박노환	경위					주산면 황률리
박도우	병장	53.7.22.	화천	부	박선군	청라면 의평리 230
박동만	철도			처	서귀복	신혹동 2775-24
박동주	상병	53.3.13.	금화	처	신태희	천북면 장은리 133
박두규	상사			모	김명개	죽정동 591
박두희	병장					
박명진	경무관	50.9.4.		자	박영천	남포면 읍내리
박명화	상병	51.7.14.	원통	부	박영락	명천동 43
박병수	상병			형	박병훈	주교면 신대리
박병직	중사			처	허정례	명천동
박봉근	상병	88.10.26.			박봉운	오천면 원산도리 497
박삼남	병장	53.6.25.		모	이성녀	청소면 정전리
박상옥	이병	71.1.2.	대천	모	김인옥	화산동172
박상준	일병			부	박광수	동대동

박상진	상병			질	박남수	주교면 신대리
박상진	병장	53.7.16.		부	박의화	웅천읍 성동리 887
박성온	일병	50.4.1.		자	박순옥	주산면 주야리 681
박성진	병장	50.6.25.		모	황 씨	주교면 은포리
박성철	순경			모	한영희	웅천읍 성동리 665
박성택	하사	53.6.24.	5202부대	모		주포면 은포리
박성환	병장	50.6.25.	5262부대	부	박신영	천북면 낙동리 855
박세군	상병			자	박무월	남포면 월전리 254
박소양	일병	07.8.14.		처	서옥예	명천동
박순택	하사	53.5.17.		처	신인성	대천동
박승익	일병					주포면
박승태	하사			형	박승철	주교면 은포리
박양신	일병	91.11.24.	자택순직	처	김정옥	청라면 옥계리 822
박연호	일병			자	박분서	천북면 하만리
박영덕	일병	53.4.26.		모	이경희	대천동
박영두	이병	53.4.26.		모	이경희	신혹동
박영수	일병	51.3.24.		모	김복열	주포면 은포리 426
박영수	하사	53.5.17.	연천	부	박식연	주교면 은포리
박영석	상병					
박영식	상병	00.9.26.		처	조미자	청라면 라원리 713
박영준	병장	50.8.9.	안동	처	김규분	천북면 학성리
박영진	일병					
박영호	병장			부	박재복	청소면 정전리 375
박영희	하사	53.7.14.	금화	제	박성희	청라면 내현리
박영희	병장			부	박선군	청라면 의평리
박옥동	일병	59.8.13.	병원	모	편순화	오천면 오포리 261
박윤선	병장					
박용순	일병	53.5.25.	양구	모	김인호	명천동 485
박용진	상병	06.11.				청소면 죽림리 175
박원규	병장	52.7.1.	금화	처	신정섭	대천동
박원규	일병	50.8.29.	금화	부	박성애	주산면 주야리
박재순	병장	51.4.14.	중부	부	박낙천	남포면 옥서리 46
박재순	교사	85.10.26.	야현	처	김선례	청소면 야현리 397
박정백	상사	00.6.19.		처	장금수	대차동 56-1
박정순	병장	51.8.23.	경기	처	전용식	성주면 개화리
박제도	상병	72.2.10.		자	박상훈	남포면 옥서리

박종관	소위			부	박순철	주교면 주교리 177
박종국	일병			자	박준규	미산면 평나리
박종덕	상병	05.6.11.				주교면 송학리 474
박종돈	병장					
박종수	하사	49.2.12.		모	최성녀	주교면 송학리
박종순	병장					주포면
박종전	일병			모	신남순	주교면 관창리 793
박종찬	중사			부	박희봉	오천면 장고도리
박종훈	병장	93.7.22.	보훈병원순직	모	김이선	내향동 358-9
박준규	하사			부	박선균	청라면 의평리
박준남	소위					남포면 양기리 119
박천규	상병					
박한순	교사	71.1.6.	부여	처	이종임	대천동 618-9
박헌상	일병	50.6.25.		처	김형은	미산면 풍계리
박호선				처	이득우	미산면 도흥리
박희근	상병	53.11.10.	연천	모	조옥산	오천면 원산도리 1490
백광현	하사	51.7.13.	인제	부	백찬기	대천동 107
백광현	광복	51.8.21.		손	백영창	명천동 97
백낙호	일병	52.4.16.		부	백종수	미산면 도흥리 69
백남권	하사	52.12.18.	금화	처	이현옥	웅천읍 죽청리 149-5
백남준	하사	53.6.13.	금화	처	최준순	웅천읍 구룡리
백남철	경사			모	이정리	대천동 107
백남홍	병장	86.3.6.	남포	모	임 씨	남포면 월전리
백남희	일병	53.2.20.	5육군병원	부	백남홍	웅천읍 두룡리 409
백만근	병장	52.10.27.	연천	처	신능자	남포면 월전리 226
백만기	광복				백승택	주산면 창암리
백봉기	상병					
백상기	상병	61.7.9.	병원	모	이삼희	웅천읍 대창리 719
백상흠	일병	57.7.13.		처	도정희	대천동 28
백연호	병장			부	백보근	남포면 월전리 258
백영기	하사			처	박순이	미산면 삼계리 414-31
백영호	순경			모	윤병순	주산면 친구리
백영호	상병	85.8.10.	서천	처	노월자	주산면 창암리 144
백용철	이병	04.11.26.				성주면 성주리 50
백은택	이병	59.1.6.	포천	부	백상희	웅천읍 두룡리 409
백제기	병장	53.3.25.	금화	모	오 근	미산면 풍산리 243

백창환	병장	51.10.5.	금화	모	임락희	대천동 180
백철수	병장				이정자	웅천읍 수부리 614
백현기	상병	52.12.1.	고성	부	백남두	미산면 삼계리 13
복금채	하사	67.5.29.	맹호부대	부	복창성	오천면 원산도리 1744
복기향	하사	52.10.14.	금화	처	이원상	남포면 삼현리 541
복일채	일병	51.2.9.		처	한관분	주포면 관창리 314
복진군	일병			모	조향일	청소면 진죽리
서덕수	일병	51.9.1.		모	이옥화	대천동 76
서영종	경사	50.9.27.		모	최명원	대천동 460-16
서인석	경위					동대동 897-43
서재남	하사	53.1.8.	고성	모	엄성녀	웅천읍 대창리 529
설을식	중사			모	오순분	성주면 성주리 128
성낙윤	하사	53.6.13.	금화	부	성남영	동대동 489
손관철	상병	51.4.24.		부	손영길	주포면 보령리 59
손옥동	병장	53.6.25.	고량포	자	손종호	웅천읍 대창리 459
손효철	상병	53.7.20.		부	손연길	주포면 보령리 59
송 자	하사	66.1.9.	맹호부대	모	김동점	대천동 28
송송자						
송영규	일병	53.3.23.	27사32연대	모	김명례	미산면 도흥리 159
송웅천	경사			처	배순옥	웅천읍 대창리 467-17
송흠제	병장	53.6.13.	금화	자	송경순	청라면 의평리 317
신광순	상병			모	현춘옥	대천동
신대철	일병	53.12.22.		부	신현득	화산동 72
신동건	하사	67.10.14.	백마	부	신만철	대천동 218
신동성	상병			부	신순철	청라면 황룡리 762
신동양	경위	50.9.3.	대전	처	이차원	화산동 134
신동철	하사				신동군	청라면 장현1리
신병선	체신	81.6.25.	주산	처	김동양	주산면 야룡리 208
신병희	일병	53.1.29.		자	신명월	오천면 효자도리
신수영	하사	52.10.3.	금화	모	이성녀	주포면 관창리
신순석	이병					
신쌍동	하사	81.3.20.	장은	처	이월선	천북면 장은리 915
신영석	하사	53.7.14.	원통	모	최정자	천북면 장은리 951
신영호	상병	53.3.9.	연천	처	최월주	천북면 낙동리
신용수	중사			모	조춘윤	청라면 라원리 546
신재건	상병	53.7.24.		자	신창애	청소면 재정리 52

신재두	하사	52.10.14.	금화	처	이은례	오천면 오포리 121
신재명	하사				임광빈	화산동 186
신재수	일병	50.9.15.		모	임종욱	청라면 향천리 154
신재홍	하사	51.11.5.	금화	조모	표승녀	청라면 신산리
신종선	하사	63.9.19.	221부대	부	신치현	동대동 680
신종철	하사	51.5.27.		부	신현각	청소면 성연리
신준식	상병	53.4.27.	고성	자	신삼돈	응천읍 대창리 334
신창우	하사	53.3.9.	6037부대	부	신계휴	궁촌동 109
신현수	하사			모	이명옥	청라면 향천리 176
신현식	하사	53.5.12.	금화	자	신귀호	오천면 효자도리 347
신화섭	일병	51.10.2.	제주	모	임성어	화산동 235
심상설				자	심홍식	주포면 보령리 524
심상철	철도	66.2.27.		처	안정순	주포면 보령리 524
심옥임	일병			처	이유봉	청라면 의평리
심원구	일병	51.4.14.		자	심재숙	주산면 유곡리 439
심현철	하사	52.10.14.	금화	부	심정기	오천면 소성리 570
안남수	중사			형	안기봉	
안능만	상병			모	오 씨	남포면
안상우	중사	82.3.14.	서울	부	안철순	대천동 247
안승현	상병	03.8.5.				
안응용	순경	53.8.19.		모	신옥자	오천면 원산도리
안익수	교사	80.8.1.	서천	처	박명자	대천동 175-8
안익환	노무			모	원옥선	청라면 옥계리
안종찬	중위	51.6.11.	8057부대	모	정 씨	주포면 보령리 260
안주성	하사			모	오 씨	남포면
안주석	하사					
안준석	병장	50.10.28.	평북	모	박성분	오천면 원산도리 1775
안현수	일병	52.1.30.	장서	모	전희태	오천면 교성리 281
양대식	일병	74.5.12.	금화	부	양백선	대천동 183
양동욱	병장	67.10.1.		모	김아지	오천면 녹도리 9
양석환	하사				김월미	동대동 879-5
양순진	상병	53.5.13.	금화	모	이월순	동대동 71
양인모	일병			부	양팔용	주산면 증산리 514
양재풍	일병			자	전옥순	천북면 장은리
양정목	상병	53.9.19.		자	천재이	남포면 봉덕리 산 16
양창목	하사	52.9.20.	금화	부	양기한	주포면 은포리 445

양창진	상병	52.11.5.	금화	모	이월순	동대동 71
양태원	일병	50.9.21.	26연대	모	김영관	미산면 풍계리 49
양태천	일병	50.6.25.		모	이신순	청소면 정전리 245-3
양현수	병장	72.8.26.	9사단	모	김연옥	주교면 관창리 820
양홍진	일병			모	황성녀	동대동 40
양흥기	일병			모	백 씨	남포면 창동리 403
양희열	일병	89.7.7.	철원	부	양창목	남포면 봉덕리 산 103
여중섭	일병			처	이종순	청라면 내현리 118
여중현	하사	53.6.25.		모	이남순	청라면 소양리 816
염규남	소위	67.8.9.		부	염현섭	대천동 618-79
염규남	소위			부	염현섭	주산면 금암리 681-7
예홍식	중사			부	예태만	청소면 정전리 588
오기홍	하사	52.11.16.	2사	모	편 씨	오천면 삼시도리 26-2
오대련	하사			모	이효순	주교면
오병선		53.3.6.	1사단	모	편 씨	오천면 삼시도리 262
오병선	하사			모	편 씨	오천면 삼시도리 26-2
오병일	상병	51.10.31.		모	김대반	웅천읍 수부리 14-2
오성근	하사	77.4.29.		처	최갑수	주산면 창암리 214
오승현	일병	50.7.5.		부	오판용	청라면 라원리 519
오영고	병장	53.7.16.		모	장시순	동대동 721-9
오용국	이병			부	오이준	청소면 장곡리 66
오윤교	중사	53.1.31.	금화	처	이종분	청라면 라원리 141
오은교	중사					
오이교				자	오열운	청라면 라원리 148
오재길	상사			자	오상호	보령시 요암동 545-1
오재복	상사					주포면 연지리 723
오재열	하사			자	오관진	청소면 야현리 16
오재열	하사	50.6.25.		부	오광진	청소면 야현리 56
오재익	하사			자	오동섭	청라면 내현리
오종선	이병	07.5.4.		처	황의순	청라면 라원리 487
오종철	일병			자	오기연	청라면 라원리
오종택	이병			부	오석교	청라면 라원리 131
오종환	중사	57.4.29.		처	박정순	웅천읍 성동리
오춘식	병장				임을순	청라면 의평리 산11
오필문	노무			부	오이교	
오학규	하사	52.10.23.		모	김묘길	웅천읍 성동리 200

오학준	병장	50.11.2.	금화	모	정충열	신혹동 220
우종록	상병	53.7.13.	금화	모	우명식	천북면 궁포리 327
원광식	병장	49.9.3.	웅진	부	원용규	내항동 564
원상재	병장				이인숙	웅천읍 황교리 99
원옥수				처	안안환	
유 호	중위	58.8.25.		처	조종현	청라면 장현리
유광진	병장	53.7.6.	연천	부	유용래	동대동 854
유군성	순경			처	안순영	미산면 대농리 236
유근한	경감			처	이기옥	주산면 야룡리
유기태	하사			부	유석기	대천동
유남수	하사	53.3.16.	양구	모	이 씨	청소면 장곡리 458
유석진	병장	53.7.17.		처	전삼분	천북면 신죽리 186
유성기	병장					
유영민	병장					
유영종	중령	51.8.9.	대구	모	이 선	주교면 주교리 246
유용태	순경			처	김선서	
유용하	일병			모	박인숙	웅천읍
유은향	하사	85.1.20.	청소	처	문염분	청소면 죽림리 425
유재윤	일병			처	이경란	천북면 신죽리
유재창	군속	52.6.23.	서울	처	최남국	천북면 신덕리 380
유재화	병장					
유정호	하사			부	유경화	주산면
유준근	광복	70.8.5.		손	유금수	청소면 죽림리 421
유진호	상병	53.5.19.	7857부대	모	황금례	주산면 삼곡리 215
유희동	중사			부	유태형	청소면 진죽리
윤경모	중사	69.12.3.	주포	모	이복순	주교면 연지리 416
윤기석	상사				이충복	죽정동675-5현대@103-1308
윤두순	병장				이정금	청라면 의평리 558
윤병용	순경			처	김기복	
윤삼중	일병	50.6.25.		모	김천일	보령시 동대동 283
윤상흥	일병			부	윤대성	천북면
윤수원	병장			처	이덕순	대천1동
윤용식	철도	69.12.3.	주포	처	이복순	주교면 연지리 416
윤용중	하사	56.4.3.	15사단	부	윤승화	오천면 갈현리 416
윤운병	하사			부	윤상덕	웅천읍

윤을선	중사			형	윤갑석	미산면
윤종열	하사	53.4.7.	고성	모	강윤선	오천면 교성리 809
윤종오	하사				최영숙	주교면 송학리 94
윤주필	일병	76.6.25.	주산	처	권병희	주산면 증산리 343
윤지효	병장	08.2.3.	병원	처	허영례	성주면 성주리 27
윤태한	병장	79.6.15.		모	강갑녀	웅천읍 소항리 371
윤형모	순경			처	고원희	청소면 장전리
윤효병	병장					
윤흥덕	병장	56.8.27.	부천	부	윤남용	내항동 564
이 윤	하사	52.2.3.	7784부대	자	이동안	청라면 옥계리 604
이경근	일병	51.10.25.	1훈	부	이한영	동대동 727-8
이경우	일병	53.1.24.	병원	처	김찬례	내항동 529
이계현	노무			처	김 씨	남포면 읍내리 362
이관석	일병			모	김침월	웅천읍 노천리
이관태	이병			처	추금순	청라면 소양리
이광원	병장	50.6.25.		처	윤계원	죽정동 547
이교성	하사	53.5.28.		모	이 희	남곡동 255-1
이규운	하사	50.9.2.	금화	부	이승염	미산면 풍계리 467
이규정	하사	53.7.18.		처	박정순	천북면 학성리
이규철	하사	52.6.21.	고성	모	최 씨	청라면 장현리 514
이기덕	학우	66.10.29.		모	박인순	내항동 627
이기복	하사	51.2.25.		처	이기순	청소면 진죽리 887
이기석	병장	53.6.25.		모	양성녀	궁촌동 453
이기재	병장	53.6.24.		자	이정희	미산면 도화담리 80
이기종	중사	50.6.25.	1연대	모	박희양	대천동 산 28
이기탁	일병			모	유성수	청라면 라원리
이기호	하사	53.		모	박처녀	죽정동 477
이기홍	이병	53.7.17.		모	이순례	청소면 성연리 239
이길호	병장	52.10.1.	철원	부	이봉억	주산면 증산리 664
이남원	순경			모	정 씨	주교면 주교리 350
이대원	체신	81.9.12.	주산	처	윤태자	주산면 창암리 353
이덕봉	순경			모	신천순	웅천읍 관당리 745
이덕우	일병	50.11.5.	금화	모	김계자	미산면 풍계리 554
이돈우	일병	50.12.15.		부	이종민	주산면 동오리 41
이동규	상병	53.7.2.	금화	모	이백녀	미산면 풍계리 24
이동남	일병	05.12.7.				오천면 원산도리 1036

이동순	의종	53.6.23.	금화	모	조 씨	청라면 의평리 419
이동순	종사			자	이창수	청라면 의평리 573
이두현	이병	83.12.31.		모	이정달	청소면 성연리 102
이득우	병장			처	강예랑	화산동 540
이득우	노무			처	백모선	남포면 읍내리 36
이득우	노무					주산면
이마서	이병			처	김연옥	주포면 봉당리 523
이명우	하사			모	정심순	미산면 풍계리
이명우	하사					요암1동 127
이명종	광복	54.3.21.			이영찬	청소면 죽림리 415
이명준	병장	53.6.27.		모	김복열	천북면 궁포리 435
이명환	종사					
이병갑	하사	53.6.12.	금화	처	신남순	죽정동 169-2
이병규	일병	52.3.2.		처	심은실	대천동 466
이병기	종사	50.8.28.	전주	자	이성희	주산면 증산리
이병남	일병	52.10.2.	금화	모	김부남	주교면 신대리 20
이병무	상사	50.7.12.		부	이창호	주교면 신대리 490
이병선	일병			부	이철호	주산면 주야리 326
이병수	교사	83.5.29.		처	이개정	청소면 정전리 256
이병식	일병	91.10.16.	부대순직	부	이길상	미산면 용수리 670
이병신	상병	53.4.12.		부	이희득	주교면 주교리 225
이병용	일병	53.6.15.	시흥	모	이기순	보령시 대천동 194
이병일	병장	52.9.25.	장성	부	이기호	죽정동
이병창	하사	53.7.17.	금화	처	조옥행	청소면 장전리
이복영	이병	52.1.14.		모	이원우	주교면 신대리 145
이봉익	일병	52.4.12.	포천	모	이기석	천북면 궁포리 327
이봉춘	일병			모	송홍순	남포면 봉덕리
이봉호	일병	50.3.16.		모	이선용	주교면 주교리 763
이부경	하사			모	홍성애	청라면 내현리 97
이산우	하사	53.7.17.		모	박 씨	주산면 야룡리
이상구	일병	69.1.19.		부	이두규	대천동 466
이상근	순경	53.4.7.		처	양기춘	오천면
이상돌	하사	53.5.30.	금화	자	이재만	청라면 장산리
이상동	문교	64.12.5.		처	김월순	웅천읍 대창리 138
이상락	하사	51.9.14.	양구	모	이화원	오천면 효자도리 6
이상모	종사			모	김옥순	남포면 창동리 290

이상목	상병	51.7.16.	금화	부	이홍우	미산면 용수리 641
이상복	상사	53.9.3.	금화	모	유교순	주포면 마강리 142
이상섭	중사				정명자	남곡동 655-22
이상신	하사	51.11.1.	금화	자	이봉자	웅천읍 대창리
이상옥	하사	50.11.7.		처	임순남	대천동 457-41
이상옥	하사	53.3.9.	금화	부	이석만	주산면 야룡리 64
이상용	일병					
이상욱	일병	50.6.25.		모	최암희	죽정동 493
이상원	하사			형	이상기	주산면 주야리
이상익	방위	78.3.12.	주산	처	이향순	웅천읍 대창리 335
이상익	상병	53.1.17.	강원	모	김영수	주교면 신대리
이상인	일병	53.4.7.	금화	모	한성녀	내항동 442
이상전	일병	52.1.1.		모	이순우	요암동 225
이상조	일병	52.10.26.		모	김연길	남포면 월전리 154
이상철	노무	82.3.28.	미산	처	황봉순	미산면 용수리 621
이상호	중사	82.1.20.	대천	처	지석희	요암동 752
이석규	병장			부	이범식	청라면 향천리 315
이석림	상병	52.12.26.	지리산	모	조 씨	주산면 창암리 140
이성기	병장	53.3.4.	고량포	모	이남원	웅천읍 두룡리 142
이성운	이병	87.12.8.		부	이정원	천북면하만리 788
이성원	하사			모	백봉현	주교면 송학리 76
이성은	이병	86.12.8.			이정원	천북면 하만리 788
이성환	하사	53.6.28.	금화	부	이재동	청소면 재정리 507
이세교	하사				최명자	웅천읍 관당리 683
이순천	일병					
이순형	경사	50.10.10.	황등	처	오종숙	웅천읍 성동리
이승길	상병			부	이창직	청라면 향천리
이승노	상병			부	이태근	화산동 445-10
이승복	일병					
이승엽	일병			모	김성녀	청라면 황룡리
이승준	상병					
이승호	상병	83.8.9.		부	이태근	대천동 445-10
이시우	하사	52.10.3.	원통	모	이 씨	웅천읍 평리 18
이시원	중사	50.6.25.		모	강소아지	주교면 송학리
이신호	병장	77.5.15.	주산	처	함정자	주산면 증산리 252
이역희	병장			부	이병진	미산면 도흥리 405

이영구	병장	70.9.1.		부	임순호	남포면 신송리 498
이영신	상병					
이영옥	일병	70.5.1.	대천	처	김정희	대천동 237
이영우	노무					웅천읍
이영우	하사	53.6.7.	강원	부	이종태	청소면 성연리
이영재	병장	53.3.3.	금화	조모	김 재	주산면 화평리
이영주	순경			자	이일남	동대동 892
이영주	일병					웅천읍
이영창	상병	53.5.19.	양구	모	이종부	주산면 유곡리
이예섭	일병	51.6.20.	1보	모	김용월	주산면 유곡리 448
이완수	병장			처	박이례	주산면 증산리 726
이완호	일병					
이용찬	상병	50.11.5.	금화	모	김정향	미산면 풍계리
이원기				부	이양호	미산면 개화리 335
이원백	하사	53.1.16.	금화	모	김 씨	주포면 마강리 141
이유봉	훈병					
이 윤	하사					
이윤성	상병	53.7.16.		자	이기찬	청소면 성연리
이윤우	상병	52.5.11.	금화	모	오보순	웅천읍 수부리
이은규	병장	53.2.26.	5767부대	부	이희철	대천동 197
이은규	하사	53.5.19.	양구	부	이용만	청소면 정전리 294
이은복	상병	90.3.9.		부	이성구	주교면 관창리
이은영	일병	52.2.3.	병원	모	오월금	주산면 화평리 44
이은호	이병	52.12.11.	연천	모	강점순	주교면 신대리 924
이의범	상병			자	이재규	대천동 261-3
이익상	상병					
이일우	중사				김순희	미산면 도화담리 120
이자영	하사	52.3.11.		모	황 씨	청라면 장현리 296
이재규	상병	52.10.17.	금화	모	김월규	남포면 양항리 322
이재선	하사	53.6.15.		처	경화분	청라면 장현리
이재영	일병	82.12.20.		모	유옥현	주산면 야룡리 578-3
이재호	이병	07.11.4.		처	유예식	주산면 주야리 261
이재훈	준위			부	이광현	주교면 신대리 265
이정윤	하사	51.4.27.				
이종갑	상병					
이종구	일병	51.4.27.	3752부대	모	최간난	주포면 마강리 109

이종구	일병	51.12.26.	3연대	모	강모분	오천면 갈현리 791
이종국	광복	07.6.16.			이용근	동대동 753-3
이종기	상병	93.5.11.	보령병원	처	이홍순	대천동 398
이종덕	병장	07.11.18.				
이종록	중사				김영순	대천동 298-4
이종배	교사	73.12.15.	의평	처	곽춘자	청라면 의평리 153
이종백	이병			처	김홍연	주산면 야룡리
이종범	병장			자	이미숙	미산면 풍계리475
이종석	일병	50.6.25.		자	이연우	주산면 유곡리 223
이종석	하사	53.6.7.	철원	부	이 곤	청소면 장현리 820
이종선	하사			형	이종각	미산면
이종신	병장				이길호	미산면 풍계리 485
이종세		65.7.27.		모	전계녀	오천면 갈현리 40
이종수	일병	50.9.30.		부	이남규	주산면 신구리 186
이종순	병장	50.7.20.	금화	부	이두규	주산면 주야리 259
이종순	병장	50.7.20.	금화	모	김하순	주산면 주야리 259
이종열	하사	53.6.29.		처	김정순	청라면 내현리 118
이종원	경위			처	이춘영	주포면
이종천	일병					
이종철	하사	06.4.23.		자	이상두	남포면 봉덕리 491-5
이종태	하사	53.5.14.	금화	자	이순우	주산면 신구리
이종택	이병			처	김홍순	주산면 야룡리 590
이종환	상병					
이종혁	상병	93.11.10.	자택	처	장영자	대천동 391-2
이종흠	일병	50.12.26.		모	최덕희	미산면 풍계리
이종희	병장	54.12.6.	12사32연	모	김오례	남포면 창동리 153
이준규	상병			형	이상규	청라면 황룡리
이준규	병장	53.6.14.	금화	부	이병심	청라면 황룡리
이준규	병장	53.2.26.	연천	부	이병실	청라면 향천리
이준희	일병			모	이복해	청소면 정전리 산7
이중구	상병	08.1.23.				청라면 내현리 586
이중호	하사	52.9.26.	철원	부	이종근	주산면 증산리
이중섭	하사					
이중호	이병	55.7.1.	2훈소	부	이학실	남포면 소송리
이중희	상병	64.1.10.		처	최춘자	남포면 월전리 544
이진수	일병			모	이완영	미산면 늑전리 421

이진우	상병	53.6.15.		부	이종옥	주산면 삼곡리 387
이진우	상병	53.5.16.	금화	부	이종철	미산면 용수리 261
이찬호	병장			부	이해용	남포면 삼현리 390
이찬희	이병			부	이종기	웅천읍 수부리 597
이창배	상사				김복남	오천면 교성리 44
이창우	하사	66.5.23.	청룡부대	부	이호덕	명천동 212
이창우	상병					
이창원	행정	77.3.22.	주산	처	추희순	주산면 창암리 521
이창직	노무		중부	모	허 정	대천동 197-83
이철영	체신	79.3.31.		처	유 순	웅천읍 대창리 335
이철우	상사				이상원	대천동 108-21
이춘옥	일병					청라면 내현리 60
이춘용	상사				이해창	남포면 삼현리 132
이춘우	하사			부	이종수	미산면 도화담리
이춘행	병장	52.8.17.	병원	모	김호봉	화산동 520
이탐진	일병	51.4.26.	36연대	모	강순이	주교면 신대리 194
이태연	일병	53.3.5.	13연대	모	장분조	명천동 95
이태우	병장	58.6.18.	춘천	모	이상용	대천동
이평용	이병	55.4.3.		부	이재갑	남포면 사현리 141
이필구	하사	52.6.21.	고성	처	이옥희	청라면 의평리
이필호	일병			자	이봉옥	주산면 증산리
이한건	상병	51.8.9.	가평	모	유생남	남포면 소송리 52
이행구	하사	53.6.3.		처	신영식	청라면 의평리
이현우	일병	52.10.19.		부	이종희	주산면 창암리 503
이형주	상사	53.7.2.		부	이흥수	동대동 319-82
이호남	상병					
이흥규	일병	50.6.30.		모	표사지	청소면 정전리 294
이흥우	일병	50.6.25.	금화	모	조순호	미산면 풍계리 475
이흥주	일병					
인영식	상병	52.7.16.	금화	모	조동춘	주교면 신대리
인정택	일병	53.6.12.	금화	처	황정숙	궁촌동 106
임갑순	상병	53.6.12.	금화	모	조성녀	대천동 927
임경빈				형	임동빈	
임경순	상병	53.7.18.	45사	자	임영숙	미산면 풍산리 387
임경호	상병	75.9.20.	대천	처	이정호	대천동
임경호	상병			부	임성택	남곡동 899

임경환	상병	53.12.3.	금화	모	김상옥	미산면 대농리 702
임공대	하사	52.10.16.	금화	처	유영식	오천면 갈현리 638
임관역	병장	70.4.3.	25사단	부	임창빈	남곡동 258
임기호	일병			부	임명준	주산면
임낙순	일병	53.1.29.		처	신연경	주산면 주야리 389
임동호	중사			모	이성녀	웅천읍 평리 399
임두순	일병			부	임영재	웅천읍 성동리 172
임득순	하사	52.9.5.		모	이천금	미산면 도흥리 316
임명구	상병			형	임병식	신흥동
임민재	교사			형	임아재	내항동
임병인	일병	53.6.15.		모	최순열	웅천읍 구룡리 329
임상순	상병	53.7.15.	금화	자	임금옥	미산면 옥현리
임승철	상병			부	박영덕	청소면 재정리 327
임승호	하사	53.2.4.		부	임석기	신흥동 102
임열순	병장			처	신을순	웅천읍
임영순	노무			처	강기순	미산면 늑전리 421
임용대	하사					
임용호	순경	50.7.10.	황동	처	이기희	청소면 재정리
임원영	상병	85.5.6.	청소	처	이진복	청소면 진죽리 236
임원학	상병			자	임창희	청소면 정전리
임의빈	상병			부	임오순	웅천읍 대창리 432-2
임의순	병장			모	한신금	주산면 황률리 334
임의재	일병	54.3.16.		자	임채순	웅천읍 성동리 683
임재득	경위			자	임영숙	웅천읍
임재득	하사			자	임영숙	웅천읍 평리 146
임재철	일병	50.6.25.	7사단	부	인재기	청소면 정전리 245-3
임정규	병장	52.10.14.	시흥	모	이모정	궁촌동 40
임정호	일병			자	임경옥	웅천읍
임종석	하사	50.6.25.	13연대		임종복	미산면 평라리 414
임종석	하사	50.6.25.		모	정윤희	미산면 평라리 414
임질순	상병			자	이의빈	주산면 야룡리 60
임창빈	병장			부	임공달	
임창환	병장			부	임순근	주포면 보령리 406
임철재	일병			모	김상호	미산면 대농리
임춘순	상병	53.5.26.	금화	처	이복순	미산면 늑전리 177
임학순	상병	53.7.14.		모	신당변	미산면 봉성리 154

임항제	철도			부	임명규	
장문기	중사	50.8.14.	영천	모	방수애	남포면 읍내리 338
장상남	상병	53.7.4.	금화	조	박 씨	남포면 옥서리
장성욱	상사			형	장동수	대천동
장영배	하사	53.7.16.		처	최양금	주교면 주교리 228
장용현	하사	50.8.25.	우보	모	양봉이	주포면 보령리 529
장인창	일병	51.5.6.		모	김영금	천북면 낙동리 995
장종태	일병	50.6.25.		모	최성녀	남포면 창동리 442
장지만	일병	53.7.6.		모	손란향	주산면 야룡리
장태근	상사	52.8.18.	서울	처	민정례	천북면 학성리
장호현	하사	53.4.20.	8127부대	처	이성태	대천동 220
전갑순	일병			처	김복순	대천동 369-32
전근동	일병	52.11.1.	금화	부	전재호	오천면 녹도리내 257
전기환	병장	50.7.8.	경기	부	전장근	오천면 원산도리 2026
전동요	일병	84.2.10.	대천	처	김기란	동대동 983-69
전번수	상병	05.6.1.				신혹동 386
전병길	일병	51.1.1.	56연대	모	조기생	신혹동 267
전병현						
전부진	이병	58.11.18.	1205건공단	처	박봉안	주포면 관산리 253
전성기	상병	53.7.24.	미45사	모	최신향	성주면 개화리 546
전세근	하사				이승숙	청라면 의평리 산11
전순돈	하사	53.6.13.	금화	부	전연옥	내향동 470
전시애	하사					
전영준	하사	53.3.21.	원통	자	전순길	오천면 영보리
전영학	중사	64.1.12.		처	김영제	대천동
전옥선	상병	51.8.24.	철원	부	전용안	청소면 진죽리
전용복	하사	52.3.27.	금화	부	전용진	내향동 470
전용식	노무	52.8.23.		처	박정순	동대동 457-7
전용준	하사					
전윤구	병장			모	원열귀	웅천읍 대천리 179-2
전의숙	중위			모	최용수	신혹동
전재갑	상사	50.6.25.		자	전진자	주포면 보령리 208
전재만	상병			모	백출월	미산면 개화리 59
전창덕	일병	51.11.13.		모	조용이	웅천읍 대창리 775
정계길	일병	55.10.5.	철원	부	정철용	청소면 죽림리
정구영	하사			모	라성여	웅천읍 관당리 766

정낙운	순경			자	정인화	오천면 갈현리
정덕우	하사	53.7.12.	금화	부	정천복	천북면 궁포리 159
정석교	순경	50.7.19.	황등	모	김 량	동대동
정수진	하사	53.2.10.	연천	자	정계숙	천북면 사호리 566
정신식	일병	55.4.8.		부	정창봉	천북면 하만리 236
정우영	하사				서정규	동대동75-35현대@101-310
정응원	반공포	91.2.1.	주포	처	유정녀	주교면 관창리 508-3
정일섭	상병			형	정성섭	오천면
정지명	일병			형	정지평	남곡동
정지운	하사	50.6.25.		모	유아지	남곡동 743
정지일	하사	50.11.11.	포천	부	정상섭	남곡동 783
정창섭	상병	52.10.22.	금화	모	최봉희	대천동 743
정태을	경위			형	정태갑	청소면 신송리 183
정행철	상사				조옥분	청소면 진죽리 473
정향운	상병	89.3.9.		부	정동팔	남포면 제석리 531
정향춘	병장			부	정동팔	남포면 제석리 537
정현재		65.11.15.	21사	처	임완옥	미산면 용수리 141
조갑행	일병	50.6.25.	25연대	모	이용희	화산동 431
조규정	병장	83.8.4.	대천	처	차흥수	명천동 555
조규정	경사					
조규채	병장	53.7.18.	인제	부	조남환	주포면 봉당리 472
조규철	일병	53.8.3.		처	허계화	대천동 182-1
조남복	순경	50.7.30.	황등	자	조종연	주산면 유곡리 240
조남용	일병	87.4.13.		부	조찬규	주산면 창암리 498
조남호	일병	53.4.10.	광주	처	김하현	청라면 내현리
조동분	병장				이연옥	주교면 관창리 944
조동연	원사	07.11.20.		처	성영자	궁촌동 30-50
조두원	상병			처	유병순	오천면 오포리 6371
조명동	하사	53.7.12.	금화	부	조창복	천북면 사호리 646
조명동	하사	53.7.21.	화천	자	조용자	청라면 내현리
조명준	하사			모	암암반	주산면 동오리 103
조병돈	병장			부	조명능	주포면 봉당리 483
조병순	병장	53.7.6.	연천	모	박춘자	오천면 원산도리 147
조병월	하사	58.11.28.		부	조항승	주포면 봉당리 538
조석만	일병			부	조치형	주교면 주교리 808-1
조석형	상병	53.6.25.	연천	모	전 희	웅천읍 황교리

조성만	상병	52.6.28.	연천	부	조학연	주산면 신구리
조연하	상병	50.11.2.	7육병	부	조객길	주산면 창암리 246
조용업	하사			부	조영준	주포면 보령리 252-2
조용학	중사	50.11.15.		부	조복돌	오천면 원산도리 68
조유희	일병	58.9.15.		부	조명무	청라면 장산리 480
조유현	하사	52.2.18.	금화	모	임성예	대천동 306
조응원	하사	53.7.17.	금화	부	조잉일	청소면 재정리 507
조종구	이병	05.8.31.		처	심정순	오천면 오포리 236
조준섭	하사			형	조복섭	미산면 용수리
조준호	하사				채수정	대천동 화화@5-1502
조창환	징용			처	정영례	천북면 사호리 798
조충래	상병	06.3.28.		자	조희성	웅천읍 대창리 684-3
진종호	일병			부	진석기	주교면 주교리 236
차대문	하사	52.11.30.	금화	부	차수봉	주산면 금암리
채기홍	하사	52.6.25.	철원	자	채덕용	청소면 진죽리
채병태	병장	70.7.30.	청소	자	한상순	대천동 381
채수영	하사			처	유연순	청소면 죽정리 536
천규배	병장	04.5.10.		처	김경희	주교면 송학리 469
천일수	일병			모	강옥선	오천면 갈현리 807
천재용	하사	51.3.11.		처	서윤남	청라면 소양리
최경순	상병	53.6.27.	화천	모	김신례	웅천읍 대창리 144
최경희	상병	53.6.6.	금화	처	한탄희	청소면 장곡리 603
최관순	상병	52.10.12.	영천	모	황열성	남포면 달산리 254
최광선	일병			부	최용석	청라면 신산리 253
최규훈	하사	52.11.2.	금화	처	정용예	천북면 사호리
최금성	하사	53.6.18.	8562부대	모	차호두	오천면 갈현리 390
최덕규	상병					주산면
최덕근	병장	52.7.3.	금화	모	구 씨	주포면 마강리
최덕성	상병	67.9.12.	청룡부대	부	최봉이	대천동 385
최동훈	상병			제	최성분	천북면 신죽리
최두호	일병	51.2.1.		모	안분이	주교면 관창리 227
최만순	상병	54.1.30.		모	백 씨	주포면 관산리 67
최명범	일병	52.10.21.		모	신필순	청소면 정전리 산26
최명순	상병	50.11.20.	춘천	모	임 씨	주산면 창암리
최무성	일병	52.5.10.		모	오창옥	청라면 장현리 97
최병두	일병	51.11.30.		모	김정희	오천면 갈현리

최병선	이병			부	최평희	청라면 하만리 산1
최병완	하사	80.9.1.	주산	처	김 순	주산면 금암리 315
최병준	하사	51.5.9.	야구	부	최체원	주교면 송학리
최병준	상병	51.1.6.	금화	모	한성녀	오천면 소성리 산9
최병진	상병	53.5.18.	금화	자	최영철	남포면 봉덕리
최병진	병장	53.3.4.	고성	처	김성례	청소면 진죽리 478
최병하	상병					미산면 개화리 114
최병환	상병	55.6.15.	금화	모	김분이	천북면 학성리
최병흥	일병	50.4.1.		모	오작점	대천동
최복규	병장			모	황화분	오천면 교성리 735
최복기		49.4.10.		모	김대점	청소면 진죽리
최사봉	병장	52.10.10.	22연대	모	안규원	주교면 신대리 985
최상규	상사				김옥순	오천면 교성리 735
최상식	하사	52.10.25.	철원	부	최기순	죽정동 728
최석규	순경	50.7.28.		형	최종규	웅천읍
최석이				처	김복성	남포면 양항리 산60
최세영	이병	52.3.17.	5사	모	김은점	오천면 삼시도리 26-6
최수일	병장			처	한점순	주교면 주교1리 941-1
최승일	상병			모	송차열	천북면 학성리 99
최승일	병장				박기용	청소면 신송리 127
최신한	병장				예선옥	청소면 진죽리 215
최영귀	일병			처	서명희	남포면 달산리 186
최영남	상병				유분임	주교면 은포리 790
최오복				처	김연수	미산면 평라리
최완중	상사	50.11.26.		모	고영정	주포면 보령리 544
최운규	하사			자	최진경	남포면 달산리
최월순	상병	53.5.25.	금화	모	정순섭	남포면 달산리 276
최월주	노무			처	신영호	천북면 낙동리 706
최윤중	하사	53.4.2.	철원	모	김성일	오천면 영보리 270
최은룡	일병	88.10.13.			최월식	오천면 효자도리 월도5
최이성	상사	51.2.17.	인제	모	박장금	정라면 소양리
최인석	하사			모	장성여	웅천읍 노천리
최임석	하사			모	장성녀	웅천읍 노천리 36
최재호	일병	51.12.4.	병원	처	유춘자	청소면 정전리 375
최정규	하사	53.6.27.	양구	자	최종국	청소면 죽림리
최정섭	상병	53.7.13.	강원	모	김연순	주교면 신대리 561

최종규	하사			모	김남수	웅천읍 소황리 128
최중순	하사	50.11.1.	8사단	부	최덕용	미산면 용수리 528
최중환	일병	72.10.25.	21사단	부	최학규	동대동 680-13
최준홍	병장	67.7.26.	맹호부대	부	최창순	천북면 신덕리 204
최증호	상병	83.10.16.	영보	처	김건분	오천면 영보리 279
최진두	상병	53.5.18.	금화	모	안 씨	남포면 달산리 172
최진분	하사			처	유정희	남포면 달산리
최진일	상병	52.9.29.	금화	부	최기성	남포면 달산리 294
최춘섭	상병	53.10.2.	금화	모	김연순	주교면 신대리
최태근	하사	50.4.1.		처	문재숙	대천동
최형열	일병	51.8.20.	3사	부	최성봉	천북면 장은리
최환진	일병	50.8.20.		자	최몽송	미산면 은현리 232
최후길	상병	52.10.29.		자	최환홍	오천면 원산도리 1309
추장엽	상병	53.6.17.	금화	모	임순금	웅천읍 대창리 658
편기돌	일병	00.10.16.		처	윤정난	오천면 삼시도리 105
편득범	병장	53.5.30.	금화	자	편도경	오천면 삼시도리
편복남	하사	51.10.11.	철원			주포면
편수길	하사	52.12.15.	금화	부	편유봉	천북면 신죽리 32
편창호	상병	51.4.14.	35연대	모	이증희	대천동 491-3
하상순	하사	53.11.10.	금화	부	하봉춘	동대동
하상순	상병	53.1.21.	인제	자	하광석	웅천읍 대창리 3
하종구	상병	84.6.14.	원산도	자	하정호	오천면 원산도리 346
하종순				형	하종하	주교면 신대리
한거호	병장	53.8.22.		모	홍성녀	주교면 관창리 223
한근호	병장	51.8.22.		모	홍성녀	주교면 관창리 223
한동수	하사	50.8.16.		모	손 씨	정소면 진죽리 745
한동태	노무	53.6.27.		처	김선길	화산동 419
한범상	일병	50.6.25.		부	한분귀	주교면 관창리 181
한병열	상병			부	한우상	주교면 신대리 1238
한봉희	병장			모	문 씨	대천동
한상국	상사	02. . .	서해교전			
한상기	중사				김영분	주교면 관창리 230
한상일	순경	49.9.12.		처	김기훈	천북면 궁포리
한상하	이병	52.9.29.	금화	자	한철희	남포면 제석리
한영수	하사	53.7.17.	금화	처	최순국	청소면 정전리
한의택	하사	50.7.20.	지령	부	한홍전	남포면 신흥리 595

한인정	하사	52.10.28.	고성	모	오경자	남포면 신흥리 595
한일상	하사	51.8.23	5사단	모	한상분	동대동
한정택	일병	56.6.25.	27사	모	백금남	남포면 신흥리 593
한정희						
한종수	상사	58.7.14.		자	한춘자	주교면 신대리 759
한종수	하사	50.8.10.		부	한세농	오천면 원산도리 1368
한진상	병장	50.6.25.				웅천읍
한창식	상사	52.9.6.	금화	모	강 씨	대천동 91
한천수	일병	53.7.16.	금화	처	김소연	청소면 성연리
한춘식	하사			모	강 씨	
한춘호	병장	53.7.1.	금화	부	한정수	주교면 관창리 141
한태수	하사	53.6.25.		자	한재화	웅천읍 구룡리
한홍진	상병	53.6.17.		모	김복련	청소면 장곡리
한희석	중사			모	편 씨	오천면 원산도리
한희수	상병	04.3.28.				청소면 성연리 134
함두환	병장	53.7.19.	인제	자	함덕영	주교면 관창리
함원재	경사				함영식	성주면 성주리 235-2
허 경	일병	50.7.3.	6사	부	허명선	오천면 교성리 48
허 숙	소위	52.3.28.	양구	부	허 훈	남포면 소송리 99
허 장	병장	52.10.30.	병원	부	허 훈	남포면 소송리 99
허 종	병장					
허준희	일병	53.1.1.	인제	모	최영자	오천면 교성리 184
현광진	상병	53.7.18.		형	현운동	오천면
현돈섭	이병	82.2.22.	조치원	부	현종희	대천동 331-10
현영규	하사	51.9.17.		처	유정식	주교면 연지리 748
현영진	하사	80.8.5.		부	현영재	남포면 양항리 145
현종만	경장					
홍광표	일병	53.6.17.		부	홍율산	천북면 하만리 668
홍성옥	하사	50.9.25.		모	윤성녀	웅천읍 황교리 493
홍응표	상병	50.7.24.		모	이다복	주교면 은포리 793
홍종우	순경			모	이영숙	주포면 보령리 350
황경주	하사	50.6.25.		부	황의현	웅천읍 구룡리
황규팔	상병	51.11.18.		부	황석성	남포면 달산리 632
황규현	병장	53.7.19.	인제	모	이종선	남포면 달산리 103
황동수	하사	51.6.15.	3887부대	모	손 씨	천북면 하만리 83
황보성	일병	51.12.1.		처	안경순	남포면 달산리

황복연	병장	50.8.17.	화천	모	최만예	주교면
황시연	일병	50.7.28.		처	오병례	웅천읍 대창리 706-5
황신철	상병			모	신선분	청소면 죽림리 483
황은성	병장	53.7.11.	금화	처	민기분	청소면 재정리
황의섭	중사					
황의웅	중위	53.7.13.	금화	모	김수영	미산면 용수리 581
황정수	하사					
황종현	경위	50.9.1.	황동	자	황선희	웅천읍 구룡리 828-2
황준철	노무	53.7.15.	5050부대	자	황호성	동대동 738-12
황창남	징용			자	편견분	천북면 학성리 398
황창연	하사			모	김성례	웅천읍 황교리 493
황태성	중사	51.2.21.	강원	모	안 씨	남포면 달산리
황해진	하사	53.7.15.		부	황용산	내항동 303
황홍주	일병	53.7.2.		처	박승진	동대동 738-9
황희진	병장	53.7.4.	금화	부	황예주	웅천읍 대창리

편찬·집필·감수 위원

□ 편찬위원

위원장	신준희 (보령시 시장, 2008. 01~2010. 06)
	이시우 (보령시 시장, 2010. 07~2010. 10)
부위원장	김충수 (보령시의회 의장, 2008. 01~2010. 06)
	김경제 (보령시의회 의장, 2010. 07~2010. 10)
부위원장	김재득 (보령교육청 교육장, 2008. 01~2010. 08)
	우영희 (보령교육청 교육장, 2010. 09~2010. 10)
부위원장	김석중 (보령시 부시장, 2008.01.~2009. 12)
	이홍집 (보령시 부시장, 2010.01.~2010. 10)
위원	박정희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정원 (보령시의회 의원)
	임기석 (대천문화원장)
	전운수 (보령문화연구회장)
	윤병배 (전 대천문화원장)
	김석원 (전 한국예총지부장)
	김효기 (전 대천고교장)
	이봉주 (전 보령향교 전교)
	김남수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2008. 01~2009. 12)
	이영우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2010. 01~2010. 07)
	강일규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2010. 07~2010. 10)
	김장섭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2008. 01~2008. 12)
	이용우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2010. 07~2010. 10)
간사	명희철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2008. 01~2010. 06)
	이왕희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2010. 07~2010. 10)

□ 집필위원

지리	황의호 (남포중학교 교장)
지질	이철우 (충북대학교 교수)
생물	하태경 (대천서중학교 교사)
역사	황의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행정	임근혁 (전 웅천읍장)
경찰행정	신희균 (미산파출소장)
주요사건 사고	전운수 (전 정보과장)
교육	양화목 (대천고등학교 교사)

정 당 사회단체	신 재 완 (웅천고등학교 교사)
선 거	이 선 행 (법무사)
문화 유적	황 의 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고 인 돌 유 적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대 남해화상 백월보광 탑 비	최 영 성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언 어	송 하 순 (대천한문학원장)
문 학	문 상 재 (전 문인협회장)
예 술	임 기 석 (대천문화원장)
종 교	구 본 태 (주산산업고등학교 교사)
언 론	이 상 우 (디트뉴스 기자)
체 육	조 민 행 (관창초등학교 교감)
추 제 와 관 광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농 업 축 산 업	복 근 채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 산 업	정 성 용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2차 산업	유 재 흥 (전 보령시청 공무원)
3차 산업 국영기업체	백 태 호 (보령시 산림과장)
민 속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민속 놀이	임 근 혁 (전 웅천읍장)
민 요	이 소 라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지 명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성씨 인물	황 의 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감수위원

이 문 중 (전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 해 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保寧市誌 (下)

인 쇄 일 2010년 10월 15일
발 행 일 2010년 10월 15일
발 행 처 보 령 시
편집·교정 보령시지편찬위원회

(비매품)